

2002년도 농림부  
정책연구과제

# 대중국 농산물 수출 증장기 전략 방안

Medium and Long Term Strategies for Exporting  
Agricultural Products to China

연구기관 : 건국대학교

농 립 부

## 제 출 문

본 보고서를 2002년도 농림부 정책연구과제 “대중국 농산물 수출 중장기 전략 방안”의 최종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02년 12월 20일

연구주관기관명 : 건국대학교  
총괄연구책임자 : 문 정 구  
연 구 원 : 오 용 석  
연 구 원 : 김 정 주  
연 구 원 : 최 천 모  
연 구 조 원 : 안 재 진

## 요 약 문

연구 주제와 관련 지금까지 대중국 농산물 수출 중장기 전략 방안에 대하여 활용 가능한 광범한 참고자료와 현지 소비시장 조사를 바탕으로 심도 있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한국산 농산물의 대중국 수출은 우선 가격경쟁력 면에서 근본적으로 불가능할 것이라는 지금까지의 일반적 견해와 고정관념을 뛰어 넘어서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다. 특히 대도시 고소득층 소비성향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고급품 소비시장”에 대한 심층분석을 통하여 한국산 “수출유망 농산물”의 중장기 대중국 수출을 낙관적으로 전망하게 되었다.

현재 일반적으로 한국산 농축산물의 대중국 수출은 비관적으로 전망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견해나 관점은 주로 농산물 가격비교 결과를 중시한 데에 반하여 품질경쟁력, 소비시장 형태별 소비행태와 소비성향, 고소득층의 소비성향 등은 상대적으로 경시한 데에 기인된 결과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중국의 소비계층과 소비시장을 단순화 혹은 획일적으로 규정한다면 대중국 농산물 수출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이다. 그리고 설사 수출한다고 할지라도 일부 특정 농산물 혹은 극히 일부 농산물로서 일시적 현상이거나 치열한 경쟁상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중국 대도시 고소득층을 겨냥한 “고급품 소비시장” 공략을 위한 한국산 “수출유망 농산물”의 수출은 중장기적으로 승산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므로 금후 대중국 농산물 수출 전략은 종전의 수세적이고 소극적인 자세를 탈피하여 보다 치밀하고 실현 가능한 정책을 적극적인 자세로 추진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특히 거대한 중국시장 전체를 공략할 목적으로 접근하는 자세는 비현실적일 뿐만 아니라 무의미하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바로 “고급품 소비시장”만을 겨냥해도 그 시장규모가 막대하다는 점을 새롭게 인식해야 할 것이다.

이미 제6장에 제시된 “대중국 농산물 수출 중장기 전략”을 정책 당국과 관련 업계가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수출촉진에 임하는 동시에 긴밀히 협력해 나아가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의 실현을 위한 공동노력과 협력을 재차 강조한다면 아래와 같이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대도시 고소득층을 겨냥한 “고급품 소비시장”의 수요창출과 더불어 대중국 농산물 수출을 촉진시키기 위한 전략거점을 구축하는 동시에 이를 중심으로 유기적인 유통망을 전국적으로 점차 확장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전략거점 구축을 위한 효율적인 기구조직은 우선 농림부, 농수산물유통공사, 농협중앙회, 생산단체 등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면서 이에 관한 구체적인 기구조직

과 역할분담 및 기금조성 등은 참여 기관과 단체가 따로 연구·검토하여 실현 가능한 방안을 반드시 모색해야 할 것이다.

둘째, 한국산 “수출유망 농산물” 대중국 수출촉진을 위한 시장정보 수집활동과 협력체제 구축은 현재와 같은 부분적이고 피상적인 시장정보에 의존하는 단일한 정보 수집 자세를 탈피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방대하고 광활할 뿐만 아니라 거대 인구를 갖고 있는 중국시장과 다층구조를 형성하고 있는 소비시장, 특히 대도시 고소득층을 겨냥한 “고급품 소비시장”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정확한 시장정보를 수집하여 활용하고 대처하는 데에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다.

셋째, 소비선택의 폭이 넓고 다양한 농산물이 “고급품 소비시장”에 공급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산 “수출유망 농산물”의 우수성과 차별화를 부각시키는 가운데 소비 수요 창출을 통한 수출증대를 달성하도록 적극적이고 다양한 판촉활동을 전개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판촉활동은 일과성 활동이나 단기적 안목에서 추진하는 것을 지양하는 동시에 관련 기관과 단체가 효율적이고 실현 가능한 중장기 판촉활동 계획을 수립하여 적극적인 자세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넷째, 최근 중국에서 불고있는 한류(韓流)의 열풍과 연계해서 판촉효과를 최대한으로 증폭시킬 수 있는 이벤트(event) 사업이나 다양한 판촉활동 프로그램(program)을 개발하는 노력에 대하여도 관련 기관과 단체가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바로 이러한 판촉활동을 통하여 한국산 “수출유망 농산물”의 인지도와 선호도를 제고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궁극적으로는 고급화 혹은 명품화를 실현하도록 노력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다섯째, 중국의 고급품 소비자들의 식품문화 소양과 농산물을 포함한 식품에 대한 상식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요구수준 또한 높은 상태이다. 한국산 “수출유망 농산물”의 품질이 사실상 우수함에도 불구하고 이들 소비자의 관심과 소비심리를 유발시키기에는 분명 한계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생각된다. 더구나 한국산 “수출유망 농산물”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중국산 농산물 혹은 수입 농산물 등과 치열하게 경쟁하는 상황이다. 그러므로 만일 한국산 농산물이 국내외적으로 공인된 기관이나 단체에 의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우수한 품질이라고 인식되거나 인정된다면 상대적으로 경쟁력을 갖추게 될 것으로 생각된다.

여섯째, 한국산 “수출유망 농산물”의 대중국 수출 촉진은 효과적인 중장기 수출전략을 수립하여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추진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관련 기관의 정책개발과 수출지원은 물론이고 가칭 “농산물수출촉진협력기구”를 통하여 현안문제를 신속하고 총괄적으로 해결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일곱째, 한국산 “수출유망 농산물”의 대중국 수출을 촉진시키는 동시에 중국산 농산물의 물량공세를 방어하기 위한 농산물 교역협상은 우리의 농업생산 기반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게 되는 중대한 사안인 것이다. 그러므로 효과적인 협상전략을 수립하여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예견되는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현실인식은 물론이고 관련 자료수집과 더불어 다양한 대비책을 미리 강구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여덟 번째, 중국의 WTO 가입으로 한·중 양국간의 무역규모가 점차 확대되는 가운데 대중국 무역흑자가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양국간 통상마찰은 더욱 빈번하게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중국은 무역흑자를 내세워 한국에 대한 통상압력을 더욱 강력히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국의 대한국 농산물 수출과 관련된 통상마찰이나 시장확대 요구가 더욱 거세게 부각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중국은 무역적자와 연관해서 대한국 수입규제를 또한 강화해 나아갈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므로 정책 당국은 중국과의 통상마찰과 통상협상에 대비해서 효과적인 정책개발과 다양한 대처방안을 사전에 준비하는 자세로 임해야 할 것이다.

# < 목 차 >

제1장 서론 .....	1
제2장 중국의 농산물 수급현황 .....	5
1. 주요 농림축산물 생산현황 .....	5
(1) 주요 농산물 파종면적 .....	5
(2) 주요 농산물 생산현황 .....	7
(3) 주요 축산물 생산현황 .....	13
(4) 연도별 생산액과 거래액 현황 .....	15
2. 주요 농산물 수출입 현황 .....	18
(1) 주요 품목별 연도별 수출입 현황 .....	18
(2) 주요 품목별 연도별 수입현황 .....	19
(3) 주요 항목별 연도별 수출현황 .....	22
3. 수요공급과 시장별 거래액 현황 .....	25
(1) 주요 품목별 수급현황과 전망 .....	25
(2) 소비자시장과 거래액 현황 .....	33
4. 농수축산물 시장현황과 유통체제 .....	36
(1) 주요 지역별 시장현황과 유통경로 .....	36
(2) 유통체제 개혁의 실시과정 .....	40
(3) 식량 유통체제 개혁 .....	42
(4) 농축산물과 영농자재 유통체제 개혁 .....	45
제3장 한·중 농산물 교역구조와 정책과제 .....	49
1. 한국의 농림축산물 교역에서 중국의 비중 .....	49
(1) 대중국 수출 비중 .....	49
(2) 대중국 수입 비중 .....	51
(3) 대중국 무역수지 .....	53
2. 한·중 농림산물 수출품목의 구성과 특징 .....	55
(1) 대중국 주요 농산물 수출품목의 구성과 특징 .....	55
(2) 대중국 주요 임산물 수출품목의 구성과 특징 .....	59
3. 한·중 농림산물 수입품목의 구성과 특징 .....	61

(1) 대중국 주요 농산물 수입품의 구성과 특징 .....	61
(2) 대중국 주요 임산물 수입품의 구성과 특징 .....	66
4. 한·중 농림산물의 국제경쟁력 비교 .....	68
(1) 품목별 무역특화지수 및 시장점유율 비교 .....	68
(2) GTAP 다국간 모형에 의한 경쟁력 비교 .....	71
5. 중국의 WTO가입 후 농산물시장개방과 그 영향 .....	73
(1) 중국의 WTO 가입 후 관세장벽의 완화 .....	73
(2) 중국의 WTO 가입 후 비관세장벽의 완화 .....	74
(3) 중국의 WTO 가입이 농산물시장에 미치는 영향 .....	75
6. 한·중 농산물 교역전망과 정책과제 .....	79
(1) 단기 및 중장기 농산물 교역전망 .....	79
(2) 대중국 농산물 수출확대를 위한 정책과제 .....	85
<b>제4장 주요 대도시 소득분포와 소비성향 .....</b>	<b>90</b>
1. 중국의 소득분포와 소비지출 구조 .....	90
(1) 소득분포 .....	90
(2) 소비지출 구조 .....	101
2. 소득계층별 소비성향과 소비추세 .....	103
(1) 소비함수 모형과 실증분석 .....	103
3. 농산물 수입현황과 식품소비 구조 .....	107
(1) 농산물 수입현황 .....	107
(2) 도시와 농촌의 식품 소비성향 .....	110
4. 주요 대도시 고소득층 소비성향과 선호도 분석 .....	111
(1) 북경, 광주, 상해의 소득수준과 소비지출 구조 .....	111
(2) 도시주민 1인당 소득별 소비지출 .....	119
(3) 도시주민 상품 선호도와 소비성향 .....	121
<b>제5장 수출유망 농산물 선별과 수출경쟁력 .....</b>	<b>129</b>
1. 품목선별 원칙과 경쟁력 평가기준 .....	129
(1) 수출유망 품목선별 원칙과 한계 .....	129
(2) 수출경쟁력 평가기준과 한계 .....	130
(3) 수출가능성 평가 .....	131

2. 수출유망 농산물 탐색과 검토 .....	132
(1) 한국산 농산물의 대중국 수출경쟁 요소별 평가 .....	132
(2) 한국산 농산물의 최종 수요자별 수요예상 .....	134
3. 수출유망 농산물 선별과 근거 .....	136
(1) 과일류 .....	136
(2) 원예작물 .....	139
(3) 유기농산물 .....	140
(4) 전통식품 .....	142
(5) 인삼제품 .....	142
4. 품목별 수출경쟁력 검토와 평가 .....	143
(1) 품목별 품질경쟁력 예측 .....	143
(2) 품목별 가격경쟁력 예측 .....	145
(3) 중장기 수출경쟁력 예측 .....	147
(4) 품목별 수출경쟁력 중장기 예상변동 추세 .....	149

## 제6장 대중국 농산물 수출 중장기 전략 .....154

1. 중장기 전략 수립의 필요성 .....	154
(1) 농업현대화 및 농산물 고급화 촉진 .....	154
(2) 농산물 수출 촉진 및 농업소득 증대 .....	155
(3) 다양한 가공식품 개발 .....	155
2. 대중국 중장기 수출전략 구상과 방안 .....	156
(1) 대중국 수출전략 소비시장의 특징과 대상 .....	156
(2) 전략거점 확보와 유통망 구축 .....	157
(3) 시장정보 수집활동과 협력체제 구축 .....	159
(4) 적극적인 현지 판촉활동 .....	160
(5) 고급품 생산촉진과 품질 인증제 실시 .....	162
(6) 정책지원 및 협력기구 운영 .....	163
3. 농산물 교역 현안문제와 협상전략 .....	165
(1) 한·중 농산물 교역의 현안문제 .....	165
(2) 대중국 농산물 협상전략과 방향 .....	166
(3) 협상전략을 위한 협상자료 축적과 협상논리 개발 .....	168
4. 중장기 수출전략 실천과 과제 .....	169



(1) 능동적인 실천의지와 주도적인 접근자세 .....	169
(2) 정확한 상황파악과 투철한 현실인식 .....	171
(3) 한·중 양국의 시각조정과 이해증진 .....	172
(4) 우호협력교류 촉진과 활성화 .....	172

제7장 결 론 .....	174
---------------	-----

참고문헌 .....	177
------------	-----

## 〈표차례〉

<표 2-1> 주요 농작물 파종면적 .....	5
<표 2-2> 주요 농작물 생산량 .....	8
<표 2-3> 중국의 주요 농산물 생산량 세계 순위 .....	10
<표 2-4> 주요 농산물 지역별 생산량 순위(2000) .....	11
<표 2-5> 주요 농축수산물 1인당 생산량 .....	12
<표 2-6> 주요 임산물 연도별 생산현황 .....	13
<표 2-7> 주요 축산물 생산현황 .....	14
<표 2-8> 농림수축산업 연도별 생산액 .....	16
<표 2-9> 전국 소비품시장과 거래액 현황 .....	17
<표 2-10> 주요 1차산품 연도별 수출입 현황 .....	19
<표 2-11> 주요 농축수산물 항목별 수입현황 .....	20
<표 2-12> 주요 농산품 연도별 수입현황 .....	21
<표 2-13> 주요 농축수산물 항목별 수출현황 .....	23
<표 2-14> 주요 농축산품 연도별 수출현황 .....	24
<표 2-15> 연도별 식량수급 현황 .....	26
<표 2-16> 중국의 식량 수요공급 장기예측 .....	27
<표 2-17> 중국의 식량 수요공급 장기 예측량 비교 .....	28
<표 2-18> 중국의 식량 총수요와 총공급의 장기전망 .....	29
<표 2-19> 주요 농산물 도소매업 거래현황(2000) .....	31
<표 2-20> 국내 상품거래 주체별 지역별 현황 .....	34
<표 2-21> 전국 소비품시장 거래현황 .....	35
<표 2-22> 전국 상품교역 시장별 거래액 현황(2000) .....	36
<표 2-23> 주요 지역별 시장현황(2000) .....	37
<표 3-1> 한국의 농림축산물 수출 중 대중국 수출 비중 .....	50
<표 3-2> 한국의 농림축산물 수입 중 대중국 수입 비중 .....	52
<표 3-3> 한국의 대중국 농림축산물 무역수지 .....	53
<표 3-4> 2001년 중국의 대한국 농산물 교역구조와 무역수지 .....	54
<표 3-5> 한국 농산물의 대중국 주요 수출품 .....	56
<표 3-6> 한국의 대중국 수출 농산물 중 품목별 비중과 증가율 .....	58
<표 3-7> 한국 임산물의 대중국 주종 수출품목 .....	60
<표 3-8> 한국의 대중국 수출 임산물 중 품목별 비중과 증가율 .....	60

<표 3-9> 한국의 중국산 수입 옥수수의 용도별 비율 .....	61
<표 3-10> 한국 농산물의 대중국 주종 수입품목 .....	63
<표 3-11> 한국의 대중국 수입 농산물 중 품목별 비중과 증가율 .....	65
<표 3-12> 한국 임산물의 대중국 주종 수입품목 .....	66
<표 3-13> 한국의 대중국 수입 임산물 중 품목별 비중과 증가율 .....	67
<표 3-14> 최근 4년 간 한·중 농림산물 주요 품목의 무역특화지수 비교 .....	69
<표 3-15> 한국과 중국 농림산물의 품목별 일본시장 점유율(2000) .....	70
<표 3-16> GTAP 다국간 모형에 의한 경쟁력 비교 .....	72
<표 3-17> 중국의 WTO 가입 후 농산품 수입관세율 인하 계획 .....	73
<표 3-18> 중국 주요 농산물의 관세 쿼터 완화 계획 .....	74
<표 3-19> 중국 WTO 가입 예상효과(1996~2005년의 증감) .....	76
<표 3-20> 중국의 WTO가입 전후 TRQ 농산물의 수출입변화 예측 .....	77
<표 3-21> 중국의 WTO 가입과 한·중 농산물 관세율 협상 결과 .....	80
<표 3-22> 한국의 대중국 수출 품목별 현재 여건과 중장기 전망 .....	82
<표 3-23> 한국과 중국의 무역장벽 철폐 시 농림산물 수출효과 .....	84
<표 3-24> 한국산 농산물의 브랜드화 실태 .....	86
<표 3-25> 인삼류의 대중국 수출과 수입 .....	88
<표 4-1> 중국의 주요 경제지표 .....	91
<표 4-2> 중국 가정의 소득유형과 가구분포 및 특성 .....	92
<표 4-3> 농민과 도시주민의 소득 추이 .....	95
<표 4-4> 도시와 농촌주민 1인당 수입 및 엔젤계수 .....	96
<표 4-5> 도시와 농촌 주민의 지역별 소득현황 .....	97
<표 4-6> 지역별 도시주민 1인당 가처분소득 .....	98
<표 4-7> 2000년 지역별 산업별 기업별 노동자 평균임금 .....	100
<표 4-8> 도시와 농촌 주민의 소비지출 구조 .....	102
<표 4-9> 도시와 농촌 소비지출 구조의 변화 .....	102
<표 4-10> 국가별 농산물 수출입 현황 .....	107
<표 4-11> 지역별 농산품 수출입 현황 .....	109
<표 4-12> 도시와 농촌의 1인당 식품 소비현황 .....	110
<표 4-13> 중국의 고소득층 가구수와 인구 예측 .....	112
<표 4-14> 북경시 1인당 가처분소득과 소비지출 구조 .....	114
<표 4-15> 북경시 1인당 평균 소비지출 .....	115
<표 4-16> 광주시 1인당 가처분소득과 소비지출 구조 .....	116

<표 4-17> 상해시 1인당 가처분소득과 소비지출 구조 .....	118
<표 4-18> 도시주민 1인당 연도별 주요 상품 구입량 .....	120
<표 4-19> 도시주민 소득별 1인당 소비성지출 현황(2000) .....	121
<표 4-20> 소비자의 구매태도와 소비성향 5점 척도 .....	122
<표 4-21> 소비자의 시대풍조와 유행에 관한 관심도 5점 척도 .....	123
<표 4-22> 소비자의 음식과 건강에 관한 관심도 5점 척도 .....	124
<표 4-23> 상품 구입시 고려요소 .....	125
<표 4-24> 상품 구입시 성별, 연령별 가격요소 고려 .....	126
<표 4-25> 상품 구입시 성별, 연령별 건강요소 고려 .....	127
<표 4-26> 상품 구입시 성별 상표별 소비습관 .....	128
<표 5-1> 한국산 농산물의 대중국 수출경쟁 요소별 평가 .....	133
<표 5-2> 대중국 수출 농산물 최종 수요자별 수요예상 분포 .....	135
<표 5-3> 수출유망 농산물의 대중국 수출경쟁 요소별 평가 .....	137
<표 5-4> 수출유망 농산물의 품질경쟁력 예측 .....	144
<표 5-5> 수출유망 농산물의 가격경쟁력 예측 .....	146
<표 5-6> 수출유망 농산물의 중장기 수출경쟁력 예측 .....	148
<표 5-7> 수출유망 품목별 경쟁요소별 예상변동 추세 .....	151
<표 5-8> 수출유망 농산물 경쟁력 변화별 중장기 예상이동 .....	152

## <그림차례>

<그림 2-1> 농산물 유통체제와 경로 .....	38
<그림 4-1> 농림목축어업 지역별, 기업별 노동자 평균임금 .....	99
<그림 6-1> 전략거점 구성도 .....	157
<그림 6-2> 중국지도 .....	158

# 대중국 농산물 수출 증장기 전략 방안

## 제1장 서론

바야흐로 21세기 세계는 이념갈등과 상호대립의 극한투쟁에서 벗어나 화해협력과 평화공존이 강조되는 가운데 경제발전, 환경보호, 빈곤퇴치 등이 점차 중요시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세계경제는 WTO 체제의 출범과 더불어 새로운 경제질서가 구축되고 있는 가운데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및 후진국간에 국익이 상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해타산 역시 국가별로 상이하게 전망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물론 우리 한국도 결코 예외가 될 수 없으며, 특히 중국산 각종 농산물의 한국시장 공략은 장차 농업생산 기반을 위협할 정도로 매우 심각한 상황을 초래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더구나 중국의 WTO 가입과 더불어 중국산 농산물의 한국시장 진출은 지속적 증가세를 유지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므로 한국산 “수출유망 농산물”의 대중국 수출촉진에 대한 종합적이고 증장기적인 관점에서 효과적인 대책수립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상태이다.

중국경제는 1978년부터 실시된 개혁개방정책을 계기로 그동안 연평균 약 8%의 고도성장이 지속되는 가운데 경제체제 및 산업구조와 대외경제 전반에 걸쳐서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다. 특히 기존의 중앙집권적 계획경제를 완화시키는 한편 중국식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무난히 정착시킨 노력은 국내외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개혁개방정책 실시 초기에는 비록 극렬한 이념논쟁과 반대여론이 만만찮게 제기되기도 하였으나 자본주의 경제운영 방식을 성공적으로 접목시키는 가운데 효과적으로 수용함으로써 지속적 고도 경제성장을 실현하게 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외국인 합작투자과 외자유치의 급속한 증가에 힘입어 산업발전과 대외무역이 촉진됨으로써 고도성장과 더불어 국민소득과 소비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되는 가운데 생활수준이 향상되게 되었다. 특히 개방초기에는 대도시 및 연해지구 14개 개방도시를 중심으로 획기적인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현재 이들 지역은 물론 내륙 도시에까지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 및 여건을 대부분 구축한 상태이다. 그리고 21세기 WTO 체제 및 무한경쟁과 지식정보 시대에 동참하기 위해 국민경제의 내실을 갖추는 동시에 중국경제의 국제적 위상을 향상

시키기 위한 거국적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상태이다.

오늘날 중국경제는 그 규모나 잠재력을 감안할 때에 결코 과소평가 되거나 편견을 갖고 접근해서는 안 될 것으로 생각한다. 왜냐하면 중국경제는 거대한 규모이기 때문에 첫째, 960만 km<sup>2</sup>에 달하는 국토와 약 13억에 달하는 인구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둘째, 반세기 이전의 낙후된 주택과 생활양상이 있는가 하면은 최신 호화주택과 현대생활이 공존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셋째, 140여 종에 달하는 풍부한 각종 지하자원과 최첨단 기술을 확보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넷째, 해외 2천만 명에 달하는 화교와 그들의 경제력 및 상호협력체제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중국경제는 산업구조 및 기술수준 면에 있어서 최첨단과 전근대적 양상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한편 중국경제의 현안문제로는 ①서부 내륙지방의 낙후된 현상, ②약 4천만 명에 달하는 절대빈곤, ③낙후된 주거환경, ④국유기업의 부실경영 상태, ⑤부정부패 만연, ⑥계층간, 지역간, 직종간, 소득수준별 등의 갈등, ⑦지역이기주의 등의 문제가 여전히 산적해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대도시를 비롯한 연해지구의 산업구조, 소득수준, 생활수준 등은 이미 주목할만한 수준에 도달한 상태이며, 일부 부유층의 생활수준 및 소비지출은 선진국 수준과 결코 다를 바가 없을 정도로 풍요롭고 윤택한 생활을 영위하는 상태이다.

소도시를 포함한 중국의 도시는 663개로 지역별 분포는 동부지역에 44.5%인 295개, 중부지역에 37.3%인 247개, 그리고 서부지역에 18.3%인 121개가 분포되어 있다. 그리고 도시규모별로는 초대형 도시가 2.0%인 13개, 특대형 도시가 4.1%인 27개, 대도시가 8.0%인 53개, 중등도시가 32.9%인 218개, 그리고 소도시가 53.1%인 352개로 나타났다. 또한 비농업 인구 규모별로는 200만 명 이상이 13개, 100~200만 명이 27개, 50~100만 명이 53개, 20~50만 명이 218개, 20만 명 이하가 352개로 나타났다.

한편 이들 도시 가운데 도시별 비농업 인구가 200만 명 이상에 달하는 도시로는 상해가 938.21만 명으로 수위를 차지했으며, 다음은 북경 726.88만 명, 천진 499.01만 명, 무한 441.14만 명, 광주 401.40만 명, 심양 394.86만 명, 중경 381.66만 명, 할빈 263.59만 명, 남경 255.86만 명, 서안 252.51만 명, 성도 227.68만 명, 장춘 217.01만 명, 대련 207.69만 명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들 13개 초대형 도시의 비농업 인구는 무려 5,208만 명에 달함으로써 이미 한국의 총인구를 초과하는 상태이다. 만일 비농업 인구가 100~200만 명 이하인 27개 특대형 도시와 50~100만 명 이하인 53개 대도시를 고려하면 이들 비농업 인구 규모

는 수 억 명에 달하는 상태인 것이다.

그리고 이들 도시가구는 경제발전과 더불어 소득수준이 급속히 향상되고 있는 가운데 소비성향 및 수입수요가 변하고 있는 상태이다. 특히 생활수준 향상을 위한 소비수요는 대도시 고소득층을 중심으로 수입품을 포함한 각종 고급품 소비성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추세이며, 점차 확산되고 있는 상태이다. 그리고 일부 고소득층은 소비가격에 구애받지 않고 유명상표나 양질의 고급품을 기꺼이 구매하는 소비실태를 고려할 때에, 만일 한국산 “수출유망 농산물”도 소비요건만 충족시킬 수 있게 된다면 대중국 수출은 무난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한국의 대중국 수출은 1988년 서울올림픽을 계기로 괄목할만한 증가세를 나타내기 시작하여 1991년에는 10억 달러를 기록했었고 1992년에는 26.54억 달러로 급증하였다. 그러나 1차산품의 대중국 수출액은 1992년에 겨우 1,600만 달러에 불과하였다. 그것은 한국의 1차산품에 대한 중국의 수입수요가 미미한 데에 기인된 것이지만 우리나라 수출업체 역시 1차산품의 대중국 수출에 대하여 소극적 수출자세를 취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수교직후인 1993년부터 1차산품의 수출부진 상황은 점차 호전되기 시작했다. 1차산품의 대중국 수출증가가 비록 공산품의 증가추세에는 크게 미달된 상태이지만 전년 대비 2.7배가 증가된 4,300만 달러를 달성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 가운데 농림축산물은 2,503만 달러로 우리나라 전체 농림축산물 수출액의 약 2%를 점하게 되었다. 그 후 2001년까지 우리나라 전체 농림축산물 수출의 연평균 증가율은 3.0%에 불과한 상태이나 대중국 수출은 20.3%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게 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수교 이후에 우리나라 농림축산물의 대중국 수출이 호조를 보였기 때문이다.

1993년 이후 2001년까지 우리나라 전체 농산물 수출은 연평균 7.6%가 증가한데 반하여 대중국 수출은 연평균 33.8%가 증가했으며, 2001년 수출액은 6,840만 달러로서 전체 농산물 수출액의 5.5%를 차지하게 되었다. 2001년 중국은 우리나라의 2대 수출시장이고 중국 수입시장 점유율이 약 10%인 점에 비하면 우리나라 대중국 농산물 수출비중은 낮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중국 농산물 가격경쟁력의 차이가 큰 상황에서 2001년 대중국 수출액이 1993년에 비해 10배 이상 증가하였다는 것은 한국 농산물의 중국시장 공략이 가능하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이라 하겠다.

한편 한국을 비롯한 중국과 일본 및 러시아 등의 동북아시아 국가들은 세계 농산물 시장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주요 수입국에 속하는 상태이다. 한국은 비록 쌀의 자급자족은 달성된 상태이나 곡물수요량의 약 70%를 수입에



의존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식량안보 차원에서 특정 국가에 의존하고 있는 단일한 관행을 벗어나 안정적 공급원을 다양하게 확보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또한 곡물을 제외한 세계 각국의 경제작물과 과일류 및 가공식품 등이 백화점 식품진열대와 한국인의 식탁에 선을 보인지 이미 오래된 일이다.

특히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는 중국산 각종 농산물의 한국시장 상륙은 매우 위협적이며, 비록 위생상태 면에서 적지 않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력이 점차 증대되는 가운데 한국의 1차산업 생산기반을 위축시키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비관적인 추세는 중국의 농업생산 환경과 수출가격 및 지리적 여건을 감안할 때에 이미 예견되었던 것이다. 그렇다고 유관 부서나 학계가 수수방관 자세에서 일방적으로 수용하거나 속단하는 자세는 결코 바람직한 대응자세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한국산 농산물 수출 가능성과 잠재력을 스스로 과소평가 하는 태도라 하겠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취지를 바탕으로 보다 적극적인 대응자세로 우리 농산물의 대중국 수출에 관한 중장기 전략방안을 다각적으로 심층분석을 통하여 모색해 보고자 한다. 그러나 연구주제와 관련 기초연구 자료나 국내 선행연구가 미흡한 상태에서 적지 않은 애로가 예상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연구원 모두는 새로운 연구영역을 개척한다는 학구적 자세로 연구목적을 완성하는 동시에 정책 당국의 유용한 정책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

연구방법은 중국의 농산물 수급과 관련된 생산통계 및 수급현황, 한·중 양국간 농산물 수출입통계, 중국 대도시 고소득층의 소득 및 소비성향에 관한 통계자료 등을 포함해서 연구주제와 관련된 선행 연구자의 문헌자료를 활용한다. 특히 대중국 “수출유망 농산물” 선정은 대중국 수출 농산물을 대상으로 중국의 대도시 고소득층의 소비성향과 “고급품 소비시장”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순차적 추출방법에 의해 선별하고자 한다.

또한 연구범위는 중국의 대도시 고소득층을 겨냥한 한국산 농산물의 대중국 수출품목을 대상으로 수출유망 품목에 대한 중장기 전략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따라서 제2장에서는 중국의 농산물 수급현황, 제3장에서는 한·중 농산물 교역구조와 정책과제, 제4장에서는 주요 대도시 소득분포와 소비성향, 제5장에서는 “수출유망 농산물” 선별과 수출경쟁력, 제6장에서 대중국 농산물 수출 중장기 전략, 그리고 제7장에서 결론을 맺고자 한다.

## 제2장 중국의 농산물 수급현황

### 1. 주요 농림축산물 생산현황

#### (1) 주요 농산물 파종면적

최근 5년간 중국의 주요 농산물 파종면적 현황은 <표 2-1>과 같으며, 2000년도의 경우 농작물 파종면적은 1억 5,630만 헥타르로 1996년도 1억 5,238만 1천 헥타르 대비 2.6%가 증가했고, 차원(茶園)면적은 108만 9천 헥타르로 1996년도 110만 3천 헥타르 대비 1.3%가 감소했으며, 과수원면적은 893만 2천 헥타르로 1996년도 855만 3천 헥타르 대비 4.4%가 증가된 것으로 각각 나타났다.

<표 2-1> 주요 농작물 파종면적

단위 : 1,000 헥타르

항 목 별	1996	1997	1998	1999	2000
1. 농작물 총파종면적	152,381	153,969	155,706	156,373	156,300
식량	112,548	112,912	113,787	113,161	108,463
곡물	92,208	91,964	92,117	91,617	85,264
쌀	31,407	31,765	31,214	31,284	29,962
소맥	29,611	30,057	29,774	28,855	26,653
옥수수	24,498	23,775	25,239	25,904	23,056
두류	10,543	11,164	11,671	11,190	12,660
서류	9,798	9,785	10,000	10,355	10,538
유료작물	12,555	12,381	12,919	13,906	15,400
면화	4,722	4,491	4,459	3,726	4,041
마류	350	327	224	205	262
당료	1,846	1,923	1,984	1,644	1,514
엽연초	1,853	2,353	1,361	1,374	1,437
채소	10,491	11,288	12,293	13,347	15,237
2. 차원(茶園)면적	1,103	1,076	1,057	1,130	1,089
3. 과수원면적	8,553	8,648	8,535	8,667	8,932

자료 : 중국통계연감(2001), 중국통계출판사(2001. 9), p.361.

2000년도 농작물 파종면적 가운데 식량재배 파종면적은 1억 846만 3천 헥타르로 농작물 파종면적의 69.4%에 달하며, 1996년도 1억 1,254만 8천 헥타르 대비 3.6%가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식량재배 면적 가운데 두류와 서류의 재배면적은 다소 증가되고 있는 반면에 곡물재배 면적이 상대적으로 점차 감소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바로 2000년도 곡물재배 면적은 8,526만 4천 헥타르로 1996년도 9,220만 8천 헥타르 대비 7.5%가 감소했으며, 이 가운데 쌀 재배 면적은 2,996만 2천 헥타르로 1996년도 3,140만 7천 헥타르 대비 4.6%가 감소했고, 소맥재배 면적은 2,665만 3천 헥타르로 1996년도 2,961만 1천 헥타르 대비 10.0%가 감소했고, 옥수수 재배면적은 2,305만 6천 헥타르로 1996년도 2,449만 8천 헥타르 대비 5.9%가 감소한 것으로 각각 나타났다. 특히 이러한 식량재배 파종면적이 점차 감소되고 있는 현상은 급격한 산업화 및 도시화 과정에서 농경지가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주요 농작물 가운데 2000년도 유료작물(油料作物) 재배면적은 1,540만 헥타르로 1996년도 1,255만 5천 헥타르 대비 22.7%가 증가했고, 채소재배 면적은 1,523만 7천 헥타르로 1996년도 1,049만 1천 헥타르 대비 45.2%가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품목의 재배면적 증가는 소득증대 및 생활수준 향상에 따른 각종 채소류와 유료식품 수요량이 증가되고 있기 때문이며, 이러한 현상과 증가추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면화재배 면적은 404만 1천 헥타르로 1996년도 472만 2천 헥타르 대비 14.4%가, 마류(麻類) 재배면적은 26만 2천 헥타르로 1996년도 35만 헥타르 대비 25.1%가, 당료(糖料) 재배면적은 151만 4천 헥타르로 1996년도 184만 6천 헥타르 대비 18.0%가, 엽연초 재배면적은 143만 7천 헥타르로 1996년도 185만 3천 헥타르 대비 22.5%가 각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품목의 재배면적 감소현상은 채소류와 유료작물 재배에 비하여 판매가격, 시장수요, 농가소득 면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하기 때문에 도시근교 농가를 중심으로 수익성에 따라 재배작물을 선정하기 때문이다. 현재 도시근교의 농가들이 각종 채소류 재배를 통하여 높은 농가소득을 실현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에 이러한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2000년도 차원(茶園) 면적은 108만 9천 헥타르로 1996년도 110만 3천 헥타르 대비 1.3%가 감소한 반면에 과수원 면적은 893만 2천 헥타르로 1996년도 855만 3천 헥타르 대비 4.4%가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중국인의 기호품인 각종 차와 과일류 수요가 소득증대 및 생활수준 향상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대

될 것이기 때문에 산지개발을 통한 재배면적이 장차 크게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중국의 과일수요량이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가운데 수입량이 매년 증가되고 있는 상태이다.

## (2) 주요 농산물 생산현황

주요 농작물의 품목별 연도별 생산현황은 <표 2-2>와 같으며, 전반적으로 주요 농작물 재배면적 증감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재배면적이 감소된 품목은 생산량이 감소했고, 반대로 재배면적이 증가된 품목은 생산량이 증가되고 있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식량<sup>1)</sup> 생산량은 1978년 개혁개방정책이 실시되기 시작한 이후 빠르게 증가되기 시작했으며, 1982년도에는 3억 5천만 톤, 그리고 1984년도에는 4억 톤을 생산하게 되었다. 또한 1985~1987년 간에는 답보상태를 보이다가 1989년부터 증가되기 시작하여 1993년에는 4억 5천만 톤으로 신기록을 돌파했고, 1998년도에는 5억 1천만 톤을 달성함으로써 사상 최고 생산량을 기록하게 되었다.

한편 2001년도 식량 생산량은 4억 5,264만 톤으로 1996년도 5억 453만 5천 톤 대비 10.3%가 감소했으며, 이 가운데 곡물 생산량이 3억 9,648만 톤으로 1996년도 4억 5,127만 1천 톤 대비 12.1%가 감소했고, 두류 생산량이 2,053만 톤으로 1996년도 1,790만 3천 톤 대비 14.7%가 증가했으며, 서류생산량이 3,563만 톤으로 1996년도 3,536만 톤 대비 0.8%가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곡물 가운데 쌀 생산량은 1억 7,758만 톤으로 1996년도 1억 9,510만 3천 톤 대비 9.0%가 감소했고, 소맥 생산량이 9,387만 톤으로 1996년도 1억 1,056만 9천 톤 대비 15.1%가 감소했으며, 옥수수 생산량이 1억 1,409만 톤으로 1996년도 1억 2,747만 1천 톤 대비 10.5%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곡물 생산량 감소현상은 비록 파종면적 감소에 따른 단위 면적당 생산량이 증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상태이다.

지역별 품종별 곡물생산 분포를 살펴보면 대체로 북방지역은 자포니카(japonica) 쌀, 그리고 남방지역은 인디카(indica) 쌀을 주로 생산하고 있는 상태이다. 1984년의 경우 이들 품종의 생산량 비율은 자포니카 쌀이 15%, 찰쌀이 3%, 그리고 인디카 쌀이 82%로 나타났으며, 자포니카 쌀 재배면적은 쌀 재배면적의 13.5%에 달했었다.

1) 식량작물은 곡물, 두류, 서류가 포함된 총칭이며, 곡물은 쌀, 밀, 옥수수, 수수, 기장, 조 등을 가리키며, 두류는 대두, 녹두, 팥, 완두, 잠두 등을 포함하고, 서류는 감자와 고구마를 포함한다.

<표 2-2> 주요 농작물 생산량

단위 : 만 톤

항 목 별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농산품 생산량						
식량	50,453.5	49,417.1	51,229.5	50,838.6	46,217.5	45,264.0
곡물	45,127.1	44,349.3	45,624.7	45,304.1	40,522.4	39,648.0
쌀	19,510.3	20,073.5	19,871.3	19,848.7	18,790.8	17,758.0
소맥	11,056.9	12,328.9	10,972.6	11,388.0	9,963.6	9,387.0
옥수수	12,747.1	10,430.9	13,295.4	12,808.6	10,600.0	11,409.0
두류	1,790.3	1,875.5	2,000.6	1,894.0	2,010.0	2,053.0
서류	3,536.0	3,192.3	3,604.2	3,640.6	3,685.2	3,563.0
유료	2,210.6	2,157.4	2,313.9	2,601.2	2,954.8	2,864.8
땅콩	1,013.8	964.8	1,188.6	1,263.9	1,443.7	1,441.5
유채	920.1	957.8	830.1	1,013.2	1,138.1	1,133.1
참깨	57.5	56.6	65.6	74.3	81.1	80.4
면화	420.3	460.3	450.1	382.9	441.7	532.4
마류	79.5	74.9	49.5	47.2	52.9	68.1
황홍마	36.5	43.0	24.8	16.4	12.6	10.6
사탕수수	6,687.6	7,889.7	8,343.8	7,470.3	6,828.0	7,566.0
사탕무우	1,672.6	1,496.8	1,446.6	863.9	807.3	1,089.0
엽연초	323.4	425.1	236.4	246.9	255.2	234.9
고연	294.6	390.8	208.8	218.5	223.8	204.5
잠견	50.8	46.9	53.5	48.5	54.8	.....
뽕나무	47.1	42.3	48.2	44.7	50.1	.....
차류	59.3	61.3	66.5	67.6	68.3	.....
과일류	4,652.8	5,089.3	5,452.9	6,237.6	6,225.1	6,658.0
사과	1,704.7	1,721.9	1,948.1	2,080.2	2,043.1	2,001.5
감귤	845.7	1,010.2	859.0	1,078.7	878.3	1,160.7
배	580.7	641.5	727.6	774.2	841.2	879.6
포도	188.3	203.3	235.8	270.8	328.2	368.0
바나나	253.6	289.2	351.8	419.4	494.2	527.2

자료 : 중국통계연감(2001), 중국통계출판사(2001. 9), pp.362~382.

중국통계적요(2002), 중국통계출판사(2002, 5), pp.107~108.

주 : “.....” 는 해당 통계수치 미상.

그러나 중부지역 소비자들의 자포니카 쌀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됨으로 인하여 1992년도에는 17%에 달했으며, 강소성, 절강성, 하남성, 안휘성 등에서 자포니카 쌀의 생산을 급속히 확대하고 있는 상태이다. 최근 `비공식 통계에 의하면 자포니카 쌀 재배면적 비율은 상해시 지역은 이미 100%에 달했고, 강소성

이 70%, 절강성이 35%에 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sup>2)</sup>

밀은 쌀 다음으로 중요한 식량작물에 속하며, 식량 소비량의 약 25%를 차지하고 있는 상태이며, 특히 북방지역 사람들은 쌀보다도 오히려 밀을 주식으로 선호하는 경향이 높다. 중국의 밀은 파종시기에 따라 가을밀과 봄밀로 구분되며, 가을밀의 파종면적이 약 80% 이상을 차지하는 상태이다. 생산지역 구분은 북방과 남방은 가을밀 재배지역, 남방은 가을밀과 봄밀 재배지역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가을밀 생산량의 약 60% 이상이 북방지역에서 생산되고 있다. 최근 중국의 밀 생산량은 드디어 국내수요를 충족시키는 반면에 매년 약 800~1,000만 톤을 수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2000년도의 경우 전체 곡물 수출량의 약 76%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1995년도 전세계 옥수수 생산량은 약 5억 톤에 달했으며, 이 가운데 미국이 약 1억 9천만 톤으로 수위를 차지했으며, 다음은 중국이 1억 1천만 톤을 생산함으로써 이들 두 나라의 옥수수 생산량이 60%를 차지하는 상태이다. 개혁개방 이후 소득수준 향상에 따라 식용으로 소비했던 옥수수 수요가 점차 감소되기 시작한 반면에 가축의 사료용수요가 꾸준히 증가되고 있는 가운데 생산량의 약 70%에 달했으며, 식용이 약 10%, 그리고 나머지가 종자용과 공업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상태이다.<sup>3)</sup>

땅콩, 유채, 참깨 등을 포함한 2001년도 유류작물 생산량은 2,864만 8천 톤으로 1996년도 2,210만 6천 톤 대비 29.6%가 증가했으며, 이 가운데 땅콩생산량이 1996년도 1,013만 8천 톤 대비 42.2%가 증가된 1,441만 5천 톤, 유채생산량이 1996년도 920만 1천 톤 대비 23.2%가 증가된 1,133만 1천 톤, 참깨 생산량이 1996년도 57만 5천 톤 대비 39.8%가 증가된 80만 4천 톤으로 각각 나타났다. 특히 이들 생산량 역시 소득증대 및 생활수준 향상과 더불어 수요량이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이러한 증가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사과, 감귤, 배, 포도, 바나나 등을 포함한 2001년도 과일류 생산량은 6,658만 톤으로 1996년도 4,652만 8천 톤 대비 43.1%가 증가했으며, 이 가운데 사과 생산량이 1996년도 1,704만 7천 톤 대비 17.4%가 증가된 2,001만 5천 톤, 감귤 생산량이 1996년도 845만 7천 톤 대비 37.2%가 증가된 1,160만 7천 톤, 배 생산량이 1996년도 580만 7천 톤 대비 51.5%가 증가된 879만 6천 톤, 포도 생산량이 1996년도 188만 3천 톤 대비 95.4%가 증가된 368만 톤, 바나나 생산량이 1996년도 253만 6천 톤 대비 107.9%가 증가된 527만 2천 톤으로 각각 나타났다.

2) 박준근, 구자욱, 김호 공저, 중국의 식량경제, 전남대학교 출판부(2000. 8. 17), pp.105~120.

3) 위의 책, pp.129~134.

특히 이들 과일류 생산량의 급속한 증가추세는 소득증대 및 생활수준 향상과 더불어 수요량이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기 때문인 것이다. 또한 이들 과일류의 품종개량을 통한 고급화가 촉진되고 있는 가운데 외국산 과일류의 수입도 점차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다. 끝으로 여타 농산물의 연도별 생산현황은 <표 2-2>를 참고하기 바란다.

<표 2-3> 중국의 주요 농산물 생산량 세계 순위

품목별	1949	1978	1980	1985	1990	1995	1999	2000
곡물	...	2	1	2	1	1	1	1
육류	3	3	3	2	1	1	1	1
면화	4	3	2	1	1	1	1	1
대두	2	3	3	3	3	3	4	4
땅콩	2	2	2	2	2	1	1	1
유채	2	2	2	1	1	1	1	1
사탕수수	...	9	9	4	4	3	3	3
차	3	2	2	2	2	2	2	2
과일류	...	...	10	8	4	1	1	1

자료 : 중국통계연감(2001), 중국통계출판사(2001. 9), p.886.

주 : “...” 는 해당 통계수치 미상.

중국의 주요 농산물 생산량 세계 순위는 <표 2-3>에 나타난 바와 같다. 곡물 생산량은 1980년 이전까지 세계 2위이던 것이 1980년에는 1위를 차지했다가 1985년도에는 다시 2위에 머물렀고, 1990년부터는 1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이다. 육류 생산량은 1978년도에 3위이던 것이 1985년도에는 2위, 그리고 1990년도부터는 계속 1위를 지속하고 있다. 면화 생산량과 유채 생산량 역시 1985년도부터 1위를 계속 차지하고 있는 상태이다.

그리고 과일류 생산량도 1980년도 10위에서 계속 향상해서 1995년도부터 계속 1위를 차지하고 있고, 땅콩 생산량도 1990년까지 계속 2위를 유지해 오다가 1995년도부터는 1위를 차지한 상태이다. 또한 2000년도 대두 생산량은 세계 4위, 사탕수수 생산량은 3위, 차 생산량은 2위를 각각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중국의 주요 농산물 생산량이 세계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을 여실히 발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생산량 변동이 세계 농산물 국제가격 변동에 미치는 영향력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표 2-4> 주요 농산물 지역별 생산량 순위(2000)

수량단위 : 만 톤

항 목 별	총생산량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수량	%	산지	%	산지	%	산지	%	산지	%	산지	%
식량	46,221	100.0	하남	9.1	산동	8.5	사천	7.5	강소	6.9	호남	6.1
곡물	40,522	100.0	하남	9.1	산동	8.6	사천	7.0	강소	7.2	호남	6.3
쌀	18,791	100.0	호남	12.7	강소	9.6	사천	8.7	강서	7.9	광둥	7.6
소맥	9,964	100.0	하남	22.4	산동	18.7	하북	12.1	강소	8.0	안휘	7.1
옥수수	10,600	100.0	산동	13.9	하남	10.1	하북	9.4	길림	9.4	흑룡강	7.5
두류	2,010	100.0	흑룡강	24.4	길림	7.0	하남	7.0	내몽고	5.5	산동	5.4
서류	3,685	100.0	사천	12.1	하남	7.9	산동	7.1	광둥	6.1	안휘	5.3
과일류	6,225	100.0	산동	15.5	하북	10.9	광둥	10.3	섬서	7.9	복건	5.7
사과	2,043	100.0	산동	31.7	섬서	19.0	하남	11.7	하북	8.8	산서	8.0
감귤	878	100.0	사천	15.1	복건	14.9	호남	14.3	절강	11.1	광서	10.0
배	841	100.0	하북	30.3	산동	10.8	호북	7.5	섬서	5.5	요녕	5.4
포도	328	100.0	신강	20.8	하북	16.0	산동	14.5	요녕	13.1	사천	3.5
바나나	494	100.0	광둥	47.6	광서	22.5	복건	15.1	해남	12.2	운남	2.2

자료 : 중국통계연감(2001), 중국통계출판사(2001. 9), pp.380~382.

2000년도 주요 관심 농산물 지역별 생산량 순위는 <표 2-4>와 같으며, 총생산량 4억 6,221만 톤 가운데 하남이 9.1%로 수위를 차지했고, 다음은 산동 8.5%, 사천 7.5%, 강소 6.9%, 호남 6.1%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식량 가운데 곡물 생산량은 4억 522만 톤으로 생산지역별 생산량 순위는 하남이 9.1%로 수위를 차지했고, 다음은 산동 8.6%, 사천 7.0%, 강소 7.2%, 호남 6.3%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곡물 생산량 가운데 쌀의 생산지역별 생산량 순위는 호남, 강소, 사천, 강서, 광둥 순이며, 소맥 생산량 순위는 하남, 산동, 하북, 강소, 안휘 순이고, 끝으로 옥수수 생산량 순위는 산동, 하남, 하북, 강소, 안휘 등의 순으로 각각 나타났다.

또한 식량 가운데 두류 생산량은 2,010만 톤으로 생산지역별 생산량 순위는 흑룡강이 24.4%로 수위를 차지했고, 다음은 길림 7.0%, 사천 7.0%, 내몽고 5.5%, 산동성 5.4%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서류 생산량은 3,685만 톤으로 지역별 생산량 순위는 사천이 12.1%로 수위를 차지했고, 다음은 하남 7.9%, 산동 7.1%, 광둥 6.1%, 안휘 5.3% 순으로 각각 나타났다.

2000년도 과일류 생산량은 6,225만 톤으로 생산지역별 생산량 순위는 산동이 15.5%로 수위를 차지했고, 다음은 하북 10.9%, 광둥 10.3%, 섬서 7.9%, 복건 5.7%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 가운데 사과 생산량은 2,043만 톤에 달했으며, 지역별 생산량 순위는 산동, 섬서, 하남, 하북, 산서 순으로, 감귤 생산량은



878만 톤에 달했으며 사천, 복건, 호남, 절강, 광서 순으로, 배 생산량은 841만 톤에 달했으며 하북, 산둥, 호북, 섬서, 요녕 순으로, 포도 생산량은 328만 톤으로 신장, 하북, 산둥, 요녕, 사천 순으로, 바나나 생산량은 94만 톤으로 광둥, 광서, 복건, 해남, 운남 순으로 각각 나타났다. 끝으로 품목별 생산지역별 자세한 생산분포는 <표 2-4>를 참고하기 바란다.

<표 2-5> 주요 농축수산물 1인당 생산량

단위 : kg

연도별	식량	면화	유료	설탕	차	과일류	쇠고기 돼지고기 양고기	수산물
1978	318.74	2.27	5.46	24.91	0.28	6.87	.....	4.87
1980	326.69	2.76	7.84	29.67	0.31	6.92	.....	4.59
1985	360.70	6.04	15.02	57.53	0.41	11.07	.....	6.71
1990	393.10	3.97	14.21	63.35	0.48	16.51	.....	10.90
1995	387.28	3.96	18.67	64.96	0.49	34.98	.....	20.89
1996	414.39	3.45	18.16	68.66	0.49	38.21	30.35	23.10
1997	401.74	3.74	17.54	76.31	0.50	41.37	34.55	29.28
1998	412.42	3.62	18.63	78.82	0.54	43.90	37.02	31.45
1999	405.55	3.05	20.75	66.48	0.54	49.76	37.99	32.88
2000	365.90	3.50	23.39	60.45	0.54	49.28	38.30	33.87

자료 : 중국통계연감(2001), 중국통계출판사(2001. 9), p.36.

주 : “.....” 는 해당 통계수치 미상.

주요 농축수산물 1인당 연도별 생산량 현황은 <표 2-5>와 같다. 우선 2000년도 1인당 식량생산량을 살펴보면 365.90kg으로 과거 최고 수준에 달했던 1996년도 414.39kg 대비 11.7%가 감소했으나, 개혁개방이 시작된 1978년도 318.74kg 대비 14.8%가 증가된 상태이다. 또한 면화는 3.50kg으로 과거 최고 수준에 달했던 1985년도 6.04kg 대비 42.1%가 감소했으나, 개혁개방이 시작된 1978년도 2.274kg 대비 54.2%가 증가된 상태이다.

또한 2000년도 1인당 유료작물 생산량을 살펴보면 23.39kg으로 전년 대비 12.7%가 증가했으며, 1978년도 5.46kg 대비 328.4%가 증가된 상태이다. 그리고 설탕은 60.45kg으로 과거 최고 수준에 달했던 1998년도 78.82kg 대비 23.3%가 감소했으나, 개혁개방이 시작된 1978년도 24.91kg 대비 142.7%가 증가된 상태이다. 차 생산량은 0.54kg으로 1978년도 0.28kg 대비 92.9%가, 과일류는 49.28kg으

로 1978년도 6.874kg 대비 7.2배로 각각 증가된 상태이다. 쇠고기, 돼지고기, 양고기를 포함한 육류 생산량은 38.30kg으로 1996년도 30.35kg 대비 26.2%가, 수산물 생산량은 33.87kg으로 1978년도 4.874kg 대비 7.0배로 각각 증가된 상태이다.

<표 2-6> 주요 임산물 연도별 생산현황

단위 : 톤

품 목 별	1996	1997	1998	1999	2000
고무(rubber)	402,450	451,970	462,344	489,991	480,248
송진(pine resin)	580,819	701,183	543,156	570,477	551,057
생칠(lacquer)	3,740	4,416	4,577	5,314	5,279
油桐열매(tung-oil seeds)	407,744	453,535	438,680	448,323	453,461
油茶열매(tea-oil seeds)	696,633	856,868	723,846	792,690	823,224
호도(walnuts)	237,989	249,834	265,121	274,246	309,875

자료 : 중국통계연감(2001), 중국통계출판사(2001. 9), p.383.

한편 주요 임산물 연도별 생산현황은 <표 2-6>과 같으며, 이 가운데 2001년도 고무 생산량은 48만 248톤으로 1996년도 40만 2,450톤 대비 19.3%가, 생칠 생산량은 5,279톤으로 1996년도 3,740톤 대비 41.2%가, 유동(油桐) 열매 생산량은 45만 3,461톤으로 1996년도 40만 7,744톤 대비 11.2%가, 유차(油茶) 열매 생산량은 82만 3,224톤으로 1996년도 69만 6,633톤 대비 18.2%가, 호도(胡桃) 생산량은 30만 9,875톤으로 1996년도 23만 7,989톤 대비 30.2%가 각각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송진 생산량은 55만 1,057톤으로 1996년도 58만 819톤 대비 5.1%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3) 주요 축산물 생산현황

주요 축산물 연도별 생산현황은 <표 2-7>과 같다. 2001년도 소, 말, 당나귀, 노새, 낙타 등을 포함한 대동물 연말두수는 1억 4,995만 9천 두로 1996년도 1억 3,360만 6천 두 대비 12.2%가 증가했으며, 이 가운데 소가 1996년도 1억 1,031만 8천 두 대비 16.3%가 증가한 1억 2,824만 2천 두에 달한 반면에 여타 대동물 연말두수는 전반적으로 감소추세를 나타냈다.

<표 2-7> 주요 축산물 생산현황

항 목 별	단위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대동물 연말두수	만두	13,360.6	14,541.8	14,803.2	15,024.8	15,151.5	14,995.9
소	만두	11,031.8	12,182.2	12,441.9	12,698.3	12,866.3	12,824.2
말	만두	871.5	891.2	898.1	891.4	876.6	826.0
당나귀	만두	944.4	952.8	955.8	934.8	922.7	881.5
노새	만두	478.0	480.6	473.9	467.3	453.0	436.2
낙타	만두	34.5	35.0	33.5	33.0	32.6	27.9
소 출하두수	만두	.....	3,283.9	3,587.2	3,766.2	3,964.8	4,118.4
양돈 출하두수	만두	41,225.1	46,483.7	50,215.1	50,749.0	52,673.3	54,936.7
양돈 연말두수	만두	36,283.6	40,034.8	42,256.3	43,144.2	44,681.5	45,743.0
양 연말두수	만두	23,728.3	25,575.7	26,903.5	27,925.8	29,031.9	29,826.4
산양	만두	12,315.8	13,480.1	14,168.3	14,816.3	15,715.9	16,237.1
면양	만두	11,412.5	12,095.6	12,735.2	13,109.5	13,316.0	13,589.3
육류생산량	만톤	4,584.0	5,268.8	5,723.8	5,820.7	6,125.4	6,333.9
돼지, 쇠고기, 양고기	만톤	3,694.7	4,249.9	4,598.2	4,647.4	4,838.2	5,026.1
돼지고기	만톤	3,158.0	3,596.3	3,883.7	3,890.7	4,031.4	4,184.5
쇠고기	만톤	355.7	440.9	479.9	505.4	532.8	548.8
양고기	만톤	181.0	212.8	234.6	251.3	274.0	292.7
우유종류	만톤	735.8	681.1	745.4	806.9	919.1	1,122.9
젖소우유	만톤	629.4	601.1	662.9	717.6	827.4	1,025.5
양모	톤	298,102	255,059	277,545	283,152	292,502	29,825.4
산양모	톤	35,255	25,865	31,417	31,849	33,266	3,424.1
캐시미어	톤	9,585	8,626	9,799	10,180	11,057	1,096.8
달걀	만톤	1,965.2	1,897.1	2,021.3	2,134.7	2,243.3	2,336.7

자료 : 중국통계연감(2001), 중국통계출판사(2001. 9), p.362.

중국통계적요(2002). 중국통계출판사(2002, 5), pp.109~110.

주 : “.....” 는 해당 통계수치 미상.

한편 2000년도 동물별 연말두수는 말이 1996년도 871만 5천 두 대비 5.2%가 감소한 826만 두, 당나귀가 1996년도 944만 4천 두 대비 6.7%가 감소한 881만 5천 두, 노새가 1996년도 478만 두 대비 8.8%가 감소한 436만 2천 두, 낙타가 1996년도 34만 5천 두 대비 19.1%가 감소한 27만 9천 두로 각각 나타났다. 소를 제외한 이러한 감소현상은 화물운반과 사역에 이용되어 온 대동물의 역할과 이용도가 점차 낮아지는 데에 따르는 당연한 결과인 것이며, 이러한 감소추세는 앞으로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연간 출하두수는 2001년도에 소가 4,118만 4천 두로 1997년도 3,283만 9천 두 대비 25.4%가 증가했으며, 돼지가 54,936만 7천 두로 1996년도 41,225만 1천 두 대비 33.3%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2001년도 양돈 연말두수

는 4억 5,743만 두로 1996년도 3억 6,283만 6천 두 대비 26.1%가 증가했으며, 돼지사육과 출하두수는 매년 완만한 증가추세를 나타내는 가운데 소비량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육류생산과 양모생산을 목적으로 사육되는 산양과 면양을 포함한 양의 2001년도 연말두수는 2억 9,826만 4천 두로 1996년도 2억 3,728만 3천 두 대비 25.7%가 증가했으며, 이 가운데 산양은 1억 6,237만 1천 두로 1996년도 1억 2,315만 8천 두 대비 31.8%가 증가했고, 면양은 1억 3,589만 3천 두로 1996년도 1억 1,412만 5천 두 대비 19.1%가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양고기 수요 및 양모수요가 소득증대 및 공업화에 따라 지속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이들 항목에 대한 수요증대 현상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2001년도 육류 생산량은 6,333만 9천 톤으로 1996년도 4,584만 톤 대비 38.2%가 증가했으며, 이 가운데 돼지고기, 쇠고기, 양고기 생산량이 5,026만 1천 톤으로 육류 생산량의 79.4%를 차지했을 뿐만 아니라 1996년도 3,694만 7천 톤 대비 36.0%가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01년도 돼지고기 생산량은 4,184만 5천 톤으로 육류생산량의 66.1%에 달함으로써 돼지고기 소비의 중요성을 짐작할 수가 있다.

#### (4) 연도별 생산액과 거래액 현황

농업, 임업, 목축업, 어업을 포함한 농림수축산업의 연도별 생산액은 <표 2-8>과 같으며, 2001년도 총생산액은 인민폐 2조 6,179억 6천만 위안으로 1978년도 1,397억 위안 대비 18.7배, 그리고 1996년도 2조 2,353억 7천만 위안 대비 17.1%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업종별로 살펴보면 농업 생산액이 1조 4,462억 8천만 위안으로 농림수축산업 총생산액의 55.3%를 차지함으로써 수위를 점했으며 1978년도 1,117억 5천만 위안 대비 12.9배, 그리고 1996년도 1조 3,539억 8천만 위안 대비 6.8%가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목축업 생산액이 7,963억 1천만 위안으로 농림수축산업 총생산액의 30.4%를 차지했으며 1978년도 209억 3천만 위안 대비 38.1배, 그리고 1996년도 6,015억 5천만 위안 대비 32.4%가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어업 생산액은 2,815억 위안으로 농림수축산업 총생산액의 10.8%를 차지했으며 1978년도 22억 1천만 위안 대비 127.4배, 그리고 1996년도 2,020억 4천

만 위안 대비 39.3%가 증가했다. 끝으로 임업 생산액은 938억 8천만 위안으로 농림수축산업 총생산액의 3.6%를 차지했으며 1978년도 48억 1천만 위안 대비 19.5배, 그리고 1996년도 778억 위안 대비 20.7%가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8> 농림수축산업 연도별 생산액

단위 : 억 위안

연도별	총생산액	농업	임업	목축업	어업
1978	1,397.0	1,117.5	48.1	209.3	22.1
1980	1,922.6	1,454.1	81.4	354.2	32.9
1985	3,619.5	2,506.4	188.7	798.3	126.1
1990	7,662.1	4,954.3	330.3	1,967.0	410.6
1995	20,340.9	11,884.6	709.9	6,045.0	1,701.3
1996	22,353.7	13,539.8	778.0	6,015.5	2,020.4
1997	23,788.4	13,852.5	817.8	6,835.4	2,282.7
1998	24,541.9	14,241.9	851.3	7,025.8	2,422.9
1999	24,519.1	14,106.2	886.3	6,997.6	2,529.0
2000	24,915.8	13,873.6	936.5	7,393.1	2,712.6
2001	26,179.6	14,462.8	938.8	7,963.1	2,815.0

자료 : 중국통계적요(2002). 중국통계출판사(2002, 5), p.104.

한편 농업, 임업, 목축업, 임산물 등의 생산량을 <표 2-2>, <표 2-5>, <표 2-6>, <표 2-7> 등에서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비교적 빠른 증가추세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산액은 상대적으로 완만한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는 점이 특색이다. 바로 이러한 현상은 일부 품목별 생산량 증가가 판매가격 하락을 주도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소비품시장과 거래액 현황은 <표 2-9>와 같다. 2000년도 소비품시장은 8만 8,811개(소)로 1985년도 6만 1,337개 대비 44.8%가 증가했으며, 이 가운데 도시시장이 2만 6,395개로 29.7%를 차지했고, 농촌시장이 6만 2,416개로 70.3%를 차지한 상태이다. 또한 2000년도 소비품시장 거래액을 살펴보면 인민폐 2조 4,279억 6천만 위안으로 1985년도 632억 3천만 위안 대비 무려 38.4배로 증가했으며, 1990년도 2,168억 2천만 위안 대비 11.2배로 증가된 상태이다.

그리고 이 가운데 도시시장 거래액은 1조 3,800억 4천만 위안으로 소비품시장 거래액의 56.8%를 차지했을 뿐만 아니라 1990년도 837억 8천만 위안 대비 16.5배로 증가했다. 한편 농촌시장 거래액은 1조 479억 2천만 위안으로 소비품시장

거래액의 43.2%를 차지했을 뿐만 아니라 1990년도 1,330억 4천만 위안 대비 7.9배로 증가된 상태이다.

<표 2-9> 전국 소비품시장과 거래액 현황

항 목 별	1985	1990	1998	1999	2000
소비품시장 수(개)	61,337	72,579	89,177	88,576	88,811
도시시장	8,013	13,106	24,127	24,983	26,395
농촌시장	53,324	59,473	65,050	63,593	62,416
소비품시장 거래액(억 위안)	632.3	2,168.2	19,835.5	21,707.8	24,279.6
도시시장	120.7	837.8	11,042.8	12,325.7	13,800.4
농촌시장	511.6	1,330.4	8,792.7	9,382.1	10,479.2
거래액 가운데(관심 품목)					
식량과 식용유	49.6	146.8	1,464.8	1,591.1	1,959.5
육류 및 달걀류	140.1	618.8	3,557.4	3,802.1	4,201.9
수산물류	33.2	182.4	165.9	1,800.7	2,073.4
채소류	48.8	264.2	220.7	2,425.5	2,661.8
건조 및 신선 과일류	25.5	183.5	1,234.7	1,398.2	1,546.2

자료 : 중국통계연감(2001), 중국통계출판사(2001. 9), p.551.

소비품시장 거래액 가운데 관심 품목의 거래액을 살펴보면, 2000년도 식량과 식용유 거래액은 인민폐 1,959억 5천만 위안으로 1990년도 146억 8천만 위안 대비 13.4배로 증가했으며 소비품시장 거래액의 8.1%를 차지했다. 육류 및 달걀류 거래액은 4,201억 9천만 위안으로 1990년도 618억 8천만 위안 대비 6.8배로 증가했으며 소비품시장 거래액의 17.3%를 차지했고, 수산물류 거래액은 2,073억 4천만 위안으로 1990년도 182억 4천만 위안 대비 11.4배로 증가했으며 소비품시장 거래액의 8.5%를 차지했고, 채소류 거래액은 2,661억 8천만 위안으로 1990년도 264억 2천만 위안 대비 10.1배로 증가했으며 소비품시장 거래액의 11.0%를 차지했고, 건조 및 신선 과일류 거래액은 인민폐 1,546억 2천만 위안으로 1990년도 183억 5천만 위안 대비 8.4배로 증가했으며 소비품시장 거래액의 6.4%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식생활과 밀접한 품목의 거래액이 지난 1990년에 비해 크게 증가되고 있는 현상은 바로 소득증대와 생활수준 향상에 따른 소비수요가 급속히 증가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현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이러

한 증가추세는 도시시장과 농촌시장에서 동시에 나타나고 있는 점이 특징이며, 주로 도시근교 거주민의 농가소득이 안정적으로 증가될 수 있는 양호한 시장여건이 갖추어진 상태라 볼 수 있을 것이다.

## 2. 주요 농산물 수출입 현황

### (1) 주요 품목별 연도별 수출입 현황

주요 1차산품 연도별 수출입 현황은 <표 2-10>과 같다. 2001년도 무역총액은 5,097억 6천만 달러로 1996년도 2,898억 8천만 달러 대비 75.9%가, 2000년도 4,742억 9천만 달러 대비 7.5%가 각각 증가했다. 그리고 이 가운데 수출은 2,661억 5천만 달러로 1996년도 1,510억 5천만 달러 대비 76.2%가, 2000년도 2,492억 달러 대비 6.8%가 각각 증가했고, 수입은 2,436억 1천만 달러로 1996년도 1,388억 3천만 달러 대비 75.5%가, 2000년도 2,250억 9천만 달러 대비 8.2%가 각각 증가했으며, 무역수지 흑자는 225억 4천만 달러를 달성하게 되었다.

2001년도 수출액 2,661억 5천만 달러 가운데 공업제품 수출이 2,398억 달러로 90.1%를 점유함으로써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1차산품 수출은 263억 5천만 달러로 9.9%를 점유함으로써 수출비중이 낮은 상태이다. 그리고 1차산품 가운데 식품 및 식용 산 동물이 127억 8천만 달러로 1차산품 수출의 48.5%를 점유함으로써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1996년도 102억 3천만 달러 대비 24.9%가, 2000년도 122억 8천만 달러 대비 4.1%가 각각 증가한 상태이다. 그리고 음료 및 담배는 8억 7천만 달러, 비식용 원료는 41억 7천만 달러로 수출비중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01년도 수입액 2,436억 1천만 달러 가운데 공업제품 수입이 1,978억 4천만 달러로 81.2%를 점유함으로써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1차산품 수입은 457억 7천만 달러로 18.8%를 점유함으로써 수입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상태이다. 그리고 1차산품 가운데 식품 및 식용 산 동물이 49억 8천만 달러로 1차산품 수입의 10.9%를 점유함으로써 매우 낮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비식용 원료가 221억 3천만 달러, 광물원료와 운할유 원료가 174억 9천만 달러이고, 여타 품목의 수입액은 미미한 상태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관심 품목인 식품 및 식용 산 동물은 수출액이 수입액에 비해 78억 달러가 많은 상태이며, 동시에 수출 대 수입 비율도 2.6 : 1로 나타난 현상을 감안할 때 수입 농산물 진출여건이 결코 용이하지 않음을 짐작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상황은 중국의 WTO 가입과 더불어 장차 점진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나, 동시에 그 시기와 정도에 관해서는 역시 중장기를 전제로 낙관할 수밖에 없는 상태이다.

<표 2-10> 주요 1차산품 연도별 수출입 현황

단위 : 억 달러

항 목 별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무역총액(1+2)	2,898.8	3,251.6	3,239.5	3,606.3	4,742.9	5,097.6
1. 수출총액	1,510.5	1,827.9	1,837.1	1,949.3	2,492.0	2,661.5
1차산품	219.2	239.5	204.9	199.4	254.6	263.5
식품 및 식용 산 동물	102.3	110.8	105.1	104.6	122.8	127.8
음료 및 담배	13.4	10.5	9.8	7.7	7.5	8.7
비식용 원료	40.5	42.0	35.2	39.2	44.6	41.7
광물원료, 운할유 원료	59.3	69.9	51.8	46.6	78.6	84.2
동식물 유지 및 왁스	3.8	6.5	3.1	1.3	1.2	1.1
공업제품	1,291.2	1,588.4	1,632.2	1,749.9	2,237.4	2,398.0
2. 수입총액	1,388.3	1,423.7	1,402.4	1,657.0	2,250.9	2,436.1
1차산품	255.4	286.2	229.5	268.5	467.4	457.7
식품 및 식용 산 동물	25.7	43.0	37.9	36.2	47.6	49.8
음료 및 담배	5.0	3.2	1.8	2.1	3.6	4.1
비식용 원료	107.0	120.0	107.2	127.4	200.0	221.3
광물원료, 운할유원료	68.8	103.1	67.8	89.1	206.4	174.9
동식물 유지 및 왁스	17.0	16.8	14.9	13.7	9.8	7.6
공업제품	1,133.9	1,137.5	1,172.9	1,388.5	1,783.6	1,978.4
무역수지(1-2)	122.2	404.2	434.7	292.3	241.1	225.4

자료 : 중국통계연감(2001), 중국통계출판사(2001. 9), pp.586~588.

중국통계적요(2002). 중국통계출판사(2002, 5), p.149.

## (2) 주요 품목별 연도별 수입현황

주요 농축수산물 항목별 수입현황은 <표 2-11>과 같다. 2000년도 산 동물 및 그 제품 수입액은 22억 7천 9백만 달러로 수입총액 2,250억 9천 4백만 달러의 1.0%를 점유함으로써 미미한 상태이며, 이 가운데 어류, 갑각동물, 연체동물 무척추동물 등의 수입액이 12억 1천 2백만 달러로 수위를 차지했고, 다음은 식



용육류 및 관련 제품 수입액이 6억 3천 7백만 달러, 유제품, 천연벌꿀, 기타 식용동물제품 등의 수입액이 2억 1천 8백만 달러, 산 동물 수입액이 5천 2백만 달러 순으로 나타났다.

<표 2-11> 주요 농축수산물 항목별 수입현황

단위 : 억 달러

품 목 별	1997	1998	1999	2000
수입총액	1,423.70	1,401.66	1,656.99	2,250.94
산 동물 및 그 제품	9.17	10.54	43.55	22.79
산 동물	0.41	0.54	3.85	0.52
식용육류 및 관련 제품	1.49	1.43	7.53	6.37
어류, 갑각동물, 연체동물, 무척추동물	5.44	6.66	8.83	12.12
유제품, 천연벌꿀, 기타 식용동물제품	0.68	0.89	1.64	2.18
식용제품	23.30	25.02	26.68	43.21
식용채소, 뿌리와 줄기	0.74	0.71	0.83	0.82
각종 과일류	2.35	2.42	2.58	3.68
커피, 차, 조미료 및 향료	0.10	0.20	0.19	0.23
곡물	8.92	6.96	4.97	5.74
채유종실, 각종 약용식물, 사료식물	9.89	13.45	16.38	30.72
동식물 유지 및 분해제품과 관련 제품	16.78	14.87	13.59	10.23
식품, 음료, 주류, 연초 및 그 대응품	25.64	19.52	12.86	18.10
육류, 어류, 갑각 및 연체동물, 무척추동물	0.08	0.06	0.12	0.12
설탕 및 설탕제품	2.50	1.77	1.82	1.77
곡물, 분말식량, 전분 및 유제품, 과자류	0.17	0.13	0.48	0.71
채소와 과일 및 씨의 제품	0.18	0.24	0.43	0.60
음료 및 주류	0.68	0.75	1.23	1.61
연초, 연초 및 연초 대응품	2.54	1.06	0.87	2.04

자료 : 중국통계연감(2001), 중국통계출판사(2001. 9), pp.589~590.

그리고 식용제품(食用製品) 수입액은 43억 2천 1백만 달러로 수입총액의 1.9%를 점유함으로써 비교적 미미한 상태이며, 이 가운데 채유종실(菜油種實), 각종 약용식물, 사료식물 등의 수입액이 30억 7천 2백만 달러로 수위를 차지했을 뿐만 아니라 식용제품 수입액의 71.1%를 점유했으며, 다음은 곡물 수입액이 5억 7천 4백만 달러, 각종 과일류 수입액이 3억 6천 8백만 달러, 식용채소 및 뿌리와 줄기 수입액이 8천 2백만 달러, 커피, 차, 조미료 및 향료 수입액이 2천 3백만 달러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동식물 유지 및 분해제품과 관련 제품의

수입액은 10억 2천 3백만 달러로 0.5%를 점유함으로써 매우 미미한 상태이며, 그 수입액은 매년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는 점이 특색이다.

식품, 음료, 주류, 연초 및 그 대용품의 수입액은 18억 1천만 달러로 수입총액의 0.8%를 점유함으로써 비교적 미미한 상태이며, 이 가운데 연초, 연초 및 연초 대용품의 수입액이 2억 4백만 달러로 수위를 차지했으며, 다음은 설탕 및 설탕제품이 1억 7천 7백만 달러, 음료 및 주류가 1억 6천 1백만 달러 순으로 나타났다, 여타 품목의 수입액은 1억 달러 미만에 달하는 상태이다.

<표 2-12> 주요 농산품 연도별 수입현황

품목별	1997		1998		1999		2000	
	수량 (톤)	금액 (만달러)	수량 (톤)	금액 (만달러)	수량 (톤)	금액 (만달러)	수량 (톤)	금액 (만달러)
곡물과 그 가루	417	91,614	388	71,602	339	52,414	315	59,375
소맥	186	36,829	149	27,857	45	8,565	88	14,737
쌀	33	13,977	24	12,004	17	7,815	24	11,271
옥수수	0	22	25	3,177	7	825	---	---
식물성 식용유	275	150,458	206	129,877	208	107,434	179	62,714
기타 식용유	11	6,779	13	8,548	15	10,705	23	12,773
설탕	78	22,877	51	14,516	42	8,518	64	11,533
동물사료	11	5,912	18	6,122	7	9,220	10	14,993
면화	75	133,085	20	33,184	5	6,692	5	7,411
양모	21	78,945	17	60,300	20	63,772	30	103,731

자료 : 중국통계연감(2001), 중국통계출판사(2001. 9), p.597

중국통계연감(1999), 중국통계출판사(1999. 9), p.589.

주 : “---”표기는 해당 통계수치 없음이고, “0”표기는 단위 미만임.

주요 농산품 연도별 수입현황은 <표 2-12>와 같으며, 2000년도 곡물과 그 가루는 315만 톤으로 1997년도 417만 톤 대비 24.5%가 감소했을 뿐만 아니라 매년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고, 수입액도 5억 9,375만 달러로 1997년도 9억 1,614만 달러 대비 35.2%가 감소한 상태이다. 이와 같은 감소추세는 주로 소맥과 옥수수 수입량이 매년 감소하는 가운데 수입액도 감소했기 때문이다.

2000년도 식물성 식용유 수입량은 179만 톤이고 수입액은 5억 9,375만 달러에 달했으며, 1997년도 수입량과 수입액 대비 24.5%와 35.2%가 각각 감소한 상태이다. 그러나 기타 식용유 수입량은 23만 톤으로 수입액은 1억 2,773만 달러에 달했으며, 1997년도 수입량과 수입액 대비 109.1%와 88.4%가 각각 증가된 것으로

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식물성 식용유 수요는 점차 국산품으로 수입대체가 이행되는 한편 생활수준 향상에 따른 고급 식용유 수요와 호텔 및 고급식당의 식용유 수요가 점차 증가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00년도 설탕 수입량은 64만 톤이고 수입액은 1억 1,533만 달러로 1997년도 수입량 및 수입액 대비 수입량이 17.0%, 수입액은 49.6%가 각각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설탕 역시 소비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입량이 감소되고 있는 것은 국산설탕에 의한 수입대체가 촉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표 2-12>에 나타난 바와 같이 면화수입 역시 급격히 감소하고 있으며, 양모는 점차 증가되고 있으나, 동물사료는 수입량은 별다른 변동이 없지만 수입액은 크게 증가되고 있음을 발견할 수가 있다. 이러한 현상은 바로 수입사료의 국제가격이 상승했거나 고급사료 수입으로 전환했음을 알 수 있다.

### (3) 주요 항목별 연도별 수출현황

주요 농축수산물 항목별 수출현황은 <표 2-13>과 같다. 2000년도 산 동물 및 그 제품 수입액은 43억 5천 5백만 달러로 수출총액 2,492억 2백만 달러의 1.8%를 점유함으로써 역시 미미한 상태이며, 이 가운데 어류, 갑각동물, 연체동물, 무척추동물 등의 수출액이 22억 7천만 달러로 수위를 차지했고, 다음은 식용육류 및 관련 제품 수출액이 7억 5천 3백만 달러, 산 동물 수출액이 3억 8천 5백만 달러, 유제품, 천연벌꿀, 기타 식용동물제품 등의 수출액이 1억 8천 8백만 달러 순으로 나타난 상태이다.

그리고 식용제품 수출액은 52억 2백만 달러로 수출총액 2,492억 2백만 달러의 2.1%를 점유함으로써 비교적 미미한 상태이며, 이 가운데 곡물 수출액이 16억 4천 3백만 달러로 수위를 차지했을 뿐만 아니라 식용제품 수출액의 31.6%를 점유했으며, 다음은 식용채소 및 뿌리와 줄기 수출액이 15억 4천 4백만 달러, 채유종실 및 각종 약용식물 및 사료식물 수출액이 8억 7천 7백만 달러, 커피, 차, 조미료 및 향료 등의 수출액이 5억 6백만 달러, 각종 과일류 수출액이 4억 1천 7백만 달러 순으로 나타난 상태이다. 그리고 동식물 유지 및 분해제품과 관련 제품의 수출액은 1억 2천 9백만 달러로 여타 품목의 수출액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매우 미미한 상태이다.

<표 2-13> 주요 농축수산물 항목별 수출현황

단위 : 억 달러

품 목 별	1997	1998	1999	2000
수출총액	1,827.92	1,837.57	1,949.31	2,492.02
산 동물 및 그 제품	42.03	38.43	38.14	43.55
산 동물	4.76	4.41	3.85	3.85
식용육류 및 관련 제품	9.70	8.40	6.91	7.53
어류, 갑각동물, 연체동물, 무척추동물	18.92	17.37	19.47	22.70
유제품, 천연벌꿀, 기타 식용동물제품	1.65	1.75	1.64	1.88
식용제품	49.05	49.24	45.70	52.02
식용채소, 뿌리와 줄기	15.13	14.83	15.19	15.44
각종 과일류	4.64	4.35	4.25	4.17
커피, 차, 조미료 및 향료	5.53	5.21	4.89	5.06
곡물	11.77	14.98	11.35	16.43
채유종실, 각종 약용식물, 사료식물	8.69	7.51	8.05	8.77
동식물 유지 및 분해제품과 관련 제품	6.81	3.28	1.41	1.29
식품, 음료, 주류, 연초 및 그 대응품	46.55	42.86	43.26	51.66
육류, 어류, 갑각류와 연체동물, 무척추동물	13.88	12.24	13.86	18.83
설탕 및 설탕제품	1.94	1.83	1.40	1.73
곡물, 분말식량, 전분 및 유제품, 과자류	2.71	2.62	2.90	3.60
채소와 과일 및 씨의 제품	10.45	10.30	11.26	13.15
음료 및 주류	4.65	4.46	4.57	4.93
연초, 연초 및 연초 대응품	6.57	5.78	3.36	3.02

자료 : 중국통계연감(2001), 중국통계출판사(2001. 9), pp.589~590.

끝으로 식품, 음료, 주류, 연초 및 그 대응품의 수출액은 51억 6천 6백만 달러로 수출총액 2,492억 2백만 달러의 2.1%를 점유함으로써 미미한 상태이며, 이 가운데 육류, 어류, 갑각류 및 연체동물, 무척추동물 등의 수출액이 18억 8천 3백만 달러로 수위를 차지했으며, 다음은 채소와 과일 및 씨의 제품 등의 수출액이 13억 1천 5백만 달러, 음료 및 주류 수출이 4억 9천 3백만 달러, 곡물, 분말식량, 전분 및 유제품, 과자류 등의 수출이 3억 6천만 달러, 설탕 및 설탕제품 수출이 1억 7천 3백만 달러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주요 농축수산물 연도별 수출량과 수출액 현황은 <표 2-14>와 같으며, 전반적으로 완만한 증가추세가 지속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우선 2000년도 산 돼지 수출량은 203만 톤이고 수출액은 2억 3,045만 달러로 1997년도 수출량 및 수출액 대비 다소 감소된 상태이며, 산 가금류 수출량은 4,890만 톤이고 수출액은 1억 411만 달러로 1997년도 수출량 및 수출액 대비 역시 다소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4> 주요 농축산품 연도별 수출현황

금액단위 : 만 달러

품목별	단위	1997		1998		1999		2000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산 돼지	만톤	227	29,916	219	28,866	196	23,597	203	23,045
산 가금류	"	5,268	11,358	4,262	9,570	4,500	9,850	4,890	10,411
냉동 쇠고기	"	3	5,386	4	7,266	2	2,572	2	2,354
냉동 돼지고기	"	10	19,472	10	18,082	5	6,738	5	6,862
냉동 닭고기	"	30	55,720	27	46,017	30	47,375	36	51,302
냉동 토끼고기	"	3	6,381	2	2,660	2	3,271	2	4,581
달걀	백만개	723	2,527	578	1,875	466	1,228	757	1,712
곡물과 그 가루	만톤	834	131,807	889	157,618	738	118,651	1,378	169,417
쌀	"	94	26,457	375	92,755	271	65,189	295	56,105
옥수수	"	662	85,895	469	53,168	431	45,002	1,047	105,170
대두	"	19	7,325	17	6,339	20	6,169	21	6,414
땅콩	"	17	13,852	21	15,551	34	19,399	40	23,175
干豆	"	59	26,668	47	21,703	81	27,805	57	23,112
채소	"	167	147,802	201	147,289	217	142,688	245	157,688
신선채소	"	93	50,016	117	50,833	130	46,118	139	49,161
감귤	"	21	7,111	16	4,612	17	3,957	19	4,537
사과	"	19	7,751	17	6,456	22	7,594	30	9,656
호두	"	13	3,741	1	2,851	1	2,087	1	2,110
밤	"	3	6,364	4	6,903	3	6,426	4	6,779
은행	톤	4,049	1,575	2,586	923	3,327	1,042	3,809	693
잣	"	1,823	2,287	4,897	4,909	4,877	3,142	3,528	1,866
설탕	만톤	38	13,279	46	12,321	37	7,819	41	8,359
천연꿀	"	5	6,538	8	8,307	9	7,476	10	8,412
차	"	20	33,248	22	37,028	20	33,834	23	34,714
건조고추	"	5	5,712	5	4,810	4	3,482	5	3,446
돼지고기 통조림	"	4	6,557	3	5,914	4	6,238	4	5,845
양송이 통조림	"	14	14,293	14	13,039	14	13,278	20	16,913
맥주	톤	7,193	3,418	5,573	2,629	6,035	3,030	8,442	3,960
담배	만톤	7	16,982	9	16,355	11	19,136	9	13,206
면화	"	0	330	5	5,625	24	28,348	29	30,579
생사	"	1	27,450	1	21,276	1	23,938	1	27,159
캐시미어	톤	2,257	15,142	2,003	10,005	5,074	23,996	3,123	25,227
토끼모피	"	4,029	8,141	2,808	4,044	5,185	5,489	4,990	6,177
섬모섬유	"	2,690	1,188	1,650	679	1,493	580	1,288	490

자료 : 중국통계연감(2001), 중국통계출판사(2001. 9), p.594  
 중국통계연감(1999), 중국통계출판사(1999. 9), p.586.

주 : "0"표기는 단위 미만임.

그리고 냉동 쇠고기 수출량은 2만 톤이고 수출액은 2,354만 달러로 1997년도 수출량 및 수출액 대비 수출량은 다소 감소된 반면에 수출액은 크게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바로 냉동 쇠고기 수출가격이 크게 하락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냉동 돼지고기 수출량은 5만 톤이고 수출액은 6,862만 달러로 1997년도 수출량 및 수출액 대비 50%와 64.8%가 각각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냉동 쇠고기와 돼지고기의 수출이 감소되고 있는 현상은 생활수준 향상과 더불어 국내수요가 꾸준히 증가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냉동 닭고기 수출량은 36만 톤이고 수출액은 5억 1,302만 달러로 1997년도 수출량 및 수출액 대비 수출량은 다소 증가된 반면에 수출액은 다소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바로 냉동 쇠고기 수출가격이 크게 하락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냉동 토끼고기 수출량은 2만 톤이고 수출액은 4,581만 달러로 1997년도 수출량 및 수출액 대비 각각 다소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달걀 수출량은 7억 5천 7백만 개이고 수출액은 1,712만 달러로 1997년도 수출량 및 수출액 대비 수출량은 다소 증가된 반면에 수출액은 크게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바로 달걀 수출가격이 크게 하락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끝으로 여타 개별 품목의 수출량과 수입액의 연도별 수출현황을 살펴보면 쌀과 옥수수를 포함한 곡물과 그 가루, 땅콩, 신선채소를 포함한 채소류, 사과, 밤, 천연 꿀, 차, 양송이 통조림, 맥주, 면화, 캐시미어, 토끼모피 등은 수입량과 수입액이 일률적으로 증가추세를 나타냈다.

그러나 감귤, 호두, 은행, 섬모섬유 등은 수출량과 수입액이 일률적으로 감소된 상태이고, 잣, 설탕, 담배 등은 수출량은 다소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출액은 다소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건조고추와 돼지고기 통조림은 수출량이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출액은 다소 감소된 상태이다. 물론 수출가격이 해를 거듭할수록 점차 하락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 3. 수요공급과 시장별 거래액 현황

#### (1) 주요 품목별 수급현황과 전망

연도별 식량수급 현황은 <표 2-15>와 같으며 쌀, 소맥, 옥수수를 포함한 곡물과 두류 및 서류의 수급상태는 기본적으로 균형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2000년도 총공급량은 4억 5,037만 톤으로 1981년도 3억 3,851만 톤 대비 33.1%가 증가했으며, 1999년도 5억 305만 톤 대비 10.5%가 감

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총수요량은 4억 8,325만 톤으로 3,288만 톤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1990~1999년 간의 수급상태는 수요를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00년도 순수입이 1,181만 톤에 달함으로써 수입에 비하여 수출이 그만큼 많았음을 알 수 있다.

<표 2-15> 연도별 식량수급 현황

단위 : 만 톤

연도별	공 급(S)			수 요(D)						비고 (S-D)
	총계	생산	순수입	총계	식용	공업	종자	사료	낭비	
1981	33,851	32,502	1,349	34,489	24,167	1,950	1,625	5,446	1,300	-638
1985	37,579	37,911	-332	37,909	25,316	2,275	1,896	6,907	1,516	-330
1990	45,413	44,624	789	42,450	27,280	2,677	2,231	8,476	1,785	2,963
1995	48,524	46,657	1,867	43,143	26,276	2,799	2,333	9,868	1,866	5,381
1996	49,959	49,000	959	44,064	26,093	2,940	2,450	10,622	1,960	5,894
1997	48,905	49,417	-512	45,109	26,223	3,033	2,578	11,253	2,022	3,796
1998	50,593	51,229	-636	46,099	26,354	3,130	2,608	11,921	2,086	4,494
1999	50,305	50,839	-534	47,188	26,485	3,229	2,691	12,630	2,153	3,117
2000	45,037	46,218	-1,181	48,325	26,617	3,331	2,776	13,380	2,221	-3,288

자료 : 중국의 식량경제, 전남대학교 출판부(2002, 8), p.209.

중국통계연감(2001), 중국통계출판사(2002, 2), pp.594~597.

주 : 1997년도 이후 식용, 공업용, 종자용, 사료용, 낭비 등의 수요량은 1981~1996년 간의 평균 증가율에 의하여 산출된 추정수량임.

또한 1998년도 식량생산이 5억 1,229만 톤에 달함으로써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그 후 점차 감소추세를 보이기 시작했으나 수출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점이 특색이다. 그리고 수요측면을 살펴보면 식용, 공업용, 종자용, 사료용 등이 점진적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공업용과 사료용이 현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점이 특색이다. 이러한 현상은 소득수준 및 생활향상에 따른 각종 가공식품 원료와 양조장 수요가 점차 증가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축산업 육성에 따른 사료용 곡물수요가 증가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중국의 농업생산 여건 및 생산성 향상을 감안할 때에 식량수급 균형은 기본적으로 장기간 유지될 것으로 평가되는 동시에 대중국 한국산 식량수출 가능성은 비관적으로 전망된다. 특히 가격경쟁력 면에서 대중국 한국산 식량수출이 현실적으로 불리한 입장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산 참깨와 두류 등을 포함한 각종 농산물이 공식 비공식 루트를 통하여 한국시장을 노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부 품목은 꾸준히 유입되고 있는 실정이다. 더구나 WTO 체제 하에서 중국산 각종 농산물의 한국시장 진출 가능성이 점차 유리하게 작용될 전망이다, 이러한 여건변화는 급기야 한국농촌의 생산기반을 위협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표 2-16> 중국의 식량 수요공급 장기예측

항 목	단위	1995	2000	2010	2030
총인구	억명	12.11	13.00	14.00	16.00
도시화율	%	29.04	32.00	38.00	50.00
GNP성장율	%		8.0	7.0	5.0~6.0
식량소비 수요량	만톤	45,509.1	48,280~49,750	53,580~57,380	63,280~72,580
식량간접 수요량	만톤	19,382.1	21,000~22,500	25,000~28,800	32,100~41,400
식량생산량	만톤	46,661.0	49,020	54,120	66,250
최대수요량-공급량	만톤		730	3,260	6,330
최소수요량-공급량	만톤		740	540	2,970
평균수요량-공급량	만톤		- 5	1,360	1,680

자료 : 동북아 식량안보와 농업협력 방안(국제세미나 발표논문집), “21세기 중국의 식량안보 문제”, 한남대학교 경제 및 국제지역연구소(1998. 12. 3~5), p.119.

한편 중국의 식량 수요공급과 관련 王亞平(中國國家計劃委員會 産業發展研究所 研究員)의 수요공급 장기예측을 소개하면 <표 2-16>과 같다. 1995년도를 기준연도로 총인구 증가율, 도시화율, GNP 성장률 등의 변수를 고려한 식량의 수급현황을 살펴보면, 최대 수요량 기준 공급부족량은 2000년에는 730만 톤, 2010년에는 3,260만 톤, 2030년에는 6,330만 톤으로 추정했고, 최소 수요량 기준 공급부족량은 2000년도에 740만 톤, 2010년에는 540만 톤, 2030년에는 2,970만 톤으로 각각 추정했다. 그리고 식량소비 수요량 평균치 기준 수급상태는 2000년도에 5만 톤이 초과공급 상태로서 기본적으로 균형상태인 것으로 나타났고, 2010년에는 1,360만 톤, 2030년에는 1,680만 톤으로 역시 공급부족 상태가 발생될 것으로 추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향후 30년 동안의 공급부족 상태는 2030년의 경우 공급부족량은 최대수요량 기준 6,330만 톤으로 생산량의 9.6%, 최소수요량 기준 2,970만 톤으로 생산량의 4.5%, 평균수요량 기준 1,680만 톤으로 2.5%에 달하는 상태이다. 따라서



중국의 농업생산 환경과 생산기술 향상 및 단위생산량 증가, 그리고 식생활 개선 등을 고려할 때에 이상기후 변화가 없는 한 이러한 부족상태는 심각한 식량 부족 사태를 초래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표 2-17> 중국의 식량 수요공급 장기 예측량 비교 단위 : 억 톤

예측자	2000			2010			2030		
	생산량	수요량	과부족	생산량	수요량	과부족	생산량	수요량	과부족
Brown, L.	3.42	4.05	-0.63	3.17	4.72	-1.55	2.72	6.41	-3.69
R. M. M.	3.85	4.03	-0.18	4.53	4.68	-0.15	6.46	6.82	-0.36
黃季焜	4.10	4.50	-0.40	4.69	5.13	-0.44	6.50	6.88	-0.38
USDA	3.62	3.87	-0.25	4.03	4.43	-0.40	5.00	5.79	-0.79
World Bank	4.11	4.20	-0.09	4.83	5.02	-0.19	6.67	7.17	-0.50
OECF	3.67	3.85	-0.18	3.89	4.92	-0.13	4.18	8.06	-3.88
梅方權	5.00	5.20	-0.20	5.60	5.80	-0.20	7.20	7.20	-0.00
丁聲俊							6.00	6.40	-0.40

자료 : 동북아 식량안보와 농업협력 방안(국제세미나 발표논문집), “21세기 중국의 식량안보 문제”, 한남대학교 경제 및 국제지역연구소(1998. 12. 3~5), p.120.

주 : USDA : 미국 농무부, OECF : 일본 해외경제협력기금회, R. M. M. : Rosegrant, M. M. 이며 World Bank를 포함한 이들 기관과 예측자는 중국정부의 식량분류 개념에 추가로 고량, 수수, 흑미, 보리 등이 포함된 개념이고, 黃季焜, 梅方權, 丁聲俊 등은 중국정부의 식량분류 개념에 따라 예측한 것이다.

향후 30년간 중국의 식량 수요공급 장기 예측량을 예측자별로 비교한 결과는 <표 2-17>과 같다. 우선 2000년도의 경우 한결같이 식량생산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Brown, L.의 예측량은 6천 3백만 톤으로 최고 부족량을 나타냈고, World Bank의 예측량은 9백만 톤으로 최저량을 나타냈다. 그리고 황계곤(黃季焜)은 4천만 톤, USDA는 2천 5백만 톤, 매방권(梅方權)은 2천만 톤, OECF과 R. M. M.은 공히 1천 8백만 톤을 예측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향후 30년간 예측에 있어서 Brown, L.은 생산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반면에 수요량은 인구증가와 더불어 점진적 증가추세가 유지될 것이란 가정 하에서 생산부족량이 계속 증가될 것으로 예측한 점이 특색이다. 그리고 OECF는 생산량과 수요량이 동시에 지속적으로 증가하지만 수요량 증가율이 생산량 증가율을 초과하기 때문에 역시 부족량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측했다. 물론 이들의 예측결과는 도시화 및 공업화에 따른 농지감소로 인한 생산량 감소를 고

려했지만, 단위면적 당 생산량 증가와 황무지 개간 및 영농기술 향상 등의 변수를 과소평가 했다는 점에서 지나친 비관적 예측결과란 지적을 면할 길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표 2-18> 중국의 식량 총수요와 총공급의 장기전망                      단위 : 백만 톤

구 분		2020	2025	2030	2035	2040	2045	2050	
총수요	인구 고속증가	고 전환율	603	618	626	621	633	630	623
		중 전환율	542	556	563	568	569	567	560
		저 전환율	500	512	520	524	525	523	517
	인구 중속증가	고 전환율	577	588	593	594	593	589	581
		중 전환율	519	529	533	534	533	529	522
		저 전환율	479	488	492	492	492	488	482
	인구 저속증가	고 전환율	558	561	558	550	539	524	504
		중 전환율	502	505	502	496	486	472	455
		저 전환율	463	466	464	458	449	437	421
총공급	생산량 고속증가		666	694	724	756	788	823	858
	생산량 중속증가		654	672	691	711	731	752	774
	생산량 저속증가		642	653	665	676	689	701	714
과부족	최소생산량-최대수요량		39	35	39	55	56	71	91

자료 : 중국의 식량경제, 전남대학교 출판부(2002, 8), p.338.

주 : 과부족(최소생산량-최대생산량) 수량은 동 예측자료를 근거로 산출된 수량임.

<표 2-17>에 의하면 OECF는 2030년도의 경우 생산량은 4억 1천 8백만 톤으로 수요량 8억 6백만 톤의 51.9%를 차지함으로써 부족량은 수요량의 48.1%인 3억 8천 8백만 톤에 달하는 것으로 예측했다. 그리고 Brown, L.이 예측한 2030년도 생산량은 2억 7천 2백만 톤으로 수요량 6억 4천 1백만 톤의 42.4%를 차지함으로써 부족량은 수요량의 57.6%인 3억 6천 9백만 톤에 달하는 것으로 예측했다. 그러나 매방권(梅方權)은 수요공급의 균형을 예측했는가 하면은 여타 예측자들은 생산부족량이 최저 5천만 톤에서부터 최고 7천 9백만 톤에 달하는 것으로 예측함으로써 상대적으로 객관성과 설득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표 2-18>에 의하면 중국의 식량 총수요와 총공급의 장기전망은 낙관적으로 나타났으며, 예측기간 동안 수요를 충족시키고 최소 3천 5백만 톤 최고 9천 1백만 톤의 잉여가 유지되는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총수요

량은 인구 고속증가와 고전환을 가정 하에서, 그리고 총생산량은 생산량 저속증가가 가정 하에서 예측된 생산량인 것이다. 그러므로 만일 인구증가율을 중속증가나 저속증가를, 그리고 생산량 고속증가나 중속증가를 가정한다면 초과공급량은 그만큼 더욱 증가될 뿐만 아니라 식량수급 잉여량은 증가될 것이다.

이미 소개한 <표 2-15>, <표 2-16>, <표 2-17>과 더불어 중국의 식량 수요 공급 중장기 전망을 평가할 때에 비록 일부 비관론적인 전망이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낙관적으로 전망되고 있는 경향이 지배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중국의 식량수급 상태는 기후이변이나 불가항력의 사태가 발생되지 않는 한 식량수급 균형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평가된다.

중국의 식량 수용공급 균형에 대한 지금까지의 다양한 예측을 고려할 때에 지나친 비관론적 예측을 제외한 여타 예측결과는 부족량이 수요량의 13.6% 수준에 달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려할 만한 심각한 식량부족 사태는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한국산 식량작물의 대중국 수출전망은 수요공급 측면과 가격경쟁력 면에서 장단기적으로 불투명한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중국산 식량작물이 장차 호시탐탐 한국시장과 한국인의 식탁을 노리게 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징후는 이미 나타나고 있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렇지만 식량작물을 제외한 여타 한국산 농산물의 대중국 수출은 품목과 품질 및 포장을 차별해서 고소득층 소비수요를 겨냥하는 동시에 제도적이고 계획적인 판촉활동을 전개한다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2000년도 주요 농산물 도소매업 상품매매 및 재고현황은 <표 2-19>와 같다. 식품, 음료, 연초 등의 매입액은 5,686억 위안이고, 매출액은 6,518억 위안으로 연말 재고가 890억 위안에 달한 상태이다. 한편 매입액 가운데 수입은 208억 위안으로 3.7%를 차지했으며, 매출액 가운데 수출은 533억 위안으로 8.2%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매입액 분포는 운남성이 682억 위안으로 12.0%를 차지함으로써 수위를 차지했고, 다음은 광동성이 528억 위안으로 9.3%, 강소성이 479억 위안으로 8.4%, 절강성이 446억 위안으로 7.8%, 상해시가 335억 위안으로 5.9%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국시장통계연감(2001년판 : pp.137~155)에 의하면 지역별 수입액 순위는 북경시가 73억 위안으로 수입액의 35.0%를 차지함으로써 수위를 차지했으며, 다음은 광동성, 절강성, 요녕성, 운남성, 산둥성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역별 매출액 분포는 운남성이 828억 위안으로 12.7%를 차지함으로써 수위를 차지했고, 다음은 광동성이 598억 위안으로 9.2%, 강소성이 558억 위안으로 8.6%, 절강성이 545억 위안으로 8.4%, 산둥성이 402억 위안으로 6.2% 순



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역별 매입액 분포는 광동성이 98억 위안으로 12.9%를 차지함으로써 수위를 차지했고, 다음은 절강성이 90억 위안으로 12.0%, 요녕성이 75억 위안으로 9.9%, 북경시가 69억 위안으로 9.1%, 산동성 55억 위안으로 7.3%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역별 수입액 순위는 북경시가 44억 위안으로 수입액의 40.1%를 차지함으로써 수위를 차지했으며, 다음은 광동성, 절강성, 요녕성, 산동성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역별 매출액 분포는 광동성이 106억 위안으로 12.8%를 차지함으로써 수위를 차지했고, 다음은 절강성이 97억 위안으로 11.8%, 북경시가 80억 위안으로 9.7%, 요녕성이 70억 위안으로 8.5%, 산동성이 60억 위안으로 7.3%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역별 도매액 순위는 역시 광동성이 101억 위안으로 도매액의 12.9%를 차지함으로써 수위를 차지했으며, 다음은 절강성, 북경시, 요녕성, 산동성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지역별 수출액 순위는 광동성이 44억 위안으로 수출액의 16.9%를 차지함으로써 수위를 차지했으며, 다음은 요녕성, 절강성, 산동성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 지역별 소매 및 재고 현황은 <표 2-19>를 참고하기 바란다.

연초 및 그 제품의 지역별 매입액 분포는 운남성이 631억 위안으로 17.4%를 차지함으로써 수위를 차지했고, 다음은 강소성이 308억 위안으로 8.5%, 절강성이 231억 위안으로 6.4%, 사천성이 212억 위안으로 5.9%, 광동성이 199억 위안으로 5.5%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총매출액 분포는 운남성이 758억 위안으로 17.8%를 차지함으로써 수위를 차지했고, 다음은 강소성이 370억 위안으로 8.7%, 절강성이 302억 위안으로 7.1%, 광동성이 229억 위안, 사천성이 226억 위안, 산동성이 223억 위안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역별 도매액과 수출액 및 소매액 순위는 <표 2-19>를 참고하기 바란다.

지금까지 주요 농산물의 지역별 매매현황을 살펴본 바에 의하면 인구집중 지역인 북경시를 비롯해서 상해시와 강소성, 절강성, 산동성, 광동성 등이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입 및 수출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연말 재고현황에서 발견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이들 주요 농산물의 수급상태는 기본적으로 충족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고 부분적으로 특정 상품의 수급상태가 일시적으로 혹은 계절적으로 불균형 상태가 발생될 수 있는 가능성을 결코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이들 농산물의 수입액과 수출액을 살펴보면 수입에 비해 수출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의 경우는 중국산 각종 농산물이 한국, 일본, 미국, 대만

등지에 대량 수출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매년 그 수량과 수출액이 빠른 속도로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다. 더구나 중국산 농산물은 가격경쟁 면에서 막강한 경쟁 우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은 앞으로 지속될 전망이다.

수입의 경우는 소득증가 및 생활수준 향상에 따른 고급 농산품 수요가 점차 증가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호텔이나 고급식당의 고급 농산품 수요가 또한 계속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증가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즉 수입 수요 증가 요인이 중국산 농산물의 공급부족에 기인된 것이 아니라 고급품 수요증가에 기인되고 있는 점이 특색이다. 따라서 수입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고급 농산물이나 양질의 유기농산물 및 각종 가공식품을 개발한다면 중국시장 진출은 비교적 낙관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 (2) 소비시장과 거래액 현황

국내 상품거래의 주체별 지역별 연도별 현황은 <표 2-20>과 같다. 2000년도 상품거래 법인현황은 도소매업이 2만 5,567개로 87.9%를 차지했으며, 요식업은 3,508개로 12.1%를 차지한 상태이다. 또한 이를 산업활동 단위별로 살펴보면 도소매업이 4만 2,438개로 88.8%를 차지했고, 요식업은 5,363개로 11.2%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들 업종의 종사인원 분포를 살펴보면 도소매업 종사자는 449만 명으로 87.0%를 차지했고, 요식업 종사자는 67만 명으로 13.0%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도 사회소비품 소매총액은 3조 4,153억 위안이며, 이를 소비단위 소재지별로 살펴보면 도시지역이 2조 1,110억 위안으로 61.8%를 차지함으로써 대부분을 소비하고 있으며, 현(縣)지역은 4,217억 위안으로 12.4%, 현 이하 지역은 25.8%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업종별로는 도소매업이 2조 3,042억 위안으로 67.5%를, 요식업이 11.0%를, 기타 업종이 21.5%를 각각 차지한 상태이다. 따라서 중국의 사회소비품은 60% 이상이 주로 도소매업에 의해 거래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도시에서 소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사회소비품과 더불어 주요 농산물 역시 북경, 상해, 천진, 중경 등의 직할시를 비롯하여 인구밀집 지역인 강소성, 절강성, 광둥성, 산둥성 등이 주요 소비지역임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표 2-20> 국내 상품거래 주체별 지역별 현황

항 목	단 위	1996	1997	1998	1999	2000
법인기구						
도소매업	개	592,487	.....	.....	27,115	25,567
요식업	"	48,240	.....	.....	3,266	3,508
산업활동단위						
도소매업	개	.....	.....	.....	42,940	42,438
요식업	"	.....	.....	.....	4,966	5,363
종업원						
도소매업	만명	4,500	.....	.....	492	449
요식업	"	753	.....	.....	66	67
도소매업 거래액						
상품매입총액	억위안	38,550	39,788	24,297	24,581	29,784
상품판매총액	"	42,547	55,169	56,438	58,780	66,360
상품재고총액	"	7,227	7,545	3,790	3,630	3,570
사회소비품 소매총액	"	24,774	27,299	29,153	31,135	34,153
소비단위 소재지별						
시	"	14,951	16,650	17,825	19,092	21,110
현	"	3,280	3,500	3,682	3,893	4,217
현 이하	"	6,543	7,148	7,645	8,151	8,825
업종별						
도소매업	"	16,205	18,108	19,186	20,552	23,042
요식업	"	2,025	2,433	2,816	3,200	3,753
기타 업종	"	6,544	6,757	7,150	7,383	7,358
제조업	"	1,775	1,988	2,038	2,095	2,192
농업생산자	"	3,262	3,745	4,089	4,205	4,036

자료 : 중국시장통계연감(2001), 중국통계출판사(2002. 2), p.553.

주 : "....." 는 해당 통계수치 미상.

전국 소비품 거래액의 연도별 품목별 현황은 <표 2-21>과 같다. 2000년도 전국 소비품시장은 8만 8,811개로 이 가운데 도시시장이 2만 6,395개로 29.7%를 차지했고, 농촌시장은 6만 2,416개로 60.3%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 시장의 거래액 규모는 도시시장이 1조 3,008억 4천만 위안으로 55.8%를 차지했고, 농촌시장은 1조 479억 2천만 위안으로 44.2%를 차지한 상태이다. 따라서 도시와 농촌과의 인구비율을 감안할 때에 도시주민의 소비지출이 농촌주민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것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2000년도 주요 농수산물별 거래구조를 살펴보면 육류와 달걀이 4,201억 9천만 위안으로 거래총액의 17.3%를 차지함으로써 수위를 차지했으며, 다음은 채소류가 2,661억 8천만 위안으로 11.0%를, 수산품이 2,073억 4천만 위안으로

8.5%를, 식량과 식용유가 1,959억 5천만 위안으로 8.1%를, 건조 채소류가 1,546억 2천만 위안으로 6.4%를 각각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21> 전국 소비품시장 거래현황

항 목 별	단위	1985	1990	1998	1999	2000
소비품시장	개	61,337	72,579	89,177	88,576	88,811
도시시장	"	8,013	13,106	24,127	24,983	26,395
농촌시장	"	53,324	59,473	65,050	63,593	62,416
소비품시장 거래액	억위안	632.3	2,168.2	19,835.5	21,707.8	24,279.6
도시시장	"	120.7	837.8	11,042.8	12,325.7	13,800.4
농촌시장	"	511.6	1,330.4	8,792.7	9,382.1	10,479.2
거래액 가운데						
식량과 식용류	"	49.6	146.8	1,464.8	1,591.1	1,959.5
육류와 달걀	"	140.1	618.8	3,557.4	3,802.1	4,201.9
수산물	"	33.2	182.4	165.9	1,800.7	2,073.4
채소류	"	48.8	264.2	220.7	2,425.5	2,661.8
건조 채소류	"	25.5	183.6	1,234.7	1,398.2	1,546.2

자료 : 중국통계연감(2001), 중국통계출판사(2002, 2), p.551.

2000년도 전국 상품교역 시장별 거래액 현황은 <표 2-22>와 같다. 전국의 시장은 9만 5,544개로 이 가운데 소비품시장이 8만 8,811개로 93.0%를 차지했고, 생산자료시장은 6,733개로 7.0%를 차지했으며, 소비품시장은 도시에 31.7%에 해당하는 3만 305개가, 농촌에는 58.3%에 해당하는 6만 5,239개가 개설되고 있는 상태이다. 또한 소비품시장 거래액 3만 1,518억 6천만 위안 가운데 도시에서 61.5%에 해당되는 1조 9,394억 7천만 위안이, 농촌에서 38.5%에 해당되는 1조 2,133억 9천만 위안이 각각 거래된 것으로 나타났다.

관심 대상인 농부산물 시장은 2만 7,445개로 이 가운데 종합시장이 2만 6개이고 전문시장이 7,439개이며, 도시에 1만 511개 농촌에 1만 6,934개가 개설되어 있다. 이들 시장의 거래액은 7,554억 7천만 위안으로 도시시장에서 4,502억 3천만 위안이, 그리고 농촌시장에서 3,052억 4천만 위안이 각각 거래되었고, 시장별로는 종합시장에서 4,611억 6천만 위안이, 전문시장에서 2,943억 1천만 위안이 거래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22> 전국 상품교역 시장별 거래액 현황(2000)

항목별	시장(개)			거래액(억 위안)		
	합계	도시	농촌	합계	도시	농촌
총 계	95,544	30,305	65,239	31,528.6	19,394.7	12,133.9
소비품시장	88,811	26,395	62,416	24,279.6	13,800.3	10,479.3
종합시장	49,146	8,545	40,601	7,357.8	2,982.5	4,375.2
농부산물시장	27,445	10,511	16,934	7,554.7	4,502.3	3,052.4
농부산물 종합시장	20,006	7,767	12,239	4,611.6	2,694.7	1,916.9
농부산물 전문시장	7,439	2,744	4,695	2,943.1	1,807.6	1,135.5
공산품시장	10,179	6,484	3,695	8,728.7	5,941.9	2,786.9
기타	2,041	855	1,186	638.4	373.6	264.8
생산자료시장	6,733	3,910	2,823	7,249.0	5,594.4	1,654.6
생산자료 종합시장	1,171	730	441	1,110.0	903.7	206.3
공업생산 자료시장	4,373	2,505	1,868	5,132.2	3,951.8	1,180.4
농업생산 자료시장	443	158	285	127.1	54.8	72.4
농업생산자료종합시장	204	60	144	68.3	29.5	38.8
농업생산자료전문시장	239	98	141	58.8	25.3	33.6
기타	746	517	229	879.7	684.1	195.5

자료 : 중국시장통계연감(2001), 중국통계출판사(2002, 2), p.373.

끝으로 생산자료시장은 6,733개로 이 가운데 도시에 3,910개 농촌에 2,823개가 개설되어 있다. 이들 생산자료시장의 거래액은 7,249억 위안으로 도시시장에서 5,594억 4천만 위안이, 그리고 농촌시장에서 1,654억 6천만 위안이 각각 거래되었고, 시장별로는 생산자료 종합시장에서 1,110억 위안이, 공업생산 자료시장에서 5,132억 2천만 위안이, 농업생산 자료시장에서 127억 1천만 위안이, 기타 시장에서 879억 7천만 위안이 각각 거래된 것으로 나타났다.

#### 4. 농수축산물 시장현황과 유통체제

##### (1) 주요 지역별 시장현황과 유통경로

2000년도 주요 지역별 소비품시장과 생산자료시장의 현황은 <표 2-23>과 같다. 소비품시장 8만 8,811개 가운데 산동성이 9,109개로 10.3%를 차지함으로써 수위를 차지했으며, 다음은 사천성이 7,494개로 8.4%를, 광둥성이 5,622개로 6.3%를 강소성이 5,548개로 6.3%를, 하북성이 4,452개로 5.0% 순으로 개설되

어 있다.

<표 2-23> 주요 지역별 시장현황(2000)

지역별	소비품시장				생산자료시장			
	시장 (개)	비율 (%)	거래액 (억위안)	비율 (%)	시장 (개)	비율 (%)	거래액 (억위안)	비율 (%)
전국총계	88,811	100.0	24,280	100.0	6,735	100.0	7,261	100.0
북경	1,061	1.2	314	1.3	128	1.9	267	3.7
천진	595	0.7	337	1.4	105	1.6	14	0.2
상해	1,430	1.6	404	1.7	166	2.5	845	11.6
중경	2,332	2.6	494	2.0	51	0.8	331	4.6
하북성	4,452	5.0	1,657	6.8	502	7.5	367	5.1
요녕성	2,920	3.3	1,316	5.4	304	4.5	430	5.9
산둥성	9,109	10.3	2,575	4.6	620	9.2	830	11.4
강소성	5,548	6.3	2,979	12.3	720	10.7	1,088	15.0
절강성	3,787	4.3	3,013	12.4	561	8.3	1,010	13.9
광둥성	5,622	6.3	1,917	7.9	299	4.4	308	4.2
사천성	7,494	8.4	1,298	5.4	479	7.1	289	4.0
운남성	3,833	4.3	277	1.1	148	2.2	47	0.7

자료 : 중국시장통계연감(2001), 중국통계출판사(2002, 2), p.3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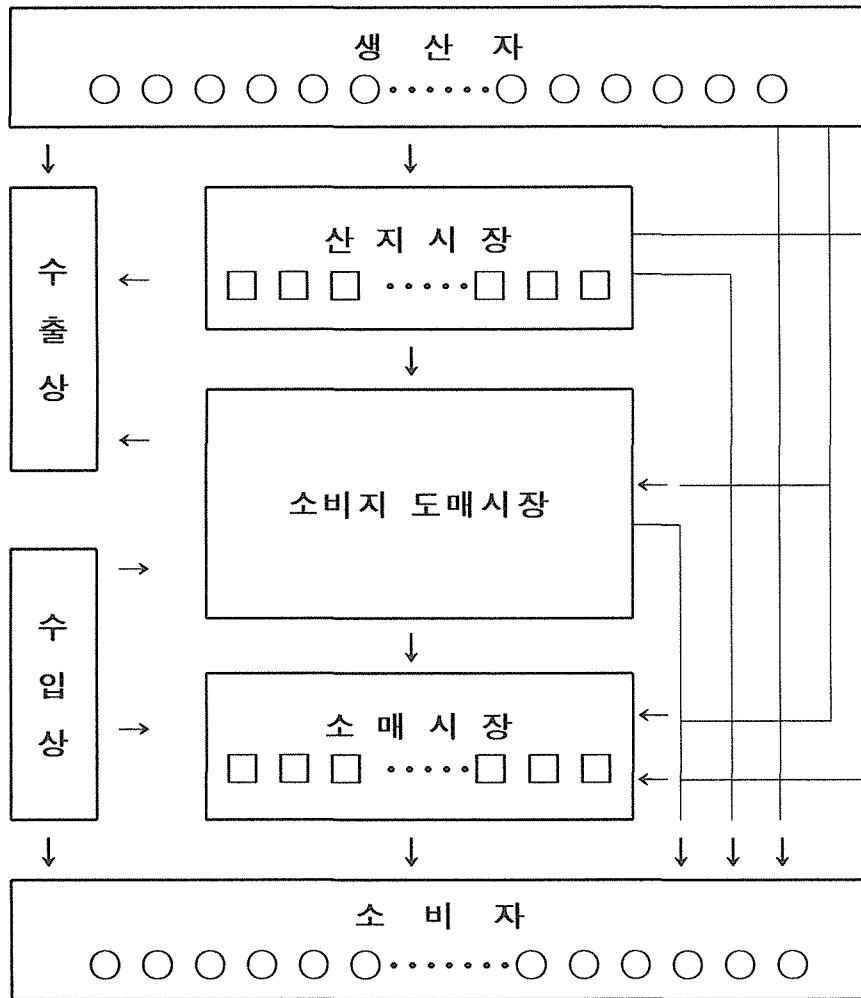
지역별 거래액 비율은 절강성이 3,013억 위안으로 수위를 차지했으며, 다음은 강소성이 2,979억 위안으로 12.3%를, 광둥성이 1,017억 위안으로 7.9%를, 하북성이 1,657억 위안으로 6.8%를, 요녕성이 1,316억 위안으로 5.4%를, 사천성이 1,298억 위안으로 5.4%를, 산둥성이 2,575억 위안으로 4.6% 순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생산자료시장의 지역별 상세한 현황은 <표 2-23>을 참고하기 바란다.

이상과 같은 분석결과에 의하면 소비품시장과 생산자료시장이 인구밀도가 높은 연해지역과 북경, 상해, 천진, 중경 등 4개 직할시에 비교적 집중되어 있는 상태이며, 거래액 역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가 있다. 따라서 식량작물을 제외한 각종 농산물은 이들 지역의 시장과 고소득층 소비자를 상대로 적극적인 판촉활동을 꾸준히 전개한다면 기대에 부응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중국의 농산물 판매경로 및 유통체제는 개혁개방과 더불어 급속히 변화되기 시작했다. 주요 식량작물과 각종 부식품 및 육류의 계획생산 및 정부수매와 배급제도가 점차 완화 내지는 폐지되는 가운데 생산자가 시장수요 및 판매

가격에 따라 생산품종을 선택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따라서 기존의 판매경로 및 유통체제는 자유경쟁체제로 새로운 변신이 촉진되는 가운데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완전히 갖추게 되었다.

<그림 2-1> 농산물 유통체제와 경로



현재 중국의 농산물시장 유통체제는 일반적으로 생산자→산지시장→소비지 도매시장→소매시장→소비자 등의 경로를 거쳐 유통되고 있는 상태이다. 그러나 품목이나 판매여건 및 판매가격과 소비자 선택에 따라 일부 수량은 ①생산자→소비지 도매시장→소매시장→소비자 경로를, ②생산자→소매시장→소비자 경로를, ③생산자→소비자 경로를, ④생산자→산지시장→소매시장→소비자 경로를,

⑤생산자→산지시장→소비자 경로를, ⑥생산자→소비지 도매시장→소비자 등의 경로를 통하여 판매되고 있는 상태이다.

또한 수입 농산물의 유통체제는 일반적으로 수입상→도매상→소매상→소비자 등의 경로를 거쳐 유통되고 있는 상태이다. 그러나 품목이나 판매여건 및 판매가격과 소비자 선택에 따라 일부 수량은 ①수입상→소매상→소비자 경로를, ②수입상 겸 도매상→소매상→소비자 등의 경로를 통하여 판매되고 있는 상태이다. 따라서 현재 중국의 수입 농산물 시장상황과 유통체제는 선진국과 크게 다를 바가 없는 시장구조를 갖추고 있는 상태이다.

따라서 도시주민들의 농수축산물 구매는 소비자의 소득수준과 품질 및 가격에 따라 고급 백화점, 백화상점, 전문판매점, 도소매점, 슈퍼마켓, 상점 등에서 행해지고 있는 상태이다. 그러므로 양질의 농산물이나 수입 농산물 소비를 선호하는 소비자는 판매가격에 구애되지 않고 고급 백화점이나 슈퍼마켓을 찾게 되는 경향이 높으며, 일반 서민들은 주로 가격에 따라 구매처를 결정하게 되는 경향이 높은 상태이다.

그리고 현재 중국의 전역에는 서민들의 농수축산물 구매편의를 위해 재래시장 형태인 집시(集市), 농무시장(農貿市場), 채시장(菜市場) 등이 주택가 부근의 공터나 도로변에서 1일 2회 개설되고 있는 상태이다. 개장시간은 아침 일찍부터 시작해서 오전 8시경까지, 그리고 오후에는 퇴근시간인 5시를 전후해 시작해서 해가 질 때까지 거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도시근교 일부 농민들은 각자 생산한 농수축산물 일부를 소비자와 직거래할 수 있는 기회와 여건이 잘 갖추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크고 작은 규모의 시장이 매우 활성화되고 있는 상태이다. 특히 이러한 시장형태는 오직 중국에서만 볼 수 있는 중국 특색의 농수축산물 거래시장인 것이다.

한편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되는 농수축산물 물동량과 양질의 농수축산물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북경, 상해, 천진, 중경 등의 대도시는 물론이고 중소도시 에까지 농수축산물 판매조직인 다양한 전문회사가 설립된 상태에서 매입, 운송, 보관, 도매 등의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상태이다. 특히 북경시에는 서울의 가락동 도매시장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대규모 도매시장이 건립되어 운영되고 있는 상태이며, 이러한 형태의 도매시장 건립은 전국의 대도시에 점차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

그리고 소매를 전문으로 하는 외국계 대형 고급 백화점과 대형 슈퍼마켓 및 쇼핑센터 등은 중국산 양질의 농산물은 물론이고 각종 수입 농산물을 고소득층 소비자와 외국인 거주자에게 판매하고 있는 상태이다. 북경에 소재하고 있는 대

표적인 백화점은 옌샤(燕莎), 유이상덴(友誼商店), 소고(Sogo), 싸이터(塞特), 신동안(新東安), 화룬(華潤), 화탕(華堂), 까르푸(Carrefour) 등이 있으며, 이들 백화점에서는 양질의 농수축산물과 수입 농산물을 판매하고 있다. 그리고 전국의 대도시와 중소도시에서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와 유사한 거래양상을 보이고 있는 상태이다.

## (2) 유통체제 개혁의 실시과정<sup>4)</sup>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유통체제 개혁이 선행되어야만 비로소 가능한 것이다. 시장경제 체제에 있어서 유통이 중요한 관심 분야로 부각되기 시작하면서 급기야 1983년 정부는 유통체제 개혁을 실시하게 되었다. 우선 유통문제를 담당하는 부서를 단일화시킨 후에 농민들로 하여금 시장에서 야채와 곡물을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그리고 농촌의 말단 유통기구도 독자적으로 상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도시의 유통체제에서도 국가나 집단이 주관하는 상업 이외에 개인이 관리할 수 있는 상업도 인정해 주었다. 특히 소매업은 임대를 통하여 개인경영을 하도록 유도하기 시작했다.

1950년대 중반부터 1980년대 초까지는 중국의 농산물 유통체제는 농산물의 일괄 수매와 판매를 기본으로 하는 정부의 통일가격 하에서 관리되었기 때문에 시장의 가격조절 기능과 유통기능이 마비된 상태였던 것이다. 중국의 농산물 수매 및 판매 제도는 농산물의 행정관리와 상품경영을 담당하는 두 부류의 기관으로 나누어 실시되었다. 행정관리를 담당한 기관은 중국정부가 각급 지방정부에 설립한 상업행정관리 기관이었으며, 상품경영을 담당한 기관은 각급 상업행정기관이 설립한 여러 종류의 전문회사 및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구입기관, 도매기관, 그리고 소매상점 및 상업기관이 경영하는 가공기업 등이 있었다.

중앙정부 산하의 상업기관은 관장하는 업무영역에 따라 국내상업과 대외무역의 부문으로 구별된다. 국내상업 부문에 있어서 농산물 유통에 대한 조정과 관리책임을 맡은 기관은 다음과 같다. 전국단위로는 국무원 소속의 상업부, 식량부(食糧部), 공소협작총사(供銷合作總社)<sup>5)</sup>가 있고, 성급(省級) 단위에는 상업청(국), 식량청(국), 기타 하급 단위에는 상이한 규모의 동일 조직이 설치되어 있었다.

4) 김성훈, 심의섭 편저, 사회주의와 북한의 농업, “중국의 농업개혁(문정구)”, 비봉출판사, (2002. 8), pp.56~59.

5) 약칭 공소사(供銷社)라고도 부른다. 정부지원 하에서 농민 스스로 출자하고 협력해서 조직한 일종의 상업조직인 동시에 농촌 사회주의 상업의 일종이다. 중국 농촌의 대표적인 상품유통 기구이며 농촌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1978년 이전 중국의 농산물 유통체계는 철저한 집중관리와 행정관리에 의한 독점 경영이 수행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따라서 가격기능과 시장기구 기능은 극도로 제한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이러한 유통체계는 농민의 생산의욕을 감퇴시키는 가운데 상품의 정상적인 유통을 저해하는 한편 농업물의 상품화와 품질개선을 방해하게 되었던 것이다.

농업생산자가 생산물을 판매하는 경로는 크게 두 가지로 구별될 수 있다. ①각종 농산물 유통기관 또는 개인기업에 판매하는 것이고, ②자신이 직접 시장에서 판매하는 것이다. 1978년 이전까지 농업생산자는 생산과 판매가 국가에 의해 엄격히 통제되었기 때문에 모든 농산물은 집단생산-일괄판매 형식이 적용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생산청부제가 실시되면서 비로소 농가는 자신의 생산물을 직접 판매할 수 있게 되었다.

1980년대 들어 화학비료, 농약, 농기계, 유류, 농업용 비닐 등의 수요가 급속히 증가되기 시작했다. 영농자재는 주로 상업부의 지도와 감독 하에서 공소합작총사가 공급을 전담하고 있었다. 바로 모든 생산자재의 유통은 제도적으로 정부기관이 독점하도록 되어있다.

농산물 유통체제의 개혁은 두 단계로 진행되었다. 1978년부터 1984년까지의 진행은 1단계 개혁이고, 1985년 이후 진행은 2단계 개혁으로 간주될 수 있다. 제1단계 유통체계 개혁은 농가청부제(農家請負制)<sup>6)</sup>에 부합되는 것으로서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농산물에 대한 수매가격을 대폭 인상하는 한편 수매제도의 개편을 추진한 점이다. 다른 하나는 농산품의 경영체제를 국영상업과 합작상업을 위주로 추진하되, 집체상업(集體商業)<sup>7)</sup>과 개체상업(個體商業)<sup>8)</sup>의 경제주체를 포함한 다양한 경제형식을 채택한 점이다. 그리고 농산품 유통체제의 다양화를 추진하는 동시에 종래의 일괄 수매 및 판매 제도를 타파하는 한편 농산물에 대한 자유시장 개설을 허용한 점이다.

1985년 1월 정부는 제2단계 유통체계 개혁인 농산품의 일괄수매 정책을 개혁했다. 국가가 일괄수매 정책을 개혁하게 된 배경은 우선 기존 체제가 새로운 농업생산 경영체제 도입에 장애요인으로 부각되었기 때문이다. 바로 시장기구의 역할에 역행되는 현행 유통체계는 상품경제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6) 생산책임제인 농업생산책임제(農業生產責任制)의 일종 형식으로 생산작업의 일체를 농가가 책임지고 농업생산에 참여하는 형식이다. 따라서 농가청부제는 형식에 따라 연산승포책임제(聯產承包責任制), 포산도호(包產到戶), 포간도호(包幹到戶) 등의 다양한 생산청부 형식이 있다.

7) 사회주의 공유제 소유 형식인全民所有制, 집체소유제(集體所有制), 개체소유제(個體所有制) 가운데 하나로서 집체소유에 속하는 상업기구를 가리킨다.

8) 사회주의 공유제 소유 형식인全民所有制, 집체소유제(集體所有制), 개체소유제(個體所有制) 가운데 하나로서 개체소유에 속하는 상업기구를 가리킨다.

도시 및 농촌의 경제체제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이 농촌의 유통체제 개혁을 필요로 했기 때문이다.

1985년 실시된 유통체제의 개혁은 다음과 같다. 1985년부터는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는 국가가 농민을 상대로 농산품의 일괄수매와 과건수매를 실행하지 않는 대신에 계약수매와 시장수매로 나누어 실행하기로 했다. 식량과 면화의 일괄수매를 폐지하는 대신에 계약수매로 전환했으며, 식량의 계약수매에 대해서는 30%는 할당가격, 70%는 초과 할당가격으로 수매할 것을 결정했다. 계약수매 이외의 식량과 면화에 대해서는 농민들이 시장에서 자유매매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또한 돼지, 수산물, 야채 등에 대해서는 점차 과건수매를 폐지하는 동시에 품질에 따른 시장가격에 의해 자유롭게 거래가 되도록 조치했다. 이외에도 농촌경제의 전면적인 활성화를 위해 집체소유(集體所有) 산림지구의 목재에 대한 일괄수매를 폐지하고 목재시장을 개방했다. 또한 각종 약재에 대해서는 자연자원 보호를 위해 엄격한 통제가 필요한 일부 품종을 제외한 나머지는 시장에서 매매가 성립되도록 허용했다. 농산품의 상업경영, 가공생산, 소비단위 등도 직접 농민과 수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동시에 농민 역시 자발적으로 수매단위를 찾아 판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sup>9)</sup>

### (3) 식량 유통체제 개혁

21세기 현대화 농업은 바로 시장화 농업인 것이다. 중국은 1978년부터 시작된 개혁개방정책과 더불어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실현하는 데에 전력해 왔었다. 이 과정에서 농업도 생산부문과 유통부문에서 시장경제 실현에 효과적으로 부응할 수 있도록 기존의 계획생산과 계획분배 제도가 획기적으로 개혁되기 시작했다. 따라서 농수축산물 시장은 수요공급에 의해 결정된 시장가격 기능이 원활히 작동되는 가운데 농업생산과 유통판매 활동을 촉진시키게 되었다. 식량 유통체제 개혁은 농업개혁의 핵심과제로서 그 과정과 개혁내용을 살펴보면 대략 아래와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제1단계(1979~1984) :** 1978년부터 실시된 개혁개방정책과 더불어 기존의 전통적 통구통소(統購統銷)<sup>10)</sup> 유통체제가 획기적으로 개혁되기 시작한 시기이다. 개혁개방과 더불어 집단생산제도인 인민공사제도의 단계적 해체에 발맞추어 농

9) 문정구, 중국의 농업구조 개혁과 전망, 중국연구 제20집, 건국대학교, 중국문제연구소(2001. 12), pp. 146~149.

10) 통구통소(統購統銷)는 1953년부터 시작된 농산품의 일괄수매와 일괄판매 방식으로서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기본 농산물 유통체제이다.

산물유통 부문의 개혁이 절실히 요구되었다. 따라서 과거 계획경제 시기의 가장 기본적인 경제체도의 하나인 통구통소체제에 대하여 근본적이고 획기적인 개혁을 아래와 같이 4개 영역으로 구분해서 착수하게 되었다.

①개혁기간에 18종에 달하는 주요 농부산물 수매가격을 평균 24.89%를 인상 조정했다. ②정부의 일괄수매 농산물 수량을 점진적으로 감소해 나아가는 한편, 1984년 말까지 기존의 113종에 달하는 농산물 일괄수매 종류를 38종으로 감소하게 되었다. ③국영산업의 주요 유통통로는 그대로 유지하는 한편 농산품을 원료로 하는 공상기업, 농촌 음식점에 대해서는 계획공급에서 제외시키는 동시에 스스로 농산품을 구매하여 가공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었다. ④집시무역(集市貿易)<sup>11)</sup>을 개방하여 농촌의 집체산업과 개체산업의 발전을 촉진시키는 데에 역점을 두었다.

이상과 같은 일련의 조치는 기존의 식량유통체제 개혁을 획기적으로 개혁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점진적인 식량가격정책의 조정을 통하여 고질적인 통구통소 체제를 근본적으로 개혁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1984년 12월 인민공사제도의 완전한 폐지와 가격조정 및 시장육성 조치는 농촌경제 발전의 원동력이 되어 농업생산의 적극성과 생산의욕을 고취시키는 가운데 개혁초기의 농촌발전을 촉진시키게 되었다.

**제2단계(1985~1991)** : 이 시기는 계약수매와 시장수매가 공존한 시기이다. 인민공사제도(人民公社制度) 폐지와 더불어 다양한 생산 청부제(請負制)가 도입된 상태에서 자유로운 시장거래가 허용됨으로써 일부 농산품의 공급부족 현상이 점차 해소되는 가운데 농촌경제가 급속한 발전을 거듭하게 되었다. 한편 1985년 1월 1일자 국무원이 야심에 찬 농촌경제 정책을 발표한 “關於進一步活躍農村經濟的十項政策”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①과거 통구통소 시기에 일류물자(一類物資)<sup>12)</sup>에 속했던 식량과 면화에 대한 일괄수매 방식을 취소하는 동시에 계약수매 방식을 채택하게 되었다. ②돼지, 수산물, 과일류, 중소도시 유통 채소류 등에 대한 일괄수매를 점차 취소하는 한편 수요공급에 의한 자유로운 시장거래를 허용하는 조치를 취했다. ③연초와 잠사를 제외한 기타 농산물은 품목과 지역에 따라 순차적으로 자유거래를 허용하는 조치를 취했다.

한편 정부는 이상과 같은 유통체제개혁에 부응하는 동시에 원활한 식량수급

11) 집시무역은 자유거래가 허용된 자유시장인 집시(集市)에서의 거래를 지칭한다.

12) 중국의 사회주의는 계획경제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는 주요 상품을 그 중요도에 따라 가장 중요한 상품인 식량, 면화 등은 일류상품(一類商品)으로, 다음은 이류상품(二類商品)으로, 그리고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상품은 삼류상품(三類商品) 등으로 각각 분류해서 관리했다.



과 식량비축을 위하여 1990년 정주(鄭州) 중앙식량 도매시장 건립을 선두로 지방에도 식량도매시장이 건립되어 정부의 식량수급 기능을 수행하게 되었다. 따라서 중국의 농산물 유통체제는 획기적인 개혁을 맞이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농민들의 상품의식이 고취됨으로써 농민수입이 증가되는 가운데 농촌시장 기능이 활성화되기 시작했다.

**제3단계(1992~1993)** : 이 시기는 농산품 유통의 시장화 단계이다. 1985년부터 연속 4년간 지속된 식량생산 차질은 시장수급 불균형을 초래하는 가운데 시장가격 상승을 유발하게 됨으로써 정부의 계약수매 정책을 근본적으로 위협하게 되었다. 그리고 지속적인 시장가격 상승은 계약수매로 인한 재정지출을 증대시키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계약수매 정책을 더 이상 집행해 나아갈 수 없는 기로에 직면하게 되었다.

결국 정부는 1992년 사회주의 시장경제 실현에 부응하기 위하여 획기적인 농산물 유통체제 개혁을 단행하게 되었다. 즉, 1992년 4월 우선 광동성에 대하여 식량가격을 완전히 시장수급에 의해 결정되도록 하는 조치를 취했으며, 결국 1993년 말에는 이를 전국으로 확대 실시하게 되었다. 따라서 농산물 유통체제는 비로소 수요공급에 의해 시장가격이 결정되는 현대적 유통체제를 갖추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각종 농산물의 상품화는 물론이고 시장기능의 활성화가 가능하게 되었던 것이다.

**제4단계(1994~1997)** : 이 시기는 비록 시장화를 목표로 농산물 유통체제 개혁을 추진했으나, 농산물 수요급증에 따른 가격폭등과 무려 50%에 달하는 인민폐 평가절하 영향으로 인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는 미흡했다. 식량을 포함한 농산물의 가격상승은 매점매석(買占賣惜) 행위가 전국적으로 조장되는 가운데 가격상승의 악순환이 계속됨으로써 수급조절과 가격결정이라는 시장기능이 제대로 작동될 수 없는 상태에 직면하게 되었다. 따라서 정부는 부득이 시장개입을 강화하기에 이르는 것이다.

1994년 3월 국무원은 “關於深化食糧購銷體制改革的通知”를 발표함과 동시에 정부는 최소한 9,000만 톤 이상을 수매계약 가격으로 매입하여 식량수급 조절용으로 비축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리고 정부는 식량시장 유통량의 최소한 70~80%를 확보해 두도록 독려하는 동시에 1994년 6월에는 계약가격을 대폭 인상하는 조치를 취했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에 힘입어 식량시장의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 기능이 점차 회복되는 가운데 시장활동 역시 활기를 되찾기 시작했다.

**제5단계(1998~현재)** : 이 시기는 농산물 유통체제의 심화단계이다. 이상과 같이 정부가 식량시장에 직접 개입함으로써 개입 초기에는 안정세를 유지했으

나, 지속되는 물가상승과 관리비용 부담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정지출 및 손실보전이 가중됨으로써 식량수매 자금을 비롯한 관리체제 등이 새로운 문제로 부각되기 시작했다.

따라서 국무원은 1998년 4월 “四分開·完善”의 원칙을 발표하고 현재의 식량 유통체제를 진일보 개선할 것을 천명하게 되었다. 즉, 4가지 분리방안으로서 ① 정부와 기업을 분리하고, ② 비축부문과 영업부문을 분리하고, ③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책임을 분리하고, ④ 신구장부(新舊帳簿)에 나타난 기장항목을 분리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구체적이고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1998년 6월 “三項政策, 一項改革”의 방침을 표명함과 동시에 보호가격으로 농민들의 잉여 식량을 수매하도록 하였다. 또한 식량비축을 전담하는 기업은 시장가격에 따라 수시로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했을 뿐만 아니라 식량수매의 자금운영은 비공개로 집행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식량 유통체제 개혁은 식량 수매와 비축을 전담하는 기업의 손실누적을 개선하는 동시에 과거손실을 충당하는 것이 핵심이다. 따라서 정부가 허가한 국유식량 전담기업이 식량수매시장을 독점함으로써 개인이나 사영기업은 농민으로부터 직접 수매할 수 없게 되었다. 물론 수급불균형에 의한 가격파동과 시장조작은 미연에 방지되는 효과는 있었지만, 식량수매의 국가독점은 식량 유통체제 개혁의 종착역이 아니라 진일보 새로운 개혁의 시발점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 (4) 농축산물과 영농자재 유통체제 개혁<sup>13)</sup>

##### 가) 농축산물 유통개혁

농업개혁 이전 중국의 농산물 유통체제의 특징은 정부의 통일가격에 의한 농산물의 일괄 할당수매와 국영유통 기관에 의한 독점경영이다. 식량을 포함한 약 2백여 종의 농산물과 농산물 구입액의 약 80%가 정부의 통제 하에서 수행되고 있었다. 따라서 농산물 수매와 판매는 정부의 상업행정 산하의 기관과 각급 상업행정 기관이 설립한 전문회사 혹은 동 회사에 소속된 구매기관, 도매기관, 소매상점, 그리고 가공기업 등이 담당해 왔었다.

생산체제 개혁에 이어 1980년대에는 유통체제 개혁이 적극 추진되기 시작했다. 일괄수매와 할당구입 방식이 계약구입과 시장구입 방식으로 전환되었으며, 국가의

13) 김성훈, 심의섭 편저, 앞의 책, pp.59~62.

통일가격 대신에 협의가격과 시장조절 가격이 적용되게 되었다. 그러나 식량과 식물성 유지(油脂)는 여전히 종전 구매방식이 적용되었다. 전통적인 자유시장이 회복되고 초기단계의 도매시장 설립이 허용되었다. 유통조직의 경영방식과 소유구조에 관한 조정이 실시됨으로써 국가 상업망의 일부인 공소합작사가 농민의 유통합작 조직으로 개편되게 되었다.

식량작물 유통체제 개혁을 위한 식량관리 기관은 상업부 산하 기관인 성급(省級) 식량청(지구·시 식량청은 현재 식량국)에서 담당하도록 하였다. 중앙정부는 매년 봄 각급 식량기관에 목표량을 할당한다. 그리고 식량수매는 수매가 실시되면 현급(縣級) 단위의 자유시장은 폐쇄시키고 향(鄉)의 식량수매소가 현(縣) 재정국과 공상은행에서 자금을 조달하여 현금수매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시장가격과 수매가격과의 차이에 따른 수매기피를 차단하기 위해 계약 수매량과 연계하여 화학비료와 농기계용 유류 등을 “3대 연계물자”로 설정하고 저가로 공급하는 유인체제를 운용했다.

따라서 1978년 개혁개방 이전에 있어서 식량작물 배급은 우선 수매된 식량은 산지 및 소비지 식량관리 기관으로 수송되고, 도시 소매자들은 국영 식량소매점으로부터 배급을 받는 상태였다. 이 과정에서 계약수매와 도시배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격차와 유통경비는 중앙정부의 식량관리 재정적자로 보전해 주었다.

## 나) 채소류 유통개혁

1978년 개혁개방 이전에는 도시민을 위한 채소공급 및 유통기관은 국영채소공사이며, 근교 산지와 성외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계획매입을 실시했다. 도시 도매교역소(都賣交易所)는 원근교(遠近郊) 산지의 농가에서 출하되는 물량을 구매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그리고 도시의 대량 수요자와 산지 농가간에 계약재배가 성립되었으며 도시 근교의 생산농가는 직접 자유시장에 출하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었다. 한편 국영채소공사의 공급경로를 제외한 산지의 집단이나 개인 출하업자, 수송업자, 상인, 농가 등도 유통과정에 아무런 제약 없이 참여할 수가 있었다.

따라서 도시주민은 국영 채소상점, 자유시장, 도매교역소 등의 유통경로를 통하여 자유롭게 구입할 수 있었다. 또한 도시의 채소도매 교역소가 생산자, 상인, 소비자간에 직거래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정부는 가격형성 등 채소유통기구로 정착할 것을 모색했으나 여전히 기대에 크게 부응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1978년 개혁개방정책과 더불어 시작된 농촌경제 개혁과 시장경제 도입으로 농산품의 상품화와 시장화가 급속히 촉진됨으로써 농산물 유통체제는 새로운 변

신을 거듭하면서 선진국 유통체제를 구축하게 되었다. 현재 중국의 채소류 유통체제는 매우 다양한 유통경로를 통하여 유통되고 있는 상태이다. 바로 자본주의 시장경제와 유사한 유통경로를 이미 전국적으로 갖추고 산지 집화상, 도매상, 소비지 소매상 등에 의해 유통되고 있는 상태이다.

#### 다) 돈육유통 개혁

돼지고기 유통제도는 양돈단지 건설, 농가 및 개별상인의 도축·판매를 허용하는 자유시장형과 개방형태로 전환되기 시작했다. 대·중도시 돼지고기 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대단위 양돈단지 건설을 추진했으며, 농촌 및 지방 소도시의 돼지공급은 자유시장형과 개방형태로 전환했다. 1985년 비육돈(肥肉豚)에 대한 할당수매가 폐지됨에 따라 배급량을 제외하고는 완전히 시장매매 체제로 전환된 상태이다.

따라서 일반 소비자들은 국영 부식품공사(副食品公司), 대량 수요자, 농가·상인들에 의한 개인판매의 세 가지 경로를 통해 구입할 수 있게 되었다. 국영 부식품공사는 상업부 산하 기관이지만 농업부 소관의 양돈단지, 양돈 전문농가와 계약수매를 통하여 도시에 공급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상태이다. 행정기관, 호텔, 식당 등은 농촌지역으로부터 개별적으로 구입하며, 농가를 포함한 개인이 도축한 물량은 도시의 자유시장에서 자유롭게 매매되는 상태이다.

#### 라) 영농자재 유통개혁

원래 중국의 영농자재 유통체제는 상업부의 지도·감독 하에 공소합작사를 통해 농가에 공급하는 정부독점 체제를 유지했다. 농가의 연간 소비량의 약 90%가 공소합작사를 통해 공급되었으나 점차 공급비중이 감소되기 시작했다. 이는 생산공장, 상업부 산하의 생산자재공사, 화학공업부 산하의 유통조직으로부터 계획량 이외의 비료가 계획 이외 판매가격으로 공급되고 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1980년대 중반 이후에는 영농자재 공급부족과 물가상승으로 유통시장이 혼란에 빠지자 “3대 연계물자” 제도를 시행하는 한편 상업부와 공소합작사 조직에 의한 전매제(專賣制)가 시행되었다.

전매제 실시 이후 영농자재 유통경로는 “3대 연계물자” 공급경로인 쿠폰제(coupon system)가 정착되기 시작했다. 상업부의 식량관리 기관이 농가와 식량수매 계약을 체결하고 공소합작사는 생산자재 경리부에 비료와 유류의 소요량을 통지한

다. 성·지구·시·현 등의 식량청(국)에서는 공급 계획을 수립한 연후에 농가에 쿠폰을 발급해 준다. 각급 공소합작사와 생산자재공사에 통보되며, 이들 기관은 지방정부의 허가를 받아 산하 유통조직을 통해 농가에 영농자재를 공급해 준다.

일반 영농자재는 성(省)·현(縣)의 생산자재공사가 제조업체로부터 영농자재를 독점 구입하여 전매기관인 공소합작사를 통해 농가에 공급하도록 하였다. 지방의 비료공장, 비닐, 농약 등의 계획외 생산물량은 전매기관이 위탁받아 판매토록 하였다. 영농자재 가격은 성정부(省政府) 물가당국이 계획가격과 계획외 가격을 가중평균으로 산출하여 결정하도록 했다. 성정부는 유통가격 통제를 통하여, 그리고 현정부는 최고가격 결정으로 영농자재 유통시장을 각각 관리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유통체제는 정부의 식량수매 방식의 변천과 농민의 영농방식의 자율권 확대와 더불어 점차 폐지되기 시작했으며, 현재는 자유롭게 유통되고 있는 상태이다. 따라서 농기계와 비료 및 농약을 포함한 영농자재 유통체제는 일부 가격제한을 제외하고는 완전히 시장기능에 의해 거래되고 있는 상태이다.

## 제3장 한·중 농산물 교역구조와 정책과제

### 1. 한국의 농림축산물 교역에서 중국의 비중

#### (1) 대중국 수출 비중

한·중 교역은 1988년 서울올림픽을 계기로 하여 괄목할만한 증가를 나타내기 시작하였다. 1990년대에 들어와서 양국 간 무역사무소 개설에 이어 무역협정의 체결과 국교수립으로 두 나라는 정상적 무역관계로 진입하였다. 그러나 그때까지 한국의 대중국 농림축산물의 수출은 수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미미하였다. 그것은 당시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이 산업의 비교우위에 따라 주로 공산품인 반면 대중국 수입은 농수산물이었기 때문이다.

한국무역협회 KOTIS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은 1991년에 10억 달러를 넘어서고 1992년에는 26억 5천 4백만 달러로 급증하였다. 그러나 MTI 1단위를 기준으로 한 1차산품의 대중국 수출액은 1992년에 겨우 1천 6백만 달러에 불과하였다. 그것은 한국의 1차산품에 대한 중국의 수입수요도 작았지만 우리나라 수출업체에서도 중국에 1차산품을 적극적으로 수출한다는 생각을 못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중 수교직후인 1993년에 상황은 조금씩 달라졌다. 우리나라 1차산품의 대중국 수출증가가 비록 공산품의 증가추세에는 크게 못 미쳤지만 전년보다 2.7배 증가한 4천 3백만 달러에 달하였다. 그 가운데서 농림축산물은 2,503만 달러로 우리나라 전체 농림축산물 수출액의 약 2%를 점하였다. 그 후 2001년까지 우리나라 전체 농림축산물 수출의 연평균 증가율은 3%이었지만 대중국 수출은 약 20.3%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이것은 한·중 수교 이후에 우리나라 농림축산물의 대중국 수출이 대체적으로 호조를 보였기 때문이다.

<표 3-1>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3년 이후 2001년까지 우리나라 전체 농산물 수출은 연평균 7.6%가 증가한 가운데서 대중국 수출은 연평균 33.8% 증가하여 2001년 수출액은 6,840만 달러로서 전체 농산물 수출의 5.5%를 차지하게 되었다.

2001년 중국은 우리나라의 2대 수출시장이고 중국 수입시장 점유율이 약 10%인 점에 비하면 우리나라 대중국 농산물 수출비중은 낮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중국 농산물 가격경쟁력의 차이가 큰 상황에서 2001년 대중국 수출액이 1993년에 비해 10배 이상 증가하였다는 것은 한국 농산물의 중국시장 공략이 결코

어려운 일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한다.

<표 3-1> 한국의 농림축산물 수출 중 대중국 수출 비중      단위 : 백만 달러

구분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연평균 증가율 (%)
농 산 물	대중국(A)	6.67	12.19	44.89	26.96	46.59	39.02	37.85	58.96	68.40	33.8
	전 체(B)	694.81	835.66	1,086.62	1,164.09	1,187.86	1,002.20	1,003.42	1,133.49	1,251.87	7.6
	A/B (%)	1.0	1.5	4.1	2.3	3.9	3.9	3.8	5.2	5.5	
임 산 물	대중국(C)	18.23	39.20	49.25	60.28	37.26	35.87	49.53	56.06	37.30	9.4
	전 체(D)	453.56	511.12	504.63	405.21	345.10	292.01	303.82	281.63	230.61	-8.1
	C/D (%)	4.0	7.7	9.8	14.9	10.8	12.3	16.3	19.9	16.2	
축 산 물	대중국(E)	0.13	0.09	1.09	0.67	1.91	2.56	3.09	3.13	3.82	52.6
	전 체(F)	114.82	116.05	155.55	259.97	319.91	388.52	407.76	143.78	117.91	0.3
	E/F (%)	0.1	0.1	0.7	0.3	0.6	0.7	0.8	2.2	3.2	
합 계	대중국(G)	25.03	51.48	95.23	87.91	85.76	77.45	90.47	118.15	109.52	20.3
	전 체(H)	1,263.19	1,462.83	1,746.80	1,829.27	1,852.87	1,682.73	1,715.00	1,558.90	1,600.39	3.0
	G/H (%)	2.0	3.5	5.5	4.8	4.6	4.6	5.3	7.6	6.8	

자료 : <http://www.kati.net>

농산물에 비해 임산물과 축산물은 수출규모가 작기 때문에 그 만큼 수출액의 증감 변동이 심하다. 그렇지만 임산물과 축산물은 다른 나라 시장에 비해 중국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출실적을 보였다.

임산물 수출은 전체적으로는 1993년부터 2001년까지 연평균 8.1%가 감소하는 침체를 보였다. 그러나 대중국 수출은 해마다 증감이 교차되는 변화를 보인 가운데서도 같은 기간 중 연평균 9.4%의 증가를 보였다. 우리나라 임산물 수출액의 대중국 비중은 농산물이나 축산물에 비해 크다. 1996년 이후에 대중국 농림축산물 가운데서 전체 수출에 대한 비중이 10% 이상인 것은 임산물뿐이다. 그 수출액은 1996년에 6,028만 달러에 달한 후에 금융위기로 감소하였다가 1999년부터 회복세를 보여 2000년에 5,606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비록 2000년 대중국 수출액은 1996년 수준에 미달하였지만 전체 임산물 수출액 점유율은 19.9%로 가장 높았다. 2001년에는 대중국 수출감소율이 전체 수출감소율보다 더 컸기 때문에 그 점유율은 16.2%로 낮아졌다.

우리나라 축산물 수출은 많지 않은 데다가 중국에 대한 수출은 특히 적어서 1999

년까지 전체 축산물 수출액의 1%에도 미달하였다. 그러나 1997년부터 2001년까지 5년 간 대중국 수출은 연평균 41.6%의 급신장을 보였으며, 1993년을 기준으로 하면 연평균 증가율은 52.6%에 달한다. 우리나라 축산물 수출은 약세인 반면 대중국 수출은 급증하여 2001년의 대중국 수출비중은 3.2%까지 커졌다.

이와 같이 한·중 수교 이후부터 중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 우리나라 농림축산물 수출시장으로서 긍정적인 면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중국 경제발전의 가속화에 따라 실질적 구매력을 갖는 시장의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나라 농림축산물의 대중국 수출도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 (2) 대중국 수입 비중

우리나라의 대중국 농림축산물의 대부분은 농산물이다. 2001년 우리나라 대중국 농림축산물 가운데 농산물 비중은 69.5%이지만 1993년에 최고 89.7%에 달할 만큼 컸었다. 중국 농산물 수입은 농산물 수입전환효과의 둔화와 중국산 농산물의 급증에 따른 조정관세 부과로 증감이 교차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1993년에 우리나라 전체 농산물 수입 가운데 대중국 수입 비중은 23.4%이었다. 그러나 1995년 그 비중은 7.3% 미만으로 매우 크게 떨어졌다. 그것은 농산물 수입선(輸入線) 전환으로 인해 1995년 대중국 수입액이 전년의 9억 3,268만 달러에서 그 절반을 크게 밑도는 4억 1,254만 달러로 대폭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그 후에 대중국 농산물 수입은 다시 급증하여 1997년 수입액이 1994년 수준을 약간 상회할 정도로 회복되었으나 전체 농산물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4.9%에 그쳤다. 1998년에는 한국의 금융위기로 인하여 전체적인 수입감소와 함께 농산물 수입도 감소하였다. 이 영향으로 대중국 농산물 수입은 1999년까지 감소로 이어졌다.

2000년에 우리나라 대중국 농산물 수입액이 가장 큰 해이다. 그 수입액은 전년 대비 2배 이상 급증하여 사상 최대인 11억 5,204만 달러에 달하였다. 그 결과 우리나라 전체 농산물 수입액에서 중국 농산물이 차지하는 비율은 1994년 후 처음으로 20%대를 회복하여 22.6%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표 3-2>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1년에는 우리나라 농산물 수입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대중국 수입은 다시 감소로 돌아섰고 그에 따라 그 점유율은 15.9%로 낮아졌다.

1993년을 기준으로 하여 2001년까지 우리나라의 농산물 수입은 연평균 4.1%의 증가를 보였으나 대중국 수입은 연평균 0.9%의 감소로 나타났다. 최근 한국의 중국 농산물 수입 감소는 중국산 식품의 유해성과 안전성 시비와도 깊은 연관이 있다. 수입된 중국산 농산물에서 과도한 농약이 검출되고, 못이 든 양송이나 염색된 참깨



등도 발견되었다. 그로 인해 한국 소비자들의 중국 농산물에 대한 불신감이 매우 커지면서 수입이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표 3-2> 한국의 농림축산물 수입 중 대중국 수입 비중                      단위 : 백만 달러

구분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연평균 증가율 (%)	
농 산 물	대중국(A)	906.24	932.68	412.54	531.56	933.49	621.63	551.62	1,152.04	846.09	-0.9
	전 체(B)	3,870.30	4,493.26	5,674.63	6,911.69	6,284.69	4,663.91	4,681.29	5,104.51	5,325.31	4.1
	A/B (%)	23.4	20.8	7.3	7.7	14.9	13.3	11.8	22.6	15.9	
임 산 물	대중국(C)	74.82	112.94	189.49	246.23	298.33	138.86	214.72	282.63	338.50	20.8
	전 체(D)	2,697.72	2,562.81	2,778.13	2,788.00	2,622.39	1,015.64	1,532.86	1,744.14	1,799.23	-4.9
	C/D (%)	2.8	4.4	6.8	8.8	11.4	13.7	14.0	16.2	18.8	
축 산 물	대중국(E)	29.29	37.22	35.21	40.84	47.81	13.84	15.06	23.41	32.26	1.2
	전 체(F)	701.08	932.45	1,224.40	1,240.28	1,324.41	756.02	1,245.25	1,678.76	1,466.50	9.7
	E/F (%)	4.2	4.0	2.9	3.3	3.6	1.9	1.2	1.4	2.2	
합 계	대중국(G)	1,010.35	1,082.84	637.24	818.63	1,279.63	774.33	781.40	1,458.08	1,216.85	2.4
	전 체(H)	7,269.10	7,988.52	9,677.16	10,939.97	10,231.49	6,435.57	7,459.40	8,527.41	8,591.04	2.1
	G/H (%)	13.9	13.6	6.6	7.5	12.5	12.0	10.5	17.1	14.2	

자료 : <http://www.kati.net>

이러한 농산물의 수입감소와 달리 우리나라 대중국 임산물의 수입은 금융위기의 영향을 받은 1998년을 제외하고 꾸준히 증가하였다. 1993년부터 2001년까지 우리나라 전체 임산물 수입이 연평균 4.9% 감소하였지만 대중국 수입은 연평균 20.8%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 임산물 수입액 중 중국산 비중은 1993년에 2.8%에 불과하였으나 2001년에는 10.8%까지 높아졌다.

우리나라 대중국 축산물의 수입은 많지 않다. 1993년과 1994년에는 전체 축산물 수입액 가운데 4% 정도는 중국산이었다. 그러나 그 후 중국산은 미국산이나 호주산에 밀려 수입이 증가하지 못하였다. 1993년을 기준으로 2001년까지 한국의 전체 축산물 수입은 연평균 9.7% 증가하였으나 대중국 수입은 연평균 1.2%에 그쳤다. 그에

따라 2001년 우리나라 대중국 축산물의 수입에서 중국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2.2%에 불과하다.

### (3) 대중국 무역수지

한·중 수교 이후 교역규모가 급증하면서 양국 간에 통상마찰도 크게 늘고 있다. 이는 1993년부터 중국 해관통계(海關統計)에 의한 대한민국 무역수지가 만성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주요 원인이다. 한국의 통계를 기준으로 하면, 1998년이래 대중국 무역흑자는 매년 50억 달러 안팎이지만 중국 통계에 의하면 2000년부터 대한민국 무역적자 규모는 100억 달러가 넘는다.

<표 3-3> 한국의 대중국 농림축산물 무역수지

단위 : 백만 달러

구분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농 산 물	대중국(A)	-899.57	-920.49	-367.65	-504.60	-886.90	-582.60	-513.76	-1,093.08	-777.69
	전 체(B)	-3,175.49	-3,657.60	-4,588.02	-5,747.60	-5,096.83	-3,661.71	-3,677.87	-3,971.02	-4,073.44
	A/B (%)	28.3	25.2	8.0	8.8	17.4	15.9	14.0	27.5	19.1
임 산 물	대중국(C)	-56.60	-73.75	-140.24	-185.95	-261.07	-102.99	-165.20	-226.57	-301.20
	전 체(D)	-2,244.16	-2,051.69	-2,273.51	-2,382.79	-2,277.29	-723.62	-1,229.03	-1,462.52	-1,568.62
	C/D (%)	2.5	3.6	6.2	7.8	11.5	14.2	13.4	15.5	19.2
축 산 물	대중국(E)	-29.16	-37.13	-34.12	-40.17	-45.90	-11.28	-11.97	-20.28	-28.44
	전 체(F)	-586.26	-816.39	-1,068.85	-980.32	-1,004.50	-367.50	-837.48	-1,534.98	-1,348.59
	E/F (%)	5.0	4.6	3.2	4.1	4.6	3.1	1.4	1.3	2.1
합 계	대중국(G)	-985.33	-1,031.37	-542.01	-730.72	-1,193.87	-696.87	-690.93	-1,339.93	-1,107.33
	전 체(H)	-6,005.91	-6,525.68	-7,930.38	-9,110.71	-8,378.62	-4,752.83	-5,744.38	-6,968.52	-6,990.65
	G/H (%)	16.4	15.8	6.8	8.0	14.3	14.7	12.0	19.2	15.8

자료 : <http://www.kati.net>

이러한 차이는 주로 홍콩을 통한 교역 때문이다. 중국의 무역에서 18% 안팎의 수출과 4% 정도의 수입은 홍콩이 차지한다. 한국의 홍콩에 대한 수출은 6% 정도이고 수입은 0.7~0.8%로 중국에 비해 교역규모가 작다. 중국의 대홍콩 수출 비중이 매우 큰 상황에서 수출액은 FOB를 기준으로 하고 수입액은 CIF를 기준으로 하는 세관

통계와 원산지 기준의 통계에 차이가 크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러한 통계상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주룽지(朱鎔基) 국무원총리는 2000년에 방한 시에 무역불균형 해소와 함께 농산물 시장개방을 강력히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표 3-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무역통계에 의한 대중국 농산물 무역뿐만 아니라 농림축산물 무역 전체가 적자를 면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 전체 농림축산물 적자액에서 대중국 무역적자의 비중이 가장 큰 해는 2000년으로 19.2%에 달하였다. 특히 2000년 옥수수 수입의 증가로 인해 대중국 농산물 적자는 한·중 교역사상 가장 큰 10억 9,308만 달러에 달하였다. 이 대중국 농산물 적자는 우리나라 전체 농산물 적자 39억 7,102달러의 27.5%를 차지하는 것이었다. 2001년에는 대중국 수출이 다소나마 증가하고 수입은 비교적 크게 감소하여 대중국 무역적자는 7억 7,769만 달러로 준 반면, 전체 농산물 적자는 증가하였기 때문에 대중국 무역적자의 비중은 19.1%로 줄었다.

여기서 우리나라의 대중국 농산물 무역수지와 중국의 통계에 의한 중국의 우리나라에 대한 농산물의 무역수지를 비교해보면 한·중 무역수지 논쟁의 일단을 알게 된다. 2001년 중국의 우리나라에 대한 농산물의 무역수지 흑자규모는 <표 3-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대중국 농산물 무역수지의 적자의 2배에 달한다. 이러한 차이는 물론 앞에서 설명된 바 있는 이유 때문이다.

<표 3-4> 2001년 중국의 대한민국 농산물 교역구조와 무역수지 단위 : 천 달러

구분	교역액 (%)	수출액 (%)	수입액 (%)	무역수지 (%)
동물산품	676,776 (40.4)	625,426 (40.0)	51,350 (45.2)	574,076 (39.6)
식물산품	659,242 (39.3)	643,895 (41.2)	15,347 (13.5)	628,548 (43.4)
동식물유지	10,041 (0.6)	8,082 (0.5)	1,959 (1.7)	6,123 (0.4)
식품·음료·담배	330,095 (19.7)	285,259 (18.3)	44,836 (39.5)	240,423 (16.9)
합 계	16,76,154 (100.0)	1,562,662 (100.0)	113,492 (100.0)	1,449,170 (100.0)

자료 : 張小濟, “中韓建交後的經貿關係及其發展前景,” 『中韓建交10周年紀念研討會論文集』 2002年 7月 4~5日 北京大學, p. 2에서 인용

이 표는 농산물 무역수지의 크기뿐만 아니라 무역수지에 대한 품목별 기여도를 알 수 있게 해준다. 교역액의 품목별 비중과 무역수지의 품목별 비중을 비교해보면, 동물산품, 동식물유지 및 식품·음료·담배의 교역비중은 각기 무역수지 비중보다 크지만 식물산품은 그 반대이다. 이것은 식물산품의 무역수지 기여도가 상대적으로

큰 것을 말해준다. 말하자면 식물산품에서 한국의 대중국 무역수지가 상대적으로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 대중국 임산물 무역적자는 1998년 외환위기의 영향을 받아 수입이 감소했던 때를 제외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1993년 대중국 임산물 적자는 5,620만 달러로 전체 임산물 무역적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5%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2001년에는 그 적자가 3억 달러를 넘었고 비중도 19.2%로 대폭 커졌다. 이것은 우리나라 전체 임산물 수입은 감소하는 가운데서도 대중국 임산물 수입이 빠르게 증가한 때문이다. 우리나라 임산물의 대중국 수출은 합관에 편중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나마 합관도 2000년에 무역수지 적자로 반전되어 2001년에 2,406만 달러의 적자를 기록하였다.

대중국 축산물 무역적자는 1998년까지는 농산물의 경우와 같은 추세로 변화였다. 그 이유는 농산물과 축산물이 식품이라는 동일한 성격을 가진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중국산 식품에 대한 유해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농산물과 달리 축산물 무역적자의 크기와 비중은 모두 증가하였다. 그것은 중국산 식품의 유해성 문제가 수입이 많지 않은 축산물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은 때문이다.

## 2. 한·중 농림산물 수출품목의 구성과 특징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대중국 농림축산물 무역은 대부분이 농산물과 임산물이 차지한다. 그러므로 축산물을 제외한 농림산물만을 가지고 대중국 수출품의 구성과 특징을 먼저 분석하기로 한다.

### (1) 대중국 주요 농산물 수출품의 구성과 특징

한·중 교역이 본격화된 1994년부터 2002년 10월까지 농수산물유통공사 AG 중분류 기준으로 대중국 수출액이 한 해라도 100만 달러 이상인 농산물은 14개 품목이다. 곡류, 과일류, 채소류, 화훼류, 인삼류, 사료, 당류, 식물성유지, 유지가공품, 커피류, 연초류, 주류, 과자류 및 면류가 그들 품목이다. 이들 품목은 우리나라의 대중국 주요 수출품이라고 할 수 있다.

중분류 품목 가운데서 수입액이 상대적으로 큰 소분류 품목을 뽑아 보면, <표 3-5>에서 괄호 안에 표시된 것들이다. 화훼류에서 소분류는 난초와 양란이 분리되어 있고 난초의 수입액이 양란에 비해 절대적으로 크지만 성격상 통합하여 표시하였다.

<표 3-5> 한국 농산물의 대중국 주요 수출품

단위 : 1,000 달러

품 목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곡 류 (밀)	57 (42)	351 (320)	1,073 (1,011)	1,126 (1,109)	1,018 (995)	1,823 (1,807)	2,828 (2,794)	2,330 (2,307)	1,024 (915)
과 실 류 (단일과실조제품)	3 (2)	392 (10)	570 (222)	2,141 (1,626)	1,191 (378)	1,123 (629)	1,262 (940)	2,253 (1,172)	1,555 (1,052)
채 소 류 (채소종자)	202 (194)	1,132 (851)	1,544 (1,131)	2,052 (1,968)	1,168 (1,132)	1,845 (1,690)	3,831 (2,964)	3,468 (2,242)	4,145 (2,684)
화 껍 류 (난초·양란) (선인장)	0 (-) (-)	1 (-) (1)	176 (-) (151)	9 (-) (7)	234 (123) (80)	2,291 (885) (385)	2,434 (1,664) (466)	2,984 (2,741) (66)	2,983 (1,827) (204)
인 삼 류 (홍삼)	279 (265)	1,986 (1,826)	1,569 (1,283)	262 (88)	282 (109)	1,308 (1,061)	2,555 (2,458)	3,079 (2,497)	1,883 (1,687)
사 료 (배합사료) (사료첨가제)	85 (40) (37)	115 (52) (62)	421 (227) (194)	419 (172) (247)	1,207 (98) (1,094)	802 (136) (648)	749 (343) (403)	511 (231) (58)	656 (215) (41)
당 류 (자당)	7,740 (7,636)	14,959 (14,792)	7,628 (7,458)	16,942 (16,843)	10,348 (10,253)	9,430 (9,159)	12,240 (12,041)	19,947 (19,667)	16,976 (16,793)
식물성유지 (대두유) (옥수수유) (면실유)	58 (-) (-) (-)	17 (13) (-) (-)	205 (10) (37)	331 (2) (70)	2,899 (2,567) (89)	950 (428) (168)	1,186 (550) (165)	727 (233) (169)	1,455 (660) (354) (68)
유지가공품 (쇼트닝)	101 (-)	61 (38)	211 (68)	752 (353)	813 (794)	1,197 (1,170)	2,115 (2,033)	1,943 (1,839)	1,576 (1,568)
커피 류 (커피) (커피조제품)	75 (1) (74)	168 (1) (163)	378 (29) (349)	592 (15) (577)	777 (106) (671)	838 (259) (580)	1,434 (694) (740)	1,364 (571) (793)	8,432 (1,634) (6,798)
연 초 류 (권련) (흡연용담배)	0 (-) (-)	15,845 (217) (15,629)	1,651 (262) (1,389)	599 (583) (8)	216 (176) (40)	329 (291) (37)	422 (401) (2)	1,149 (727) (372)	1,595 (1,588) (6)
주 류 (알콜성합성조제품) (위스키) (맥주)	143 (-) (-) (14)	645 (-) (306) (187)	1,051 (-) (255) (337)	3,755 (2,539) (643) (282)	9,637 (4,712) (4,483) (288)	5,565 (4,019) (1,014) (163)	8,435 (5,263) (1,891) (723)	9,655 (5,855) (2,025) (1,074)	9,392 (3,400) (3,723) (1,067)
과 자 류 (기타베커리제품) (비스킷) (껌)	2,430 (651) (99) (1,402)	5,233 (1,266) (186) (3,302)	6,380 (661) (204) (4,936)	9,849 (565) (246) (8,053)	1,587 (340) (145) (439)	2,357 (554) (1,126) (74)	6,440 (2,529) (1,185) (701)	5,880 (1,939) (1,651) (689)	5,482 (3,018) (465) (1,096)
면 류 (라면)	201 (186)	557 (448)	744 (528)	1,593 (1,103)	2,281 (1,368)	1,621 (1,171)	3,559 (2,229)	4,308 (2,931)	3,840 (2,433)
기타 농산물	817	3,431	3,363	6,170	5,363	6,375	9,474	8,797	14,173
합 계	12,191	44,893	26,964	46,592	39,021	37,854	58,964	68,395	75,167

주 : \* 2002년 1월-10  
 자료 : <http://www.kati.net>

우리나라의 대중국 최대 수출품은 당류로서 1994년에 이미 774만 달러가 수출되었고 2001년과 2002년 10월까지 1,000만 달러 이상이 수출되는 유일한 품목이다. 당류의 소분류 품목으로 자당(蔗糖)이 그 대부분을 차지한다. 1995년에는 흡연용 담배가 1,563만 달러의 수출로 최대 수출품이었으나 담배의 대량 수출은 1995년 한 해에 그치고 말았다. 2001년에 담배류의 수출액은 권련과 흡연용 담배를 합쳐 115만 달러였고 2002년 10월까지의 수출액은 159.5만 달러에 달하고 있다.

과자류도 1997년까지 985만 달러가 수출될 만큼 당류 다음으로 중요한 품목이었다. 그러나 1998년에 수출액이 159만 달러 미만으로 급감한 이래 현재까지도 1997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그것은 1997년에 800만 달러 이상이던 껌의 수출액이 1998년에 급감하여 그 이전의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는 데서 기인한다.

현재 대중국 수출에서 당류 다음으로 중요한 수출품은 주류이다. 1996년에 주류의 수출액은 100만 달러를 넘어선 이후 1998년에 960만 달러를 넘는 급증세를 나타낸 뒤 다소 감소 추세로 돌아섰다가 2001년에 1998년 수준을 회복하였다. 주류의 소분류 품목은 알코올성 합성조제품과 위스키가 주요 품목이다. 2001년에 맥주 수출액이 100만 달러를 넘었고 2002년 10월까지도 꾸준한 증가를 보이고 있다.

위 중분류 14개 품목 중 8개가 2002년 10월까지 이미 2001년 수출규모를 초과하거나 근접하였고 수출 합계액도 2001년 말 수준을 9.9% 초과하였다. 14개 품목에 포함되지 않은 기타 농산물 수출액은 전년 말보다 66.1%나 증가하였는데 이것은 2002년에 들어와서 농산물의 대중국 수출상품의 다양화가 빠르게 진전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우리나라의 대중국 농산물 수출은 <표 3-6>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당류의 비중이 높기는 하지만 대체로 품목별 비중은 고른 편이다. 그러나 거의 모든 품목의 수출증가율은 안정적이지 못하고 급증과 급감을 반복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런 가운데서도 커피류는 1994년 이래 가장 견실한 수출증가를 보여왔고 2002년 10월까지 대중국 주요 수출품 중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다. 이것은 커피류에서 수출비중이 큰 커피 조제품의 증가율이 한 해도 감소하지 않고 증가한 때문이다. 커피 조제품은 2002년 1~10월에 대중국 농산물 수출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인 품목이기도 하다.

우리나라의 대중국 농산물 수출품은 완제품보다는 자당이나 알코올성 합성 조제품 중에서 솔비톨(sorbitol) 같은 식품제조 원료가 큰 비중을 차지한다. 2001년 자당의 수출비중은 약 29%이나 1994년에는 자당 한 품목이 대중국 농산물 수출액의 62.6%를 차지할 정도로 컸다. 알코올성 합성 조제품은 1997년부터 중국에 수출되기 시작하였지만 1998년에 자당 다음으로 중요한 대중국 농산물 수출품이 되었다. 1995년 대중국 최대 수출품이었던 연초류나 1997년까지 자당 다음으로 대중국 수출액이 컸던 껌이 1998년부터 수출이 급감한 것과 대조적이다.

<표 3-6> 한국의 대중국 수출 농산물 중 품목별 비중과 증가율      단위 : %

품 목	비 중 (2001)	전년 대비 수출증가율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곡 류 (밀)	3.4 (3.4)	515.8 (661.9)	205.7 (215.9)	4.9 (9.7)	-9.6 (-10.3)	79.1 (81.6)	55.1 (54.6)	-17.6 (-17.4)	-46.0 (-51.4)
과 실 류 (단일과실조제품)	3.3 (1.7)	1,296.7 (400.0)	45.4 (2120.0)	275.6 (632.4)	-44.4 (-76.8)	-5.7 (66.4)	12.4 (49.4)	78.5 (24.7)	-12.5 (1.0)
채 소 류 (채소종자)	5.1 (3.3)	460.4 (338.7)	36.4 (32.9)	32.9 (74.0)	-43.1 (42.5)	58.0 (49.3)	106.6 (75.4)	-9.5 (-24.4)	59.1 (81.5)
화 훼 류 (난초·양란 (선인장))	4.3 (4.0) (0.1)	- (-) (-)	17,500 (-) (15,000)	-94.9 (-) (-95.4)	2,500 (-) (1,043)	879.1 (619.5) (381.3)	6.2 (88.0) (21.0)	22.6 (64.7) (-85.8)	205.3 (122.5) (451.4)
인 삼 류 (홍삼)	4.5 (3.7)	611.8 (589.1)	-21.0 (-29.7)	-83.3 (-93.1)	7.6 (23.9)	363.8 (873.4)	95.3 (131.7)	20.5 (1.6)	2.0 (-1.0)
사 료 (배합사료 (사료첨가제))	0.7 (0.7) (-)	35.3 (30.0) (67.6)	266.1 (336.5) (212.9)	-0.5 (-24.2) (27.3)	188.1 (-43.0) (342.9)	-33.6 (38.8) (-40.8)	-6.6 (155.2) (-37.8)	-31.7 (-6.4) (-85.6)	64.8 (8.0) (51.9)
당 류 (자당)	29.2 (28.8)	93.3 (93.7)	-49.0 (-49.6)	122.1 (125.8)	-38.9 (-39.1)	8.9 (-10.7)	29.8 (31.5)	63.0 (63.3)	9.9 (10.6)
식물성유지 (대두유) (옥수수유) (면실유)	1.1 (0.9) (0.2) (-)	-70.7 (-) (-) (-)	1105.9 (-23.1) (-) (-)	61.5 (-80.0) (89.2) (397.3)	775.8 (128,250) (27.1) (-72.3)	-67.2 (-86.3) (88.8) (123.5)	24.8 (28.5) (-1.8) (-56.1)	-38.7 (57.6) (2.4) (-46.0)	166.5 (473.9) (147.6) (151.9)
유지가공품 (쇼트닝)	2.8 (2.7)	-39.6 (-)	245.9 (78.9)	256.4 (419.1)	8.1 (124.9)	47.2 (47.4)	76.7 (73.8)	-8.1 (-9.5)	-7.2 (-1.9)
커피 류 (커피) (커피조제품)	2.0 (0.8) (1.2)	124.0 (0.0) (120.3)	125.0 (2,800.0) (114.1)	56.6 (-48.3) (65.3)	31.3 (606.7) (16.3)	7.9 (144.3) (13.6)	71.1 (168.0) (27.6)	4.9 (17.7) (7.2)	700.8 (259.1) (1,036.8)
연 초 류 (권련) (흡연용담배)	1.7 (1.1) (0.5)	- (-) (-)	(-89.6) (20.7) (-91.1)	36.3 (122.5) (-99.4)	-63.9 (-69.8) (400.0)	52.3 (65.3) (-7.5)	28.3 (37.8) (-94.6)	172.3 (81.3) (18,500)	53.5 (151.7) (-98.3)
주 류 (알콜성합성조제품) (위스키) (맥주)	14.1 (8.6) (3.0) (1.2)	351.0 (-) (-) (1,235)	62.9 (-) (-16.7) (80.2)	257.3 (-) (151.2) (-16.3)	156.6 (85.6) (597.2) (2.1)	-42.3 (-14.7) (-77.4) (-43.4)	51.6 (31.0) (86.5) (343.6)	14.5 (11.2) (7.1) (48.5)	13.6 (-33.4) (130.7) (5.4)
과 자 류 (기타베이커리제품) (비스킷) (껍)	8.6 (2.8) (2.4) (1.0)	115.3 (94.5) (87.9) (135.5)	21.9 (-47.8) (9.7) (49.5)	54.4 (14.5) (20.6) (63.1)	-83.9 (-39.8) (-41.1) (-94.5)	48.5 (62.9) (676.6) (-83.1)	173.2 (356.5) ( 5.2) (847.3)	-8.7 (-23.3) (39.3) (-1.7)	16.3 (131.9) (-67.1) (77.1)
면 류 (라면)	6.3 (4.3)	177.1 (140.9)	33.6 (17.9)	114.1 (108.9)	43.2 (24.0)	-28.9 (14.4)	119.6 (90.4)	21.0 (31.5)	-1.0 (-4.7)
기타 농산물	12.9	290.8	1.1	85.6	29.6	-11.3	44.1	-7.1	88.0
합 계	100.0	268.2	-39.9	72.8	-16.2	-3.0	55.8	16.5	40.0

주 : 2002년(1~10월)은 전년 동기 대비  
 자료 : <표 3-5>에서 계산

최근에 대중국 수출이 급증하고 있는 품목은 난초, 선인장을 중심으로 한 화훼류  
 대두유(大豆油)를 비롯한 식물성유지, 커피 조제품, 기타 베이커리(bakery) 제품, 위

스키 등이다. 한국의 대중국 화훼류 수출 품목은 선인장이었으나 최근에 선인장이 수출증가율이 둔화한 대신 1997년까지 대중국 수출이 전무하던 난초가 주요 품목으로 부상하였다.

1998년에 금융위기로 인한 전체적인 수출이 감소하는 가운데서도 대두유의 대중국 수출은 급증하여 대중국 주요 수출품으로서의 강한 면모를 보였다. 대두유와 함께 옥수수유도 대중국 수출품으로서 경쟁력이 커지는 품목이다.

커피 조제품, 기타 베이커리 제품, 위스키 등은 중국의 젊은 소비층을 중심으로 수요가 커지는 품목이다.

우리나라의 대중국 가공식품(라면, 과자류 등), 음료(위스키, 맥주, 커피 등), 기호품(담배) 등의 수출은 순수한 중국의 수요에서 기인한 것은 아니다. 아직까지 식문화나 소득수준의 차이로 중국인의 수요보다 교포, 한국 상사 주재원,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수출이 적지 않다. 이 때문에 한국의 농산물 가공식품의 대중국 수출은 지역적으로 상해와 북경에 편중되어 있다.

한국의 채소, 과일 같은 신선농산물의 대중국 가격경쟁력은 절대 열세로 시장개척이 어렵다. 한국산 채소, 과실의 수출 가격은 중국산의 5~10배 수준이다. 채소류 중 관심 품목인 김치는 2000년도에 24.1만 달러가 수출되었을 뿐이고, 2001년도에 3만 달러, 그리고 2002년도 1~10월에도 3.9만 달러에 그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소류의 대중국 수출증가율은 대체로 높았다. 그것은 주로 채소종자의 수출증가 때문이다. 채소종자는 1993년까지만 하더라도 9만 달러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1994년부터 대중국 수출이 급증하였고 2000년까지 매년 높은 수출증가율을 기록하였다. 2001년 감소 후에 2002년 10월까지 다시 높은 증가율을 회복하였다. 이것은 한국 채소류 품질이 중국보다 우수하다는 것이 확인되면서 한국인에 의한 중국 현지 재배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 (2) 대중국 주요 임산물 수출품의 구성과 특징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액이 한 해라도 100만 달러를 넘었던 임산물은 많지 않다. 식품으로는 견과류(堅果類)에 속하는 밤(栗)뿐이고 대부분은 <표 3-7>에서 보는 것처럼 합판, 단판, 섬유판, 제재목(製材木)과 같은 목재 관련 제품이다. 밤의 대중국 수출액은 1996년에 356.7만 달러였다가 1997년 금융위기와 함께 크게 감소하였다. 1999년부터 다시 증가하기 시작하여 2001년에 300만 달러 수준을 회복하였고 2002년에는 10월까지 676.3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표 3-7> 한국 임산물 of 대중국 주종 수출품목

단위 : 1,000 달러

품 목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견 과 류 (밤)	2,617 (2,565)	1,519 (1,400)	3,567 (3,567)	1,767 (1,767)	792 (544)	1,539 (1,299)	1,878 (1,865)	3,100 (3,090)	6,778 (6,763)
합 판	35,614	43,204	51,209	26,561	27,043	39,685	40,405	20,280	10,090
단 판	24	24	258	140	299	37	1,693	2,272	355
섬 유 판	39	491	580	1,317	3,849	3,851	6,792	4,230	2,362
제 재 목	159	585	482	233	528	530	1,457	3,218	2,712
기타 목재	606	1,825	3,354	5,721	2,325	2,296	1,617	1,053	2,318
기타 임산물	137	1,605	826	1,518	1,031	1,590	2,175	3,147	1,156
합 계	39,196	49,253	60,276	37,257	35,867	49,526	56,062	37,300	26,390

주 : \* 2002년 1월~10월 누계  
 자료 : <http://www.kati.net>

우리나라 대중국 최대 임산물 수출품은 합판이다. 1996년에 5,121만 달러가 수출된 뒤 에 아직까지 그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으나 2001년까지 매년 수출액은 2,000만 달러 를 넘는다. 섬유판은 1997년부터, 그리고 단판과 제재목은 2000년부터 각각 대중국 수출 액이 100만 달러를 넘었다. 기타 목재를 제외하고 2002년에 임산물의 대중국 수출은 대 체로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표 3-8> 한국의 대중국 수출 임산물 중 품목별 비중과 증가율 단위 : %

품 목	비 중 (2001)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견 과 류 (밤)	8.3 (8.3)	-42.0 (-45.4)	134.8 (154.8)	-50.5 (-50.5)	-55.2 (-69.2)	94.3 (138.8)	22.0 (43.6)	65.1 (65.7)	156.3 (156.7)
합 판	54.4	21.3	134.8	48.1	1.8	46.7	1.8	49.8	-50.0
단 판	6.1	0.0	975.0	45.7	113.6	-87.6	4,575.7	34.2	-78.8
섬 유 판	11.3	1,159.0	18.1	127.1	192.3	0.1	76.4	-37.7	-32.4
제 재 목	8.6	267.9	17.6	51.7	126.6	0.4	174.9	120.9	18.7
기타 목재	2.8	201.2	83.8	70.6	-59.4	-1.2	-29.6	-34.9	147.1
기타 임산물	8.4	1,071.5	48.5	83.8	-32.1	54.2	36.8	44.7	-77.2
합 계	100.0	25.7	22.4	-38.2	-3.7	38.1	13.2	33.5	-22.2

주 : \* 2002년 1월~10월 전년 동기 대비  
 자료 : <표 3-7>로부터 계산

우리나라 임산물 수출에서 합판이 차지하는 비중은 <표 3-8>에서 보듯이 절대적으로 크다. 2001년에도 합판의 대중국 임산물 수출비중은 54.4%에 달하였다. 1995년부터 2001년까지 대중국 수출에서 합판은 증가세를 유지하였지만 2002년에는 대폭적인 감소를 보이고 있다.

기타 목재는 1998년부터 2001년까지 계속 대중국 수출이 감소하였으나 2002년 10월까지 전년동기 대비 147.1%의 큰 증가로 이미 2001년의 수출액의 2배를 넘었다. 2002년에 밤의 대중국 수출액도 10월까지 전년 동기 대비 156.7%의 대폭적으로 증가하여 전년도 수출액의 2배를 크게 상회하였다.

### 3. 한·중 농림산물 수입품목의 구성과 특징

#### (1) 대중국 주요 농산물 수입품목의 구성과 특징

우리나라 농림산물의 대중국 수입은 수출에 비해 규모가 크다. 따라서 주요 품목별 수입액도 커진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AG 중분류를 기준으로 하여 한 해라도 수입액의 규모가 1,000만 달러를 넘는 품목을 주요 수입품으로 선정하였다. 그것은 곡류, 두류(豆類), 채유종실, 과일류, 채소류, 버섯류, 한약재, 사료, 박류(粕類), 식물성 유지, 소오스류, 주류, 과자류, 면류 등 14개 품목이다. 그리고 중분류 가운데서 상대적으로 수입비중이 큰 소분류 품목을 추가하였다.

<표 3-9> 한국의 중국산 수입 옥수수의 용도별 비율 단위 : %

구 분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사료용	79.7	100.0	99.1	98.4	91.9	91.6
종자용	7.4	-	-	-	-	-
종자·사료용 제외	12.9	-	0.9	1.6	8.1	8.4

자료 : <http://www.kati.net> 및 송유철·박지현, “한·중 농산물 무역마찰과 대응방안,” KIEP, 『오늘의 세계경제』 제2002-23호에서 계산.

우리나라 대중국 농산물 수입에서 규모가 가장 큰 중분류 품목은 곡물이다. 곡물 수입규모가 큰 것은 대량 수입되는 옥수수 때문이다. 옥수수의 대중국 수입액은 1994년과 1997년에 각각 4억 8,598만 달러와 4억 7,915만 달러에 달하였고 2000년에

는 6억 5,993만 달러로 가장 큰 규모였다. 2001년에는 2000년의 절반 수준 이하로 옥수수의 수입이 감소하였지만 2002년 10월까지 2001년 수입보다 약 1.6배에 달하는 4억 6,700만 달러가 이미 수입되었다. 중국산 수입 옥수수는 <표 3-9>에 보인 바와 같이 대부분 사료용이다.

중분류에서 곡물 다음으로 대중국 수입이 큰 품목은 채소류이다. 중국산 수입 옥수수 가운데서 사료용을 제외하면 2001년 대중국 최대 수입품은 채소류가 된다. 즉, 이 경우 곡물류 수입액은 8,768만 달러인데 비해 채소류는 9,204만 달러이다. 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채소류 가운데서 마늘과 고추의 수입액이 상대적으로 크지만 이 두 품목보다 수입액이 큰 소분류 품목은 적지 않다.

채소류 소분류 품목으로 수입액이 가장 컸던 것은 1994년 마늘(3,052만 달러)이었다. 그 해에 옥수수 외에 대두박(7,269만 달러)과 참깨(4,386만 달러)는 마늘 수입액보다 훨씬 컸고 에틸알코올도 3,000만 달러가 넘는 수입품이었다. 1995~1996년에 마늘 수입액이 감소하고 고추 수입액이 1,000만 달러 이상이 되는 채소류의 주종 수입품이 되었다. 그 후부터 마늘과 고추 외에 파, 생강, 당근 및 토마토의 수입액도 커졌다.

<표 3-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1년에 대중국 수입액이 1,000만 달러를 넘는 소분류 품목은 옥수수, 쌀, 팥, 대두, 땅콩, 참깨, 마늘, 고추, 기타 한약재, 채종·콜자씨박, 설탕박, 혼합조미료, 에틸알코올, 비스킷 및 당면이다. 이 가운데서 옥수수 수입액은 2002년 1~10월에 이미 전년도 수입액 규모에 육박하는 4억 6,707만 달러에 달하였다.

1994~1995년에 옥수수 다음으로 수입액이 컸던 대두박은 2002년 1~10월에 전년 수입액의 7.6배인 2,550만 달러가 수입되었다. 이 기간에 대두박, 기타 한약재 및 당면의 수입액은 2,000만 달러를 넘거나 그에 육박하였다. 그리고 대두, 땅콩, 참깨, 고추, 설탕박, 혼합조미료 및 비스킷의 수입액은 1,000만 달러를 초과하였다. 이밖에 수출규모는 크지 않지만 들깨, 사과, 토마토, 양송이, 사료용 근채류, 동유, 캔디/설탕과자 등은 2002년 10월에 전년도 수입액을 초과한 품목들이다.

우리나라 대중국 농산물 수입은 곡류에 편중되어 있다. 2001년 전체 수입액의 42.7%가 곡물이고 그 가운데서 35.3%는 옥수수이다. 이러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옥수수의 수입에 따라 곡물류 수입증가율이 좌우된다. 옥수수의 수입은 1997년 급증 후 감소하다가 2000년 이후에 비교적 큰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표 3-10> 한국 농산물의 대중국 주종 수입품목

단위 : 1,000 달러

품 목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곡 류 (옥수수) (쌀)	504,743 (485,981) (-)	14,246 (4,144) (-)	50,851 (12,193) (31,591)	497,201 (479,151) (10,139)	359,804 (337,206) (16,049)	191,559 (135,624) (49,097)	703,203 (659,926) (37,014)	361,453 (298,960) (18,337)	526,626 (467,070) (-)
두 류 (팥) (대두)	28,465 (18,177) (3,503)	11,257 (8,285) (154)	16,324 (10,299) (986)	11,009 (7,910) (724)	10,602 (6,229) (3,017)	19,129 (8,266) (8,461)	25,195 (12,481) (9,701)	28,226 (12,669) (12,484)	24,056 (6,352) (14,664)
채유종실 (땅콩) (참깨) (들깨)	65,259 (9,757) (43,860) (7,682)	62,220 (7,371) (44,015) (9,690)	87,756 (14,026) (59,830) (11,464)	45,316 (22,940) (10,950) (9,810)	27,582 (14,886) (5,750) (6,100)	66,860 (21,281) (36,528) (6,276)	53,351 (20,980) (25,970) (4,788)	39,450 (18,886) (16,088) (1,252)	41,152 (16,078) (17,625) (5,041)
과 실 류 (복숭아) (사과) (배)	8,348 (1,279) (-) (10)	22,148 (5,185) (187) (36)	34,324 (6,551) (3,320) (653)	34,190 (4,506) (1,486) (9,354)	9,357 (1,920) (110) (2,518)	11,251 (1,166) (468) (172)	19,694 (1,472) (488) (461)	24,187 (2,310) (717) (92)	23,817 (1,868) (800) (33)
채 소 류 (마늘) (고추) (파) (생강) (당근) (토마토)	63,182 (30,517) (607) (3,608) (1,412) (803) (3,437)	49,623 (7,800) (12,639) (4,692) (1,306) (1,294) (4,439)	64,735 (8,845) (19,449) (3,917) (903) (1,921) (5,714)	65,853 (11,618) (8,551) (5,891) (3,559) (2,633) (4,572)	60,609 (15,435) (13,767) (4,881) (1,029) (1,697) (2,708)	72,086 (15,294) (10,511) (4,458) (417) (1,577) (4,959)	77,403 (9,106) (10,367) (4,820) (1,790) (3,067) (3,431)	92,041 (15,514) (13,960) (6,108) (5,404) (4,803) (4,328)	69,392 (6,819) (10,501) (4,851) (4,162) (4,513) (4,969)
버 섯 류 (양송이) (영지버섯)	7,815 (1,789) (1,762)	10,066 (4,071) (445)	9,282 (4,546) (650)	10,005 (3,383) (2,542)	4,940 (1,637) (731)	8,344 (4,827) (376)	8,707 (5,003) (730)	7,613 (3,616) (1,161)	8,211 (5,856) (616)
한 약 제 (기타한약제) (감초) (계피)	31,010 (20,415) (3,544) (2,836)	47,516 (30,981) (5,960) (3,688)	64,324 (48,317) (5,620) (4,509)	64,216 (51,801) (5,557) (2,527)	29,266 (20,947) (4,070) (1,920)	36,544 (26,337) (5,068) (2,122)	47,748 (35,891) (5,181) (1,470)	37,021 (28,654) (3,651) (1,180)	27,834 (21,005) (3,159) (1,099)
사 료 (사료첨가제) (사료용근채류)	2,983 (692) (9)	3,474 (1,633) (195)	5,511 (1,981) (512)	9,616 (2,571) (3,576)	6,241 (2,238) (1,444)	9,233 (2,952) (2,769)	10,209 (3,118) (2,766)	12,453 (5,603) (109)	13,885 (4,958) (409)
박 류 (대두박) (채종,콜자씨박) (설탕박)	130,234 (72,690) (5,855) (3,129)	100,887 (69,201) (657) (3,621)	106,296 (1,019) (17,004) (10,576)	76,746 (468) (7,373) (8,873)	28,146 (1,933) (261) (13,948)	44,867 (581) (15,953) (17,592)	65,341 (2,798) (33,174) (9,320)	65,722 (3,343) (27,621) (15,263)	68,207 (25,503) (5,948) (15,027)
식품성유지 (동유)	5,009 (4,424)	7,897 (7,318)	5,356 (4,695)	11,933 (10,524)	4,025 (3,582)	3,802 (3,636)	4,117 (3,838)	3,219 (2,178)	5,997 (4,149)
소오스류 (혼합조미료)	3,913 (359)	8,133 (799)	16,396 (5,246)	18,912 (7,762)	14,585 (9,003)	21,128 (10,490)	28,747 (11,469)	36,591 (14,438)	34,301 (13,082)
주 류 (에틸알코올) (고량주)	33,207 (30,253) (1,913)	8,298 (6,221) (1,292)	2,376 (-) (1,540)	10,807 (8,701) (1,195)	16,447 (15,336) (441)	2,463 (-) (272)	15,758 (12,662) (725)	24,230 (20,605) (1,001)	7,962 (5,388) (820)
과 자 류 (비스킷) (곡류조제품) (캔디/설탕과자)	2,105 (33) (888) (657)	988 (32) (99) (700)	2,568 (-) (453) (1,776)	6,831 (1,221) (3,148) (1,948)	5,006 (888) (1,508) (2,244)	5,896 (223) (1,715) (3,549)	15,903 (5,927) (2,896) (5,876)	24,521 (10,928) (2,933) (8,316)	23,768 (10,606) (2,249) (9,240)
면 류 (당면)	12,716 (11,927)	18,415 (16,798)	20,373 (18,482)	23,596 (21,345)	18,921 (17,774)	20,984 (19,708)	21,481 (19,618)	23,839 (20,554)	24,102 (19,031)
기 타	33,691	47,376	45,086	47,257	26,094	37,472	55,182	65,523	57,246
합 계	932,680	412,544	531,558	933,490	621,625	551,618	1,152,039	846,089	956,556

주 : \* 2002년 1월~10월 누계  
 자료 : <http://www.kati.net>

2002년 10월까지 쌀의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옥수수의 수입증가율은 <표 3-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년동기 대비 68.9%에 달하였는데 이것은 주로 하반기에 수입된 것이다. 곡물류 수입증가율은 주로 옥수수의 수입에 의해 결정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대중국 농산물 수입에서 곡류 다음으로 두 자리 비중(2001년 : 10.9%)을 차지하는 품목은 채소류 뿐이다. 그러나 채소류의 수입 품목이 비교적 다양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중요한 마늘과 고추의 대중국 농산물 점유율은 2% 미만이다. 2000~2001년에 생강과 당근의 수입이 비교적 크게 증가하였으나 2002년에 들어와서는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버섯류의 대중국 농산물 수입비중은 2001년에 1% 미만으로 낮다. 그렇지만 채소류와 유사한 성격을 지닌 양송이의 수입증가율은 연도에 따라 급증 양상을 보였으며 2002년에도 증가율이 높은 편이다.

두류의 수입품목으로서 종전에 비중이 컸던 팥의 증가율이 둔화한 대신 최근에 대두의 수입이 두드러지게 증가하였다. 특히 1998~1999년에 중국으로부터 대두의 수입이 급증하여 2001년에 농산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팥과 같게 되었다. 2002년 10월말까지 팥의 수입증가율은 크게 감소한 반면에 대두는 전년동기 대비 50% 가까이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2002년에는 대중국 두류 수입에서 대두의 비중이 가장 커질 전망이다.

2000~2001년 박류의 대중국 농산물 수입비중은 채종·콜자씨박이 가장 크지만 1995년까지는 대두박의 비중이 가장 컸으며 1997~1999년에는 설탕박이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그런데 2002년 1~10월에는 대두박의 수입이 전년동기 대비 10배 이상 급증하여 가변성이 매우 큰 박류의 국내 수요의 변화를 잘 보여주고 있다.

대중국 수입 채유종실은 땅콩과 참깨의 비중이 크다. 1996년까지는 참깨의 수입비중이 월등히 컸으나 1998년에는 땅콩의 비중이 더 커졌고 1999년에는 다시 참깨의 비중이 땅콩의 비중을 압도하였다. 그러다가 최근에는 두 품목이 거의 비슷한 비중을 유지하고 있다. 2000~2001년에 모든 채유종실의 대중국 수입이 감소하였다가 2002년에 들어와서 모두 증가세로 돌아섰다. 그 가운데서 들깨의 수입이 급증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중국의 과일류는 우리나라에서 경쟁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중국산 과일 중에서 복숭아 외에 다른 과일 수입은 시도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처음 1~2년 간 수입증가율이 급증하다가 감소로 돌아서는 것이 보통이다. 가장 큰 급증세를 보였던 배는 2002년에도 다른 품목에 비해 수입감소율이 크다.

<표 3-11> 한국의 대중국 수입 농산물 중 품목별 비중과 증가율 단위 : %

품 목	비 중 (2001)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곡 류 (옥수수) (쌀)	42.7 (35.3) (2.2)	-97.2 (-99.1) (-)	256.9 (194.2) (-)	877.8 (3,977.3) (-67.9)	-27.6 (-29.6) (58.3)	-46.8 (-59.8) (205.9)	267.1 (386.6) (-24.6)	-48.6 (-54.7) (50.5)	68.1 (68.9) (-)
두 류 (팥) (대두)	3.3 (1.5) (1.5)	-60.5 (-54.4) (-95.6)	45.0 (24.3) (540.3)	-32.6 (-23.2) (-26.6)	-3.7 (-21.3) (316.7)	80.4 (32.7) (180.4)	31.7 (51.0) (14.7)	12.0 (1.5) (28.7)	16.7 (-28.5) (56.8)
채유종실 (땅콩) (참깨) (들깨)	4.7 (2.2) (1.9) (0.1)	-4.7 (-25.0) (0.4) (26.1)	41.0 (90.3) (35.9) (18.3)	-48.4 (63.6) (-81.7) (-14.4)	-39.1 (-35.1) (-47.5) (-37.8)	142.4 (43.0) (535.3) (2.9)	-20.2 (-1.4) (-28.9) (-23.7)	-26.1 (-10.0) (-38.1) (-73.9)	46.4 (15.9) (72.8) (322.5)
과 실 류 (복숭아) (사과) (배)	2.9 (0.3) (0.1) (0.0)	165.3 (305.4) (-) (3,600.0)	55.0 (26.3) (1,675.4) (1,713.9)	-0.4 (-31.2) (-55.2) (1,332.5)	-72.6 (-57.4) (-92.6) (-73.1)	20.2 (-39.3) (325.5) (-93.2)	75.0 (26.2) (4.3) (168.0)	22.8 (56.9) (46.9) (-80.0)	13.0 (-7.3) (18.9) (-64.1)
채 소 류 (마늘) (고추) (파) (생강) (당근) (토마토)	10.9 (1.8) (1.6) (0.7) (0.6) (0.6) (0.5)	-21.5 (-74.4) (1,982.2) (30.0) (-7.5) (60.0) (29.2)	30.5 (13.4) (53.9) (-16.5) (30.9) (48.5) (28.7)	1.7 (31.4) (-56.0) (50.4) (294.1) (37.1) (-20.0)	-8.0 (32.9) (61.0) (-17.1) (-71.4) (-35.5) (-40.8)	18.9 (-0.9) (-23.7) (-8.7) (-59.5) (-7.1) (83.1)	7.4 (-40.5) (-1.4) (8.1) (329.3) (94.5) (-30.8)	18.9 (70.4) (34.7) (26.7) (201.9) (56.6) (26.1)	4.4 (17.6) (8.7) (-10.9) (-15.3) (-1.3) (39.7)
버 섯 류 (양송이) (영지버섯)	0.9 (0.4) (0.1)	28.8 (127.6) (-74.7)	-7.8 (11.7) (46.1)	7.8 (-25.6) (291.1)	-50.6 (-51.6) (-71.2)	68.6 (194.9) (-48.6)	4.4 (3.6) (94.1)	-12.6 (-27.7) (59.0)	36.3 (89.6) (-31.5)
한 약 재 (기타한약재) (감초) (계피)	4.4 (3.4) (0.4) (0.1)	53.2 (51.8) (68.2) (30.0)	35.4 (56.0) (-5.7) (22.3)	-0.2 (7.2) (-1.1) (-44.0)	-54.4 (-59.6) (-26.8) (-24.0)	24.9 (25.7) (24.5) (10.5)	30.7 (36.3) (2.2) (-30.7)	-22.5 (-20.2) (-29.5) (-19.7)	-7.1 (-9.6) (8.9) (12.3)
사 료 (사료첨가제) (사료용근채류)	1.5 (0.7) (0.0)	16.5 (69.8) (2066.7)	58.6 (21.3) (162.6)	74.5 (29.8) (598.4)	-35.1 (-13.0) (-59.6)	47.9 (31.9) (91.8)	10.6 (5.6) (8.3)	22.0 (79.7) (-96.1)	37.4 (11.4) (275.2)
박 류 (대두박) (채종,콜자씨박) (설탕박)	7.8 (0.4) (3.3) (1.8)	-22.5 (-4.8) (-88.8) (15.7)	5.4 (-98.5) (2,488.1) (192.1)	-27.8 (-54.1) (-56.6) (-16.1)	-63.3 (313.0) (-96.5) (57.2)	59.4 (-69.9) (6,012.3) (26.1)	45.6 (381.6) (107.9) (-47.0)	0.6 (19.5) (-16.7) (63.8)	19.2 (1,005.9) (-77.9) (21.1)
식물성유지 (동유)	0.4 (0.3)	57.7 (65.4)	-32.2 (-35.8)	122.8 (124.2)	-66.3 (-66.0)	-5.5 (1.5)	8.3 (5.6)	-21.8 (-43.3)	147.4 (159.0)
소오스류 (혼합조미료)	4.3 (1.7)	107.8 (122.6)	101.6 (556.6)	15.3 (48.0)	-22.9 (16.0)	44.9 (16.5)	36.1 (9.3)	27.3 (25.9)	13.8 (12.9)
주 류 (에틸알코올) (고량주)	2.9 (2.4) (0.1)	-75.0 (-79.4) (-32.5)	-71.4 (-) (19.2)	354.8 (-) (22.4)	52.2 (76.3) (-63.1)	-85.0 (-) (-38.3)	539.8 (-) (166.5)	53.8 (52.7) (38.1)	-65.0 (-72.6) (1.4)
과 자 류 (비스킷) (곡류조제품) (캔디/설탕과자)	2.9 (1.3) (0.3) (1.0)	-53.1 (-3.0) (-88.9) (6.5)	159.9 (-) (357.6) (153.7)	166.0 (-) (594.9) (9.7)	-26.7 (-27.3) (-52.1) (15.2)	17.8 (-74.9) (13.7) (58.2)	169.7 (2,557.8) (68.9) (65.6)	54.2 (84.4) (3.4) (41.5)	17.9 (17.0) (-11.1) (36.4)
면 류 (당면)	2.8 (2.4)	44.8 (40.8)	10.6 (10.0)	15.8 (15.5)	-19.8 (-16.7)	10.9 (10.9)	2.4 (-0.5)	11.0 (4.8)	30.1 (17.5)
기 타	7.7	40.6	-4.8	4.8	-44.8	43.6	47.3	18.7	6.8
합 계	100.0	-55.8	28.8	75.6	-33.4	-11.3	108.8	-26.6	36.5

주 : \* 2002년 1월~10월 전년 동기 대비  
 자료 : <표 3-10>에서 계산

최근 가공농산물의 대중 수입증가율은 비교적 높다. 동유 등 식물성유지 수입은 급증세이고, 캔디/설탕과자류는 30% 이상, 비스킷, 혼합조미료, 당면 등의 수입증가율은 10% 이상이다. 주류는 고량주의 소폭 증가 외에 전체적으로 수입이 감소하고 있다.

## (2) 대중국 주요 임산물 수입품의 구성과 특징

우리나라 대중국 임산물 수입품 가운데서 1994년부터 2002년 10월까지 수입액이 1,000만 달러 이상인 품목은 <표 3-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합판 등 8개이다.

<표 3-12> 한국 임산물의 대중국 주종 수입품목 단위 : 1,000 달러

품 목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합판	11,223	11,473	14,113	33,208	5,101	31,977	41,364	44,335	53,380
단판	304	1,240	3,797	4,677	5,172	5,416	6,559	13,606	17,495
칩·삭편상 목재	22,690	59,937	60,152	57,719	33,081	40,884	39,016	28,008	19,582
제재목	7,729	16,510	25,472	25,309	17,068	26,130	31,179	26,402	21,329
기타 목재	19,076	26,159	35,696	45,599	22,250	28,024	41,367	50,005	60,738
산채류 (고사리)	12,133 (11,588)	16,431 (15,704)	26,129 (21,893)	23,474 (19,489)	11,561 (9,458)	19,395 (16,839)	18,470 (15,889)	17,299 (14,799)	17,392 (15,236)
수지류	11,979	17,647	204	23,262	14,032	14,432	12,708	13,047	13,001
기타 임산물	27,806	40,095	80,664	85,084	30,590	48,463	91,971	145,801	190,023
합 계	112,940	189,492	246,227	298,332	138,855	214,721	282,634	338,503	392,940

주 : \* 2002년 1월~10월 누계  
자료 : <http://www.kati.net>

2002년 10월 현재 중분류 기준으로 기타 목재의 수입액이 6,074만 달러로 가장 크다. 그 다음은 합판으로 5,380만 달러가 수입되었다. 합판은 단일 수입 품목으로는 수입액이 가장 크다. 합판 수입액은 2000년에 기타 목재와 거의 같은 규모였으나 2001년부터 수입규모가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중국산 임산물 식품으로는 산채류가 우리나라에 비교적 많이 수입되고 있다. 그 대부분은 고사리로 1996년에 가장 많은 2,189만 달러의 수입액을 기록하였다. 그 후에 우리나라의 중국산 고사리 수입은 대체로 줄었지만 2001년에 1,480만 달러, 2002년 1~10월에 1,524만 달러 어

치가 수입되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유통되는 고사리는 대부분 중국산이다.

<표 3-13> 한국의 대중국 수입 임산물 중 품목별 비중과 증가율 단위 : %

품 목	비 중 (2001)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합판	13.1	2.2	23.0	135.3	-84.6	526.9	29.4	7.2	45.3
단판	4.0	307.9	206.2	23.2	10.6	4.7	21.1	107.4	62.7
칩·삭편상 목재	8.3	164.2	0.4	-4.0	-42.7	23.6	-4.6	-28.2	-18.3
제재목	7.8	113.6	54.3	-0.6	-32.6	53.1	19.3	-15.3	-1.3
기타 목재	14.8	37.1	36.5	27.7	-51.2	26.0	47.6	20.9	51.4
산채류 (고사리)	5.1 (4.4)	35.4 (35.5)	59.0 (39.4)	-10.2 (-11.0)	-50.7 (-51.5)	67.8 (78.0)	-4.8 (-5.6)	-6.3 (-6.9)	15.6 (16.4)
수지류	3.9	47.3	-98.8	11,302.9	-39.8	2.9	-11.9	2.7	20.3
기타 임산물	4.3	44.2	101.2	5.5	-64.0	58.4	89.8	58.5	74.3
합 계	100.0	67.8	29.9	21.2	-53.5	54.6	31.6	19.8	46.6

주 : \* 2002년 1월~10월 누계  
자료 : <표 3-12>에서 계산

2001년과 2002년(1~10월)에 주요 품목 이외의 기타 임산물의 수입액 규모가 1.9억 달러로 커졌다. 이것은 최근에 우리나라 대중국 임산물 수입품의 다양화가 그만큼 크게 이루어졌음을 나타낸다. 우리나라 대중국 임산물 수출이 합판에 편중되어 있는 것에 비해 수입은 합판과 기타 목재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다. 그러나 주요 수입품의 비중은 <표 3-13>에서 보는 것처럼 큰 차이 없이 고른 편이다. 2001년의 경우에 대중국 임산물 수입액에서 기타 목재의 비중은 14.8%이고 합판은 13.1%이며, 나머지 품목은 4~8% 안팎이다.

1995년 이후 2002년 10월까지 중국산 임산물 가운데서 우리나라의 수입증가율이 가장 크고 일정한 비율로 이루어진 품목은 단판이다. 이 기간에 단판의 수입증가율은 연도별로 고저의 차이는 있었으나 한 해도 감소함이 없다. 1995~2001년 중국산 단판의 연평균 수입증가율은 72.1%로 높았다. 단판 다음으로 기타 목재와 합판이 지속적인 수입증가율을 보였다. 같은 기간 중 연평균 수입증가율은 합판이 21.7%이고 기타 목재는 14.8%이다. 이러한 수입증가율을 기초로 하여 보면 최근에 기타 목재의 수입이 전혀 없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칩·삭편상 목재와 제재목은 우리나라의 대중국 임산물 수입액의 7~8%를 차지하는 품목이다. 칩·삭편상 목재는 1996년에 대중국 수입에서 24.4%의 비중을 차지



하는 최대 임산물 수입품이었다. 그러나 그 후 국내수요의 감소로 증가율이 하락하였고 최근에도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다. 제재목은 2000년까지 증가세가 유지되어 대중국 임산물 수입의 11%까지 차지하였으나 최근에 수입이 감소하고 있다.

고사리를 중심으로 한 중국산 산채류의 수입은 1999년을 제외하고 1997년부터 2001년까지 감소하다가 2002년에 들어와 증가하고 있다. 중국산 산채류의 수입증가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으로부터 수지류의 수입은 1996년에 급감한 뒤에 1997년에 예년의 수입액을 크게 상회하는 수준까지 급증하여 증감이 교차하고 있다. 수입증가율의 변화는 대체로 수입액이 1,200~1,400만 달러 안팎의 수준을 유지하는 선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위의 품목을 제외한 기타 임산물의 수입은 1999년부터 비교적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것은 앞에서도 지적된 바와 같이 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임산물의 품목별 다양화 추세를 뒷받침 해주는 변화이다.

#### 4. 한·중 농림산물의 국제경쟁력 비교

##### (1) 품목별 무역특화지수 및 시장점유율 비교

한국과 중국 농림산물 교역품목의 국제경쟁력을 먼저 주요 품목별 무역특화지수(TSI)를 통해 비교해보기로 한다. 무역특화지수는 품목별 순수출액(수출액-수입액)을 품목별 총교역액(수출액+수입액)으로 나눈 것이다. 이 지수가 양이면 수출특화상태이고 음이면 수입특화상태라고 한다. 지수의 양의 값이 클수록 비교우위가 크고 음의 값이 크면 비교열위를 나타낸다. 0인 경우 비교우위는 중간정도이며 1이면 완전 수출특화상태이며 -1이면 완전수입특화상태를 의미한다. 대개 0.3이상이면 경쟁력이 비교적 강하다고 할 수 있다.

SITC 중분류(2단위) 품목을 기준으로 하여 최근 4년 간(1998~2001년) 한국과 중국의 수출과 수입에서 상대적으로 중요한 농림산물 품목들의 무역특화지수를 산출하여 비교한 것이 <표 3-14>이다.

이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국은 연초 및 연초제품을 제외한 모든 품목의 수입특화상태에 있다. 특히, 곡물 및 곡물재료, 채유종실, 코르크 및 목재, 식물성 유지 등은 거의 완전수입특화상태이다. 당류 및 당 제품은 수입특화상태가 심화되고 있다.

<표 3-14> 최근 4년 간 한·중 농림산물 주요 품목의 무역특화지수 비교

품 목	SITC 코 드	1998		1999		2000		2001	
		한국	중국	한국	중국	한국	중국	한국	중국
곡물, 곡물재료	04	-0.99	0.42	-0.99	0.40	-0.99	0.09	-0.99	0.31
채소, 과일	05	-0.40	0.09	-0.39	0.78	-0.40	0.65	-0.38	0.69
당류, 당 제품	06	-0.58	0.04	-0.59	0.17	-0.62	-0.43	-0.64	-0.08
커피, 차, 코코아	07	-0.58	0.78	-0.61	0.77	-0.59	0.70	-0.43	0.70
사료 (곡물사료제외)	08	-0.69	-0.12	-0.68	-0.44	-0.83	-0.09	-0.79	-0.31
음료, 주류	11	-0.33	0.41	-0.30	0.57	-0.33	0.61	-0.38	0.54
연초, 연초제품	12	0.28	0.46	0.18	0.59	0.29	0.17	0.49	0.18
채유종실	22	-0.97	-0.60	-1.00	-0.61	-0.98	0.18	-1.00	-0.75
코르크, 목재	24	-0.87	-0.80	-0.92	-0.68	-0.92	-0.71	-0.93	-0.71
식물성 유지	42	-0.84	-0.92	-0.95	-0.83	-0.95	-0.65	-0.95	-0.72

자료 : 한국무역협회, KOTS; 對外貿易經濟合作部, 『中國對外經濟貿易白皮書』 각 연호

한국에 비하여 중국은 당류 및 당 제품, 사료, 채유종실, 코르크 및 목재, 식물성 유지만 수입특화상태이고 나머지는 모두 수출특화상태에 있다. 당류 및 당 제품은 2000년부터 수입특화상태로 전환하였으나 2001년에는 둔화하고 있다. 연초 및 연초 제품도 수입특화상태의 둔화가 비교적 뚜렷하다.

이와 같이 중국의 주요 농림산물은 한국보다 많은 품목에서 수출특화가 지속되고 있다. 이것은 중국의 농림산물이 세계시장에서 한국보다 강한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음을 입증한다.

무역특화지수로 나타난 한국과 중국 농림산물의 비교우위 결과는 한국농수산물사가 2000년에 조사한 품목별 주요 시장점유율과도 일치한다. <표 3-15>는 2000년 한국과 중국 농림산물의 품목별 주요 시장점유율을 비교한 것이다.

<표 3-15>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국산 채소류와 과일류의 시장점유율의 우위를 보이는 품목이 없지는 않다. 그러나 채소류와 과일류를 합친 SITC 2단위를 기준으로 한 무역특화지수가 입증하듯이 이들 품목에서 중국의 비교우위는 압도적으로 크다. 그것은 무엇보다 중국산 채소류가 한국산보다 월등히 우세하기 때문이다.

중국산 채소류는 우세 품목 수가 많을 뿐만 아니라 조사된 시장점유율도 대부분 크다. 채소류 가운데 두 나라의 경합품목은 생송이(生松栢) 1개뿐이며 상대적으로

중국산의 시장점유율이 더 크다. 과일에서는 한국산 감귤, 사과 및 배가 중국산보다 우세하지만 감귤과 사과의 시장점유율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

<표 3-15> 한국과 중국 농림산물의 품목별 일본시장 점유율(2000) 단위 : %

구분	중국산 우세		한국산 우세		한·중 경합	
채소류	마늘	중국(99.0), 한국(-)	토마토	한국(80.5), 중국(-)	생송이	중국(46.6), 한국(23.8)
	파	중국(99.0), 한국(1.2)	오이	한국(100), 중국(-)		
	콜리플라워	중국(66.7), 한국(-)	가지	한국(100), 중국(-)		
	양배추	중국(89.6), 한국(2.7)	고추	한국(37.3), 중국(-)		
	완두콩	중국(98.5), 한국(-)	수박	한국(81.0), 중국(-)		
	생표고	중국(99.9), 한국(-)	메론	한국(2.7), 중국(-)		
	기타 버섯	중국(52.1), 한국(4.7)	딸기	한국(14.3), 중국(-)		
	시금치	중국(100), 한국(-)				
	스위트 콘	중국(48.1), 한국(-)				
	연근	중국(100), 한국(-)				
	건표고	중국(96.6), 한국(3.2)				
	목이버섯	중국(99.9), 한국(-)				
	토란	중국(99.9), 한국(-)				
과일류	곶감	중국(94.8), 한국(4.7)	감귤	한국(27.9), 중국(-)	밤	한국(52.7), 중국(47.1)
			사과	한국(27.9), 중국(-)		
			배	한국(100)		
화훼류			백합	한국(56.3), 중국(-)		
			국화	한국(22.6), 중국(-)		
			기타 절화	한국(11.6), 중국(-)		
인삼류					인삼	한국(57.6), 중국(39.1)

자료 : <http://www.kati.net>

화훼류는 한국산이 중국산보다 우세하지만 시장점유율은 절대적으로 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임산물의 견과류에 속하는 밤은 한국산의 시장점유율이 중국산보다 다소 높은 경합 품목이며, 인삼도 한국산이 앞선 가운데 경합 중인 품목이다.

## (2) GTAP 다국간 모형에 의한 경쟁력 비교

현실적으로 한·중 무역의 경쟁은 두 나라의 경쟁에 그치지 않는다. 따라서 한·중 양국과의 교역관계가 깊은 국가들의 경쟁력을 함께 볼 필요가 있다. 이들 국가는 일본, 홍콩, 대만, 싱가포르 및 기타 아세안(ASEAN) 주요 국(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베트남)이다. 경쟁력의 지표는 앞에서 한국과 중국의 경쟁력비교에 쓰였던 무역특화지수(TSI)를 비롯하여 현시비교우위지수(RCA) 및 산업내분업지수(IIT)가 채용된다.

RCA 지수는 경제규모가 상이한 국가들 사이에서도 경쟁력의 비교가 가능하도록 특정국에 있어서 각국의 품목별 수출점유율을 각국의 특정국에 대한 총 수출점유율로 나눈 값으로서 이 지수가 1보다 큰 값을 가지면 해당 품목은 자국의 여타 품목에 비해 비교우위가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IIT 지수는 품목별 순수출(純輸出) 액의 절대값을 품목별 총교역액으로 나눈 값을 1에서 뺀 뒤에 거기에 100을 곱하여 얻는다. 이 지수가 0이면 산업간 수직적 분업만 존재하고 100이면 산업내 수평적 분업만 존재하는 경우이다. 대개 이 지수가 50 미만이면 수직적 분업형이고 70 이상이면 수평적 분업에 의한 산업의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여기에서 이용되는 자료는 미국 퍼듀(Purdue)대학 세계무역분석센터의 GTAP(Global Trade Analysis Project) 다국(多國) 다부문(多部門) 모형에 의한 2001년에 발행된 GTAP 제5판 데이터 베이스(data base)이다. 이 데이터 베이스는 1997년을 기준연도로 하고 66개국 57개 상품 투입-산출시계열자료(input-output time series data)로 구성되어 있다. 자료이용의 편의상 상품을 농림축수산물 1차산품, 농축산물 가공품 및 목재 제품으로 묶어 위의 6개국 및 기타 아세안(ASEAN) 주요 국의 경쟁력 지수들을 비교하면 <표 3-16>과 같다.

다국간 모형을 통해서 보더라도 중국의 수출경쟁력은 상대적으로 강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3-16>에서 보는 바와 같이, 농림축수산물의 무역특화지수(TSI), 현시비교우위지수(RCA) 및 산업내분업지수(IIT)들은 모두 중국과 싱가포르를 제외한 주요 아세안의 강한 비교우위를 나타내주고 있다.

농림축수산물 1차산품의 경우에 무역특화지수는 중국만이 수출특화 상태이고 주변국들은 모두 수입특화 상태이다. 싱가포르를 제외한 주요 아세안(ASEAN)은 수입특화 상태가 약하여 수출특화 상태로 전환될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현시비교우위지수(RCA) 및 산업내분업지수(IIT) 역시 중국과 기타 아세안만이 농림축수산물 1차산품의 국내 비교우위가 다른 나라들에 비해 월등히 높다.

<표 3-16> GTAP 다국간 모형에 의한 경쟁력 비교

지수	국 가	농림축수산물 1차산품	농축산물 가공품	목재 제품
TSI	한국	-0.79	-0.32	-0.65
	중국	0.05	0.03	0.52
	일본	-0.95	-0.83	-0.93
	홍콩	-0.97	-0.76	-0.86
	대만	-0.66	-0.34	0.24
	싱가포르	-0.38	-0.33	-0.35
	기타 ASEAN*	-0.02	0.35	0.83
RCA	한국	0.14	0.31	0.13
	중국	0.88	0.68	1.03
	일본	0.03	0.12	0.05
	홍콩	0.03	0.30	0.04
	대만	0.18	0.26	0.98
	싱가포르	0.19	0.30	0.19
	기타 ASEAN*	0.85	1.46	2.68
IIT	한국	21	68	35
	중국	95	97	48
	일본	5	17	7
	홍콩	3	24	14
	대만	34	66	76
	싱가포르	62	67	65
	기타 ASEAN*	98	65	17

주 : \*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베트남

자료 : Database of the Purdue University Center for GTAP, 5th ed, 2001

농축산물 가공품의 경우에 중국의 수출특화 상태는 싱가포르를 제외한 주요 ASEAN에 비해 강하지 못하다. 그렇지만 수입특화 상태가 강한 한국, 일본 등에 비하면 중국의 비교우위는 역력하다.

목재 제품에서도 중국의 경쟁력은 싱가포르를 제외한 주요 아세안에 밀리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목재제품은 수출특화 상태가 강하고, 1보다 큰 RCA지수가 나타내주 듯이 다른 품목보다 비교우위도 높다. 다만 산업내 분업도는 대만이나 싱가포르에 비해 약하다.

한국과 중국의 농림축수산물에 대한 국제경쟁력을 주변의 주요 교역국들과의 관계를 고려하면서 종합적으로 평가해 보더라도 중국의 우위상태는 확실하다. 따라서 전반적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대중국 농림축산물의 수입은 불가피하다.

## 5. 중국의 WTO가입 후 농산물시장개방과 그 영향

중국의 WTO 가입으로 중국 농산물시장 여건은 점진적으로 변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중국이 WTO 회원국으로서의 약속을 이행함에 따라 중국 농산물시장의 관세 및 비관세장벽은 점차 낮아질 것이다.

### (1) 중국의 WTO 가입 후 관세장벽의 완화

중국 농산품의 평균 수입관세율은 WTO 가입 준비 과정에서 4차례 인하되어 평균 46% 수준에서 1999년에 21.2%로 낮아졌고 2001년 6월 현재는 19%이다. 현행 관세율도 중·미간 합의에 따라 2005년 1월 이전까지 17%로 인하될 예정이다. 현재 상대적으로 고율 관세율이 적용되고 있는 미국산 주요 농산품의 평균 수입관세율은 31.5%에서 14.5%로 크게 인하된다.<sup>14)</sup>

<표 3-17> 중국의 WTO 가입 후 농산물 수입관세율 인하 계획      단위 : %

중국·미국 합의 품목						중국·EU 합의 품목		
품 목	1999년 관세율	2005년 관세율	품 목	1999년 관세율	2005년 관세율	품 목	1999년 관세율	2005년 관세율
쇠고기	45	12	돼지고기	20	12	유채유	30	20
닭고기	20	10	대두	-	3	파스타	25	15
수수	3	2	맥주 맥	30	20	버터	30	20
호두	30	20	아몬드	30	10	분유	25	10
감귤류	40	12	사과	30	10	맨더린	40	12
배	30	10	복숭아	30	10	포도주	65	14
체리	30	10	포도	40	13	올리브	25	10
기타 과일	30	10	상추	16	10	밀가루전분	30	18
브로컬리	13	10	커리 플라워	30	10			
토마토 케첩	30	10	토마토 페이스트	25	20			
건포도	30	10	포도 주스	35	20			
요구르트	50	10	인삼	30	10			
담배	65	25						

자료 : <http://www.uschina.org>, <http://www.europa.eu,int>

14) 宋海波, 許榮, 『中國加入WTO對上市公司的影響』(北京 : 企業管理出版社, 2000), 72쪽.

중국의 WTO 가입에 앞서 쌍무적 협상을 요구한 국가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나라는 미국이고 그 다음은 EU이다. WTO 규정 상 쌍무적 협상일지라도 거기에서 합의된 내용은 전체 회원국들에게 그대로 적용된다. 그 때문에 중·미 협상과 중·EU 협상은 세계적인 관심의 대상이었다. 그 가운데서 중·미 농산물 관세인하 협상은 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협상의 대상이 된 품목은 농림축산물 전체를 포괄하고 그 품목 수도 많기 때문이다.

중·미 관세인하 협상에서는 <표 3-1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쇠고기 등 모두 25개 농림축산물품목에 대한 관세인하 합의가 이루어졌다. 중·미 협상 품목에 비해 중·EU 협상 품목은 주로 농산물 가공품으로 유채유 등 8개이다. 중국은 이들 품목에 대해 2005년까지 합의된 바에 따라 수입관세율을 인하하여야 한다.

## (2) 중국의 WTO 가입 후 비관세장벽의 완화

중국은 WTO 가입으로 관세인하와 함께 2005년까지 비관세장벽도 단계적으로 철폐해야 한다. 주요 곡물과 유지작물(油脂作物)에 대해서는 관세율 쿼터(TRQ : Tariff Rate Quota)제도가 적용된다. 중국은 <표 3-18>과 같이 밀, 옥수수, 쌀, 콩기름, 면화에 대한 TRQ 물량을 일정한 비율에 따라 국영기업과 민간기업에 배정하고 국영무역의 쿼터가 채워지지 못할 경우에 민간기업이 그것을 수입할 수 있게 하였다. 이에 따라 중국의 민간기업들도 원칙적으로 농산품의 무역거래가 가능하게 되었다.

<표 3-18> 중국 주요 농산품의 관세 쿼터 완화 계획

구 분	TRQ(만 톤)		국영무역 비중(%)		국영무역량(만 톤)	
	가입시점	2005년	가입시점	2005년	가입시점	2005년
밀	730	930	90	90	657	837
옥수수	450	720	75	60	337.5	432
쌀	260	530	50	50	130	265
콩기름	170	330	50	10	85	33
면화	74.3	89.4	33	33	24.5	29.5

자료 : 余永定·鄭秉文 主編, 『中國“入世”研究報告』北京: 社會科學出版社, 2000

중국의 WTO 가입 후에도 당분간 농산품에 대한 국영무역의 비중이 큰 것은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유기업이 독점적으로 가졌던 농산품의 수입이 민간기

업에게 허용된다는 것만으로도 일단은 중국 농산물시장에 대한 커다란 진입장벽의 제거로 볼 수 있다.

TRQ 제도에 따라 같은 품목일지라도 수입 쿼터 내의 물량에는 낮은 관세율이 부과되지만 쿼터 이외의 수입에 대해서는 높은 관세율이 부과된다. 예컨대, TRQ 범위의 콩기름 관세율은 9%이지만 쿼터를 넘는 수입에 대해서는 74%의 높은 관세율이 부과된다. 물론 2005년부터는 낮은 관세율이 일괄적으로 적용된다.

농산물에 대한 어떠한 수출보조금도 유지되거나 도입되지 않고, 삭감이 요구되지 않는 국내조성 보조금의 경우에도 그 상한이 생산총액의 8.5%로 제한된다. 옥수수 및 쌀에 대한 수출보조금은 2005년까지 단계적 폐지되어 중국시장에서 외국 농산물의 경쟁여건이 개선된다. 또한 중국 정부가 무원칙한 관행이 많은 농산물의 위생·검역에 공신력 있는 과학적 방법을 도입하기로 한 것도 인위적 비관세장벽 제거의 한 단면이다.

### (3) 중국의 WTO 가입이 농산물시장에 미치는 영향

WTO 가입으로 거시경제 측면에서 중국산업 전반의 경쟁력 제고가 전망되나, 농업소득 및 농촌경제의 피해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하는 견해가 많았다. 그것은 외국 농산물 수입급증으로 인하여 경쟁력을 상실한 중국산 농산물의 판매가 부진하게 됨에 따라 농가소득이 감소하고 농촌실업자가 증가할 것으로 본 때문이다. 중국 국무원 발전연구중심(DRC, the State Council of the PRC) 과제조(課題組)가 CGE(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도 비슷하다.

<표 3-19>에 의하면, 중국의 WTO 가입 후 4년 간 TRQ제가 적용되는 쌀, 밀, 면화와 경쟁력이 약한 식물성유지가공품은 수입의 급증으로 생산과 고용감소가 불가피하다. 이들 농산물의 수입증가 추세는 비교적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설탕도 수입증가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기타 식량이나 비식량 분야는 수입의 급증에도 불구하고 생산과 고용이 하락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전망이다. 특히, 식품가공은 중국의 WTO 가입에 따른 비교적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야이다.

농업분야에 비해 임업이나 축산 분야의 영향은 상대적으로 작게 예상되고 있다. 임업 수출은 다소 둔화될 수 있으나 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축산업은 양모가 수입증가로 국내 생산, 고용 및 수출부진이 예상되지만 기타 목축 분야의 생산과 고용 증가는 대폭 커질 전망이다.

중국 국무원 발전연구중심이 중국의 WTO 가입이후 10년 동안 농산물을 중심으



로 한 품목의 수출입 증가를 예측한 결과<sup>15)</sup>, 대부분 품목은 <표 3-20>과 같이 중국의 WTO 가입 전 순수출에서 순수입으로 전환되거나 순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쌀은 최근 수출물량이 감소추세이기는 하지만<sup>16)</sup> 중국은 쌀 수출국의 입지를 굳히고 있어 순수출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표 3-19> 중국 WTO 가입 예상효과(1996~2005년의 증감) 단위 : 10억 위안

주요 업종	생산		고용		수출		수입	
	증감액	증감율 (%)	증감액	증감율 (%)	증감액	증감율 (%)	증감액	증감율 (%)
쌀	-4.6	-1.4	-246.1	-2.8	0.0	12.0	5.6	300.1
밀	-17.2	-9.0	-540.3	-14.2	0.0	73.3	26.8	205.5
기타 식량	0.3	0.1	1.6	0.0	0.0	0.2	10.4	226.1
면화	-11.7	-12.6	-498.2	-22.6	0.0	209.4	45.0	426.6
기타 비식량	11.3	1.8	151.1	1.9	0.1	1.1	0.7	10.9
임업	1.3	1.1	5.4	1.4	0.0	-2.2	1.1	10.7
양모	-3.0	-37.0	-10.0	-37.5	0.0	-15.4	5.1	86.6
기타 목축	73.7	5.7	104.1	5.0	2.8	13.0	1.0	77.1
기타 농업	7.8	5.2	57.2	5.1	0.0	4.6	0.1	19.4
식물성 유지가공	-18.7	-5.8	-13.3	-8.0	0.3	126.6	45.8	260.2
설탕	-1.7	-2.1	-1.5	-1.6	0.3	18.5	3.8	83.8
식품가공	74.8	5.3	31.6	5.9	24.2	31.7	8.5	16.1
목재가공, 가구	2.0	-0.6	2.1	0.6	-1.5	-2.1	1.3	5.6
가죽	26.8	5.9	21.9	7.6	8.8	6.6	43.0	124.1

자료 : 李善同 外, 『WTO: 中國与世界』北京: 中國發展出版社, 2000.

쌀과 콩을 제외한 TRQ 품목들의 수입증가는 중국 농산물의 경쟁력이 없기 때문이다. 쌀을 제외한 대부분의 곡물과 면화의 중국 국내가격은 국제가격보다 높다. 중국의 WTO 가입으로 생산보조금이 축소되거나 철폐됨에 따라 국내외 가격차는 더욱 커질 것이다. 개방형 시장경제에서 이와 같이 국내가격과 국제가격의 차이가 커지면 커질수록 외국 상품에 대한 수입수요가 더욱 커지는 것은 당연하다. 중국도 개방형 시장경제체제를 지향하는 한 국내외 가격차가 큰 농산물의 수입증가는 피하

15) 여기에는 몇 가지 가정이 전제된다. 즉, ①중국은 WTO 가입 후 10년 간 완전히 시장개방협정을 준수한다. ②10년 간 중국의 GDP성장에 특별한 변화가 없다. ③중국의 농산물무역은 모두 국영무역기업이 맡는다. ④세계시장가격은 국영무역기업을 통해 중국시장에 적용된다. ⑤중국의 국내 농산물 가격은 수요와 공급의 균형상태에서 결정된다(徐小青, 2001).

16) 중국의 쌀 수출물량은 1998년 : 375만 톤, 1999년 : 271만 톤, 2000년: 295만 톤, 2001년에 186만 톤으로 감소하고 있다.

기 어려울 것이다.

중국의 농산물수입 증가 가능성은 부족한 농토와 낮은 농업노동생산성에서 비롯된다. 중국의 국토면적은 세계 3위라고 하지만 농업생산 가능 토지는 세계의 7%에 불과한 반면, 중국의 인구는 세계 인구의 23% 이상이다. 그나마 농지의 산성화와 사막화로 그 면적은 계속 감소하고 있다. 이 때문에 중국은 오랫동안 토지와 수자원의 인구증가 압박과 농가의 경영규모의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표 3-20> 중국의 WTO가입 전후 TRQ 농산물의 수출입변화 예측 단위:억 달러

품 목	WTO 가입 전	→	WTO 가입 10년 후
밀	순수입 : 2.43	→	순수입 : 7.27
옥수수	순수출 : 4.26	→	순수입 : 0.71
쌀	순수출 : 8.28	→	순수출 : 8.43
면화	순수입 : 4.29	→	순수입 : 7.57
콩	순수입 : 14.12	→	순수입 : 10.24
콩기름	순수입 : 4.55	→	순수입 : 8.03
콩깻묵	순수입 : 2.81	→	순수입 : 5.01
계	순수입 : 15.76	→	순수입 : 30.40

자료 : 徐小青(2001), “加快農業結構調整, 提高農產品競爭力,” 『중국의 WTO가입과 한·중 농업협력』 제2회 한·중 국제공동학술대회 발표 논문집(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재인용.

중국의 토지생산성만을 놓고 보면 대략 세계 평균수준의 3배에 달하여 네덜란드와 일본 다음으로 3위로 비교적 높은 편이다. 그러나 농업노동생산성은 세계 평균수준의 39%에 불과하여 미국, 일본, 프랑스, 캐나다, 호주 등 선진국 평균의 절반수준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처럼 비교우위가 없는 중국의 토지집약형 농업부문은 WTO 가입이후 주요 농산물시장의 개방확대로 생산위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중국의 농업은 자금자족적 경영방식 위주이고 전체적으로 상품화 비율도 20% 정도로 낮아 시장개방의 충격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볼 수도 있다.<sup>17)</sup> 그러나 중국 농민들, 특히 TRQ 물량이 많은 농가의 시장개방의 충격은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최근 “국가발전계획위원회” 산하 “거시경제연구원”은 WTO 가입이 중국

17) 최세균·박기환(2001), “한·중 농산물 교역현황과 전망,” 『중국의 WTO가입과 한·중 농업협력』 제2회 한·중 국제공동학술대회 발표 논문집,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산물에 미치는 영향은 당초 예상과 달리 매우 제한적일 수 있다는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이 보고서는 특히 미곡, 소맥 등 대표적인 곡물시장은 쿼터제와 정부지도가격으로 WTO 가입 이후에도 단기적으로 정부에 의한 수입품의 가격통제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사실, 중국의 기업 소유구조는 국유 중심이고 2004년까지 미국과 합의된 쿼터량이 모두 배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수입량은 중국 전체 농산물 비중의 5%에 불과하다. 더욱이 TRQ의 확대가 억제되고 밀, 옥수수, 쌀의 국영무역의 비중은 50% 이상 유지하도록 되어 있다. 이 때문에 TRQ 물량이 낮은 관세율로 수입된다고 하더라도 중국정부는 국유기업의 수입 물량에 대해서는 지도가격을 통해 실질적인 가격통제를 할 수 있다. 결국 중국정부는 쿼터 내 수입은 정부지도가격으로 방어하고, 쿼터 외 수입은 고관세율로 대응한다는 이중의 안전장치를 마련하여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수입이 급증할 가능성은 매우 적다.

중국 정부는 정책적으로 WTO 가입이후를 대비하여 1990년대 중반부터 지속적으로 곡물가격을 하향 조정하는 등 농산물 소매가격을 인하하여 왔다. 이러한 가격인하 정책은 중국의 미곡, 소맥 등 주요 곡물의 가격경쟁력을 강화하여 WTO 가입 후의 곡물시장개방에도 불구하고 수입을 억제하는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미곡의 경우에 2002년 8월 현재 중국산 미곡가격은 1996년의 60%에 불과한 톤당 100달러 수준으로 낮아졌다. 이 가격은 국제가격에 비해 낮다. 1991년부터 2001년까지 국제 미곡시장의 가격은 톤당 최고 350.7 달러에서 최저 160달러였으며 현재 최저수준에 머물고 있다. 따라서 가격 차이에 의한 미곡의 대량 수입의 우려는 아직까지 없다. 다만 태국산 미곡과 같이 국내 생산이 부족한 품목에 대해서만 일부 수입수요가 지속될 것이다.

중국산 소맥의 소매가격도 1996년 1월에 172 위안/kg이었으나 2001년 1월에 98위안/kg으로 43% 하락하여 지금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중국은 소맥의 가격인하 뿐만 아니라 WTO 가입에 대비하여 고품질 소맥의 생산을 늘였다. 2001년 고품질 소맥의 파종면적은 전체의 28%에 달하였다. 같은 기간 중에 면화가격도 63% 하락하였다. 소맥, 면화, 옥수수 등은 유, 무형의 거래비용을 포함할 경우 수입품과 중국산 제품의 가격차이가 거의 없다.

생산비용을 기준으로 할 경우에 중국산 소맥가격은 국제가격보다 상당히 높은 편이다. 2002년 1월 기준으로 중국 정주(鄭州) 상품거래소의 소맥가격은 시카고 선물거래소에 비해 37%나 높았다. 그러나 수입소맥이 중국시장에 반입될 때 수반되는 선적, 운송, 관세, 보험 등의 비용을 감안하면 수입소맥의 가격우위는 거의 사라지게 된다. 실제로 광둥성(廣東省)의 경우 미국과 호주에서 수입한 소맥가격과 양자강

이북 지역에서 운송해 온 중국산 소맥가격 사이에 가격차이는 거의 없다. 또한 산지와 인접해 있는 산둥성(山東省)이나 운송이 까다로운 내륙지역의 경우 오히려 중국산 소맥이 가격우위를 보이고 있다.

최근 수년간의 증산정책으로 소맥의 수급은 기본적으로 균형상태이다. 따라서 관세인하에도 불구하고 소맥의 수입이 크게 늘어날 가능성은 거의 없다. 관세인하에 따른 수입 소맥의 진입 가능성은 향후 국내 소맥가격을 제한적으로 하락시키거나 현 수준에서 안정시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만일 중국이 소맥수입을 큰 폭으로 늘리려고 하면 국제가격이 상승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북경사무소가 분석한 바에 의하면, 1991년 이후 중국의 소맥 수입추이와 국제소맥 가격의 변화는 평균적으로 중국이 수입량을 100만 톤 증가시킬 경우 국제가격이 3% 상승하는 효과가 있었다.<sup>18)</sup> 따라서 중국이 대량으로 소맥을 수입하게 되면 수입 소맥은 중국산 소맥에 비해 가격 우위가 사라지게 된다. 이것은 중국의 소맥 수입증가가 쉽게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말해준다.

결국 국내에서 생산부족 현상이 발생하지 않는 한 수입소맥은 고품질 소맥을 위주로 소량 진입에 그칠 것이다. 현재의 가격수준에서 소맥이 수입된다면 그것은 현지 생산량이 부족한 고품질 소맥에 국한될 가능성이 크다. 2002년에 소맥 수입량은 생산지역과 거리가 먼 동남연해의 일부 지역에서 주로 판매되는 100만 톤 정도로 예상된다. 앞으로 중국의 소맥수입 증가는 수입장벽의 완화에서 기인하기보다는 국내 생산량의 변화에 의존할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6. 한·중 농산물 교역전망과 정책과제

### (1) 단기 및 중장기 농산물 교역전망

#### 가) 단기 전망

중국의 WTO 가입에 따른 한·중 농산물 관세율 협상은 주로 현재의 교역품목을 대상으로 하였다. 협상대상 품목만을 보면 중국의 농산물시장이 개방된다고 하더라도 단기적으로 한국의 수출이 대폭 증가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그것은 현재 한국과 중국의 농산물 교역구조가 단기적으로 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18) KIEP 북경사무소, “WTO 가입이 중국 곡물시장에 미치는 영향.” 『중국경제 현안 브리핑』, 02~38호(2002년 5월 30일).

<표 3-21> 중국의 WTO 가입과 한·중 농산물 관세율 협상 결과 단위 : %

품 목	현행	합의	품 목	현행	합의
새의 깃털	80	10	추잉껌	40	15
쪽파	50	30	캔디	40	15
양배추·배추	50	30	국수	60	30
당근	50	30	라면	60	30
냉동양파 및 마늘	50	30	곡물제조용 조제품	60	30
채소류	50	30	베이커리 제품	60	30
일시저장 양파	50	30	오이·양파·토마토 조제품	50	30
일시저장 오이	50	30	김치	50	25
일시저장 마늘	50	30	인스턴트 커피	100	65
건양파	60	30	배양 효모	60	25
건마늘	60	50	간장	70	30
초분류 딸기	60	50	된장·혼합조미료	70	30
인삼분말	70	50	혼합조미료	70	35
인삼정 및 정분	60	20	단백질 농축물	70	35
글리세린	40	20	커피프리머	70	65
소세지	70	30	설탕·감미료첨가물	80	65
조제저장용 파 및 설육	70	30	맥주	120	65
자당	60	65	소주·인삼주	150	65

자료 : 최세균·박기환, “한·중 농산물 교역현황과 전망,” 『중국의 WTO가입과 한·중 농업협력』 제2회 한·중 국제공동학술대회 발표 논문집,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표 3-21>의 한·중 관세인하 합의 품목을 보더라도 농산물의 수출단가는 대부분 작다. 그나마 대부분이 중국의 수출경쟁력이 큰 것들이고 한국의 비교우위가 있는 품목도 많지 않다. 한국이 상대적으로 비교우위가 있는 품목은 인삼 및 인삼가공품, 자당, 설탕·감미료 첨가물, 라면, 조미료, 인스턴트 커피, 커피 프리머, 김치, 인삼주 정도이다.

중국이 미국이나 EU와 관세율 인하를 합의한 농산물의 경우에도 불고기용 육류와 인삼을 제외하고 한국이 미국 및 EU 국가들보다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거나 경쟁력이 있는 품목은 거의 없다. 따라서 중국의 관세인하가 한국의 대중국 농산물 수출에 미치는 단기적 효과는 미미한 정도에 그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나라 대중국 수출은 단기적으로 농산물 완제품보다는 식품 원료에 의존하는 현재의 수출구조가 그대로 유지될 전망이다. 중국의 관세인하에 따른 가격경쟁력 제고로 가공 식품원료로서 현재 농산물 수출 점유비중이 높은 자당,

솔비톨, 비식용 유지제품의 수출증가가 예상된다. 농산물 완제품은 중국산에 비해 가격경쟁력이 약하고 음식문화 차이와 소비계층의 한계성으로 인하여 단기 수출확대는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중국의 WTO 가입으로 인한 한국의 대중국 농산물 수입요인도 크지 않다. 한·중 양국은 이미 1992년 수교 당시에 최혜국대우(Most Favored Nation Treatment)에 합의하였다. 그러므로 중국의 WTO 가입으로 한국은 새로운 관세인하조치나 쿼터량을 증가시켜줄 의무가 없다. 최근 중국의 관심품목으로 우리나라가 조정관세의 폐지 또는 인하를 추진하고 있는 12개 품목은 공산품이 4개, 농수산품이 8개이다. 그 가운데 농산물은 당면과 혼합조미료 2개에 불과하여 이 또한 대중국의 수입증가요인이 되지 못한다.

그리고 지금까지 중국으로부터 수입된 농수산 식품류에서 발견된 유해성 문제도 아직 해소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 소비자들의 중국산 농산물에 대한 불신감은 매우 크다. 이러한 불신감이 어느 정도 해소될 때까지 중국 농산물의 수입수요가 급증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 단기적으로는 한·중 농산물 교역은 급증하지 않고 현재의 교역수준에서 품목별로 수출액과 수입액이 등락하는 정도에 그칠 것이다.

## 나) 중장기 전망

한·중 농산물교역은 중장기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중국의 WTO 가입에 따른 무역구조의 변화가 가속화될 2005년 이후에 한·중간 농산물 교역규모는 새로운 국면으로 진입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 농산물 수입제도 운용의 불합리성, 통관절차 불투명 등 비관세 장벽의 해소에 우리 농산물의 중국시장 진출기회가 확대될 수 있다.

현재 대중국 수출비중이 높은 식품원료를 중심으로 한 품목들은 중국의 관세인하에 따라 수출증가가 예상되고 중국의 식품제도 및 수입절차의 불합리성이 해소되면 한국산 홍삼, 농산물 가공식품 등의 수출도 증가할 것이다. 특히, 한국산 홍삼이 중국의 수입의 약품으로 등록이 허가되면 홍삼의 대중국 수출은 급증할 가능성이 크다.

중국경제의 성장으로 국민소득이 커감에 따라 중국 국민들의 농산물 소비수요의 증가와 다양화가 예상된다. 그에 따라 한국의 신선농산물과 농산물 가공식품을 위주로 한 상품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중국산의 생산기반 미흡 및 한국산의 고품질 인식에 의한 심비디움(cymbidium) 등 화훼류의 수출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

의 대중국 수출품의 현재 여건과 중장기 전망을 정리해보면 <표 3-22>와 같다.

그러나 한국산 농산물의 경쟁열위와 한국 기업들의 현지 투자로 생산되는 농산물과의 경쟁심화로 인하여 수출의 증가에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농산물은 대중국 직접수출이 감소함은 물론 중국에 대한 기술이전으로 한국산과 경쟁이 심화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현재 현지 투자가 확대되고 있는 품목은 라면, 화훼, 고추장 등이며 앞으로 김치, 간장 등도 거기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중국의 농업구조조정에 따른 시설채소재배가 증가하고 이 분야에서 현지 투자가 확대되면 한국산 채소종자의 대중국 수출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표 3-22> 한국의 대중국 수출 품목별 현재 여건과 중장기 전망

품 목	현재 여건	중장기 전망
자 당	· 고율 관세(30%), 수입쿼터 · 부가가치세(17%) 부담	· 관세인하에 의한 수출 증가 · 수입쿼터 점진적 폐지시 수출 증가
홍 삼	· 수입 의약품 등록 지연 · 비정규 중국 반입에 의한 유통 왜곡	· 수입의약품 등록시 수출 증가 · 정상수출가능시 유통 활성화
화훼류	· 고율 관세(10%), 省별 통관여건 상이 · 부가가치세 부담(17%)	· 관세인하, 통관여건개선 수출 증가 · 중국 재배기술발달 경쟁심화 상존
간 장	· 고율 관세(30%), 유통망 미흡 · 한국산 인지도 미흡	· 관세인하, 유통여건 개선 수출 증가
삼계탕	· 고율 관세(23%), 식품표시 허가 지연 · 대중국 가격경쟁력 열위	· 관세인하, 식품표시, 허가 등 제도 개선 시 수출 증가
라 면 김 치	· 현지 공장 제품간 경쟁 치열 · 대중국 가격경쟁력 열위	· 현지 공장 설립 촉진으로 수출 증가 어려움
채소류 과일류	· 대중국 가격경쟁력 열위 · 한국의 중국 현지 투자 재배 증가	· 중국의 가격경쟁력 지속과 한국의 현지 투자 증가로 직접수출 어려움
채소종자	· 합작투자의 중국 내 판매비율 제한 · 농업구조조정 진행(곡류→채소)	· 외자기업 수입품 유통비율 확대 · 구조조정 촉진에 의한 수출 확대

중장기적으로 한국의 대중국 농산물 수입증가도 예상된다. 수입증가 가능 품목은 중국이 국제경쟁력을 가진 품목, 특히 수출촉진정책 대상품목인 채소류와 과일류이다. 중국의 각종 열대 및 아열대 과일류는 맛과 가격경쟁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한국의 수입증가 예상 품목이 되기에 충분하다. 그밖에 차, 면화, 축산가공품, 수산물 등의 수입증가도 예상된다. 중국 동북 3省이 한국과 일본 시장을 겨냥하여 증산에 나선 자포니카 계통의 高品質米 역시 가격 및 품질경쟁력을 가지고

있다.<sup>19)</sup>

한·중 양국의 지리적 인접성에 근거한 인적교류와 국제분업 기회의 확대도 두 나라의 농산물 교역증대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양국에 주재하거나 방문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식품 등에 대한 수요가 커지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이다.

한·중 교역의 증장기 전망에서 무역장벽이 완전히 제거되는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생각해볼 수 있다. 최근에 이수희(2002)가 BTM(Bilateral Trade Model)을 이용한 한·중·일 3국간 무역장벽 철폐시뮬레이션 결과 가운데서 한국과 중국의 상호 농림산물 수출에 미치는 효과만을 보면 <표 3-23>과 같다.

한국과 중국이 관세와 비관세장벽을 철폐하여 서로 수입을 개방하는 경우에도 농림산물 부문에서 중국은 중장기적으로 한국보다 수출우위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표 3-23>을 근거로 하여 보면, 한국은 설탕, 코코아·초콜릿 등과 기타 식품의 대중국 수출이 비교적 크게 증가하고, 채소·과실 및 그 조제품, 음료, 주류 등의 수출증가 효과가 약간 있다.

중국의 대한국 수출증가 효과는 코코아·초콜릿 등에서 매우 크고, 채소·과일류 조제품, 제분, 과자류, 기타 식품류, 합판·베니어, 기타 목재제품 등에서 비교적 크다. 그밖에 곡물류, 채소·과일류, 배합사료, 동·식물성 섬유 및 유지, 원목의 대한국 수출증가 효과도 약간이나마 나타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중국의 대한국 수출증가가 없거나 감소가 예상되는 품목은 한국이나 다른 나라보다 비교열위상태에 있는 설탕, 음료, 주류 및 담배 정도이다.

여기서 특기할 점은 중국의 대한국 곡물 수출이 중장기적으로 급격히 감소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중국의 관세 및 비관세장벽의 철폐로 수입이 증가하면 중국의 곡물생산이 감소한다는 것을 반영한다. 중국이 곡물시장을 완전히 개방하는 경우에 2010년경에 곡물 수입국으로 전환될 가능성도 예견되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대중국 농림산물 무역은 당류를 제외하고 거의 모든 품목에서 2010년까지 무역수지 적자의 확대가 지속될 것이라는 점도 유의해야 할 부분이다.

지금까지의 분석결과는 기술변화를 고려하지 않은 기술중립의 가정 아래서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의 철폐라는 정책적 변수만이 고려된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중국의 농업기술 및 식품 가공기술 향상도 앞으로 한·중 무역에 영향을 줄 중요한 요소이다. 현재도 중국 업체들이 우리나라 가공식품을 모방하거나 유사품을 제조하여 중국시장에서 우리 상품을 대체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화훼재배기술의 경우에

19) 동북 3성에서 재배되는 자포니카 계통의 고품질 쌀 생산량은 1995년에 740만 톤에서 1999년에 1,270만 톤으로 급증하였고, 가격경쟁력은 하얼빈 중화백화점 식료품매장에서 판매되는 三江大米(500그램 : 1.45 위안, 약 240원)와 한국의 농협하나로마트에서 판매되는 여주쌀(500그램 : 약 1,700원)을 비교하면 가격차가 7배에 달한다. 그러나 쌀의 품질은 三江大米가 우수한 것으로 평가된다(『문화일보』 2001년 12월 4일 자 참조).



는 중국 기술의 향상으로 한국과의 기술격차가 줄어들고 있다.

<표 3-23> 한국과 중국의 무역장벽 철폐 시 농림산물 수출효과 단위 : 백만 달러

품 목	수 출	2002	2003	2004	2005	2008	2010
곡물류(미도정)	한→중	0 (0)	0 (0)	0 (0)	0 (0)	0 (0)	0 (0)
	중→한	500 (0)	458 (0)	414 (1)	375 (1)	212 (2)	81 (1)
기타 곡물류	한→중	15 (0)	17 (0)	20 (0)	25 (0)	34 (0)	46 (0)
	중→한	173 (0)	169 (1)	166 (1)	165 (1)	138 (2)	118 (2)
채소, 과일류	한→중	2 (0)	2 (0)	3 (0)	3 (1)	4 (1)	4 (2)
	중→한	42 (0)	41 (0)	44 (1)	48 (1)	60 (3)	71 (4)
채소, 과일류 조제품	한→중	0 (0)	0 (0)	1 (0)	1 (0)	1 (1)	1 (1)
	중→한	235 (2)	270 (4)	302 (7)	341 (11)	521 (28)	642 (42)
제분	한→중	2 (0)	2 (0)	2 (0)	2 (0)	2 (0)	2 (0)
	중→한	12 (1)	14 (1)	17 (2)	22 (4)	39 (13)	51 (23)
설탕	한→중	27 (3)	32 (7)	34 (12)	35 (18)	38 (42)	39 (65)
	중→한	2 (0)	1 (0)	1 (0)	1 (0)	1 (0)	1 (0)
과자류	한→중	4 (0)	4 (0)	4 (0)	5 (0)	6 (0)	6 (0)
	중→한	101 (1)	113 (2)	128 (4)	145 (5)	198 (13)	241 (21)
코코아, 초콜릿 등	한→중	9 (1)	11 (1)	13 (2)	14 (3)	16 (8)	18 (12)
	중→한	101 (4)	128 (11)	157 (19)	197 (31)	413 (87)	578(133)
기타 식품류	한→중	14 (1)	16 (3)	18 (5)	20 (8)	26 (22)	33 (39)
	중→한	122 (1)	131 (1)	140 (2)	154 (3)	242 (8)	310 (12)
음료	한→중	1 (0)	1 (0)	1 (1)	1 (1)	1 (3)	1 (7)
	중→한	0 (0)	0 (0)	0 (0)	0 (0)	0 (0)	0 (0)
주류	한→중	1 (0)	1 (0)	1 (0)	1 (1)	1 (2)	2 (4)
	중→한	22 (0)	24 (0)	28 (0)	32 (0)	46 (0)	57 (-1)
담배	한→중	11 (0)	11 (0)	11 (0)	12 (0)	13 (0)	13 (0)
	중→한	29 (0)	27 (0)	25 (0)	25 (-1)	26 (-2)	25 (-3)
배합사료	한→중	1 (0)	1 (0)	1 (0)	1 (0)	1 (0)	1 (0)
	중→한	5 (0)	6 (1)	7 (1)	7 (2)	9 (5)	10 (8)
동·식물성 섬유 및 유지	한→중	1 (0)	1 (0)	1 (0)	1 (0)	1 (0)	1 (0)
	중→한	55 (0)	50 (1)	47 (1)	44 (1)	35 (2)	29 (2)
원목	한→중	2 (0)	2 (0)	2 (0)	3 (0)	5 (0)	6 (0)
	중→한	10 (0)	9 (0)	9 (0)	9 (1)	6 (1)	5 (1)
합판, 베니어	한→중	40 (0)	35 (0)	34 (0)	33 (0)	27 (0)	25 (0)
	중→한	31 (1)	36 (2)	44 (3)	54 (6)	82 (19)	101 (32)
기타 목재제품	한→중	4 (0)	3 (0)	2 (0)	2 (0)	1 (0)	1 (0)
	중→한	93 (1)	108 (2)	129 (4)	156 (7)	243 (20)	312 (32)

주 : ( ) 안의 숫자는 무역장벽 철폐에 따른 증감액(백만 달러)

자료 : 이수희, “한·중·일 3국간 무역장벽 철폐의 경제적 및 산업별 효과,” 『동북아 지역 경제권 형성과 기업간 협력방안』 (한국경제연구원, 2002)을 기초로 하여 정리

최근 중국의 첨단 농업기술개발에 성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2002년 9월 15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한 고농도의 염분 토양에서

도 생존 가능한 콩, 쌀, 토마토 등의 유전자 변형기술개발이다. 중국 내 염분 토양에서 자라는 작물에서 추출된 유전자의 배열실험을 통해 염분 저항 유전자가 발견되었고 이를 이용한 염분저항 작물의 재배가 가능해졌다는 것이다. 농작물의 불모지로 여겨져 왔던 염분 토양의 면적은 전 세계 육지의 약 25%이고 중국은 3,300만 헥타르에 달한다. 이 면적은 현재 중국 총 경지면적의 약 33%를 상회하는 잠재 경작지로서 여기에서 염분저항 작물의 재배가 이루어지면 중국의 농산물 생산은 급격히 증가하게 된다.

중국 농산물의 생산증가와 품질을 향상시키는 기술의 개발은 우리 농산물의 중국 시장 진입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요인임은 말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한·중 농산물 교역의 이러한 기술적 여건변화에도 신중히 대응하지 않으면 안 된다.

## (2) 대중국 농산물 수출확대를 위한 정책과제

앞에서 한·중 농산물 교역의 전망에서 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여건은 결코 양호하지 않다. 따라서 대중국 수출확대를 위한 합리적 정책을 개발하여 시행하고 여건을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중국은 규모의 경제를 바탕으로 하여 대량 수출과 수입을 위주로 한다. 농산물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따라서 중국시장에 양적으로 접근하기보다 틈새시장을 겨냥한 현지 시장개척활동과 수출업체의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대중국 농산물 수출은 영세한 업체의 난립과 시장개척활동이 미흡하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적 지원은 필수적이다.

### 가) 한국산 농산물의 인지도 제고

중국의 WTO 가입으로 중국시장개척의 기대가 증가하고 그에 따라 수출업체의 중국시장 공략 활성화에 의한 수출증가 요인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한국 농산물에 대한 중국의 인지도는 높지 않다. 이것은 중국시장에 대한 우리 농산물의 판촉활동이 미흡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중국에서 우리 농산물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과 노력이 필요하다. 중국산 품종과 차별화 되는 우수성이 입증된 품목을 발굴하여 먼저 인지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수출업체마다 상이한 한국산 농산물의 품목별 브랜드를 단일화하는 것도 급선무이다. 이것은 중국 소비자들에게 한국산 농산물 품목을 집중적으로 인지시키는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

우리나라 수출품으로서 아직까지 공동 브랜드는 없다. 2002년 9월 9일 농림부 보도자료로부터 정리한 <표 3-24>에 의하면, 현재 김치, 인삼 등 가공식품의 경우 독자 브랜드를 가지고 있으며 파프리카 등은 외국 브랜드 명을 사용하는 OEM수출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농림부는 공동브랜드의 성공요건을 충족하는 감귤과 단감을 우선 대상으로 하여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기타 파프리카, 배 등은 공동브랜드화의 여건이 성숙되면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표 3-24> 한국산 농산물의 브랜드화 실태

브랜드 종류	품 목	브랜드 명(업체명) 및 추진 상황
독자 브랜드	김치	종가집(두산), 양반김치(동원) 등
	인삼	정관장(한국 인삼 공사) 등
	밥	푸드웰(푸드웰), 태봉(태봉) 등
	과실	태봉(태봉), 영성상사(영성상사) 등
	채소	GLOBAL(글로벌 통상), JUNG AN(정안농산) 등
공동 브랜드	감귤	농협 중앙회가 제주도 감귤 5개 조합 대상으로 추진
	단감	경상남도 주관으로 2003년부터 공동브랜드 활용 예정
	파프리카	현재는 외국 브랜드 사용 OEM 수출, 단계적 추진
	배	단계적 추진

자료 : 농림부 보도자료(2002. 9. 9)에서 정리.

그러나 중국에 주로 수출되는 과실, 채소류는 수출업체들의 영세성 등으로 품질 관리가 미흡하고 업체간 출혈경쟁이 심하여 자체 브랜드화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품목일수록 공동 브랜드가 필요하다. 우선 대중국 수출 우위 품목을 중심으로 하여 품질관리를 강화하고 공동 브랜드화를 추진하도록 정부의 인센티브제도 도입을 적극적으로 고려해볼 만하다.

그리고 중국에서 개최되는 식품, 화훼, 과일, 채소박람회 등 주요 농산물 박람회의 참가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중국의 농산물수입업체들은 농산물박람회에 출품된 외국 농산물을 일차적인 계약체결의 대상으로 삼는다. 그렇다고 해서 농산물박람회에만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왜냐하면 고급농산물들은 이미 계절상품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가 주관하는 소비지(消費地) 중심의 집중홍보와

판촉전시회 개최 등 능동적 판촉활동의 전개도 요구된다. 중국의 대형 유통업체와 연계한 판촉행사도 바람직한 방법이다. 정부는 현지 진출업체 판촉행사 추진 시에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개별 업체들도 중국시장개척단 파견과 같은 노력을 경주하여야 한다.

#### 나) 중국 농산물시장 정보활용 기능의 체계화

중국과 같이 시장이 광활하고 현지 생산 농산물과의 경쟁이 심한 경우에 수출증진을 위해서는 중국 농산물시장의 정확한 정보활용기능이 체계화되어 있어야 한다. 이것은 중국시장의 개척에도 중요하지만 대중국 현지 투자로 생산되는 농산물과 직접수출 농산물간에 불필요한 경쟁이 심화되는 것을 막는 데도 필요하다. 중국 농산물시장 정보활용 기능의 체계화의 한 방법으로 현지시장 진출업체들을 수출전진기지화하고 시장탐색자(market tester)로 활용한다.

이렇게 되는 경우에 우선 대중국 현지 투자로 생산되는 농산물과 직접수출 농산물간에 생길 수 있는 불필요한 경쟁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 그리고 현지 기업이 신속하게 제공하는 자세하고 정확한 정보를 통하여 현지 시장의 특성을 감안한 지역별 상품별 수출전략을 적시에 수립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중국 특정계층의 소비정보, 무역정책의 변화, 중국 농산물의 생산 및 수출 동향 등에 관한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는 중국의 틈새시장의 공략에 더없이 중요한 것이다.

#### 다) 한국 농산물 수출경쟁력의 유지

한·중 농산물 교역과 같이 산업내 분업구조를 특성으로 한 경우에 상품의 차별화만이 수출을 증가시킬 수 있다. 상품의 차별화가 안 된 상태에서 홍보나 판촉의 효과는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한국 농산물의 차별화를 위하여 화훼, 채소, 과일 등 신선도 유지가 필수인 품목은 상품의 분할과 포장에 손이 덜 가도록 자동화되어야 한다. 이러한 기술적 문제는 수출업자에게 일임해 두는 것보다 필요한 기술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가 정책적으로 지원해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품으로서 고유의 경쟁력을 가진 품목은 그 경쟁력을 장기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그 대표적인 품목이 홍삼이다.

<표 3-2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국에 수출되는 인삼류의 대부분은 홍삼이다. 2000년까지 인삼류 수출의 증감은 홍삼에 의하여 주도되었다. 그러므로 2000년까지

인삼류의 수출이 증가하는 경우에 홍삼의 수출증가율은 항상 인삼류의 수출증가율보다 압도적으로 컸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최근 2001년과 2002년 1~10월에 홍삼의 수출증가율이 크게 둔화되었다는 사실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중국으로부터 인삼류의 수입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점이다. 2002년 1~10월에는 중국산 백삼정의 수입액이 홍삼의 대중국 수출액을 능가하고 있다. 1997년 금융위기를 맞아 적자로 전환되었던 인삼류의 무역수지가 1999년부터 흑자로 다시 되돌아섰다. 그러나 흑자규모는 이미 크게 줄었고 더욱이 2002년 1~10월에는 중국산 인삼류 수입증가율의 둔화에도 불구하고 무역수지가 다시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산 홍삼에 대한 중국의 신인도가 낮아진 때문이다. 한국의 중국산 인삼류 수입증가는 한국산 제품의 순수성에 의혹을 일으키게 될 수 있다. 현재 한국산 홍삼은 중국 당국에 수입의약품 등록을 추진 중에 있다. 그러나 중국 당국이 한국산 홍삼과 경쟁관계에 있는 홍콩 홍삼업자들에 대한 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보면 그 결과는 회의적이다.

<표 3-25> 인삼류의 대중국 수출과 수입

단위 : 1,000 달러

품 목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수 출 (홍삼)	279 (265)	1,986 (1,826)	1,569 (1,283)	262 (88)	282 (109)	1,308 (1,061)	2,555 (2,458)	3,079 (2,497)	1,883 (1,687)
수출증가율(%) (홍삼)	-	611.8 (789.1)	-21.0 (-29.7)	-83.3 (-93.1)	7.6 (23.9)	363.8 (873.4)	95.3 (131.7)	20.5 (1.6)	2.0 (-1.0)
수 입 (백삼) (백삼정)	24 (24) (-)	636 (635) (-)	116 (10) (106)	1,731 (967) (695)	608 (232) (353)	723 (101) (485)	1,649 (196) (1,286)	2,544 (227) (2,001)	2,285 (50) (1,873)
수입증가율(%)	-	2,550.0	-81.8	1,392.2	-64.9	18.9	128.1	54.3	27.6
무 역 수 지	255	1,350	1,453	-1,469	-326	585	906	535	-402

주 : \* 2002년 1월~10월 누계이며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임.  
 자료 : <http://www.kati.net> 통계에서 계산.

홍삼과 유사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것은 삼계탕이다. 삼계탕은 이미 오래 전부터 한국을 찾는 중국인들에 의해 그들의 기호를 충족시킬 수 있는 식품이라는 사실이 입증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유관기관의 식품표시 허가와 위생검사 등

의 지연으로 수출의욕이 크게 감소한 상태이다. 삼계탕은 조제방식과 함께 한국산 인삼재료의 우월성이 인정되는 한, 대중국 수출경쟁력을 장기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유망품목이다. 따라서 삼계탕의 위생처리, 포장방법 등의 개선을 통한 꾸준한 수출 노력이 요망된다.

## 제4장 주요 대도시 소득분포와 소비성향

### 1. 중국의 소득분포와 소비지출 구조

#### (1) 소득분포

중국경제는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로 전환되기 이전까지 계획경제체제 하에서 배급제도에 의존하였기 때문에 공급의 한계성과 제도적 모순으로 인하여 소득분배 불균형이 심화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개혁개방 이전까지의 1인당 국민소득은 가계지출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그러나 1978년부터 실시된 개혁개방정책은 기존 경제체제의 모순을 점진적으로 개혁하는 한편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로 이행하는 가운데 중국경제 발전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게 되었다. 바로 “자유시장”을 통한 수요공급의 자율조정 기능에 의하여 공산품과 농산물, 기타 상품의 거래가 점차 자유롭게 허용되는 가운데 소비구조 뿐만 아니라 생활수준도 향상되기 시작하였다.

<표 4-1>에 나타난 바와 같이 2001년도 국민총생산(GNP)은 경상가격(current price) 기준 인민폐 9조 4,346억 4천만 위안으로 1978년도 3,624억 1천만 위안 대비 26배에 달했으며, 2001년도 국내총생산(GDP)은 9조 5,933억 3천만 위안으로 1978년도 3,624억 1천만 위안 대비 26.5배에 달했다. 그리고 2001년도 1인당 GDP는 경상가격(current price) 기준 인민폐 7,517 위안으로 1978년도 379위안 대비 19.8배에 달했으며, 2001년도 1인당 소비는 3,608위안으로 1978년도 184위안 대비 19.6배에 달했다. 그리고 중국통계적요(2002)에 의하면 1978~2001년간 국민총생산(GNP) 연평균 실질성장률은 9.3%로 나타났으며, 국내총생산(GDP) 연평균 실질성장률은 9.4%로 나타났다.<sup>20)</sup>

2001년도 중국경제는 세계경제 침체에도 불구하고 내수시장의 활성화 및 사회간접자본의 투자확대 등을 통하여 건설한 경제운영을 지속하게 되었다. 2001년도 GDP 규모는 9조 5,933억 3천만(약 1조 1천 6백억 달러) 위안으로 전년 대비 7.3%가 증가함으로써 세계 6대 경제대국으로 부상하게 되었다. 그 결과 중국은 2000년 말 구매력평가(purchasing power parity) 기준 GDP는 약 6조 달러로 세계 2위, 무역순위는 4,554억 달러로 세계 7위, 그리고 외환보유고는 1,669억 달러로 일본의 3,560억 달러에 이어 세계 2위를 각각 차지하였다. 또한 2000년도 외국인 직접투자

20) 중국통계적요, 중국통계출판사, (2001), p.17.

도 407억 달러에 달함으로써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는 등, 경제대국의 면모를 갖추기 위한 노력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상태이다.

<표 4-1> 중국의 주요 경제지표

가격기준 : 경상가격

연도별	GNP (억 위안)	GDP (억 위안)	1인당 GDP (위안)	1인당 소비 (위안)
1978	3,624.1	3,624.1	379	184
1979	4,038.2	4,038.2	417	207
1980	4,517.8	4,517.8	460	236
1981	4,860.3	4,862.4	489	262
1982	5,301.8	5,294.7	526	284
1983	5,957.4	5,934.5	582	311
1984	7,206.7	7,171.0	695	354
1985	8,989.1	8,964.4	855	437
1986	10,201.4	10,202.2	956	485
1987	11,954.5	11,962.5	1,103	550
1988	14,922.3	14,928.3	1,355	693
1989	16,917.8	16,909.2	1,512	762
1990	18,598.4	18,547.9	1,634	803
1991	21,662.5	21,617.8	1,879	896
1992	26,651.9	26,638.1	2,287	1,070
1993	34,560.5	34,634.4	2,939	1,331
1994	46,670.0	46,759.4	3,923	1,746
1995	57,494.9	58,478.1	4,854	2,236
1996	66,850.5	67,884.6	5,576	2,641
1997	73,142.7	74,462.6	6,054	2,834
1998	76,967.2	78,345.2	6,307	2,972
1999	80,579.4	82,067.5	6,547	3,138
2000	88,189.6	89,403.6	7,078	3,397
2001	94,346.4	95,933.3	7,517	3,608

자료 : 중국통계연감, 중국통계출판사, (2001. 9), pp.49~66.  
중국통계적요, 중국통계출판사, (20001), pp.13~32.

또한 2001년도 경상가격 기준 1인당 GDP는 7,517위안으로 약 913달러에 달하는 상태이나 구매력평가 기준으로는 사실상 약 3,000~4,000달러에 달하는 상태이다. 그리고 2001년도 경상가격 기준 1인당 소비는 3,608위안으로 약 438달러에 달하는



상태이나 구매력평가 기준으로는 사실상 약 1,250~2,250달러에 달하는 상태이다. 바로 이러한 사실은 중국인의 소비생활 수준이 생각보다는 실질적으로 높다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다.

세계은행(World Bank)은 중국의 WTO 가입은 GDP 1~2%의 성장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분석하였고, 미국의 골드만 삭스(Goldman Sachs)도 2008년 북경올림픽 유치하는 GDP 0.3~0.4%의 성장효과를 이룩할 것으로 분석했다. 만일 위와 같은 분석과 연평균 7% 이상 고도 경제성장률을 지속하게 된다면 2010년 중국의 GDP는 2000년 대비 두 배로 증가하게 될 것으로 예측한 바가 있다. 즉, 2000년 GDP가 인민폐 8조 9,404억 위안(약 1조 1천억 달러)임을 감안할 때에 2010년도 GDP는 약 2조 2천억 달러에 달하게 되는 것이다.<sup>21)</sup>

<표 4-2> 중국 가정의 소득유형과 가구분포 및 특성

구분	소득수준 (위안)	가구 비율 (%)	예상 가구수 (만호)	예상인구 (만명)	특 성
빈곤형	5,000 이하	4	1,413.2	4,861.4	불량경영 국유기업 직원, 휴직 및 퇴직자, 부양자가 많은 가정
온포형	5,000~10,000	34	12,012.2	41,322.0	내륙지역의 일반주민, 기타 수입이 없는 월급 노동자
소강형	10,000~30,000	55	19,431.5	66,844.4	대·중형 도시나 연해지역의 가정
부유형	30,000~100,000	6	2,119.8	7,292.1	삼자기업 직원, 경영책임자, 중견간부, 관광사 가이드, 개인사업자, 변호사, 미용사, 고급식당 주방장 등 전문직
부호형	100,000 이상	1	353.3	1,215.4	민영기업가, 사업가, 유명 연예인과 운동선수, 유명 화가나 작가, 소수의 졸부

주 : 예상가구 수는 2001년도 전국가구 총수 35,330만 호를 대상으로 1997년도 가구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것임. 그리고 예상인구 수는 가구 당 평균인구 3.44명을 적용하여 산출한 것임.

자료 : 금희연, 중국인의 Lifestyle, 대한상공회의소(1997. 11), pp.160~161.  
중국통계적요, 중국통계출판사, (2001), p.34.

한편 개혁개방 초기인 1980년도의 1인당 평균 GDP는 460위안(143달러)에 불과했었지만 1996년도에는 5,576위안(670달러), 2001년도에는 7,517위안(908달러)에 달하게 되었다. 따라서 정부 목표인 온포형(溫飽型 : 34% 분포, 소득 5천~1만 위안) 수

21) 매일경제신문사, 차이나쇼크, 2001, p.18.

준을 넘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소강형(小康型 : 55% 분포, 소득 1~3만 위안)의 기준에 도달했고, 그 외 소수의 부유형(富裕型 : 6% 분포, 소득 3~10만 위안) 및 부호형(富豪型 : 1% 분포, 소득 10만 위안 이상)이 나타난 상태이다.

<표 4-2>에 의하면 전체 3억 5,330만 가구 가운데 빈곤형 가구는 4%에 해당하는 1,413만 2천 호로 4,861만 4천 명, 온포형 가구는 34%에 해당하는 1억 2,012만 2천 호로 4억 1,322만 명, 소강형 가구는 55%에 해당하는 1억 9,431만 5천 호로 6억 6,844만 4천 명, 부유형 가구는 6%에 해당하는 2,119만 8천 호로 7,292만 1천 명, 부호형 가구는 1%에 해당하는 353만 3천 호로 1,215만 4천 명으로 각각 나타났다.

따라서 중국의 이들 소득유형 가운데 부유형과 부호형을 “고소득층”으로 간주할 경우 전체 가구수의 7%에 해당하는 2,473만 1천 가구로 그 인구는 8,507만 5천 명에 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인구의 약 1.8배에 달하는 규모일 뿐만 아니라 남북한 인구보다도 많은 상태인 것이다. 그러므로 중국 대도시 고소득층의 “고급품 소비시장” 규모 내지는 구매력 수준이 어느 정도일 것인가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표 4-2>에 나타난 소득유형별 가구점유 비율이 1997년도 데이터인 점을 감안할 때에 2001년도 소득유형별 가구점유 비율은 빈곤형이 감소한 반면에 부유형과 부호형의 점유 비율은 다소 증가되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만일 이러한 가설이 사실이라면 고소득층 인구규모는 1억 명을 초과했을 것으로 판단되는 동시에 장차 경제발전과 더불어 “고급품 소비시장”이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판단된다.

### 가) 지역별 소득격차

한편 중국의 경제성장과 1인당 소득 및 소비는 지역별, 계층별, 학력별, 성별, 연령별 등에 따라 현저한 차이가 있다. 지난 1978년에 시작된 개혁개방과 더불어 고도 경제성장이 계속되는 가운데 국민소득 수준은 지속적 증가세를 유지하게 되었다. 2000년도 1인당 국민소득(NI)은 840달러로 1995년도 520달러 대비 61.5%가 증가된 상태이다. 또한 2000년도 구매력평가(PPP) 기준 1인당 국민소득은 약 4천 달러 대에 달함으로써 중국 소비자의 실질 구매력이 통계에 나타난 소득보다도 약 4~5배 수준에 달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다.

그리고 2001년도 전국 각 성시구(省市區)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 기준 상위 10개 성시(省市)를 보면, 상해시가 인민폐 37,382위안으로 수위를 차지했고, 다음은 북경시가 25,300위안, 천진시가 19,986위안, 절강성이 14,550위안, 광둥성이 13,612위안, 강소성이 12,925위안, 복건성이 12,375위안, 요녕성이 12,070위안, 산둥성이 10,465위

안, 흑룡강성이 9,349위안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 가운데 9개 성시가 동부 연해지역에 위치한 상태이다. 한편 2001년도 1인당 GDP 역시 최상위인 상해의 3만 7,382위안과 최하위인 귀주의 2,865위안을 비교하면 약 13 : 1의 격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sup>22)</sup>

## 나) 도·농간 소득격차

1950년대부터 1970년대 말까지의 중국의 경제성장 과정을 살펴 볼 때에 무모한 경제발전 초과목표의 성장전략과 그에 상응하는 거시정책, 자원배분, 그리고 미시적 경영 메커니즘(mechanism)은 산업구조 왜곡과 인센티브 부족이라는 문제점을 초래하게 되었던 것이다. 즉 비교우위에 위배되는 평등주의 전략의 모순으로 인하여 경제침체가 지속되었고 소득수준이 낮았기 때문에 사실상 국민생활수준 향상을 기대하기 어려웠던 것이다.

1978년 개혁개방 이후 등소평이 강조해 온 부(富)의 중요성은 전통적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기본적인 틀을 유지하는 가운데 점진적으로 개혁개방을 추진해 나아가려는 데에 그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개혁개방 이전에 문제시되었던 왜곡된 거시정책, 고도로 집중된 자원배분, 국유기업과 인민공사의 생산 및 경영 관리의 비효율, 생산노동자의 적극성 결여, 그리고 각 부문별 제도적 법률적 모순점 등이 개혁개방 추진과정에서 시급히 개혁되어야 될 주요 정책과제로 대두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점진적 개혁은 미시적 경영 메커니즘에서부터 시작하여 노동 인센티브(incentive) 제도의 도입을 통하여 노동자의 적극성을 유발시키는 가운데 노동생산성 향상을 제고시키려는 유인정책이 실시되기 시작했다. 농촌에서는 농가 청부생산 책임제를 도입하는 한편 도시에서는 일부 경영권 이양과 이익유보를 중심으로 하여 경영 메커니즘 개혁을 추진하게 되었다.

또한 1999년 3월 15일 제9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2차 회의에서 통과된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수정안 가운데 “법률규정 범위 내에서 도시·농촌 노동자의 개체경제 및 사영경제 등 비공유경제는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중요한 구성부분이다.” 라고 수정·명문화됨으로써 민간부문 경제활동의 중요성이 공인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2002년 11월 15일 폐막된 제16차 전국대표대회에서 장쩌민(江澤民)은 등소평(鄧小平)의 개혁노선을 발전시켜 부국(富國)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다. 이러한 일련의 개혁개방정책의 성공은 농촌과 도시의 생산성뿐만 아

22) 중국통계적요(2002), 중국통계출판사, 2002. 5, p.22.

나라 현저한 소득수준의 향상을 이룩하게 되었다. 그러나 경제발전 불균형 전략으로 인한 도시-농촌간, 동부연안-서부내륙지역 간의 소득격차는 점점 심화되고 있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표 4-3> 농민과 도시주민의 소득 추이

금액단위 : 위안

구 분		1991	1995	1998	2000	2001
a. 농민	금액	709	1,578	2,162	2,253	2,366
	지수	(100)	(223)	(305)	(318)	(334)
b. 도시주민	금액	1,701	4,283	5,425	6,280	6,860
	지수	(100)	(252)	(319)	(369)	(403)
a/b		0.417	0.368	0.399	0.359	0.345

주 : ( ) 내 지수는 1991=100

자료 : 중국통계연감, 각년판 및 중국통계적요, 중국통계출판사, 20001.

<표 4-3>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1년도 농촌주민의 1인당 순수입은 2,366위안으로 도시주민 1인당 가처분소득인 6,860위안의 34.5% 수준에 달하는 상태이다. 그리고 1991년 이후 도·농 주민의 1인당 소득 추이를 비교해 보면 그 격차가 1998년을 제외하고는 계속 확대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2001년도의 경우 농촌주민 순수입이 도시주민 가처분소득의 34.5%에 달하고 있다는 사실은 약 8억 명에 달하는 농촌주민의 대부분이 아직도 “소강형” 수준의 목표에 도달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표 4-4>에 의하면 2001년도 도시주민의 1인당 가처분소득 6,860위안과 농촌주민의 1인당 순수입 2,366위안을 비교했을 때에 2.9 : 1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격차는 1978년도 2.6 : 1의 격차, 1990년도 2.2 : 1의 격차, 1995년도 2.7 : 1의 격차, 1999년도 2.7 : 1의 격차를 보더라도 매년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현재 도시주민과 농촌주민 간의 소득격차는 해를 거듭할수록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생활수준 향상 역시 격차가 심해지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지역별로 상이한 양상을 보이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엔겔계수(Engel's coefficient)를 살펴보면 2001년도 도시가정은 37.9%이고, 농촌가정은 47.7%로 소득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농촌가정의 엔겔계수가 높게 나타

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엔겔계수 상태는 1978년도 개혁개방 당시 도시가정이 57.5%이고, 농촌가정이 67.7%이던 것에 비하면 지난 20여년 동안에 엔겔계수가 크게 낮아졌음을 발견할 수 있다. 즉 소득증가에 따른 식품비지출은 비록 증가되고 있지만 총소비지출 대비 식품비지출 비중은 낮아지고 있는 것이다.

<표 4-4> 도시와 농촌주민 1인당 수입 및 엔겔계수

연도별	농촌주민 1인당 순수입		도시주민 1인당 가처분소득		농가 엔겔계수 (%)	도시가정 엔겔계수 (%)
	금액 (위안)	지수 (1978=100)	금액 (위안)	지수 (1978=100)		
1978	133.6	100.0	343.4	100.0	67.7	57.5
1980	191.3	139.2	477.6	127.0	61.8	56.9
1985	397.6	268.9	739.1	160.4	57.8	53.3
1990	686.3	311.2	1,510.2	198.1	58.8	54.2
1995	1,577.7	383.7	4,283.0	290.3	58.6	49.9
1996	1,926.1	418.2	4,838.9	301.6	56.3	48.6
1997	2,090.1	437.4	5,160.3	311.9	55.1	46.4
1998	2,162.0	456.2	5,425.1	329.9	53.4	44.5
1999	2,210.3	473.5	5,854.0	360.6	52.6	41.9
2000	2,253.4	483.5	6,280.0	383.7	49.1	39.2
2001	2,366.4	503.8	6,859.6	416.3	47.7	37.9

자료 : 중국통계연감, 중국통계출판사(2001.09), p.304.

중국통계적요, 국가통계국 중국통계출판사,(2002. 05), p.91.

또한 <표 4-4>에 나타난 바와 같이 도시와 농촌에서 소득증가 폭이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으며, 소비수준의 향상과 엔겔계수의 하락이라는 질적인 변화도 특징적으로 볼 수 있다. 2001년도 농촌주민 1인당 순수입은 2,366위안으로 1978년도 134위안 대비 약 17.7배로 증가하였고, 도시주민의 1인당 가처분 소득은 6,860위안으로 1978년 343위안 대비 20.0배로 증가하였다.

그리고 1995~2001년까지의 1인당 소득 증가율 추세도 도시주민 가처분소득의 증가율이 농촌주민 순수입 증가율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도·농간의 소득격차 심화의 결과는 개혁개방 초기의 불균형 전략의 선택과 도시와 농촌간의 이원구조(二元構造)에 기인된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다. 2001년도 도시주민 1인당 가처분소득과 농촌주민 1인당 순수입 비율은 2.9 : 1로 높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현상은 사회제도 및 경제체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중국정부는 농산물

과 공산품의 등가교환(等價交換)을 통하여 농업부문으로부터 도시의 공업화를 위한 자본축적을 지속해 왔던 것이다.

이는 농업부문의 정상적인 발전과 농가소득 개선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또한 1950년대 형성된 호적제도는 도시와 농촌의 주민들을 불평등한 사회계층으로 분류하여 도시와 농촌의 격차를 심화시킨 요인 중 하나로 지적할 수 있다.<sup>23)</sup> 이 외에도 교육제도, 의료보험제도, 사회보장제도, 혼인제도, 중국정부의 도시거주민 주택분양 정책 혜택 등 불평등한 제도적 요인도 지적할 수 있다.

<표 4-5> 도시와 농촌 주민의 지역별 소득현황

금액단위 : 위안

구 분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도시주민 가처분소득 최상 5순위	전국평균	4,838.9	5,160.3	5,425.1	5,854.0	6,280.0	6,859.6
	상해	8,178.5	8,438.9	8,773.1	10,931.6	11,718.0	12,883.5
	북경	7,332.0	7,813.2	8,472.0	9,182.8	10,349.7	11,577.8
	절강	6,955.8	7,358.7	7,836.8	8,428.0	9,279.2	10,464.7
	광둥	8,157.8	8,561.7	8,839.7	9,125.9	9,761.6	10,415.2
	천진	5,967.7	6,608.4	7,110.5	7,649.8	8,140.5	8,958.7
농촌주민 순수입 최상 5순위	전국평균	1,926.1	2,090.1	2,162.0	2,210.3	2,253.4	2,366.4
	상해	4,866.1	5,277.0	5,406.8	5,409.1	5,596.4	5,870.9
	북경	3,561.9	3,661.7	3,952.3	4,226.6	4,604.6	5,025.5
	절강	3,463.0	3,684.2	3,814.6	3,948.4	4,253.7	4,582.3
	천진	2,999.7	3,243.7	3,395.7	3,411.1	3,622.4	3,947.7
	강소	3,029.3	3,269.9	3,376.8	3,495.2	3,595.1	3,784.7

자료 : 중국통계적요(2002), 국가통계국 중국통계출판사,(2002. 05), pp.95~100.

도시와 농촌 주민의 지역별 연도별 최상 5순위 소득현황은 <표 4-5>에 나타난 바와 같다. 2001년도 도시주민의 전국평균 가처분소득은 6,860위안으로 농촌주민 전국평균 2,366위안 대비 약 2.9배에 달했으며, 지역별로는 상해시가 인민폐 1만 2,884 위안으로 수위를 차지했고, 다음은 북경시가 1만 1,578위안, 절강성이 1만 465위안, 광둥성이 1만 415위안, 천진시가 8,959위안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들 지역의 가처분소득은 전국평균 수준 6,860위안을 크게 초과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여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유한 지역임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2001년도 농촌주민의 순수입 전국평균은 2,366위안으로 도시주민 가처분소

23) 趙人衛, 我國轉型期中收入分配的一些特殊現象, 經濟研究, 1992.

박준근 외2인 공저, 중국의 식량경제, 전남대학출판부, 2000, p.62.

득 전국평균 6,860위안 대비 34.5%에 불과한 상태이며, 지역별로는 상해시가 인민폐 5,871위안으로 수위를 차지했고, 다음은 북경시가 5,026위안, 절강성이 4,582위안, 천진시가 3,948위안, 강소성이 3,785위안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들 지역 농가의 순수입은 전국평균 수준 2,366위안을 크게 초과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여타 농촌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유한 상태임을 확인할 수 있다.

<표 4-6> 지역별 도시주민 1인당 가처분소득

금액단위 : 위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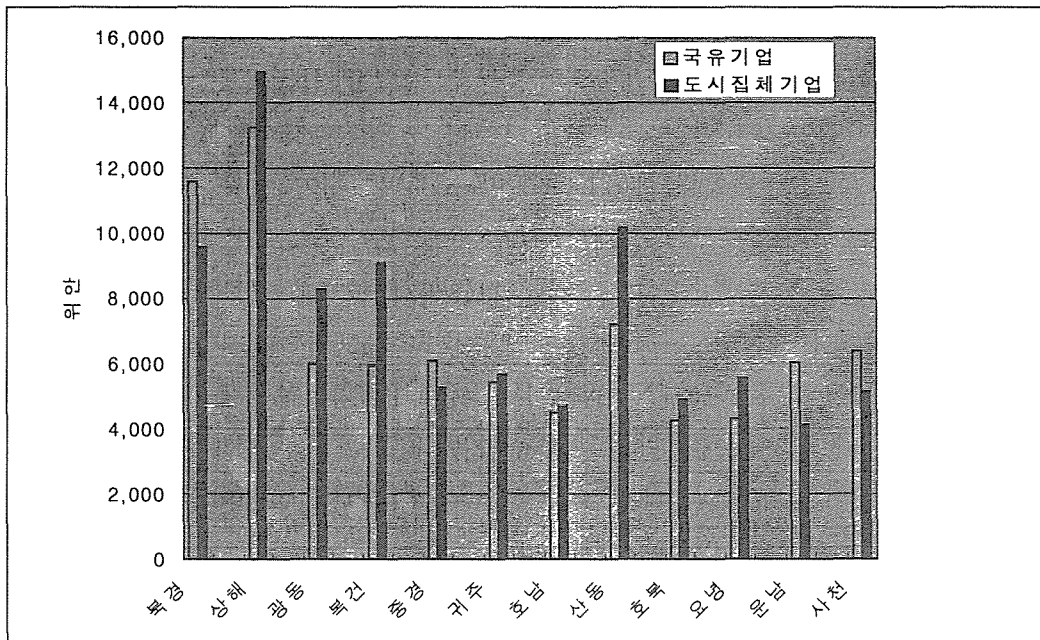
지역별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북경	7,332.0	7,813.2	8,472.0	9,182.8	10,349.7	11,577.8
천진	5,967.7	6,608.4	7,110.5	7,649.8	8,140.5	8,958.7
하북	4,442.8	4,958.7	5,084.6	5,365.0	5,661.2	5,984.8
산시	3,702.7	3,989.9	4,098.7	4,342.6	4,724.1	5,391.1
내몽고	3,431.8	3,944.7	4,353.0	4,770.5	5,129.1	5,535.9
요녕	4,207.2	4,518.1	4,617.2	4,898.6	5,357.8	5,797.0
길림	3,805.5	4,190.6	4,206.6	4,480.0	4,810.0	5,340.5
흑룡강	3,768.3	4,090.7	4,268.5	4,595.1	4,912.9	5,425.9
상해	8,178.5	8,438.9	8,773.1	10,931.6	11,718.0	12,883.5
강소	5,185.8	5,765.2	6,017.9	6,538.2	6,800.2	7,375.1
절강	6,955.8	7,358.7	7,836.8	8,428.0	9,279.2	10,464.7
안휘	4,512.8	4,599.3	4,770.5	5,064.6	5,293.6	5,668.8
복건	5,172.9	6,143.6	6,485.6	6,859.8	7,432.3	8,313.1
강서	3,780.2	4,071.3	4,251.4	4,720.6	5,103.6	5,506.0
산둥	4,890.3	5,190.8	5,380.1	5,809.0	6,490.0	7,101.1
하남	3,755.4	4,093.6	4,219.4	4,532.4	4,766.3	5,267.4
호북	4,364.0	4,673.2	4,826.4	5,212.8	5,524.5	5,856.0
호남	5,052.1	5,209.7	5,434.3	5,815.4	6,218.7	6,780.6
광둥	8,157.8	8,561.7	8,839.7	9,125.9	9,761.6	10,415.2
광서	5,033.3	5,110.3	5,412.2	5,619.5	5,834.4	6,665.7
해남	4,926.4	4,849.9	4,852.9	5,338.3	5,358.3	5,838.8
중경	.....	5,322.7	5,466.6	5,896.0	6,276.0	6,721.1
사천	4,482.7	4,763.3	5,127.1	5,477.9	5,894.3	6,360.5
귀주	4,221.2	4,441.9	4,565.4	4,934.0	5,122.2	5,451.9
운남	4,978.0	5,558.3	6,042.8	6,178.7	6,324.6	6,797.7
서장	6,556.3	.....	.....	6,908.7	7,426.3	7,869.2
협서	3,809.6	4,001.3	4,220.2	4,654.1	5,124.2	5,483.7
감숙	3,353.9	3,592.4	4,009.6	4,475.2	4,916.3	5,382.9
청해	3,834.2	3,999.4	4,240.1	4,703.4	5,170.0	5,853.7
녕하	3,612.1	3,836.5	4,112.4	4,472.9	4,912.4	5,544.2
신강	4,649.9	4,844.7	5,000.8	5,319.8	5,644.9	6,395.0
전국합계	4,838.9	5,160.3	5,425.1	5,854.0	6,280.0	6,859.6

자료 : 중국통계적요, 국가통계국 중국통계출판사, 2002.5, pp.95~100.

그리고 <표 4-6>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1년도 지역별 도시주민 1인당 가처분 소득은 상해가 1만 2,884위안으로 수위를 차지했으며, 전국 1인당 가처분소득 6,860 위안 대비 1.9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북경이 1만 1,578위안으로 전국 평균 대비 1.7배, 절강성이 1만 465위안으로 1.5배, 광둥성은 1만 415위안으로 1.5배 등의 순으로 비교적 높은 수준을 유지한 상태이다. 한편 여타 지역의 연도별 가처분소득은 <표 4-6>을 참고하기 바란다.

한편 <그림 4-1>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0년도 지역별 기업별 가운데 농업, 임업, 목축업, 어업 부문의 국유기업과 도시 집체기업 노동자 평균임금을 비교한 것이다. 특히 상해와 북경지역 노동자 임금수준은 여타 지역에 비해 평균임금 수준보다도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그림 4-1> 농림목축어업 지역별, 기업별 노동자 평균임금



또한 <표 4-7>에서와 같이, 지역별, 각 기업별 국유기업 및 도시 집체기업의 노동자 평균임금을 나타내고 있다. 북경의 농림목축어업의 노동자 평균임금은 국유기업은 1만 1,583위안이고, 도시 집체기업은 9,578위안으로 여타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상태이다. 이러한 현상은 전국 산업별 노동자 평균임금 기준으로 국유기업 1만 6,431위안 및 도시 집체기업 1만 위안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그리고 최하위인 해남성의 노동자 평균임금인 국유기업 3,430위안과 도시 집체기업 3,003위



안 대비 북경 지역 임금수준은 국유기업이 3.4배이고, 도시 집체기업이 3.2배에 달하는 상태이다.

<표 4-7> 2000년 지역별 산업별 기업별 노동자 평균임금      금액단위 : 위안

지역 \ 산업	합 계		농,임,목,어업		제조업		건축업		교통운수 통신업		금융 보험업		국가기관 사회단체	
	국유 기업	도시 집체	국유 기업	도시 집체	국유 기업	도시 집체	국유 기업	도시 집체	국유 기업	도시 집체	국유 기업	도시 집체	국유 기업	도시 집체
북 경	16,431	10,005	11,583	9,578	13,901	9,105	13,480	10,486	18,037	9,012	21,969	10,685	18,113	12,436
천 진	12,721	7,646	8,379	9,868	10,137	7,012	13,099	9,508	16,952	7,323	14,703	15,904	13,576	12,900
하 북	8,146	5,187	3,861	4,935	7,439	4,890	7,997	5,505	10,217	4,767	10,788	8,225	8,591	7,178
산 시	7,249	4,193	5,148	4,219	6,017	3,705	7,241	4,812	10,995	4,424	10,513	7,226	7,211	6,448
내몽고	7,261	4,826	4,781	3,405	5,597	4,065	6,570	5,597	10,646	4,759	10,198	7,568	7,781	7,536
요 녕	9,221	5,721	4,307	5,576	8,995	5,246	8,850	6,317	11,947	5,735	13,637	10,150	10,198	8,811
길 립	8,121	5,501	4,077	4,244	8,268	5,485	7,583	5,759	9,567	4,421	12,576	8,384	9,014	9,228
흑룡강	7,792	4,708	4,599	3,133	7,096	3,985	8,090	4,987	11,398	5,189	13,813	9,794	9,601	7,831
상 해	18,865	12,020	13,255	14,926	16,461	9,547	17,246	16,257	24,038	10,008	23,159	20,186	22,322	17,055
강 소	11,109	6,962	6,293	6,849	9,264	6,475	10,957	7,737	12,944	6,236	14,845	10,692	13,932	10,738
절 강	14,465	10,403	10,384	12,392	10,843	8,943	14,484	10,978	16,119	9,912	16,962	15,578	15,523	13,919
안 미	7,471	4,762	5,028	4,529	6,699	4,872	7,167	4,844	8,604	4,269	9,235	7,611	8,404	6,803
북 건	11,170	8,140	5,961	9,093	9,148	7,312	11,925	9,076	14,492	7,676	15,953	12,799	11,674	7,078
강 서	7,249	4,676	4,155	3,905	6,349	4,170	8,297	5,409	10,684	4,338	10,501	8,814	7,947	6,840
산 동	9,656	5,586	7,223	10,193	7,422	5,256	8,373	6,272	12,277	5,425	13,806	8,935	9,900	7,695
하 남	7,453	4,913	4,733	4,134	6,011	4,474	7,342	4,929	12,343	4,665	9,937	8,130	7,419	6,081
호 북	7,989	5,090	4,279	4,890	7,712	5,056	9,369	5,855	10,071	4,916	9,856	7,557	9,053	7,125
호 남	8,401	5,995	4,509	4,717	7,936	5,342	8,466	6,328	11,484	4,800	12,911	11,354	8,656	7,089
광 동	14,387	8,615	6,022	8,273	12,715	7,744	14,237	7,919	19,247	8,949	20,555	12,678	15,007	14,780
광 시	7,663	5,583	4,917	4,313	7,372	5,862	8,282	5,847	10,714	5,450	11,072	7,891	8,115	6,885
해 남	7,146	5,919	3,430	3,003	8,311	5,890	7,212	5,091	13,043	6,427	14,681	9,674	9,529	6,328
중 경	8,390	5,816	6,078	5,242	7,780	5,751	8,715	6,018	9,289	4,823	12,119	9,958	9,065	8,412
사 천	8,909	5,749	6,353	5,173	8,323	5,549	8,907	6,124	11,410	4,651	14,403	9,743	9,246	7,435
귀 주	7,594	5,444	5,427	5,670	7,904	5,405	8,340	6,097	9,935	5,598	10,685	7,958	7,160	5,924
운 남	9,422	7,033	6,046	4,146	10,530	7,056	8,284	7,357	11,468	8,287	11,157	9,259	9,075	9,600
서 장	15,566	5,835	12,226	-	10,686	4,406	9,586	5,839	16,993	6,818	19,803	-	17,545	-
협 서	8,043	4,920	5,779	3,703	7,333	4,789	8,107	4,683	11,789	3,793	10,389	7,648	7,442	7,239
감 속	8,916	6,806	6,607	4,415	8,916	6,431	8,585	8,170	11,720	6,179	10,655	6,756	8,781	7,396
청 해	10,744	4,785	7,344	7,634	8,389	4,254	6,896	4,445	13,995	7,696	14,839	9,800	11,138	3,574
영 하	8,913	6,538	4,604	5,113	8,596	5,779	7,876	7,463	12,281	8,870	13,690	8,688	8,691	-
신 강	8,731	7,489	5,570	6,255	8,095	7,225	11,037	7,914	12,935	8,664	14,626	9,315	9,502	6,738

자료 : 중국통계연감, 중국통계출판사, (2001.9), pp142~145.

특히 상해지역 노동자 평균임금은 국유기업이 1만 3,255위안, 도시 집체기업은 1만 4,926위안으로 여타 지역에 비해 높은 수준을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여타 산업의 노동자 평균임금과 대등한 수준에 달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광둥성의 농림목축어업의 노동자 평균임금은 국유기업이 6,022위안, 도시 집체기업이 8,273위안으로 북경과 상해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또한 이 지역의 제조업, 건축업, 교통운수 및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의 국유기업 노동자 평균임금은 농림목축어업 국유기업에 비해 큰 격차를 나타냈다. 그러나 도시 집체기업과는 대등한 수준을 보이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중국경제는 새로운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로의 전환을 이행하는 한편 과거 평균주의에 익숙한 국민들의 경제관행을 혁신하기 위해서는 사회안정과 효율적인 자원배분 등이 매우 중요한 선결 과제로 부각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1978년부터 시작된 개혁개방 추진, 1989년 장쩌민 집권과 동시에 제9차 및 제10차 5년경제계획 추진, 빈곤퇴치와 인민생활 수준 향상, 소득불균형 개선, 소비와 문화 수준의 제고, 2020년까지 국내총생산을 2000년 기준 대비 4배 달성, 실업문제 해결과 농촌발전 촉진, 서부대개발 지속적 추진, 소강형 사회건설 등 선진국 진입을 위한 야심적인 청사진을 제시하였다. 바로 이러한 청사진의 계획목표는 자원배분이 심각한 상태에 직면해 있음을 짐작케 하는 징후들인 것이다.

## (2) 소비지출 구조

도시와 농촌 주민의 연도별 소비지출 구조는 <표 4-8>에 나타난 바와 같으며, 2000년도 도시주민 소비지출 구조는 생활용품 및 기타 지출이 40.8%를 차지함으로써 수위를 차지했고, 다음은 식품류 지출이 39.2%, 그리고 의복류와 주거비 지출이 각각 10.0%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농촌주민의 소비지출 구조는 식품류 지출이 49.1%를 차지함으로써 수위를 차지했고, 다음은 생활용품 및 기타 지출이 29.6%, 그리고 주거비 지출이 15.5%, 의복류 지출이 5.8%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1985~2000년 기간의 소비지출 구조를 살펴보면 생활용품 및 기타 지출이 도시주민은 1985년도에 28.4%이던 것이 2000년도에는 40.8%로, 농촌주민은 1985년도에 14.3%이던 것이 2000년도에는 29.6%로 각각 증가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소득수준 증대와 더불어 생활수준 향상을 위한 생활용품 및 기타 지출을 지속적으로 증대시킨 데 기인된 것으로 보인다.

<표 4-8> 도시와 농촌 주민의 소비지출 구조

단위 : %

소비지출 구분	1985	1990	1995	2000
도시주민 소비지출	100.0	100.0	100.0	100.0
식품류	52.2	54.2	49.9	39.2
의복류	14.6	13.4	13.5	10.0
생활용품 및 기타	28.4	27.6	29.5	40.8
주거비	4.8	4.8	7.1	10.0
농촌주민 소비지출	100.0	100.0	100.0	100.0
식품류	57.8	58.8	58.6	49.1
의복류	9.7	7.8	6.9	5.8
생활용품 및 기타	14.3	16.1	20.6	29.6
주거비	18.2	17.3	13.9	15.5

자료 : 중국통계연감(2001), 중국통계출판사(2001. 9), p.30.

또한 이 기간 식품류와 의복류 지출비중은 도시주민과 농촌주민이 일률적으로 낮아진 데에 반하여 주거비 지출에 있어서는 도시주민은 높아지는 추세이고 농촌주민은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 4-9> 도시와 농촌 소비지출 구조의 변화

단위 : %

항 목	연 도		1985		1990		1995		2000	
	도시	농촌	도시	농촌	도시	농촌	도시	농촌	도시	농촌
식품	52.2	57.8	54.3	58.8	49.9	58.6	39.2	49.1		
의류	14.6	9.7	13.4	7.8	13.6	6.9	10.0	5.8		
주거	4.8	18.2	4.8	17.3	7.1	13.9	10.0	15.5		
가정설비용품	8.6	5.1	8.5	5.3	8.4	5.2	8.8	4.5		
의료보건	2.5	2.4	2.0	3.3	3.1	3.2	6.4	5.2		
교통통신	2.1	1.8	3.2	1.4	4.8	2.6	7.9	5.6		
오락, 교육, 문화	8.2	9.0	9.6	5.4	8.8	7.8	12.6	11.2		
기타상품, 서비스	7.2	1.1	5.2	0.7	4.3	1.8	5.2	3.1		

자료 : 중국통계연감(2001), 중국통계출판사(2001. 9), p.30.

또한 1985~2000년 기간의 보다 상세한 소비지출 구조를 도시주민과 농촌주민을 직접 비교해서 살펴보면 <표 4-9>와 같다. 도시주민 세부 항목별 2000년도 지출구조는 식품비 지출이 39.2%로 수위를 차지했으며, 다음은 오락비, 교육비, 문화비 등의 지출이 12.6%, 의류비 및 주거비 지출이 각각 10.0%, 가정설비용품 지출이 8.8%, 교통통신비 지출이 7.9%, 의료보건비 지출이 6.4%, 기타 상품 및 서비스 지

출이 5.2%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1985년도 이후 지출구조와 비교해 보면 식품비, 의류비, 기타 상품 및 서비스 등의 지출비중은 점차 낮아지고 있는 반면에 여타 오락, 문화, 교육, 의료보건, 주거, 교통통신 등의 지출비중이 생활수준 향상을 위하여 증가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농촌주민의 세부 항목별 2000년도 지출구조는 식품비 지출이 49.1%로 수위를 차지했으며, 다음은 주거비 지출이 15.5%, 오락비, 교육비, 문화비 등의 지출이 11.2%, 의류비 지출이 5.8%, 교통통신비 지출이 5.6%, 의료보건비 지출이 5.2%, 가정설비용품 지출이 4.5%, 기타 상품 및 서비스 지출이 3.1%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1985년도 이후 지출구조와 비교해 보면 식품비, 주거비, 의류비, 가정설비용품 등의 지출비중은 점차 낮아지고 있는 반면에 여타 오락, 문화, 교육, 의료보건, 교통통신, 오락과 교육 및 문화, 기타 상품 및 서비스 등의 지출비중이 생활수준 향상을 위하여 증가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소득분배 격차에 대한 국제적 비교를 했을 때,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지역 간 소득격차의 악화는 경제발전 과정의 보편적인 현상이라 할 수 있다. 각 국의 경제발전 경험을 감안해 볼 때에, 한 나라의 국민소득이 저소득으로부터 고소득으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지역간 주민들의 소득분배 지니계수(Gini coefficient)는 일반적으로 “U자형”의 변화과정을 거친다. 즉 고→저→고의 변동과정을 의미한다.

통계자료에 근거한 56개국의 지니계수 범위가 0.365~0.530<sup>24)</sup>을 고려할 때에, 중국의 1995년 농촌과 도시의 지니계수는 0.34 : 0.28<sup>25)</sup>로 추정 분석된 것을 비교했을 때에 소득 불평등도는 심각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분석은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소득분배 지니계수 증가는 제도적 변화와 경제성장과의 영향도 있다. 그러나 완전한 탈제도화 변화는 지속되어지고 있지 않은 상태이며, 1978년 이전의 평균주의 또한 잠재적으로 존재하고 있으므로 소득분배의 지니계수는 발전도상국가의 지니계수 평균치보다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 2. 소득계층별 소비성향과 소비추세

### (1) 소비함수 모형과 실증분석

“2002년 중국경제예측” 보고서에 의하면 GDP 성장률은 7.4%, 1인당 가처분 소득 성장률은 도시주민이 6.6%, 농촌주민이 3.9%, 그리고 소비성장률은 도시주민

24) 陳宗勝, 經濟發展中的收入分配, 上海三聯書店, 1990, p.263.

25) 李實 外3人 共著, 中國居民收入分配實證分析, 社會科學文獻出版社, 2000, p.60.

이 11.6%, 농촌주민이 4.5%로 전망되었다.<sup>26)</sup> 이와 같은 전망을 감안할 때에 현재 중국경제의 지속적 성장은 민간소비구조 부문에서 소비방식의 질적 변화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절에서는 1978~2000년까지의 연도별 시계열자료(time-series data)를 사용하여 중국의 소비함수(consumption function)를 추정하기로 한다. 중국의 도시와 농촌 주민의 소비행위 실증분석에 있어서 개혁개방 전후의 상이한 경제체제 하에서 소비자행위 변화의 특징적 추세분석에 적합한 소비모형의 선택을 고려하였다.

전환기의 시작은 초기단계의 전개에 있어서 정체국면의 소비자 행위로 미래의 균형조건을 갖추고 있지 못하였다. 그 행위의 특징은 기본적으로 단기의 시작단계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단계에 부합한 절대소득가설을 소비함수의 모형으로 이용하였다. 또한 전환기의 심화단계에 있어서 소비자 행위는 미래의 균형조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생애주기(生涯週期) 가설을 아래와 같은 소비모형으로 선택하였다.

$$C_t = \alpha + \beta Y_t + u_t \dots\dots\dots(1)$$

$$\alpha > 0, \quad 0 < \beta < 1$$

$$C_t = \alpha_1 Y_t + \beta_2 A_{t-1} + u_t \dots\dots\dots(2)$$

$$\alpha_1 > 0, \quad \beta_2 > 0$$

$C_t$  : 현재소비,  $Y_t$  : 현재의 소득,  $\alpha_1, \beta_2$  : 상수  
 $A_{t-1}$  : 미래에 기대할 수 있는 순자산소득,  $u_t$  : 잔차항

(2)식 중  $A_{t-1} = A_{t-2} + Y_{t-1} - C_{t-1}$ 로 놓으면, 즉 미래 순자산소득의 변화는 미래의 순자산가치에 현재의 저축을 합산한 것으로서 소비함수를 다음과 같이 유도할 수 있다. 즉 생애주기가설은 미래의 소비효용을 극대화하는데 있기 때문이다.

$$C_t = \alpha_1 Y_t + (\alpha_2 - \alpha_1) Y_{t-1} + (1 - \alpha_2) C_{t-1}$$

상기의 소비함수 (1)식과 (2)식을 민간소비지출과 가처분소득의 통계자료를 1978년 기준 불변가격(constant price)으로 환산하기 위한 소비자 물가지수와 1인당 개념으로 전환하기 위한 총인구의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추정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26) 李京文 外2人, 2002年 中國經濟前景分析(經濟藍皮書春季號), 社會科學文獻出版社, 2002, pp.19~20.

가) 1978~1991년 주민소비행위의 추정결과<sup>27)</sup>

$$\begin{aligned} \text{전체주민} : C_t &= 9.5710 + 0.9052 Y_t \\ &\quad (0.4179) \quad (31.3910) \\ R^2 &= 0.9880 \quad \text{S.E} = 18.7342 \end{aligned}$$

$$\begin{aligned} \text{도시주민} : C_t &= 16.8965 + 0.9251 Y_t \\ &\quad (1.0621) \quad (29.7191) \\ R^2 &= 0.9866 \quad \text{S.E} = 11.9325 \end{aligned}$$

$$\begin{aligned} \text{농촌주민} : C_t &= -3.0878 + 0.8534 Y_t \\ &\quad (-0.2763) \quad (21.6898) \\ R^2 &= 0.9751 \quad \text{S.E} = 10.7882 \end{aligned}$$

나) 1992~2000년 주민 소비행위의 추정결과

$$\begin{aligned} \text{전체주민} : C_t &= 0.8565 Y_t - 1.2435 Y_{t-1} + 1.4224 C_{t-1} \\ &\quad (2.8009) \quad (-2.9108) \quad (7.7077) \\ R^2 &= 0.9883 \quad \text{S.E} = 22.1864 \end{aligned}$$

$$\begin{aligned} \text{도시주민} : C_t &= 0.5071 Y_t - 0.8061 Y_{t-1} + 1.3443 C_{t-1} \\ &\quad (2.8201) \quad (-2.1285) \quad (5.2714) \\ R^2 &= 0.9865 \quad \text{S.E} = 13.9784 \end{aligned}$$

$$\begin{aligned} \text{농촌주민} : C_t &= 1.0433 Y_t - 1.1335 Y_{t-1} + 1.0567 C_{t-1} \\ &\quad (6.3364) \quad (-6.8747) \quad (6.7482) \\ R^2 &= 0.9905 \quad \text{S.E} = 8.5273 \end{aligned}$$

이상에서 추정한 회귀분석(regression analysis)을 통하여 1978~1991년도까지의 연도별 시계열자료를 이용하여 중국의 소비함수를 추정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지난 23년 기간을 두 기간으로 나누어서 평균적인 1인당 기초소비( $\alpha$ )와 한계 소비성향( $\beta$ )을 추정했을 때  $R^2$ 가 높고 회귀계수가 유의성(有意性)을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

즉 경제적으로 타당한 추정결과임과 동시에, t-통계량이나 결정계수(coefficient of determination)를 이용한 통계적 평가의 결과도 양호하다고 할 수 있다. 1978~1991년 간, 도시주민의 소비는 현재의 소득에 의하여 결정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농촌주민의 한계소비성향(marginal propensity to consume)은 도시주민에 비하

27)  $R^2$  : 적합도를 나타내는 통계치('1'에 가까울수록 좋음), S.E : 표준오차, ( )값은 T통계량.

여 낮은 값을 나타내었다. 즉 농촌주민의 소득증가량 중 소비량은 상대적으로 도시주민보다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이시기에 도시주민이 향유하는 후생복리의 차이로 볼 수 있으며, 농촌주민은 상대적으로 적은 후생복리 혜택으로 인하여 소비행위가 일정 상태에 머물도록 결정적으로 작용했던 것이다.

이와 같은 원인은 미래의 저축성향을 상승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1992~2000년 동안 도시주민의 1인당 평균소득과 소비의 회귀분석 또한 비교적 양호한 결과를 나타냈다. 그러나 도시주민의 한계소비성향은 1978~1991년 기간동안의 0.9251에서 0.5071로 급한 하락추세를 회귀분석을 통하여 알 수 있듯이 두 기간으로 나누어 분석해 볼 때, 이미 도시주민의 소비행위는 질적인 변화를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한편 1992년 이후 도시주민의 소비행위는 효용극대화(utility maximization)를 실현시키는 합리적 소비행위로 점차 전환되기 시작했다. 이와 같은 소비행태 변화는 도시주민들의 소비성향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을 뿐만 아니라 저축성향 상승과 더불어 기대효용 극대화를 중시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소비함수의 결과에서도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이 기간 도시주민의 한계소비성향은 1을 초과하였던 것이다. 이 분석결과는 초기의 소비수준을 유지하기 위하여 과거와 같은 저축수준을 유지하지 않는다면, 현재의 소비는 어려운 상황을 맞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리고 농촌주민은 상대적으로 소득이 감소하는 가운데 도시주민과의 소득격차가 확대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2001년도 중국의 1인당 GDP는 908달러에 달함으로써 지속적 소득증가와 더불어 도시주민의 소비가 급속히 증가되기 시작했다. 지난 5년간 도시와 농촌 주민의 소비는 매년 5%~6% 수준을 유지했다. 특히 1995년 도시주민의 소비는 1인당 3,500위안에서 2000년 7,000위안으로 증가했으며, 농촌주민의 소비는 2,000위안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한 2001년도 1인당 GDP가 4,000달러를 상회하는 도시로는 심천(深圳)이 5,241달러, 상해가 4,515달러, 광주가 4,594<sup>28)</sup>달러 등이 있으며, 이들 도시에서는 기본적 소비수준에서 삶의 질을 한 단계 높이는 과정으로 진입하였으며, 소비수준의 질적 향상을 이룩하게 되었다.

이러한 소비구조의 패턴과 변화는 제10차 5개년 경제사회발전계획(2001~2005)이 종료되는 시점에는 소득과 소비의 증가뿐만 아니라 지금의 소비구조 보다도 한 층 발전될 것으로 기대된다.

28) 深圳統計信息年鑒, 深圳統計局, 2001.6. 上海統計年鑒, 中國統計出版社, 2001.7.  
廣州統計年鑒, 中國統計出版社, 2001.6.

### 3. 농산물 수입현황과 식품소비 구조

#### (1) 농산물 수입현황

연도별 국가별 농산물(식품)<sup>29)</sup> 수입 현황은 <표 4-10>에 나타난 바와 같다. 2000년도 중국의 농산물 수출입총액은 233억 1,815만 달러로 1999년도 189억 64만 달러 대비 23.4%가 증가했으며, 이 가운데 수출은 133억 3,087만 달러로 전년대비 15.0%, 수입은 99억 8,728만 달러로 전년 대비 36.5%가 각각 증가되었다.

<표 4-10> 국가별 농산물 수출입 현황

국 가 별	1999(만 달러)		2000(만 달러)		전년 대비(%)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아시아	853,199	168,323	995,347	173,602	16.6	3.1
중국		808		1,697		109.8
홍콩	172,010	4,077	173,467	3,058	0.8	-24.9
대만	12,218	7,559	17,205	7,757	40.8	2.6
한국	68,941	6,092	126,458	7,521	83.4	23.4
동남아국가	136,377	119,824	149,067	121,085	9.3	1.0
버어마	2,709	688	3,058	1,478	12.8	114.7
인도네시아	39,919	31,375	40,606	28,058	1.7	-10.5
필리핀	17,907	6,148	16,760	10,174	-6.4	65.4
싱가폴	21,727	4,849	19,265	4,505	-11.3	-7.1
태국	10,302	24,647	15,212	29,217	47.6	18.5
베트남	7,926	4,646	8,896	5,162	12.2	11.1
북한	8,628	357	7,199	408	-16.5	14.0
인도	25,638	9,101	19,800	8,337	-22.7	-8.3
말레이시아	34,842	47,337	44,071	42,247	26.4	-10.7
몽고	810	2,258	1,937	2,209	139.2	-2.1
파키스탄	2,538	2,221	7,083	1,574	179.1	-29.1
터어키	1,489	831	2,641	1,390	77.3	67.4
일본	389,254	13,096	450,564	15,659	15.7	19.5
대서양	9,200	110,338	9,376	164,921	1.9	49.4
오스트레일리아	7,876	86,599	8,103	135,626	2.8	56.6
아프리카	40,869	7,965	45,516	14,264	11.3	79.0
이집트	7,079	248	4,413	1,270	37.6	412.6
남아프리카공화국	3,763	1,477	4,260	1,422	13.2	-3.7
유럽	164,433	113,151	173,711	125,912	5.6	11.2
독일	34,657	12,332	33,301	10,030	-3.9	-18.6
프랑스	10,478	26,402	11,316	35,546	8.0	34.6
영국	14,301	13,093	14,792	9,305	3.4	-28.9
네덜란드	30,059	15,281	35,724	20,300	18.8	32.8
라틴아메리카	16,411	115,728	17,051	200,380	3.9	73.1
쿠바	5,227	5,569	6,962	6,297	33.2	13.0
북미아메리카	74,357	216,072	92,085	319,620	23.8	47.9
미국	66,087	168,375	81,395	250,586	23.1	48.8
캐나다	8,267	47,698	10,690	69,034	29.3	44.7
합 계	1,158,469	731,595	1,333,087	998,728	15.0	36.5

자료 : 중국농업연감, 중국농업출판사(2001.11), pp.121~126.

29) 품목별 가운데 선택한 식품류 수입은 HS분류 제1~4류와 양치식물을 의미한다.



또한 2000년도 지역별 수입현황은 아시아 지역 국가가 17억 3,602만 달러로 전년 대비 3.1%, 동남아 지역 국가가 12억 1,085만 달러로 전년대비 1.0%, 대서양 지역 국가가 16억 4,921만 달러로 전년대비 49.5%, EU지역 국가가 12억 5,912만 달러로 전년대비 11.2%, 북미아메리카 지역 국가가 31억 9,620만 달러로 전년대비 52.4%가 각각 증가되었다.

2000년도 국가별 전년대비 수입변동율은 이집트가 412.6%, 버어마가 114.7%의 높은 증가율을 각각 기록하였고, 아프리카 79%, 터어키 67.4%, 필리핀 65.4%, 미국 48.8%, 캐나다 44.7%, 프랑스 34.6%, 한국 23.4%, 일본 19.5%의 증가율을 각각 나타냈다.<sup>30)</sup> 반면 독일이나 영국, 파키스탄,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인도, 싱가포르,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으로부터의 수입은 감소를 보였다.

또한 2000년도 중국 성시별(省市別) 수입현황은 <표 4-11>과 같다. 2000년도 총 수입은 99억 8,728만 달러에 달했으며, 이 가운데 북경시가 26억 3,020만 달러로 수위를 차지했으며 전년대비 36.8%, 다음은 광둥성이 21억 5,792만 달러로 전년대비 16.4%, 상해시가 9억 6,621만 달러로 전년대비 36.1%, 산둥성 7억 9,508만 달러로 71.9%, 절강성이 6억 9,083만 달러로 전년대비 83.5%가 각각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sup>31)</sup>

이와 같이 중국의 농산물 수출입 증감은 지역별 소득격차와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중국의 농산물 수출은 동남 연해지역을 중심으로 증가되는 경향을 보였으며, 수입품은 화북, 화동, 화남 등의 지역이 수입 농산물의 주요 소비지로 부상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또한 일중경제협회(日中經濟協會)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2001년도 중국의 식료품 수출은 155억 달러로 총수출액 2,662억 달러의 5.8%를 차지했으며, 식료품 수입은 98억 달러로 총수입액 2,436억 달러의 4.0%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중국의 대일본 식료품 수출은 57억 달러로 식료품 수출총액의 36.8%를 차지함으로써 대일본 수출의존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대미국 수입은 23억 달러로 식료품 수입총액의 23.5%를 차지함으로써 대미국 수입의존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sup>32)</sup>

한편 중국농업부 농업정보센터<sup>33)</sup>에 의하면 2002년 1~8월까지의 농산물 수출은 111억 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10.5%가 증가했고, 수입은 75억 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1.9%가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2002년 1~8월까지 품목별 수입량은 쌀이

30) 중국농업연감, 중국농업출판사, 2001, pp.121~126.

31) 중국농업연감, 중국농업출판사, 2001, p.128.

32) 일중경협 日中經協, 재단법인 일중경제협회, 2002.11, No.106, pp.5~7.

33) 중국농업부, 농업정보센터(<http://www.ainfo.com.cn>)

14.2만 톤으로 전년동기 대비 7.1%, 옥수수는 0.73만 톤으로 70.2%가 각각 감소한 반면에 소맥은 51.5만 톤으로 전년동기 대비 122%가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1> 지역별 농산품 수출입 현황

지역명	1999 (만 달러)		2000 (만 달러)		전년 대비 (%)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북 경	117,156	192,176	83,823	263,020	-28.4	36.8
천 진	28,736	21,080	27,654	24,664	-3.7	17.0
하 북	33,029	22,873	43,888	36,184	32.8	58.2
산 시	3,509	697	3,547	918	1.0	31.5
내몽고	12,486	2,883	41,394	3,566	231.5	23.6
요 녕	66,973	23,863	79,718	52,222	19.0	118.8
길 립	37,406	6,279	53,211	8,244	42.2	31.3
흑룡강	27,611	4,885	37,633	7,402	36.3	51.5
상 해	51,943	70,949	56,534	96,627	8.8	36.1
강 소	54,976	49,676	61,109	60,718	11.1	22.2
절 강	79,710	37,645	100,657	69,083	26.2	83.5
안 휘	24,011	2,070	26,489	2,844	10.3	37.4
북 건	106,125	25,962	115,317	26,696	8.6	2.8
하 문	31,045	7,057	32,730	6,059	5.4	-14.1
강 서	15,356	843	20,937	740	36.3	-12.2
산 동	160,785	46,236	207,079	79,508	28.7	71.9
하 남	15,822	8,577	16,897	14,210	6.7	65.6
호 북	12,578	2,797	15,300	2,681	21.6	-4.1
호 남	15,512	1,526	16,706	4,557	7.7	198.6
광 동	184,948	185,346	203,576	215,792	10.0	16.4
심 천	61,377	51,031	60,189	58,288	-1.9	14.2
주 해	5,664	9,183	6,028	9,906	6.4	7.8
산 두	8,766	6,458	18,092	6,434	106.3	-0.3
광 서	16,294	4,850	15,537	3,496	-4.6	-27.9
해 남	5,105	3,241	5,116	3,408	0.2	5.1
사 천	24,365	3,961	28,161	5,768	15.5	45.6
귀 주	3,304	1,992	2,867	2,324	-13.2	16.6
운 남	24,789	1,599	21,137	2,334	-14.7	45.9
서 장	904	680	739	553	-18.3	-18.6
협 서	8,489	717	9,669	1,104	13.8	54.0
감 숙	2,541	1,024	2,757	1,498	8.4	46.2
칭 해	993	26	959	93	-3.4	251.6
녕 하	831	312	1,195	393	43.7	26.1
신 강	22,180	6,829	33,483	8,081	50.9	18.3
합 계	1,158,469	731,595	1,333,087	998,728	15.0	36.5

자료 : 중국농업연감, 중국농업출판사(2001.11), p.128.

그리고 채소는 6만 4천 톤으로 전년동기 대비 1.5%가 증가했으며 수입액은 5천만 달러로 13.9%가 신장되었다. 과일 수입량도 66만 2천 톤으로 전년동기 대비 13%가 증가했으며 수입액은 2억 7천만 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12%가 신장했으며, 축산물 수입액은 13억 4천만 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7.4%가 증가된 상태이다.<sup>34)</sup> 이와 같이 중국은 WTO가입 이후 농산물 수입이 증가추세를 지속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 (2) 도시와 농촌의 식품 소비성향

중국경제는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로의 이행과 더불어 지역간, 계층간, 연령간, 학력간 소득격차가 점차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중요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한 상태이다. 또한 WTO 가입에 따른 시장개방은 농산물 가격의 하락과 탈농업으로 인하여 농가소득의 격차는 더욱 심화되는 가운데 소비도 위축되고 있는 실정이다.

<표 4-12> 도시와 농촌의 1인당 식품 소비현황

단위 : kg

연 도	양 곡		채 소		식용유		돈·우·양육		가금류	
	도시	농촌	도시	농촌	도시	농촌	도시	농촌	도시	농촌
1981	145.4	256.0	152.3	124.0	4.8	3.1	18.6	8.7	1.9	0.7
1982	144.6	260.0	159.1	132.0	5.8	3.4	18.7	9.1	2.3	0.8
1983	144.5	260.0	165.0	131.0	6.5	3.5	19.9	10.0	2.6	0.8
1984	142.1	267.0	149.0	140.0	7.1	4.0	19.9	10.6	2.9	0.9
1985	134.8	257.0	144.4	131.1	5.8	4.0	18.7	11.0	3.2	1.0
1986	137.9	259.0	148.3	134.0	6.2	4.2	21.6	11.8	3.7	1.1
1987	133.9	259.0	142.6	130.0	6.4	4.7	21.9	11.7	3.4	1.2
1988	137.2	260.0	147.0	130.0	6.7	4.8	19.8	10.7	4.0	1.3
1989	133.9	262.0	144.6	133.0	6.2	4.8	20.3	11.0	3.7	1.3
1990	130.7	262.0	138.7	134.0	6.4	5.2	21.7	11.3	3.4	1.3
1991	127.9	256.0	132.2	127.0	6.9	5.7	22.2	12.2	4.4	1.3
1992	111.5	251.0	124.9	129.1	6.7	5.9	21.4	11.8	5.1	1.5
1993	97.8	266.0	120.6	107.4	7.1	5.7	20.8	11.7	3.7	1.6
1994	102.0	257.0	121.0	109.0	7.7	5.7	20.2	11.0	4.1	1.6
1995	97.0	258.9	116.5	104.6	7.1	5.8	19.4	11.3	4.0	1.8
1996	94.7	254.2	118.5	105.3	7.1	5.9	20.4	11.8	4.0	2.1
1997	88.6	250.7	113.3	107.2	7.2	6.2	22.5	12.7	4.9	2.4
1998	86.7	249.3	113.8	108.2	7.7	6.1	23.4	13.2	4.7	2.3
1999	84.9	247.5	114.9	108.9	7.8	6.2	20.0	13.9	4.9	2.5
2000	82.3	249.5	114.7	112.0	8.2	7.1	20.1	14.6	5.4	2.9

자료 : 중국통계연감, 중국통계출판사, 각 연도.

34) 중국농업부, 농업정보센터, 2002. 10, <http://www.ainfo.com.cn>.

그러나 이와는 대조적으로 소득수준이 높은 주요 대도시 주민들의 소비수준은 점진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북경, 상해, 광주 등의 주민소득과 소비수준은 점진적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 특히 이들 고소득 소비자들은 안전하고 우수한 수입 농산물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는 가운데 점차 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도시와 농촌간 1인당 식품소비 구조를 비교해 보면 <표 4-12>와 같다. 2000년도 농촌 주민의 1인당 양곡 소비량은 249.5kg으로 도시주민의 82.3kg에 비해 약 3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채소 소비량은 112.0kg으로 도시주민의 114.7kg에 비해 다소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식용유 소비량은 7.1kg으로 도시주민의 8.2kg에 비해 역시 적은 상태이다. 그리고 돼지고기, 쇠고기, 양고기 등의 소비량은 14.6kg으로 도시주민의 20.1kg에 비해 다소 적은 것으로 나타났고, 끝으로 가금류 소비량은 2.9kg으로 도시주민의 5.4kg에 비해 2.3kg이 적은 상태이다.

이미 <표 4-4>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도시와 농촌간 소득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앵겔계수는 점진적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추세이다. 이와 같은 현상은 정부의 식량정책에서 도시가구에 대해서만 “양유보첨(糧油補添)”<sup>35)</sup>의 명목으로 식품보조비가 지원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sup>36)</sup> 이러한 결과 도시 소비자의 식품소비 성향은 고품질 식품과 고가품을 선호하는 품질 위주의 소비행태가 점차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 반면에 농촌의 경우는 생계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식품이 소비되는 가운데 양곡소비 비중이 높게 나타나기 때문에 앵겔계수가 도시주민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sup>37)</sup>

## 4. 주요 대도시 고소득층 소비성향과 선호도 분석

### (1) 북경, 광주, 상해의 소득수준과 소비지출 구조

1978년 개혁개방 이래 중국은 경제체제, 산업구조, 경제발전 전략 등의 다양한 경제여건의 변화가 지속되어 왔었다. 또한 1992년 덩소평의 “남순강화(南巡講話)”는 중국의 경제성장을 가속화시키는 원동력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내수시장 규모의 확대와 수요증가에 획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었다. 한편 중국경제는 이미 토론한 구매력 평가 기준을 고려할 때에 세계의 관심과 더불어 거대신흥시장(BEMs : the big emerging markets)으로의 부상은 기존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35) 도시 주민에 대한 정부로부터 매월 100~200위안 정도 식생활 보조비 지원을 의미함.

36) 박준근 외 2인 공저, 앞의 책, p.192.

37) 黃季琨, 앞의 책, p.192.

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중국의 지속적 경제발전은 소득증대와 소비증가를 촉진시키는 가운데 “거대신흥시장”의 면모를 갖추기 위한 전략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하겠다.

특히 한국산 “수출유망 농산물”의 대중국 수출 중장기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중국 대도시 고소득층의 소비성향과 선호도를 우선 파악해 보아야 할 것이다. 효과적인 분석을 위해 우선 중국의 주요 10대 도시 가운데 소득과 소비 수준이 높은 북경, 광주, 상해 주민들의 소득구조와 소비성향에 대한 현황을 살펴보는 동시에 선행연구(先行研究) 자료를 참고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표 4-13> 중국의 고소득층 가구수와 인구 예측

지역별		1997			1998			2000		
		가구 비율 (%)	예상 가구수 (만호)	예상 인구 (만명)	가구 비율 (%)	예상 가구수 (만호)	예상 인구 (만명)	가구 비율 (%)	예상 가구수 (만호)	예상 인구 (만명)
북경	부유형	6.0	18.9	65.0	6.1	24.2	83.3	6.3	26.3	90.6
	부호형	1.0	3.2	10.8	1.1	4.4	15.0	1.3	5.4	18.7
상해	부유형	6.0	25.6	88.1	6.2	26.5	91.3	6.3	34.0	116.8
	부호형	1.0	4.3	14.7	1.2	5.1	17.7	1.3	7.0	24.1
광동성	부유형	6.0	69.1	237.8	6.1	71.7	246.8	6.3	120.6	415.0
	부호형	1.0	11.5	39.6	1.1	12.9	44.5	1.3	24.9	85.6

주 : 1998년도와 2000년도 가구비율 산정기준은 1997년도 가구비율을 기준으로 각 년도 전년 대비 1인당 소득증가 차액을 고려하여 계상하였음.

예상 가구수는 1997년도 북경 가구총수 315 만 호, 상해 427 만 호, 광동성 1,152 만 호(1998년도 북경 가구총수 397 만 호, 상해 428 만 호, 광동성 1,176 만 호, 2000년도 북경시 가구총수 418 만 호, 상해시 539 만 호, 광동성 1,915 만 호)를 대상으로 가구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것임. 그리고 예상인구 수는 가구당 평균 인구 3.44명을 적용하여 산출한 것임.

자료 : 저자에 의하여 작성됨.

단, 1997년도 가구비율은 금희연 학자의 자료 수치를 기준으로 하였음.

<표 4-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7년도 북경, 상해, 광동성 등의 부유형과 부호형의 가구점유 비율을 기준으로 예상가구와 예상인구를 추계한 것이며, 1998년도와 2000년도는 1997년도 가구점유 비율을 기준, 가처분소득 증가율을 적용하여 가구비율, 예상가구, 예상인구를 산출한 것이다. 이 결과에 의하면 1997년도 북경의 부유형 가구비율은 6%로써 예상가구는 18만 9천 호이고 예상인구는 65만 명에 달하며,

부호형 가구비율은 1%로써 예상가구는 3만 2천 호이고 예상인구는 10만 8천 명에 달하는 것으로 산출되었다. 따라서 부유형과 부호형을 고소득층으로 간주할 경우 예상가구는 북경시 가구의 7%에 해당하는 22만 1천 가구로 예상인구는 75만 8천 명에 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2000년도에는 부유형 예상가구는 북경시 가구의 6.3%에 해당하는 26만 3천 호로 90만 6천 명이고, 부호형 예상가구는 북경시 가구의 1.3%에 해당하는 5만 4천 호로 예상인구는 18만 7천 명에 각각 달하는 것으로 산출되었다. 따라서 2000년도 북경시의 고소득층의 경우 예상가구는 북경시 가구의 7.6%에 해당되는 31만 7호로 예상인구는 109만 3천 명에 달하는 것으로 산출되었다.

그리고 1997년도 상해시의 부유형 가구비율은 상해시 가구의 6%로써 예상가구는 25만 6천 호이고 예상인구는 65만 명으로 산출되었으며, 부호형 가구비율은 상해시 가구의 1%로써 4만 3천 호로 예상인구는 14만 7천 명으로 산출되었다. 따라서 부유형과 부호형을 고소득층으로 간주할 경우 예상가구는 상해시 가구의 7%에 해당되는 29만 9천 호이고 예상인구는 102만 8천 명으로 산출되었다. 또한 2000년도 부유형 가구비율은 상해시 가구의 6.3%로써 예상가구는 34만 호이고 예상인구는 116만 8천 명으로 산출되었고, 부호형 가구비율은 상해시 가구의 1.3%로써 예상가구는 7만 호이고 예상인구는 24만 1천 명으로 각각 산출되었다. 따라서 2000년도 상해시 고소득층의 예상가구는 상해시 가구수의 7.6%에 해당되는 41만 호이고 예상인구는 149만 9천 명으로 산출되었다.

1997년도 광동성의 부유형 가구비율은 광동성 가구의 6%로써 예상가구는 69만 1천 호이고 예상인구는 237만 8천 명으로 산출되었으며, 부호형 가구비율은 광동성 가구의 1%로써 11만 5천 호로 예상인구는 39만 6천 명으로 산출되었다. 따라서 부유형과 부호형을 고소득층으로 간주할 경우 예상가구는 광동성 가구의 7%에 해당하는 80만 6천 호이고 예상인구는 277만 4천 명으로 산출되었다. 또한 2000년도 부유형 가구비율은 광동성 가구의 6.3%로써 예상가구는 120만 6천 호이고 예상인구는 415만 명으로 산출되었고, 부호형 가구비율은 광동성 가구의 1.3%로써 예상가구는 24만 9천 호이고 예상인구는 85만 6천 명으로 각각 산출되었다. 따라서 2000년도 광동성의 고소득층의 예상가구는 광동성 가구의 7.6%에 해당하는 145만 5호이고 예상인구는 500만 6천 명으로 산출되었다.

이상의 추계결과에 의해 2000년도 3개 지역 부유형과 부호형을 합제한 고소득층 예상인구 규모를 살펴보면 북경시가 109.3만 명, 상해시가 140.9만 명, 광동성이 500.6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소비자 규모는 비록 특정 3개 지역의 결과이나, 만일 전국적으로 고려한다면 고소득층 인구규모는 약 1억 명, 부호형은



<표 4-15> 북경시 1인당 평균 소비지출

항 목	2001년도 (위안)	전년대비 증가율 (%)	점유율 (%)
소비지출 총액	8,922.72	5.1	100.0
식품	3,229.28	36.2	4.7
의복	821.72	8.8	9.2
가정용품	847.39	-22.8	9.5
주거	587.98	0.1	6.6
교육, 문화, 오락	1,429.15	11.3	16.0
의료, 보건	677.66	15.1	7.6
교통, 통신	768.34	27.1	8.6
기타	562.10	14.1	6.3

주 : 주거는 주택임대료, 물, 전기, 가스 및 기타비용을 포함.  
 자료 : 중국의 유통시장 현황, KOTRA, (2002. 6), p.81.

최근 북경주민들의 소비성향도 급속한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중국정부는 2008년 북경올림픽 준비를 위한 북경시 환경 개선을 추진하기 위해 막대한 투자를 주거개선과 인프라 구축, 교통망 확충, 부문별 서비스 지원 등에 역점을 두고 있다. 이와 같은 환경개선은 주거개선, 가전제품, 자동차, 통신 등의 분야에 수요창출과 공급확대로 이어져 이들 제품의 수요증가와 더불어 점차 소비성향과 구매구조가 변화되고 있는 상태이다.

소비성향의 특성은 사례조사를 통하여 알 수 있다. 중국 국가통계국이 300가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70%의 주민이 1주일 동안 필요한 물품을 주말에 시간을 할애하여 구입한다고 응답했다. 또한 구매방법에 있어서도 현대화 된 구매방법의 욕구가 응답자 중 41%로 슈퍼형 쇼핑을 선호하였다. 그리고 22%는 상품 운송을 선호하였으며, 18%는 전화쇼핑을 선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품의 소비지출에 있어서도 식품류는 중저가의 대중화로 실리를 추구하는 반면에 내구소비재의 소비에 있어서는 고급화를 추구하는 것이 북경 주민들의 일반적인 소비심리로 조사되었다.<sup>38)</sup>

광주시는 지리적으로 홍콩과 인접해 있으며 중국 남부지역의 상업과 관광의 중심지로서 입지조건이 발달된 도시로서 수입상품의 집산지이기도 하다. 그리고 북경, 상해와 함께 중국의 3대 소비시장으로 그 명성이 인정된 도시이다.

<표 4-16>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0년도 광주시 주민 1인당 가처분소득은 1만 3,967위안으로 전년대비 16.2%가 증가했으며, 1인당 소비지출은 1만 1,349위안으로 전년대비 16.4%가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소득수준별 소비지출은 저소득

38) 중국의 유통시장 현황, KOTRA, 2002, p.82.



층이 6,953위안으로 전년대비 12.5%, 고소득층이 2만 4,565위안으로 전년대비 18.9%가 각각 증가했다. 또한 2000년도 고소득층 소득은 2만 4,565위안으로 저소득층 소득 6,953위안에 비해 무려 1만 7,612위안이 많은 상태이며 3.5배에 달했다.

<표 4-16> 광주시 1인당 가처분소득과 소비지출 구조 단위 : 위안, %

구 분		1998	1999	2000
1인당 가처분소득		11,256	12,019	13,967
소득수준별 1인당 생활비	저소득층	6,189	6,181	6,953
	중저소득층	8,726	8,960	10,341
	중소득층	10,666	11,186	12,773
	중상소득층	12,952	13,894	15,606
	고소득층	18,709	20,663	24,565
구분	소비지출	9,422 (83.7)	9,751 (81.1)	11,349 (81.3)
	식품	4,210 (37.4)	4,290 (35.7)	4,836 (34.6)
	의복비	535 (4.8)	548 (4.6)	587 (4.2)
	가정용품	820 (7.3)	763 (6.3)	813 (5.8)
	의료,보건비	376 (3.3)	394 (3.3)	445 (3.2)
	교통,통신비	692 (6.1)	764 (6.4)	1,034 (7.4)
	문화, 오락비	1,106 (9.4)	1,115 (9.2)	1,443 (10.3)
	주택	1,224 (10.9)	1,310 (10.9)	1,475 (10.6)
	기타소비지출	503 (4.5)	567 (4.7)	718 (5.1)
	비소비지출	1,432 (12.7)	1,466 (12.2)	1,537 (11.0)

주 : ( )내 수치는 1인당 가처분소득 대비 점유비율.

자료 : 광주통계연감, 중국통계출판사, 2001, pp.201~203.

광주시 주민의 2000년도 소비지출 구조를 살펴보면 1인당 식품소비 지출은 4,836 위안으로 1인당 가처분소득의 34.6%, 소비지출의 42.6%를 각각 차지했으며, 전년도 4,290위안 대비 12.7%가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 통신비 지출은 1,034위안으로 1인당 가처분소득의 7.4%, 주택비 지출은 1,475위안으로 1인당 가처분소득의 10.6%, 문화, 오락 지출은 1,443위안으로 1인당 가처분소득의 10.3%, 의료, 보건 지

출은 445위안으로 1인당 가처분소득의 3.2% 등으로 각각 나타났다. 여타 항목의 상세한 지출은 <표 4-16>을 참고하기 바란다.

특히 광주 주민들의 소비특성을 살펴보면, 연도별, 품목별로 소비패턴의 변화가 심하게 나타나고 있는 점을 발견할 수가 있다. 특히 내구성 소비재의 경우 가사노동을 경감시켜 주거나 여가시간을 향유할 수 있는 고급형 음향기기, 휴대폰, 노트북 등의 소비가 증가되고 있는 점이다. 또한 가정생활에 흥미를 더해주거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제품의 소비가 증가하고 있다. 화남지역에서도 유통의 중심지로 대표되는 광주는 도소매업 유통망이 잘 발달된 도시이다. 그리고 5개 지역 내에는 소매 유통망이 밀집되어 있고, 크고 작은 다양한 유형의 상점, 중·대형 백화점 및 음식점들이 있어 5분 이내에 생필품을 구입할 수 있는 도시로 발전되고 있다.

상해시는 제10차 5개년경제계획(2001~2005년)과 더불어 상해시 발전방향을 도시 종합경쟁력 제고에 두고 있다. 즉 경제성장도 상호조화 속에 이루어져 가는 도시를 추구하고 있다. 특히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서비스 분야의 유통, 금융, 무역업 분야의 점진적 개방확대가 이루어져 가고 있다. 이와 같은 계획은 상해시 주민들의 소득증대와 소비시장의 안정적 발전에도 기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표 4-1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해시는 서비스산업의 발전과 외국인들의 투자 증대로 인하여 소득증대와 소비지출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2001년도 도시주민 1인당 가처분소득은 1만 2,883위안으로 전년대비 9.9%가 증가했으며, 2001년도 1인당 소비지출은 9,336위안으로 전년대비 5.3%가 증가하였다. 그리고 2000년 소득수준별 1인당 가처분소득은 저소득층이 7,607위안으로 전년 대비 11.3%가 증가했고, 고소득층이 2만 3,849위안으로 1999년도 2만 4,006위안 대비 0.7%가 감소되었다. 따라서 2000년도 저소득층과 고소득층간의 1인당 가처분 소득의 격차는 무려 1만 6,242위안으로 빈부격차의 심각성을 발견할 수가 있다.<sup>39)</sup>

상해시 주민의 소득증대와 생활수준 향상은 소비지출 면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특히 2001년도 1인당 식품류 소비지출은 4,022위안으로 상해시 소비지출의 43.1%, 교육, 문화, 오락비 지출은 1,360위안으로 14.6%, 교통, 통신비 지출은 875위안으로 9.4%, 그리고 임대비는 소비지출의 7.8%, 가정용품비 지출은 6.9%, 의류비 지출은 6.2%, 의료, 보건비 지출은 6.0%를 각각 점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상해시는 주민들의 소비성향이 고급품을 선호하는 경향이 높고 중구의 유통 중심지이기 때문에 중·대형백화점, 슈퍼마켓, 할인점, 전문점, 편의점, 고급 백화점 등이 남경로(南京路) 주변을 중심으로 동서(東西) 약 5km에 걸쳐서 유통중심과 유행선도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유통기업도 현재 약 26만여 개, 체인점 형식의 소매

39) 상해통계연감, 중국 통계출판사, 2001, p.52.

점이 1,560여 개, 편의점이 2000여 개, 대형 쇼핑센터가 25개, 외국의 유통기업이 6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sup>40)</sup> 따라서 이와 같은 상해시의 변화는 상해시 주민의 소득과 소비 수준을 향상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소비시장으로서 국내외 주목을 받고 있는 도시이다.

<표 4-17> 상해시 1인당 가처분소득과 소비지출 구조 단위 : 위안

연 도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1인당 가처분소득		8,158.74	8,438.89	8,773.10	10,931.64	11,718.01	12,883.46
소 비 지 출		6,763.08 (100.00)	6,819.94 (100.00)	6,866.41 (100.00)	8,247.69 (100.00)	8,868.19 (100.00)	9,336.10 (100.00)
구분	식품	3,415.56 (50.7)	3,510.04 (51.5)	3,467.95 (50.5)	3,712.31 (45.0)	3,915.59 (44.2)	4,021.77 (43.1)
	의복	589.68 (8.8)	551.58 (8.1)	472.27 (6.9)	550.74 (6.7)	567.37 (6.4)	577.39 (6.2)
	가정용품	637.32 (9.5)	1,009.21 (14.8)	466.84 (6.8)	893.37 (10.8)	735.75 (8.3)	642.08 (6.9)
	의료, 보건	147.72 (2.2)	197.09 (2.9)	260.78 (3.8)	346.93 (4.2)	500.86 (5.6)	557.96 (6.0)
	교통, 통신	467.88 (6.9)	487.40 (7.1)	384.49 (5.6)	527.00 (6.4)	691.61 (7.8)	875.35 (9.4)
	교육, 문화, 오락	779.28 (11.6)	482.93 (7.1)	843.24 (12.3)	1,034.98 (12.5)	1,227.70 (13.8)	1,359.75 (14.6)
	임대	392.64 (5.8)	177.33 (2.6)	659.59 (9.6)	720.33 (8.7)	741.20 (8.4)	732.43 (7.8)
	기타 소비지출	333.24 (4.9)	404.36 (5.9)	311.24 (4.5)	462.03 (5.6)	488.11 (5.5)	569.37 (6.1)
소비성향		82.89	80.82	78.27	75.45	75.68	72.47

주 : ( )내 수치는 각 항 지출내 점유율을 의미함.

자료 : 중국통계적요, 중국통계출판사, 2002, p.95.

상해통계연감, 중국통계출판사, 2001, pp.7~13.

상해시 소매업은 백화점, 슈퍼마켓, 할인점, 전문점, 대형 창고형 매장 등으로 구분되며, 한결같이 신속한 발전을 지속하고 있다. 2001년 중국의 사회소비품 소매액은 3조 7,595억 위안으로 1인당 2,698위안에 달했으며, 이 가운데 상해시 소비품 소매액은 1,861억 위안으로 전국 사회소비품 소매액의 5.0%를 차지했으며 전년 대비

40) 중국의 유통시장 현황, KOTRA, 2002, pp. 97~98.

8.1% 증가됨으로써 상해시 소비품 판매액 순증가액은 139억 위안으로 다른 도시와 비교했을 때 수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sup>41)</sup>

또한 이 지역의 소비자의 특성은 계층별, 구역별로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전체 소비자 가운데 신용카드 소비가 80%인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여타 지역의 소비에 비해 신용카드 사용률이 가장 높은 상태이다. 특히 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다양한 수입품과 고급상품을 다양한 소비계층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현대화된 종합 쇼핑센터와 백화점이 건립되어 치열한 경쟁 속에 운영되고 있는 상태이다.

대표적인 구매장소로는 신세계백화점(新世界百貨店), 제일백화점(第一百貨店), 남방상성(南方商城), 홍교우의상성(虹橋友誼商城), 매룡진광장(梅龍鎮廣場), 우의남방상성(友誼南方商城), 항회광장(港匯廣場) 등이 있으며, 2001년 매출액이 1억 위안 이상인 대형 쇼핑센터가 25곳에 달한다. 이와 같은 대형 다기능 종합 쇼핑몰 센터는 휴식, 오락, 쇼핑 등의 중심이 되어 소비자의 다양한 수요를 만족시켜 주고 있다. 따라서 상해시 주민들은 소득증대와 더불어 문화생활 욕구 및 소비생활 고급화에 대한 소비성향이 점차 변화되고 있는 추세다.

## (2) 도시주민 1인당 소득별 소비지출

도시주민 1인당 연도별 주요 상품 구입량 현황은 <표 4-18>과 같다. 17개 주요 상품 가운데 2000년도 도시주민 1인당 식량 구입량은 82.31kg으로 1985년도 134.76kg 대비 무려 38.9%가 감소했으며, 전년도 84.91kg 대비 3.9%가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중국도 경제발전 및 소득수준 증대와 더불어 식량 위주 식생활이 점차 변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식생활과 밀접한 주요 상품 1인당 소비추세를 살펴보면 2000년도 소비량은 식용식물유가 8.16kg, 쇠고기가 3.33kg, 가금류가 5.44kg, 신선달걀이 11.21kg, 수산품이 9.87kg, 주류는 10.01kg 등으로 나타났으며, 1985년 이후부터 점진적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점이 특색이다. 그러나 돼지고기는 16.73kg, 담배는 27.5보루로 1985년 이후 점차 감소되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도시주민의 식생활 습관이 소득증대와 더불어 고급 식품류 및 동물성 단백질 섭취를 위한 육류소비 성향으로 변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1) 중국의 유통시장 현황, KOTRA, 2002, p.97.

<표 4-18> 도시주민 1인당 연도별 주요 상품 구입량

품목별	단위	1985	1990	1995	1998	1999	2000
식량	kg	134.76	130.72	97.00	86.72	84.91	82.31
신선채소	"	144.36	138.70	116.47	113.76	114.94	114.74
식용식물유	"	5.76	6.40	7.11	7.55	7.78	8.16
돼지고기	"	16.68	18.46	17.24	15.88	16.91	16.73
쇠고기	"	2.04	3.28	2.44	3.34	3.09	3.33
가금류	"	3.24	3.42	3.97	4.65	4.92	5.44
신선달걀	"	6.84	7.25	9.74	10.76	10.92	11.21
수산물	"	7.08	7.69	9.20	9.84	10.34	9.87
설탕	"	2.52	2.14	1.68	1.76	1.81	1.7
담배	보루	36.12	35.12	28.58	27.25	26.81	27.5
주류	kg	7.80	9.25	9.93	9.68	9.61	10.01
면직포	m	2.61	1.33	0.47	0.36	0.34	0.32
화섬직포	m	1.47	1.46	1.04	0.73	0.55	0.37
나일론직포	m	0.36	0.26	0.19	0.08	0.07	0.05
실크직포	m	0.50	0.41	0.18	0.07	0.04	0.03
피혁구두	켤래	0.55	0.61	0.82	0.74	0.79	0.78
석탄	kg	270.57	206.04	129.52	116.93	115.46	128.07

자료 : 중국통계연감(2001), 중국통계출판사(2001. 9), p.308.

2000년도 도시주민 소득별 1인당 소비성지출을 주요 상품별로 살펴보면 <표 4-19>와 같다. 2000년도 도시주민 1인당 소비성지출 평균은 4,998위안으로 이 가운데 최고수입 가정의 지출은 9,251위안으로 평균 대비 85.1%, 고수입 가정은 7,102위안으로 42.1%, 중등상 가정은 5,895위안으로 18.0%가 각각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등수입 가정, 중등하 가정, 저수입 가정, 최저수입 가정의 소비성 지출은 한결같이 평균 지출액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태이다.

또한 1인당 품목별 지출현황은 최고수입 가정이 식품비로 2,847위안으로 소비성 지출액 9,251위안의 30.8%를 차지함으로써 수위를 점했으며, 다음은 오락, 교육, 문화 등의 지출에 1,234위안, 가정설비용품 지출에 1,220위안, 의복류 지출에 934위안, 거주비 지출에 865위안 등의 순으로 지출했다. 그리고 고수입 가정 역시 식품비로 2,459위안으로 소비성지출액 7,102위안의 34.6%를 차지함으로써 수위를 점했으며, 다음은 오락, 교육, 문화 등의 지출에 925위안, 가정설비용품 지출에 780위안, 의복류 지출에 760위안, 거주비 지출에 682위안 등의 순으로 지출했다. 여타 중등상 가정, 중등수입 가정, 중등하 가정, 저수입 가정, 최저수입 가정의 품목별 지출 순위와 점유비율도 대동소이한 상태이다. 이들 소득계층별 품목별 지출현황은 <표 4-19>

를 참조하기 바란다.

<표 4-19> 도시주민 소득별 1인당 소비성지출 현황(2000)

단위 : 위안

항 목 별	총평균	최저 수입가정		저수입 가정	중등하 가정	중등수입 가정	중등상 가정	고수입 가정	최고 수입 가정
			곤난 가정						
소비성지출	4,998.00	2,540.13	232036	3,274.93	3,947.91	4,794.56	5,894.92	7,102.33	9,250.63
식품	1,958.31	1,256.62	117277	1,524.48	1,748.90	1,960.82	2,215.56	2,458.60	2,847.03
식량	188.66	171.34	16795	178.29	186.53	188.18	192.24	201.71	210.87
육류 및 그 제품	411.31	283.41	26107	340.08	388.58	422.22	453.29	485.99	534.10
달걀류	56.59	44.60	4219	50.68	54.39	57.53	61.02	63.11	67.36
수산물	143.54	88.35	8001	107.32	128.08	144.42	167.68	178.59	205.34
우유 및 그 제품	68.57	32.37	2837	43.24	56.69	69.34	82.13	95.54	117.29
의복류	500.46	190.07	16666	279.10	375.07	504.70	627.81	760.39	933.52
복장	337.24	115.75	10114	175.51	242.54	338.28	428.23	531.01	658.57
가정설비용품	439.29	118.49	10615	184.27	256.85	376.25	526.42	780.47	1,219.75
내구재	259.10	48.97	4110	88.03	132.12	210.19	317.59	487.83	801.84
의료보건	318.07	162.71	14069	198.92	247.84	300.29	373.83	442.70	638.30
교통통신	395.01	142.73	12455	212.52	281.32	353.19	487.11	628.15	876.61
오락, 교육, 문화	627.82	286.83	25818	390.21	469.16	597.55	758.84	925.35	1,223.97
교육, 오락 내구용품	146.92	29.34	2051	51.23	78.47	130.04	188.72	270.22	401.49
거주	500.49	301.40	28056	368.20	407.82	470.95	578.89	681.61	864.71
주택	201.59	90.61	7923	122.64	139.90	176.93	249.45	310.16	435.79
잡항상품과 서비스	258.54	81.28	7079	117.22	160.95	230.82	326.48	425.06	646.73

자료 : 중국시장통계연감(2001), 중국통계출판사(2002, 2), p.41.

중국통계연감(2001), 중국통계출판사(2001. 9), pp.306-307.

### (3) 도시주민 상품 선호도와 소비성향

북경, 상해, 광주시 3개 도시주민의 상품 선호도 및 소비성향을 중국 물가출판사의 『중국 소비자의 소비행위와 생활형태 연감』에 수록된 조사·분석자료를 인용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먼저 표본의 일반적인 특성과 표본을 세분화하기 위해 소비자별 생활방식에 근거, 구매와 소비에 대한 태도, 시대풍조와 유행에 대한 태도, 음식과 건강에 대한 태도 등을 자신의 현재 생활과 결부시켜 만족도를 중심으로 가치관을 평가하였다. 각 평가대상의 평가척도는 “5점 만점”을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그 평균값 범위가 “1~2”이면 중시하지 않는 경향, “2~3”이면 그다지 중시하지 않음, “3~4”이면 비교적 중시함, “4~5”이면 중시하는 경향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판정한다.

<표 4-20> 소비자의 구매태도와 소비성향 5점 척도

북 경	상 해	광 주	내 용
4.20	4.15	3.97	제품이 질이 좋으면 기꺼이 좀더 많은 돈을 지불한다.
3.89	3.86	3.64	나는 유명 브랜드가 품질이 더 좋다고 생각한다.
3.62	3.63	3.51	가격이 좀 높더라도 내가 좋아하는 제품을 구입할 것이다.
3.62	3.35	3.32	원하는 상품의 경우 가격인하나 특별판매까지 기다릴 수 있다.
3.59	3.64	3.58	나는 자주 다른 상점의 제품들을 비교해 보는 편이다.
3.53	3.54	3.53	상품 구매시 가격은 주 고려요인이다.
3.34	3.34	3.18	상품 구매시 브랜드를 바꾸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3.32	3.35	3.31	시간, 노력을 줄이기 위해 관련상품, 서비스에 더 많이 지불하고 싶다.
3.27	3.25	3.10	사용하던 물건을 수리하느니 새것을 사는 것이 더 낫다.
3.26	3.28	3.25	가격이 좀더 높아도 유명 브랜드 제품을 구입하고 싶다.
3.25	3.38	3.32	나는 새로운 브랜드와 신상품을 사용해 보는 것을 좋아한다.
3.01	3.19	3.10	나는 자주 독특한 스타일의 제품을 구입하는 편이다.
2.79	3.04	2.80	자가용이나 집을 사기 위해 대출을 할 수도 있다.
2.75	2.75	2.87	나는 자주 충동구매를 한다.
3.62	3.73	3.51	상점의 세팅이나 분위기를 중시하는 편이다.

주 : 1998년 중국 12대 도시 거주민 5,000명을 표본으로 선정하여 소비형태를 조사한 것이다.

자료 : 중국소비자의 소비행위와 생활형태 연감, 중국물가출판사(1999).  
 김용준, 중국소비자와 중국시장, 박영사, 2000, p.81.

소비자의 구매태도와 소비성향 5점 만점 내용별 도시별 평균값 결과는 <표 4-20>에 나타난 바와 같다. 이들 3개 도시의 구매태도와 소비성향의 특징을 비교해 보면 한결같이 품질과 브랜드를 중시하는 상품의 경우, 가격인하나 특별 판매까지 기다릴 수 있다. 가격이 좀 높더라도 내가 좋아하는 제품을 구입할 것이다. 등을 중시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났으며, 이 가운데 북경, 상해, 광주 순으로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나는 자주 다른 상점의 제품들을 비교해 보는 편이다”에 대해서는 상해, 북경, 광주 순으로 나타남으로써 상해의 양호한 구매환경 및 다양한 신상품 공급 여건을 말해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상품 구매시 가격은 주요 고려요인이다”에 대해서는 3개 도시가 유사함으로써 고가여부가 구매여부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상품 구매시 브랜드를 바꾸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에 대해서는 북경과 상해는 동일하고 광주는 보다 낮게 나타남으로써 북경과 상해의 소비는 광주에 비해 상대적으로 브랜드 지향적임을 알 수 있다. 끝으로 여타 항목은 <표 4-20>를 참고하기 바란다.

<표 4-21> 소비자의 시대풍조와 유행에 관한 관심도 5점 척도

북 경	상 해	광 주	내 용
3.75	3.85	3.55	나는 외모의 치장에 매우 신경을 쓴다.
3.50	3.53	3.44	나의 패션과 화장은 몇 년간 기본적으로 큰 변화가 없었다.
3.24	3.20	3.41	나는 현대적이고 유행을 따르는 여유 있는 생활을 하고 싶다.
3.15	3.15	3.04	나는 나의 기호가 대중과 다르다고 생각한다.
3.13	3.08	3.21	나는 낭만적인 생활을 희망한다.
3.08	3.07	2.97	나는 유행에 민감하다.
2.90	2.92	2.85	내가 잘 치장하는 것은 나의 개성을 드러내기 위해서이다.
2.86	3.09	2.91	나는 구미의 선진국가들 생활방식을 추구한다.
2.85	3.05	3.07	국산품을 사용할 때 다소 만족감을 느낀다.
2.65	2.92	2.74	나는 서양의 예술 문화를 특히 좋아한다.
2.64	2.76	2.74	나는 이성의 눈길을 끄는 것을 즐긴다.
2.56	2.67	2.60	남들은 나를 유행을 잘 따르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2.53	2.60	2.55	유행과 실용성 중에서 나는 비교적 유행을 중시한다.
2.25	2.24	2.55	나는 자주 새로운 헤어스타일을 시도한다.

주 : 1998년 중국 12대 도시 거주민 5,000명을 표본으로 선정하여 소비형태를 조사한 것이다.

자료 : 중국소비자의 소비행위와 생활형태 연감, 중국물가출판사(1999).

김용준, 중국소비자와 중국시장, 박영사, 2000, p.80.



소비자의 시대풍조와 유행에 관한 관심도 5점 척도에 대한 내용별 도시별 결과는 <표 4-21>에 나타난 바와 같다. 이들 3개 도시의 시대풍조와 유행에 관한 특징을 비교해 보면 한결같이 시대풍조와 유행에 민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외모의 치장 및 패션과 화장 민감도에 대해서는 상해, 북경, 광주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현대적 유행에 대한 중시 정도는 광주, 북경, 상해 순으로 나타남으로써 광주가 홍콩 생활풍조의 영향이 큰 것으로 판단되며, 3개 도시 모두 유행에 민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는 나의 기호가 대중과 다르다고 생각한다”에 대해서는 북경과 상해 주민의 개성이 광주보다 상대적으로 강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북경 주민은 외모에 신경을 쓰지만 대중을 따르기보다는 개성을 중시하며, 낭만적이고 서구적인 생활을 선호하지만 현재의 생활방식을 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여타 항목은 <표 4-21>을 참고하기 바란다.

<표 4-22> 소비자의 음식과 건강에 관한 관심도 5점 척도

북 경	상 해	광 주	내 용
4.17	4.10	3.90	제품 포장에 표시된 제조성분, 제조일 등 설명에 주의를 둔다.
4.15	4.06	2.82	서양 음식보다 중국 음식을 더 좋아한다.
3.79	3.86	3.89	하루에 3번 규칙적인 식사를 한다.
3.69	3.71	3.69	음식의 균형 있는 영양섭취에 많은 신경을 쓴다
3.57	3.54	3.41	비만이 되지 않도록 음식에 매우 신경을 쓴다.
3.26	3.25	3.30	조리된 음식보다 직접 요리해 먹는 것을 더 좋아한다.
3.00	3.08	2.96	의식적으로 미용에 좋은 음식을 먹길 좋아한다.
2.86	3.23	3.03	냉동음식이나 반 조립 된 음식 등 가공된 식품을 자주 사는 편이다.
2.85	3.14	2.94	영양공급을 위해 비타민제를 자주 복용한다.
2.70	2.75	2.97	맥도널드 같은 패스트푸드점에서 자주 식사하는 편이다.
2.38	2.01	2.30	한 주에 3일 이상은 아침을 먹지 않는다.

자료 : 중국소비자의 소비행위와 생활형태 연감, 중국물가출판사(1999).

김용준, 중국소비자와 중국시장, 박영사, 2000, p.80.

주 : 1998년 중국 12대 도시 거주민 5,000명을 표본으로 선정하여 소비형태 조사한 것이다.

· 소비자의 음식과 건강에 관한 관심도 5점 척도에 대한 내용별 도시별 결과는 <표 4-22>에 나타난 바와 같다. 이들 3개 도시 가운데 북경과 상해는 광주에 비하여 제품의 제조성분과 제조일자를 중시하며, 중국 음식을 선호하고 비서구적인 식사 습관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보수적인 북경과 상해주민의 식생활은 유사하나 상대적으로 개방적인 광주는 다소 다른 점을 나타냈다. 그러나 3개 도시 모두 규칙적인 식생활을 중시하는 공통점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음식의 균형 있는 영양섭취에 많은 신경을 쓴다”에 대해서는 3개 도시가 중시하는 경향을 나타냄으로써 건강을 중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끝으로 여타 항목은 <표 4-22>를 참고하기 바란다.

<표 4-21>~<표 4-26>까지의 설문조사 결과는 3개 도시를 대상으로 각각 16~60세까지의 주민 600명에 대하여 연령별, 성별로 가격 민감도 지표, 건강 영양지표, 상표 지표를 기준으로 소비자의 구매습관을 조사하였다. 설문기간은 제1차로 1997년 7월 10일부터 8월 15일까지, 제2차는 1997년 11월부터 1998년 3월까지 진행한 조사결과를 분석기초로 인용한 것이다.

<표 4-23> 상품 구입시 고려요소

단위 : %

평가항목	북경	상해	광주
맛이 좋음	60.2	57.0	59.3
적당한 가격	38.7	35.4	33.1
구입이 편리	31.4	34.5	32.1
생산일자	30.9	31.4	23.5
영양성분	25.1	26.6	23.1
유명한 상표	15.4	16.1	22.2
단지 습관적	9.0	8.9	7.8
더 나은 혜택	3.6	7.5	5.5
친구의 추천	3.4	4.8	5.0
광고의 영향	2.9	2.7	4.2
보기 좋은 포장	2.3	0.7	2.5
점원의 소개	1.1	0.2	1.3

주 : 조사 대상자의 복수응답이 허용된 결과.

자료 : 중국소비자의 소비행위와 생활형태 연감, 중국물가출판사(1999).

김용준, 중국소비자와 중국시장, 박영사, 2000, p.277.

<표 4-2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품 구입시 북경, 상해, 광주 주민의 소비선호 요인은 상품의 맛에 있어서는 북경, 광주, 상해 순으로 나타나고 있는 경향은 중국

요리를 중시하는 지역적 보수적 특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상품의 적합한 가격에 대해서는 3개 도시가 한결같이 중시함으로써 그들의 합리적 소비성향을 짐작케 한다. 또한 상품의 생산일자, 영양성분에 대해서는 상해, 북경, 광주 순으로 나타남으로써 외국인과의 교류와 문화생활 수준의 향상에 기인된 것으로 보인다. 상품의 상표에 대해서는 광주, 상해, 북경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경제, 사회, 문화 수준의 차이에 연유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요구르트 음료회사인 우리나라 매일유업(주)에서 중국인이 요구르트 구입시 표본 조사한 사례를 살펴보면, 절대적으로 중시하는 것은 맛, 가격, 구입의 편리성, 생산 일자, 영양성분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여타 항목은 <표 4-23>를 참고하기 바란다.

<표 4-24> 상품 구입시 성별, 연령별 가격요소 고려 단위 : %

구 분		가격 민감도 높음			중간층			가격 민감도 낮음		
		북경	상해	광주	북경	상해	광주	북경	상해	광주
전체(명수)		307	313	298	509	537	538	171	143	159
남 성		43.6	43.5	41.3	50.7	52.9	53.3	59.1	55.9	54.7
여 성		56.4	56.5	58.7	49.3	47.1	46.7	40.9	44.1	45.3
연령	16~24세	10.4	13.1	21.5	16.3	19.2	26.0	29.8	21.7	22.0
	25~34세	25.4	20.1	25.8	30.3	21.4	30.7	33.9	24.5	30.7
	35~44세	29.6	35.8	26.2	29.7	33.7	23.6	19.9	33.6	23.6
	45~54세	21.2	21.2	17.8	17.9	19.6	13.4	9.4	11.2	13.4
	55~60세	13.4	13.4	8.7	5.9	6.1	6.3	7.0	9.1	6.3

자료 : 중국소비자의 소비행위와 생활형태 연감, 중국물가출판사(1999).  
김용준, 중국소비자와 중국시장, 박영사, 2000, p.78.

상품 구입시 성별, 연령별 가격요소를 고려한 비중 결과는 <표 4-24>과 같다. 설문조사에 의하면 가격 민감도 지표는 소비자의 가격 중시 여부를 구별할 수 있는 3개 요소로 구성하여 조사하였다. ①사고 싶은 물건이 있을 때 나는 가격이 내리거나 특별판매 시기를 기다릴 것이다. ②물건을 구입할 때 나는 항상 세 곳 이상 가격 비교를 한다. ③물건을 구입할 때 나는 주로 가격을 고려한다.

<표 4-24>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격 민감도에 따른 북경, 상해, 광주 주민의 성별 특성은 여성이 남성보다 상대적으로 가격 민감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광주가 북경과 상해에 비교하여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소비자 연령이 낮으면 낮을수록 높

으면 높을수록 민감도가 더욱 더 낮게 나타났으며, 35~44세 연령층은 상해, 북경, 광주 순으로 가격 민감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사회적 활동이 가장 많은 시기로서 성별 높은 학력 및 소득수준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3개 도시 모두 젊은 계층이 가격에 더 민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품 구입시 성별, 연령별 건강요소를 고려한 비중 결과는 <표4-25>과 같다. 표본조사의 내용은 건강영양 지표 3개 변수를 구성하여 건강과 영양에 대한 관심도를 분석하였다. ①나는 건강과 미용에 좋다는 식품을 열심히 찾아 먹을 것이다. ②나는 항상 비타민 등의 건강 보조식품으로 영양을 보충한다. ③나는 음식물의 영양 균형에 매우 주의한다.

<표 4-25> 상품 구입시 성별, 연령별 건강요소 고려 단위 : %

구 분		건강 추구			중간층			건강 무관심		
		북경	상해	광주	북경	상해	광주	북경	상해	광주
전체(명수)		199	243	191	466	506	504	326	252	259
남 성		36.2	37.0	36.1	50.0	51.8	48.2	57.7	61.1	62.2
여 성		63.8	63.0	63.9	50.0	48.2	51.8	42.3	38.9	37.8
연령	16~24세	9.5	16.9	19.9	17.0	16.2	26.6	20.9	21.4	23.1
	25~34세	28.1	18.5	31.9	24.7	21.3	26.2	36.8	25.0	33.4
	35~44세	31.7	37.0	25.7	30.9	34.8	24.6	21.8	29.4	21.7
	45~54세	18.6	16.9	13.1	18.9	21.7	14.7	14.4	16.7	15.4
	55~60세	12.1	10.7	9.4	8.6	5.9	7.9	6.1	7.5	6.4

자료 : 중국소비자의 소비행위와 생활형태 연감, 중국물가출판사(1999).  
김용준, 중국소비자와 중국시장, 박영사, 2000, p.77.

<표 4-25>에 의하면 건강추구에 대해서 북경, 상해, 광주 등 3개 도시의 성별, 연령별 설문조사 결과는 건강 추구에 대해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높은 편이며 여성은 3개 도시가 한결같이 건강 지향적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령이 낮으면 낮을수록 건강에 무관심한 경향이 나타났으며, 35~44세 연령층은 상해, 북경, 광주 순으로 건강 지향적 성향이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학력수준과 소득수준별, 연령별, 직업별 등에 따라 그 차이가 상이하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되며, 3개 도시 모두가 비교적 건강 지향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6> 상품 구입시 성별 상표별 소비습관

단위 : %

구 분	북 경		상 해		광 주	
	남 성	여 성	남 성	여 성	남 성	여 성
전체(명)	294	402	403	452	343	377
1개의 상표	30.6	22.6	22.8	24.3	18.1	23.6
고정적인 2~3개 상표	40.5	52.2	43.2	47.6	39.4	36.6
고정적인 상표없음	28.9	25.1	34.0	28.1	42.6	39.8

자료 : 중국소비자의 소비행위와 생활형태 연감, 중국물가출판사(1999).

김용준, 중국소비자와 중국시장, 박영사, 2000, p.277.

상품 구입시 성별 상표별 소비습관은 <표 4-26>과 같다. 북경, 상해, 광주 주민들이 상품 구입시 상표에 대한 선호도를 고려한 소비습관을 살펴보면, 북경은 상품 구입시 1개 상표를 심중에 두고 있는 주민은 남성이 여성에 비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상해와 광주 주민은 여성이 남성에 비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3개 도시 주민은 한결같이 고정적인 2~3개 상표를 심중에 두고 소비를 선택하는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과는 이 지역의 높은 경제, 사회, 문화 수준과 결코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상품 구입시 특정 상표가 심중에 없이 소비하는 습관은 북경과 상해가 광주에 비해 남성이 여성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제5장 수출유망 농산물 선별과 수출경쟁력

### 1. 품목선별 원칙과 경쟁력 평가기준

#### (1) 수출유망 품목선별 원칙과 한계

10여년 전부터 각종 중국산 농산물이 정식수입 및 비공식 경로를 통하여 한국시장에 선을 보인 이후 해를 거듭할수록 그 물량이 증가되는 가운데 장차 우리의 농업생산 기반을 위협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더구나 막강한 가격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중국산 농산물의 한국시장 진출은 장차 WTO 체제 하에서 더욱 그 위력을 발휘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한국산 농산물 및 가공식품 가운데 화훼류와 인삼제품 및 과자류를 포함한 일부 특정 품목은 이미 10여년 전부터 대중국 수출이 이루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점진적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음은 이미 거론한 바 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대미국 수출과 대일본 수출에 있어서도 매우 유사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상태이다.

그런데 현재 중국의 대도시 고소득층의 소비구조 및 소비성향은 선진 자본주의 국가와 비교해도 전혀 손색이 없을 정도이며, 특히 식생활의 경우 위생적이고 영양과 건강을 중시하는 경향은 점차 높아지고 있다. 식생활의 경우 농산물의 선택기준이 가격보다는 가족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경향이 보편화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중국산 농산물의 위생상대 불신풍조 확산과 더불어 녹색식품(green foods)에 대한 중국인들의 관심은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 대도시 고소득층은 가족건강을 중시한 나머지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수입 농산물에 대한 관심과 소비가 점차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소비성향과 시장배경을 감안할 때에 중국산 농산물이 한국으로 수입되는 일방적 고정관념과 수세적 현상을 탈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중국의 값싼 농산물이 한국시장에 유입되는 것을 막을 수는 없겠지만, 비록 값은 비싸지만 위생적으로 우수한 한국산 농산물이 중국으로 수출될 수 있는 “수출유망 농산물”을 찾아보고자 한다. 이미 중국에 수출되고 있는 농산물과 장차 수출이 가능한 품목을 중심으로 대중국 수출유망 품목을 다음 원칙에 의해 선별하고자 한다.

첫째, 제3장의 <표 3-5>에 나열된 “한국 농산물의 대중국 주요 수출품”을 대상으로 <표 3-6>에 제시된 “한국의 대중국 수출 농산물 중 품목별 비중”을 고려하여

“수출유망 농산물”을 선별한다.

둘째, “수출유망 농산물”은 중국의 대도시 고소득층을 소비대상으로 설정하고 선별한다. 그러므로 수출가격 경쟁력이 비록 열위상태인 농산물이라 할지라도 맛, 향, 디자인 등의 품질과 위생, 영양, 희소성을 갖춘 일부 특정 농산물은 “수출유망 농산물”로 선별한다. 또한 재중 한국인과 유학생 및 조선족, 그리고 재중 외국인과 한식 식당에서의 소비성향과 소비추세를 감안하여 선별한다.

셋째, 현재까지 대중국 수출실적이 미미한 농산물일지라도 중국시장의 유통구조와 소비구조, 그리고 중국인 고소득층의 소비성향 등을 감안하는 동시에 장차 수출경쟁력을 갖추면서 수출이 증가하게 될 것으로 판단되는 농산물을 선별한다.

넷째, 현재 한국산 농산물의 품질이 중국산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쟁우위 상태이고, 가격경쟁력이 경쟁열위 상태일지라도 중국시장의 유통구조와 소비구조, 그리고 중국인 고소득층의 소비성향 등을 감안하는 동시에 장차 수출경쟁력을 갖추면서 수출이 증가하게 될 것으로 판단되는 농산물을 선별한다.

다섯째, 현재 한국산 농산물의 품질이 중국산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합상태이고, 가격경쟁력은 경쟁열위 상태일지라도 중국시장의 유통구조와 소비구조, 그리고 중국인 고소득층의 소비성향 등을 감안하는 동시에 장차 수출경쟁력을 갖추면서 수출이 증가하게 될 것으로 판단되는 농산물을 선별한다.

여섯째, 현재 한국산 농산물의 품질과 가격경쟁력이 비록 중국산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쟁열위 상태일지라도 중국시장의 유통구조와 소비구조, 그리고 중국인 고소득층의 소득수준과 소비성향 등을 감안하는 동시에 장차 수출경쟁력을 갖추면서 수출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판단되는 농산물을 선별한다.

## (2) 수출경쟁력 평가기준과 한계

중국시장은 우선 국토면적 및 인구나 소득편차 등을 고려할 때에 단일시장 혹은 단층구조로 설정하고 접근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특수상황과 시장여건을 충분히 감안하는 동시에 중국시장을 우선 다층구조(多層構造)로 설정하는 동시에 대도시 고소득층의 소비시장을 상층구조(上層構造)에 해당하는 “고급품 소비시장”으로 규정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 “고급품 소비시장”의 수요변동은 가격변동 보다는 주로 소비자의 기호변동과 소득변동 및 고급품 여부에 의해 크게 좌우된다고 규정하고자 한다.

소위 대도시 고소득층의 소비생활은 대부분 고급 주거환경, 고급 승용차, 고급 가전제품, 유명 브랜드의 고급의류는 물론이고, 특히 식생활에 있어서도 고급식품 및

위생적인 농수산물과 축산물을 선호하는 경향이 이미 확산된 상태이다. 이러한 소비성향은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나타나고 있는 바, 미군영내 매점 등에서 불법으로 유출되고 있는 미국산 쌀이나 수입산 생수가 일부 고소득층 사이에서 소비가 일반화 된 현실을 감안할 때에 충분히 예견되는 현상이다.

따라서 이들 고소득층의 각종 소비품 수요는 판매가격에 의해 구매여부가 좌우되기보다는 안전성, 영양, 위생, 맛, 향, 희소성, 포장 등의 품질요소와 주관적 효용(utility) 가치에 의해 크게 좌우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고소득층에서는 특히 농산물 소비의 경우는 위생, 영양, 맛, 향 등의 품질요소가 구매여부를 결정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실제로 중국의 대도시 고소득층의 농산물 소비성향은 가족건강을 중시한 나머지 판매가격에 구애됨이 없이 중국산 녹색식품에 대한 수요가 점차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다. 그리고 일부 소비계층은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입 농산물에 대한 소비를 선호하는 경향이 점차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 북경, 상해, 천진, 광주 등의 대도시 고급 백화점이나 슈퍼마켓에서는 수입된 각종 가공식품과 농산물이 고가로 판매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중국시장은 “고급스럽고 품질만 인정된다면 잘 팔린다”라는 말이 통하는 특별한 시장임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중국의 대도시 고소득층을 겨냥한 한국산 농산물의 “고급품 소비시장” 진출 가능성 여부를 국제경쟁력 지표인 가격지표(생산요소비용, 생산성, 생산자가격, 환율, 수출가격, 수출채산성), 비가격지표(품질, 상표, 판매력, 제도, 관습), 무역성과지표(수출입변동, 수출입효과) 등에 의해 판단되는 것은 시장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에 객관성과 현실성 및 설득력이 결여될 것으로 생각된다.

### (3) 수출가능성 평가

그러므로 본 연구는 각종 지표분석에 의한 경쟁력 평가를 지양하는 동시에 가급적 차별화 혹은 고품질 농산물, 맛과 향, 틈새시장, 소비성향, 시장구조, 관세장벽, 비관세장벽, 수출입관리제도 등을 감안하여 대중국 수출유망 특정 품목에 한하여 “고급품 소비시장” 진출 경쟁력을 서술형식으로 평가하고자 한다.

따라서 대도시 고소득층의 농산물 구매성향은 가격보다는 위생, 영양, 맛, 향 등을 포함한 품질에 의해 좌우된다고 전제한다. 그리고 한국산 “수출유망 농산물”을 선별함에 있어서 이상과 같은 중국시장의 특수성을 충분히 감안하는 동시에 대도시 고소득층의 소비성향을 고려하여 수출경쟁력을 아래 기준에 의해 평가하고자 한다.

첫째, 현재 한국산 농산물의 수출경쟁력이 중국산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쟁열위



상태일지라도 위생, 영양, 맛, 향 등을 포함한 품질이 우수한 가운데 대도시 고소득층의 소비수요를 장차 유발하거나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품목은 사실상 수출경쟁력을 상실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출유망 품목으로 간주하고 대중국 수출경쟁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한다.

둘째, 현재 한국산 농산물의 수출경쟁력이 중국산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쟁열위 상태일지라도 위생, 영양, 맛, 향 등을 포함한 품질이 향상되는 가운데 장차 대도시 고소득층의 관심을 유발하거나 소비수요에 부응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품목은 사실상 수출경쟁력을 상실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출유망 품목으로 간주하고 대중국 수출경쟁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한다.

셋째, 재중 한국인과 유학생 및 조선족의 소비수요를 겨냥한 한국산 전통식품과 특정 농산물의 경우 수출경쟁력이 비록 경쟁열위 상태일지라도 판매가격에 크게 구애됨이 없이 지속적 소비수요가 유지될 것으로 판단되는 품목은 사실상 수출경쟁력을 상실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출유망 품목으로 간주하고 대중국 수출경쟁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한다.

넷째, 재중 외국인과 한식식당 등의 소비수요를 겨냥한 한국산 전통식품과 특정 농산물의 경우 수출경쟁력이 비록 경합이거나 경쟁열위 상태일지라도 판매가격에 크게 구애됨이 없이 지속적 소비수요가 유지될 것으로 판단되는 품목은 사실상 수출경쟁력을 상실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출유망 품목으로 간주하고 대중국 수출경쟁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한다.

다섯째, 현재까지 대중국 수출실적이 미미하거나 전무한 상태에서 수출경쟁력이 중국산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쟁열위 혹은 경쟁력을 상실한 상태일지라도 위생, 영양, 맛, 향 등을 포함한 품질이 점차 향상되고 있는 품목이다. 그리고 장차 대도시 고소득층의 관심을 유발하거나 소비수요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품목이다. 따라서 사실상 수출경쟁력을 상실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출유망 품목으로 선정하는 동시에 중장기적으로는 대중국 수출경쟁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한다.

## 2. 수출유망 농산물 탐색과 검토

### (1) 한국산 농산물의 대중국 수출경쟁 요소별 평가

이미 제2장 중국의 농산물 수급현황, 제3장 한·중 농산물 교역구조와 정책 과제, 그리고 제4장 중국의 수입농산물 소비성향 등을 통하여 검토한 바와 같이 한국산 농산물의 대중국 수출은 일부 품목을 제외한 대부분의 농산물은 품질과 가격

면에서 상대적으로 경쟁열위에 직면한 것으로 판정되고 있다.

<표 5-1> 한국산 농산물의 대중국 수출경쟁 요소별 평가

분류별	품질			가격			포장			수출			수출잠재력	
	우위	동질	열위	우위	경합	열위	우위	유사	열위	가능	유력	불가	구비	상실
식량작물		0				0		0				0		0
채소류		0				0		0				0		0
과수작물	0				0		0				0		0	
원예작물	0				0		0				0		0	
화훼류	0				0		0				0		0	
가공식품	0				0		0			0			0	
축산물		0			0		0					0		0
임산물	0					0		0		0			0	
기호식품	0				0		0			0			0	

주 : <표 3-5> 한국 농산물의 대중국 주요 수출품, <표 3-6> 한국의 대중국 수출농산물 중 품목별 비중과 증가율, <표 3-22> 한국의 대중국 수출 품목별 현재 여건과 중장기 전망, <표 3-23> 한국과 중국의 무역장벽 철폐시 농림산물 수출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평가한 것임.

특히 쌀, 보리, 밀, 옥수수, 두류, 서류를 포함한 식량작물과 참깨, 들깨, 유채 등을 포함한 채유종실, 그리고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신선 우유, 버터(butter), 소시지(sausage), 햄(ham), 육건(肉乾), 기타 가금류(家禽類)를 포함한 축산물 등은 품질이 유사한 상황에서 가격경쟁력이 비교적 열위에 처해 있는 상태이다. 따라서 이들 품목의 대중국 수출은 대부분 불가능한 실정이며, 이러한 상황은 앞으로도 장기간 지속될 전망이다. 그러나 냉장 닭고기의 경우는 장차 양계기술의 향상 및 생산비 절감이 실현된다면 중국시장 진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왜냐하면 양계사업은 이미 공장경영과 유사한 생산업으로서 현재 중국 산동성에서 공급되고 있는 닭고기 출하가격이 국제가격을 상회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에 이러한 예측이 가능한 것이다.

채소종자, 단일 과일 조제품, 신선 과일류인 배, 사과, 단감, 포도, 견과류(堅果類)인 밤, 호두, 잣, 화훼류인 접목 선인장, 난초, 호접란(胡蝶蘭), 심비디움(cymbidium), 배합사료와 사료첨가제, 식물성유지인 대두유, 옥수수유, 면실유, 유지가공품, 커피와 커피조제품, 연초류인 권련과 흡연용 담배, 주류인 알콜성 합성조제품, 위스키, 맥주, 당료(자당), 김치, 정관장(正官庄) 인삼과 인삼차 및 인삼 조제품,

과자류인 비스킷, 껌, 초코파이(Choco-Pie), 초콜릿(chocolate), 속식면류인 라면, 전 통식품인 간장, 된장, 고추장, 조미료, 향료, 유기농산물, 임산물인 합판, 단판, 섬유 판, 제재목, 기타 목재, 기타 임산물, 한약재, 목공예품, 기호식품(嗜好食品)과 보양 식품(保養食品), 각종 통조림 등은 일부 특정 품목별로 품질과 가격 면에서 수출경쟁력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출실적과 더불어 수출량이 점진적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는 품목도 있는 상태이다.

또한 이들 품목에 대한 수출경쟁력과 잠재력을 평가하는 동시에 수출유망 품목 여부를 총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수출경쟁력 요소별로 점검해보면 <표 5-1>에 나타난 바와 같다. 특히 이들 품목 가운데 한국산 식량작물, 유기농산물, 축산물 등은 중국산과 비교할 때에 품질경쟁력은 경합상태이고 가격경쟁력은 경쟁열위에 처해 있는 상태이다. 그러나 중국의 고소득층을 겨냥한 “고급품 소비시장” 공략은 식품개발과 품질향상 및 판촉활동 여하에 따라 충분히 승산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한국산 과수작물, 원예작물, 화훼류, 가공식품, 임산물, 기호식품 등은 중국산과 비교할 때에 일부 특정 품목의 경우에 있어서 품질경쟁력과 포장상태는 다소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가격경쟁력은 경합 상태이거나 경쟁열위 상태인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가공식품, 임산물, 기호식품 가운데 일부 특정 품목의 대중국 수출은 가능한 상태이며, 과수작물, 원예작물, 화훼류 가운데 특정 품목에 한하여 역시 수출이 유력할 뿐만 아니라 수출 잠재력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 (2) 한국산 농산물의 최종 수요자별 수요예상

한편 <표 5-1> 한국산 농산물의 대중국 수출경쟁 요소별 평가에 나타난 결과를 근거로 개별 품목에 대한 최종 수요자별 소비성향 및 수요성향을 관찰해 보고자 한다. 그러나 이에 관한 선행 연구자의 연구자료나 통계자료가 국내외를 막론하고 전무한 상태이기 때문에 부득이 대중국 수출실적 및 반입된 사실이 있는 한국산 주요 농산물 및 가공식품을 중심으로 최종 수요자별 소비성향 및 수요성향에 대한 예상분포를 <표 5-2><sup>42)</sup>와 같이 작성하였다.

42) 최종 수요자별 소비성향 및 수요예상 구성비율은 대중국 수출실적이 있는 한국산 주요 농산물과 가공식품을 중심으로 중국 현지방문조사기간(2002. 7. 8-13)에 수집된 자료와 조사결과를 근거로 최종 수요자별 소비성향, 수요추세, 선호도, 그리고 고급 백화점과 슈퍼마켓에서의 판매실태 및 판매예상 등을 충분히 감안하여 공동연구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검토, 토론, 분석 등의 평가과정을 거쳐 그 결과를 바탕으로 수요예상 구성비율을 작성한 것임.

<표 5-2> 대중국 수출 농산물 최종 수요자별 수요예상 분포

단위 : %

품 목 별	한국인과 조선족			중국인			회사		식당	
	한국인	유학생	조선족	고소득층	중산층	저소득층	원료및재배	재수출	한식	중식
채소종자							100			
단일 과일 조제품				100						
과일류(배, 사과, 단감, 포도)				100						
견과류(밤)								100		
선인장				100						
난초(호접난, 심비디움)				100						
사료첨가제							100			
식용유(대두유, 옥수수유)	20	10	20	10					40	
면실유							100			
유지가공품				100						
커피와 커피조제품	10	20	30	50						
권련과 흡연용 담배	10	10	20	60						
알콜성 합성조제품	10	10	20	20					40	
주류(위스키, 맥주)	10	10	10	10					60	
당료(자당)	20	10	20	10					40	
김치	20	10	10	20					40	
정관장 인삼				100						
기타 인삼제품(인삼차 등)	10	10	10	70						
비스킷, 껌	10	10	10	50	20					
초코파이, 초콜릿			10	70	20					
라면	10	20	20	20	10				20	
전통식품(간장, 된장, 고추장)	20	10	20						50	
조미료와 향료	20	10	20	20					30	
유기농산물				80	10					
임산물(합판, 섬유판, 제재목)				90	10					
기호식품				100						
보양식품				100						
각종 통조림	10	10	20	20					40	

주 : 위 최종 수요자별 구성비율은 대중국 수출실적이 있는 한국산 농산물과 가공식품을 중심으로 중국 현지 최종 수요자별 소비성향, 수요추세, 선호도, 고급 백화점과 슈퍼마켓에서의 판매실태 및 판매예상 등을 충분히 감안하여 작성한 것임.

<표 5-2>에 나타난 주요 품목별 수요자별 수요예상 분포는 한국산 농산물의 품질이 중국산 농산물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쟁우위를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맛, 위생상태, 포장상태 등도 경쟁우위를 갖추고 있거나 최소한 경합상태에 처해 있는 상황을 전제로 한 것이다. 그리고 가격경쟁력은 다소 경쟁우위를 갖추고 있거나 최소한 경합상태에 처해 있는 상황을 전제로 한 것이다.

한편 최종 수요자를 한국인과 조선족, 중국인, 회사, 식당으로 구분하고, 이어서 한국인과 조선족은 재중 한국인, 유학생, 조선족으로, 그리고 중국인은 고소득층, 중

산층, 저소득층으로, 회사는 원료용 및 재배용, 재수출 등으로, 식당은 한식식당과 중식식당으로 각각 구분해서 파악하였다.

우선 <표 5-2>에 나타난 바와 같이 단일 과일 조제품, 과일류(배, 사과, 단감, 포도), 접목 선인장, 난초(호접난, 심비디움), 식용유(대두유, 옥수수유), 유지가공품, 커피와 커피 조제품, 권련과 흡연용 담배, 알콜성 합성조제품, 주류(위스키, 맥주), 자당(蔗糖), 김치, 정관장 인삼, 기타 인삼제품(인삼차 등), 비스킷, 껌, 초코파이, 초콜릿, 라면, 조미료와 향료, 유기 농산물, 임산물(합판, 섬유판, 제재목), 기호식품, 보양식품, 각종 통조림 등에 대한 중국인 고소득층의 수요는 품목별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미 상당 수준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전통식품과 가공식품을 포함한 대부분의 품목은 재중국 한국인과 유학생 및 조선족은 물론이고 한국인이나 조선족이 경영하는 한식식당 등에서 소비되고 있거나 장차 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 경우는 품질과 가격경쟁력 및 포장상태에 크게 구애됨이 없이 점진적 증가세를 나타낼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중국인의 경우는 이러한 요소가 소비성향 및 수요창출 변동에 직접적으로 작용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중국인 고소득층과 중산층의 소비선호 유발 및 창출을 겨냥한 품목으로는 단일 과일 조제품, 과일류(배, 사과, 단감, 포도), 접목 선인장, 난초(호접난, 심비디움), 유지가공품, 유기농산물, 기호식품, 보양식품 등을 열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재배용 채소종자, 사료첨가제, 공업용 원료인 면실유, 견과류 중 밤(栗)에 대해서도 수입수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중국의 대도시 고소득층을 중심으로 중국산 농산물에 대한 불신풍조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유기농산물에 대한 수요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 3. 수출유망 농산물 선별과 근거

#### (1) 과일류

이미 토론하고 점검한 제3장 한·중 농산물 교역구조와 정책과제, 그리고 제4장 중국의 수입농산물 소비성향 등의 결과와 <표 5-1> 및 <표 5-2> 에서 평가해본 결과를 근거로 중국의 대도시 “고급품 소비시장”을 겨냥한 “수출유망 농산물”을 <표 5-3>과 같이 선별함과 동시에 수출경쟁 요소별로 경쟁력 여부를 평가해 보았다.

우선 과일류 가운데 한국산 고급품인 신고 배와 원양 배, 그리고 후지(fuji) 사과의 품질은 경쟁우위 상태에서 수출 잠재력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대중국 수출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중국산 우수품질의 사과와 배가 비록 당도와 맛이 다소 떨어지는 상태지만 계속되는 과잉생산으로 인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수출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만일 대도시 고소득층과 외국인 및 고급 호텔을 상대로 하는 수출은 적극적인 판촉활동 여하에 따라서는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표 5-3> 수출유망 농산물의 대중국 수출경쟁 요소별 평가

품목별	품질경쟁력			가격경쟁력			포장상태			수출가능 여부			잠재력	
	우위	동등	열위	우위	경합	열위	우위	유사	열위	수출	가능	유력	구비	상실
<b>과일류</b>														
배	0				0		0				0		0	
사과	0					0	0				0		0	
단감		0				0		0			0		0	
밤		0				0		0		0			0	
포도		0				0	0				0		0	
<b>원예작물</b>														
선인장	0				0			0		0			0	
호접난	0				0			0		0			0	
심비디움	0				0			0		0			0	
<b>유기농산물</b>	0				0		0				0		0	
<b>전통식품</b>														
김치	0					0	0				0		0	
간장		0				0		0			0		0	
된장	0					0		0			0		0	
고추장	0					0		0			0		0	
<b>인삼제품</b>														
정관장 인삼	0			0			0				0		0	
인삼차	0				0		0				0		0	

주 : 위 표는 제3장 한·중 농산물 교역구조와 정책과제, 그리고 제4장 중국의 수입농산물 소비성향 결과와 <표 5-1> 및 <표 5-2>에서 평가한 결과를 바탕으로 선별한 것임.

1999년도 중국의 사과생산량은 2,080만 톤으로 이 가운데 산둥성(山東省)이 30.9%를 차지함으로써 수위를 나타냈으며, 다음은 섬서성(陝西省)이 19.2%, 하북성(河北省)이 11.7%, 산서성(山西省)이 7.1% 순으로 각각 나타났다.<sup>43)</sup> 특히 이들 사과

산지 가운데 황토고원(黃土高原)에 위치한 섬서성(陝西省)은 일본의 기술도입에 의해 우수 품질의 후지 사과를 주로 생산하고 있으며, 매년 생산량이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다. 중국에서 생산되고 있는 후지 사과의 형상, 맛, 색상 등은 비록 일본산과 비교해서 다소 떨어지는 상태이지만 중국에서는 고품질 사과로 인정된 가운데 고소득 소비자의 환영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더구나 최근 미국계 사과 과즙회사가 현대식 가공시설을 갖추고 과즙원액 추출을 개시함으로써 이 지역 사과재배가 점차 침체국면을 벗어나 재배단지 확대와 더불어 활성화되기 시작했다. 따라서 한국산 고품질 사과의 대중국 수출여건은 더욱 불리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단감의 품질은 중국산과 비교해서 다소 경쟁우위 상태이거나 동등하지만 수출 잠재력은 갖추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가을 수확기에는 중국산 단감이 대량으로 유통될 뿐만 아니라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가을철을 피해서 봄과 여름철에 수출한다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중국인 고소득 소비자와 거주 외국인 및 고급 호텔을 상대로 하는 수출은 적극적인 판촉활동 여하에 따라서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산 밤의 품질은 중국산과 비교해서 동등할 뿐만 아니라 가격경쟁력도 열위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대중국 수출이 증가되고 있는 것은 식품가공 원료로 재수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산 밤은 탈피(脫皮) 인건비가 저렴한 중국을 거쳐 미국, 일본, 동남아 국가에 재수출되고 있는 상태이다. 그리고 이러한 수출경로 상태는 중국의 인건비 수준이 한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게 유지되는 한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산 포도의 품질은 중국산과 비교해서 일반적으로 동등할 뿐만 아니라 가격경쟁력도 열위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대중국 수출은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나 일부 우수 품종인 안성과 평택 등지에서 재배되는 거봉은 출하시기 조정과 더불어 중국인 고소득 소비자와 거주 외국인 및 고급 호텔을 상대로 하는 수출은 적극적인 판촉활동 여하에 따라서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특히 중국의 사막지대 일부가 인공조림 노력에 의해 점차 농경지로 개간되는 과정에서 포도재배 단지가 조성되어 무농약 고품질 포도가 대량으로 생산되고 있는 점을 중시해야 할 것이다. 특히 당도, 향, 맛 등이 기존 포도와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우수한 것으로 판명된 가운데 대도시 고소득층 소비자의 환영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한국산 고품질 포도의 대중국 수출여건은 중장기적으로 결코 낙관할 수만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

43) 재단법인 국제농업개발원, 월간 상업농경영(9월호), 2002, 9, p.145.

## (2) 원예작물

원예작물 가운데 희귀한 고급 품종 혹은 특색이 있는 접목 선인장, 호접난, 심비디움의 품질은 현재 다소 경쟁우위 상태이고 가격경쟁력은 경합상태이거나 경쟁열위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수년간 대중국 수출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이다. 특히 이들 한국산 품목은 품질면에서 이미 차별화가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강력한 경쟁품종이 아직은 중국에서 대량으로 재배되고 있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관상용 접목 선인장은 20여년의 재배기술 축적에 의한 품질개선으로 이미 강력한 수출경쟁력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원예식물의 본고장인 네덜란드(Netherlands)를 비롯하여 세계 여러 나라에 수출되고 있는 상태이다. 특히 빨간 색의 색상이 다양하고 색도(色度)가 짙기 때문에 국내외 소비자들의 환영을 받는 가운데 수출량이 매년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다. 빨간 색을 길조(吉兆)로 여기는 가운데 특별히 애호하는 중국인의 풍습을 감안할 때에 접목 선인장의 대중국 수출전망은 대단히 밝은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한국에서 재배되고 있는 대부분의 호접난과 심비디움의 유묘(幼苗)나 중묘(中苗) 혹은 원종(原種)은 대만과 일본 및 태국 등에서 수입된 것이다. 그러나 동일한 품종일지라도 일교차(日較差)가 큰 한국의 기후조건 및 재배기술과 조직배양 노하우(know-how) 등에 의해 수출경쟁력을 갖춘 우수 품질을 재배하여 수출하고 있는 상태이다. 따라서 현재 이들 화훼류의 대중국 수출은 낙관적으로 전망되고 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반드시 낙관할 수는 없어 보인다.

왜냐하면 한국의 화훼류 재배 전문가들이 중국시장 공략을 목적으로 이미 중국 곤명(昆明)과 남부지방에 진출하여 접목 선인장과 심비디움을 비롯한 각종 화훼류 재배를 시작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금까지 중국에 수출된 심비디움은 로열티(royalty) 지불을 기피한 외국 품종의 복제품으로서 장차 로열티를 정식으로 지불하게 된다면 생산원가 상승으로 인하여 대량 재배는 물론이고 수출 역시 불가능하게 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중장기적으로는 오직 한국에서 조직배양으로 개발되는 교배종(交配種) 심비디움의 수출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한편 최근 중국의 상해시와 동해총공사(東海總公司)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화훼생산 프로젝트는 1차계획으로 80헥타르에 달하는 면적에 기반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이미 총공사비 미화 약 250만 달러에 달하는 네덜란드계 최신식 유리온실을 건설했으며 총면적은 3헥타르에 달한다. 2002년부터 대만기업이 입주하여 이미 호접난을 출하하기 시작했으며, 화훼왕국 네덜란드 기업도 입주할 예정이다.



국제공항까지는 20km, 건설중인 신항구까지는 10km에 불과함으로 입지조건이 양호한 곳이다. 중국의 시설원예 면적은 1990년도에 14만 헥타르이던 것이 2001년도에는 167만 헥타르로 확대되어 일본 시설원예 면적의 25배에 달하는 상태이다.<sup>44)</sup> 지금 당장에는 그다지 위협적인 존재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이러한 야심적인 계획과 잠재력은 장차 우리나라 시설원예 미래에 위협적인 존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 (3) 유기농산물

한국에서의 유기농산물 정의는 친환경 유기농산물, 전환기 유기농산물, 무농약 농산물, 저농약 농산물, 저비료 농산물 등으로 구분되고 있으며, 이른바 현대인과 고소득층은 자신과 가족의 건강을 중시한 나머지 이들 농산물에 대한 소비수요가 지속적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태이다. 그리고 만일 이들 농산물의 품질이 국가기관 혹은 권위 있는 국제기관이나 연구기관에 의해서 공인되거나 승인된다면 그 수요는 국제적으로 폭발적인 증가세를 나타내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선진국과 한국은 물론 중국도 유기농산물에 대한 관심이 해를 거듭할수록 고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한국산 각종 유기농산물은 고소득층은 물론이고 중산층과 일부 주부들의 지대한 관심을 이끄는 가운데 일부 특정 품목은 초과수요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상태이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장차 더욱 확산될 전망이기 때문에 한국의 유기농업 발전에 대한 미래는 매우 낙관적으로 전망된다.

중국도 친환경 농업에 대한 관심과 농산물에 대한 소비현상은 예외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한국의 소비현상과 매우 유사한 상태이다. 현재 중국에서는 북경, 상해, 천진, 광주 등의 대도시 고소득층과 지식인 노년층(老年層)을 중심으로 소위 녹색식품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중국에서는 아직도 맹독성 농약인 유기염소제(DDT, BHC)<sup>45)</sup>가 사용되고 있는 상태이며, 여타 허용된 농약일지라도 간혹 과다살포로 인한 잔류농약 허용 기준치 초과 문제가 소비심리를 크게 위축시키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안정성과 위생상태가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양질의 유기농산물을 생산한다

44) 재단법인 국제농업개발원, 월간 상업농경영(10월호), 2002, 10, pp.127~128.

45) 1939년 스위스에서 DDT가 발명되었고 이어서 영국에서는  $\gamma$ -BHC가 제조되었다. DDT와 BHC는 그 원료가 염소나 벤젠 등인데, 풍부하고 값이 싼 뿐만 아니라 살충력이 강하며, 인축(人畜)에는 해가 적기 때문에 곧 전세계의 관심을 끌어 미국에서 드린제(劑)를 개발하는 등, 잇따라 합성되어 관심을 끌었다. 그러나 유기염소제는 인축에 대한 급성독(急性毒)은 없으나 잔효(殘效)가 길기 때문에 사용량의 증가와 더불어 최근에 환경오염 문제가 대두되어 서양 각국과 오스트레일리아 등 여러 나라에서는 엄격하게 사용을 제한하였다. 한국에서도 몇 종의 농작물에 대하여 잔류 허용량이 결정된 결과, 안전사용 기준이 설정되었다. 그리고 종래의 유기염소제는 DDT, BHC, 클로르덴, 헵타클로르, 드린제 등 염소(含鹽素) 유기합성 살충제를 뜻하였으나, 최근에는 살균제, 제초제(除草劑)에도 염소를 함유하는 유기화합물이 사용되고 있다. DDT, BHC는 현재 사용이 금지되었다.

면 배, 사과, 유기농산물 등의 대중국 수출 전망은 매우 밝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이들 유기농산물은 가격경쟁력의 경쟁열위와는 무관하게 수출량 역시 지속적 증가세를 유지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특별히 고려할 사항은 중국에서도 대일본 수출을 목적으로 엽채류(葉菜類), 근채류(根菜類), 과채류(果菜類)를 비롯하여 산나물 및 버섯류, 그리고 엽장채소, 냉동채소, 건조채소 등을 일본기술 도입 및 지도에 의해 이미 본격적으로 생산하여 출하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주요 생산지로는 원래 주산지인 산둥성을 비롯하여 현재는 중남부 연해지역인 강소성, 절강성, 복건성 등에까지 채소벨트(vegetable belt)가 확대되었다. 따라서 지역별 기후변화에 따라 신선 채소류를 생산함으로써 1년 4계절 국내시장 공급은 물론이고 대일본 수출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산둥성 청도시(靑島市) 근교에는 대규모 채소생산지가 18개소가 있으며, 총재배면적은 약 533헥타르에 달한다. 또한 이 지역에는 대일본 수출용 유기농산물을 전문으로 생산하는 기업이 적지 않으며, 종자 공급으로부터 시작해서 출하까지 철저한 품질관리를 함으로써 점차 일본 소비자의 환영을 받기 시작한 상태이다. 또한 복건성(福建省) 천주시(泉州市) 근교에는 일본상사와 식품업계의 자본참여로 설립된 대규모(약 1,667헥타르) 채소생산 수출기업이 무, 당근, 파, 양파 등의 신선 채소류를 주로 재배하고 있다.<sup>46)</sup>

더구나 일본 검역당국의 수입검사를 통과하기 위해 생산자와 수입상이 공동으로 품질관리를 엄격히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산 신선 채소류 및 각종 유기농산물의 품질 고급화가 급속히 추진되고 있는 점을 각별히 주시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들 주산지의 지방정부는 경제작물 재배 촉진과 농업소득 증대를 달성하는 동시에 안전한 유기농산물을 일본에 수출할 목적으로 가능한 정책지원과 기술지도를 아끼지 않고 있다. 또한 대규모 재배단지를 설치하여 일본 수입상과 계약재배를 실행하고 있다는 사실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중국내 유기농산물 재배 상황을 감안할 때에 현재 생산되고 있는 중국산 유기농산물의 품질과 재배기술을 결코 과소평가해서는 안 될 것이다. 더구나 머지 않은 장래에 중국산 유기농산물이 일본농림규격(JAS) 인증을 획득하는 품목이 증가하게 될 경우 대일본 수출증대는 물론이고 중국 대도시 “고급품 소비시장” 석권과 더불어 한국시장 공략을 시도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므로 우리나라도 대중국 유기농산물 수출촉진을 위한 새로운 시각에서의 접근이 매우 시급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46) 재단법인 국제농업개발원, 앞의 책(9월호), 2002, 9, pp.142~143.

#### (4) 전통식품

한국의 전통식품인 김치, 간장, 된장, 고추장 등은 현재 중국인 식생활 기호에는 맛과 향 및 냄새에 있어서 그다지 적합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들 전통식품의 특징은 일단 입맛을 길들인 후에는 외국인들도 한국인 못지 않게 기호식품으로 애용하게 된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발효식품으로서 각종 영양분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김치에 포함된 유산균은 소화촉진 및 소화기 계통의 건강유지에 유익하다는 점에서 이미 국제적으로 인정된 우수한 식품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다.

바로 이러한 특징을 감안하여 적극적인 판촉활동을 전개한다면 중국시장 공략은 중장기적으로 승산이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당분간은 재중 한국인과 유학생 및 조선통족, 그리고 한식식당의 수요층을 위주로 수출되는 가운데 중국인과 재중 외국인의 수요가 점차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일정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소비계층이 급속도로 확산되는 가운데 수요량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들 전통식품의 대중국 수출은 장기적 안목에서 전략적 “수출유망 농산물”로 간주하는 한편 판촉활동을 적극적인 자세로 전개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 (5) 인삼제품

한국산 인삼과 인삼제품의 성가는 이미 국제적으로 널리 알려진 사실이며, 약리작용, 건강보조, 항암작용 등의 효과가 여타 국가의 인삼에 비해 우수한 것으로 판명된 상태이다. 따라서 한국산 인삼과 인삼제품의 수출은 현재 일본, 대만, 홍콩, 싱가포르, 태국, 월남, 말레이시아 등을 포함해서 세계 각국에 수출되고 있으며, 수출경쟁력 역시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상태이다. 그러나 대중국 인삼수출은 과거 오랜 수출역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의약품으로 분류되었기 때문에 중국의 수출입관리제도에 의해 정식수출의 통로가 차단된 상태이다.

그러나 일부 수량이기는 하지만 한국산 홍삼이 중국 내에서 고가로 거래되고 있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장차 중국의 수출입관리제도만 개선된다면 대량 수출의 길이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 비록 중국의 동북지방인 길림성을 중심으로 인삼이 대량 재배되고 있지만, 토질과 기후 등의 요인 때문에 품질이 상대적으로 경쟁열위 상태에 직면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므로 한국산 정관장 홍삼과 각종 인삼제품의 대중국 수출은 “고급품 소비시장” 공략을 위한 적극적인 판촉활동 여하에 따라 매우 낙관적으로 평가될 수 있다.

최근 미국 및 캐나다 등에서 재배되었거나 야산에서 채취된 서양인삼이 홍콩 상인에 의해 중국과 동남아 인삼시장 공략을 조직적으로 전개하고 있는 점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심지어는 인삼효능을 왜곡시키거나 과장광고를 일삼으면서 한국산 인삼시장에 저가공세(低價攻勢)로 도전장을 내놓은 상태이다. 그러므로 한국산 인삼수출을 지속적으로 보장하는 동시에 기존의 인삼시장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서양인삼의 판촉활동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수립과 더불어 효과적인 판촉활동이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 4. 품목별 수출경쟁력 검토와 평가

##### (1) 품목별 품질경쟁력 예측

앞에서 이미 토론한 대중국 “수출유망 농산물”의 평가결과를 근거로 개별 품목에 대한 수출경쟁력을 검토하는 동시에 평가해 보고자 한다. 논의의 편의를 위하여 품질등급은 상(上), 중(中), 하(下)로 구분하는 한편 비교 대상은 상(上)으로 제한한 것이다. 그리고 상(上)에 해당하는 품질의 정의(定義)는 절대적 개념으로써 한국산과 중국산의 품질이 완전히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전제로 품질경쟁력을 비교·예측한 것이다. 또한 WTO 체제 하에서 중국의 관세·비관세 장벽이 점진적으로 완화될 것을 감안해서 품질경쟁력을 비교·예측한 것이다.

<표 5-4>에 의하면 과일류의 경우 배, 사과, 밤의 품질경쟁력은 경쟁우위, 그리고 단감과 포도의 품질경쟁력은 경합으로 예측되었다. 왜냐하면 현재 한국산 배와 사과 및 밤의 품질은 중국산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수한 상태이며, 단감과 포도의 품질은 다소 우수한 상태이나 중국산 우수 품종을 고려할 때에 치열한 경합상태로 평가되었기 때문이다.

원예작물의 경우 접목 선인장의 품질경쟁력은 절대우위 상태이고 호접난과 심비디움의 품질경쟁력은 경쟁우위 상태로 예측되었다. 왜냐하면 현재 한국산 접목 선인장의 품질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탁월한 품종이며, 호접난과 심비디움은 기후조건 및 재배기술과 조직배양 노하우 등으로 우수한 품질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의 화훼류 재배자가 이미 중국시장 공략을 목적으로 진출한 상태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결코 낙관할 수만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유기농산물의 경우 신선 채소류의 품질경쟁력은 경합상태로 예측되었다. 왜냐하면 유기농산물의 품질경쟁력은 안전성과 위생상태에 의해 경쟁력이 좌우된다고 볼 수 있는데, 한국산과 중국산의 신선 채소류는 현재까지 국제적으로 공인된 품목이

나 브랜드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국 고소득층의 “고급품 소비시장” 공략을 목적으로 전략적 수출유망 유기농산물을 개발한다면 승산이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표 5-4> 수출유망 농산물의 품질경쟁력 예측

품 목 별	농산물 품질						품질경쟁력					
	한국산			중국산			우위		경합	열위		
	상	중	하	상	중	하	절대 우위	우위	경합	열위	절대 열위	
<b>과일류</b>												
배	0			0				0				
사과	0			0				0				
밤	0			0				0				
단감	0			0					0			
포도	0			0					0			
<b>원예작물</b>												
선인장	0			0			0					
호접난	0			0				0				
심비디움	0			0				0				
<b>유기농산물</b>	0			0					0			
<b>전통식품</b>												
김치	0			0			0					
간장	0			0			0					
된장	0			0			0					
고추장	0			0			0					
<b>인삼제품</b>												
정관장 인삼	0			0			0					
인삼차	0			0			0					

주 : 위 표는 <표 5-2> 및 <표 5-3> 에서 평가한 결과를 바탕으로 수출유망 농산물의 품질경쟁력을 예측한 것임.

중국은 그동안 신선 채소류를 포함한 각종 농산물의 대일본 수출과정에서 나타난 잔류농약 문제 및 안전성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고 있다. 우선 일

본 소비자의 요구사항 및 수입농산물 검사기준을 충족시키기는 동시에 유기농산물의 국제기준 달성을 목표로 노력하기 시작했다. 가령 제3검사기관의 농약검사 시스템을 수용하는 동시에 “생산이력(生産履歷)을 추적하는 구조(traceability)”를 구축할 계획이다. 즉 포장표면에 생산자나 수출상의 홈페이지(homepage)를 명기함과 동시에 소비자로 하여금 이를 통하여 소비하려는 농산물의 상세한 생산이력을 추적할 수 있게 배려한다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일련의 노력과 협력은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하겠으며, 특히 일본 수입상의 주도면밀한 지도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는 점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전통식품인 김치, 간장, 된장, 고추장 등의 품질경쟁력은 절대우위 상태로 예측되었다. 왜냐하면 우리 전통식품은 한국산 농산물을 원료로 하여 우리의 방식으로 한국인의 손에 의해 한국에서 만들어져야만 제대로 된 한국풍(韓國風)의 전통식품이 생산된다는 사실 때문이다. 이러한 특징을 감안할 때에 비록 중국에서 동일한 제품이 생산된다고 할지라도 한국산 전통식품의 품질경쟁력은 절대우위 상태를 지속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삼제품인 정관장 홍삼과 인삼차 등의 품질경쟁력은 절대우위 상태로 예측되었다. 한국산 인삼의 우수성은 이미 국제적으로 널리 알려진 상태이며, 이러한 현상은 앞으로도 계속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현재 중국의 동북지방 길림성에서 비록 인삼이 생산되고 있지만 중국인들은 여전히 한국인삼을 선호하는 상태이다. 따라서 이러한 특징을 감안할 때에 비록 중국에서 동일한 인삼제품이 생산된다고 할지라도 한국산 인삼제품의 품질경쟁력은 절대우위 상태를 지속할 것으로 예측된다.

## (2) 품목별 가격경쟁력 예측

앞에서 이미 토론한 대중국 “수출유망 농산물”의 평가결과를 근거로 개별 품목에 대한 가격경쟁력을 평가해 보고자 한다. 논의의 편의를 위하여 가격등급은 고가품(高價品), 중가품(中價品), 저가품(低價品)으로 구분하는 한편 비교 대상은 고가품으로 제한한 것이다. 그리고 고가품에 해당하는 가격의 정의(正義)는 절대적 개념으로써 한국산과 중국산의 판매가격이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전제로 가격경쟁력을 비교·예측한 것이다. 또한 WTO 체제 하에서 장차 중국의 관세·비관세 장벽이 점진적으로 완화될 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가격경쟁력을 비교·예측한 것이다.

<표 5-5> 수출유망 농산물의 가격경쟁력 예측

품 목 별	농산물 가격						가격경쟁력				
	한국산			중국산			우위		경합	열위	
	고가품	중가품	저가품	고가품	중가품	저가품	절대우위	우위	경합	열위	절대열위
<b>과일류</b>											
배	0			0						0	
사과	0			0						0	
밤	0			0				0			
단감	0			0							0
포도	0			0							0
<b>원예작물</b>											
선인장	0			0				0			
호접난	0			0				0			
심비디움	0			0				0			
<b>유기농산물</b>	0			0							0
<b>전통식품</b>											
김치	0			0						0	
간장	0			0						0	
된장	0			0						0	
고추장	0			0						0	
<b>인삼제품</b>											
정관장 인삼	0			0			0				
인삼차	0			0				0			

주 : 위 표는 <표 5-2> 와 <표 5-3> 및 <표 5-4>에서 평가한 결과를 바탕으로 수출유망 농산물의 가격경쟁력을 예측한 것임.

<표 5-5>에 의하면 과일류의 경우 배와 사과의 가격경쟁력은 경쟁열위, 밤의 가격경쟁력은 경쟁우위, 그리고 감과 포도의 가격경쟁력은 절대열위로 예측되었다. 왜냐하면 현재 한국산 배와 사과의 가격은 중국산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상태이며, 밤의 가격도 비록 높은 상태이나 재수출용으로 중국에 수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단감과 포도의 가격은 중국산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경쟁열위 상태로 예측되었다.

원예작물의 경우 접목 선인장, 호접난, 심비디움의 가격경쟁력은 경쟁우위 상태로 예측되었다. 왜냐하면 현재 이들 한국산 원예작물은 품질이 우수한 상태에서 가격경쟁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특히 지속적인 품종개발

과 재배기술 및 조직배양 노하우 등이 계속 유지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유기농산물의 경우 신선 채소류의 가격경쟁력은 중국산과 비교해서 절대열위 상태로 예측되었다. 그러나 중·일, 중·이스라엘 합작에 의한 하우스 재배 혹은 수입된 유기농산물 가격경쟁력은 현재 “고급품 소비시장” 상황과 고가로 판매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에 결코 불리한 상태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전통식품인 김치, 간장, 된장, 고추장 등의 가격경쟁력은 경쟁열위 상태로 예측되었다. 왜냐하면 이들 전통식품은 현재 한국인과 조선족에 의해 중국에서 생산되고 있는 상태이며, 백화점과 슈퍼마켓을 통해 주로 한국인, 유학생, 그리고 조선족에게 비교적 싼값으로 공급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국인 고소득층을 겨냥한 “고급품 소비시장” 공략을 목적으로 계획적인 판촉활동을 적극적인 자세로 전개해 나아간다면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는 승산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인삼제품인 정관장 홍삼의 가격경쟁력은 절대우위, 그리고 인삼차의 가격경쟁력은 경쟁우위 상태로 예측되었다. 왜냐하면 한국산 인삼의 우수성이 이미 국제적으로 인정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에도 널리 알려진 상태이기 때문에 중국산 인삼이나 인삼차보다는 상대적으로 고가로 판매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 (3) 중장기 수출경쟁력 예측

지금까지 논의한 대중국 “수출유망 농산물”의 개별 품목에 대한 품질 및 가격경쟁력을 근거로 중장기 수출경쟁력을 예측해 보고자 한다. 논의의 편의를 위하여 수출경쟁력 평가요소를 품질, 가격, 맛과 향 혹은 디자인, 그리고 소비자 선호도로 구분하고자 한다. 한편 평가결과는 이미 논의한 결과와 판단 및 WTO 체제 하에서 중국의 관세·비관세 장벽이 점진적으로 완화될 것을 감안해서 중장기 수출경쟁력을 예측한 것이다. 물론 “수출유망 농산물”의 품질과 위생상태가 중국산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수할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품질유지를 전제로 대도시 고소득층의 “고급품 소비시장” 공략을 목표로 예측한 것이다.

<표 5-6>에 의하면 중장기 수출경쟁력은 과일류의 경우 배와 사과와 품질, 맛과 향은 경쟁우위, 그리고 가격은 경쟁열위 상태이지만 소비자의 선호는 점차 강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밤, 단감, 포도 등의 품질, 맛과 향은 경합상태, 가격은 경쟁열위 상태에서 소비자의 선호도가 점차 강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측된다. 왜냐하면 대도시 고소득층은 물론이고 중산층 역시 과일류에 대한 수요가 가계소득 증가와 더불어 점차 증가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중국의 농업생



산 여건과 각종 과일류 생산현황 및 수급상황을 고려할 때에 과일류 생산비 역시 점차 상승하게 됨으로써 한국산 과일류의 가격경쟁력이 점차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표 5-6> 수출유망 농산물의 중장기 수출경쟁력 예측

품 목 별	현재 경쟁력				중장기 경쟁력			
	품질 경쟁력	가격 경쟁력	맛, 향 혹은 디자인	소비자 선호도	품질 경쟁력	가격 경쟁력	맛, 향 혹은 디자인	소비자 선호도
<b>과일류</b>								
배	우위	열위	우위	약	우위	경합	우위	강
사과	우위	열위	우위	약	우위	경합	우위	강
밤	경합	열위	경합	강	경합	경합	경합	약
단감	경합	열위	경합	약	경합	경합	경합	약
포도	경합	열위	경합	약	경합	경합	경합	약
<b>원예작물</b>								
선인장	우위	경합	우위	강	경합	열위	경합	약
호접난	우위	경합	우위	강	경합	열위	경합	약
심비디움	우위	경합	우위	강	경합	열위	경합	약
<b>유기농산물</b>	우위	열위	우위	강	경합	열위	경합	강
<b>전통식품</b>								
김치	우위	열위	우위	약	우위	경합	우위	강
간장	우위	열위	우위	약	우위	경합	우위	강
된장	우위	열위	우위	약	우위	경합	우위	강
고추장	우위	열위	우위	약	우위	경합	우위	강
<b>인삼제품</b>								
정관장 인삼	우위	우위	우위	강	우위	우위	우위	강
인삼차	우위	열위	우위	약	우위	경합	우위	강

주 : 위 표는 제3장 한·중 농산물 교역구조와 정책과제, 그리고 제4장 중국의 수입농산물 소비성향 결과와 <표 5-3>, <표 5-4>, <표 5-5>에서 평가한 결과를 바탕으로 정리한 것임.

원예작물의 경우 접목 선인장, 호접난, 심비디움의 품질과 향은 경합상태이고, 가격은 경쟁열위 상태, 그리고 소비자 선호도는 점차 약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측되었다. 왜냐하면 현재 한국산 이들 원예작물의 품질은 다소 우수한 상태이나 중국산 이들 품목이 지속적인 품종개발과 재배기술 및 조직배양 노하우 등이 향상되는 가

운데 염가로 대량 공급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더구나 이들 품목의 한국인 재배자들이 중국시장 공략을 목적으로 곤명(昆明)을 비롯해서 남부지방에 이미 진출해서 대량 재배를 시작했기 때문이다.

한편 유기농산물의 품질, 맛과 향은 경합상태이고, 가격은 비록 경쟁열위 상태에 직면하게 될 전망이지만 소비자 선호도는 강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측되었다. 왜냐하면 유기농산물의 경우는 오직 품질과 위생상태만 보장된다면, 대도시 고소득층의 소비수요는 판매가격과 별로 상관없이 대량수요가 지속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전통식품인 김치, 간장, 된장, 고추장 등의 품질, 맛과 향은 경쟁우위, 가격은 경합상태, 그리고 소비자 선호도는 점차 강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측되었다. 이들 전통식품은 현재 한국인 투자기업과 조선족에 의해 중국 현지에서 생산되고 있는 상태이나 품질 및 포장상태가 크게 떨어지는 상태이다. 그리고 중국 거주 한국인이 계속 증가되고 있는 추세와 대도시 고소득층의 수요가 점차 창출될 것을 감안할 때에 한국산 전통식품 수요는 증가될 것으로 예측되었기 때문이다.

인삼제품인 정관장 인삼의 품질, 가격, 맛과 향은 경쟁우위 상태를 유지하는 가운데 소비자 선호도는 점차 강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측되었다. 인삼차의 품질, 맛과 향은 경쟁우위, 그리고 가격은 경합상태에서 소비자 선호도는 역시 강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측되었다. 왜냐하면 한국산 인삼의 우수성과 약리작용 등이 이미 중국과 동남아를 포함해서 국제적으로 인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성가가 점차 널리 알려지는 가운데 중국의 관세·비관세 장벽이 완화되고 수출입관리제도가 개선된다면 대도시 고소득층을 중심으로 수요가 급증하게 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다소 염려스러운 점은 현재 캐나다 및 미국에서 재배되었거나 채취된 서양인삼이 홍콩 상인들에 의해 중국 및 동남아 인삼시장 공략을 위해 저가공세로 적극적인 판촉활동을 전개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한국산 인삼의 우수성과 탁월한 약리작용을 바탕으로 차별화 전략을 통한 효과적인 판촉활동을 적극 전개한다면 이러한 위협은 앞으로 무난히 극복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 (4) 품목별 수출경쟁력 중장기 예상변동 추세

지금까지 논의한 대중국 “수출유망 농산물”의 개별 품목에 대한 품질경쟁력, 가격경쟁력, 맛과 향 혹은 디자인 등을 중기(2003~2007)와 장기(2008~2012)로 구분해서 품목별 경쟁요소별 예상변동 추세를 평가한 결과는 <표 5-7>에 나타난 바

와 같다. 수출유망 품목별 경쟁요소별 예상변동 추세는 “대중국 농산물 수출 증강 전략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작성된 것이다. 그리고 평가기준과 방법은 이미 앞에서 논의한 결과와 중국의 농산물 수급현황, 농업생산기술 수준, 가계소득 분포, 그리고 고소득층의 소비성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오직 “고급품 소비시장”의 경쟁력 변동추세만을 예측한 것이다.

한편 품목별 경쟁요소별 변동추세 예측 근거를 보면 아래와 같다. <표 5-7>에 의하면 수출유망 품목별 경쟁요소별 예상변동 추세 가운데 과일류의 경우 증기에 있어서 배와 사과와 품질, 맛과 향은 경쟁우위, 그리고 가격은 경쟁열위 상태에서 경쟁력은 별다른 변동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밤, 단감, 포도 등의 품질, 맛과 향은 경합상태, 가격은 경쟁열위 상태에서 수출경쟁력은 점진적 감소추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장기에 있어서는 이들 품목 전체가 경쟁요소별로 치열한 경합상태가 유지되는 가운데 한국산 농산물의 대중국 수출경쟁력은 점진적 감소추세를 보이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원예작물의 경우 증기에 있어서 접목 선인장, 호접난, 심비디움의 품질은 경쟁우위, 그리고 가격과 향은 경합상태에서 수출경쟁력은 점진적 감소세를 보이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장기에 있어서는 품질 역시 경합상태, 그리고 가격은 경쟁열위 상태에서 수출경쟁력은 여전히 점진적 감소추세를 보이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추세는 주로 중국의 재배기술 향상과 대량공급 및 한국 화훼류 재배자의 중국진출에 의한 본격적인 재배에 근거를 두고 예측한 것이다.

유기농산물의 경우 증기에 있어서 품질, 맛과 향은 경쟁우위, 그리고 가격은 경쟁열위 상태에서 수출경쟁력은 점진적 증가세를 보이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장기에 있어서는 품질, 맛과 향은 경합상태, 그리고 가격은 경쟁열위 상태에서 수출경쟁력은 점진적 감소추세를 보이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왜냐하면 이러한 추세는 점차 중국의 재배기술 향상과 대량공급이 실현됨에 따라 고소득층이 점차 중국산 유기농산물 소비를 증가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전통식품의 경우 증기에 있어서 김치, 간장, 된장, 고추장 등의 품질, 맛과 향은 경쟁우위, 그리고 가격은 경쟁열위 상태에서 경쟁력은 점진적 증가세를 보이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장기에 있어서는 품질, 맛과 향은 경쟁우위, 그리고 가격은 경합상태에서 수출경쟁력은 점진적 증가세를 보이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왜냐하면 이러한 추세는 주로 중국 거주 한국인과 유학생이 점차 증가하게 될 뿐만 아니라 대도시 고소득층의 소비성향이 가계소득 증대와 더불어 기호식품이나 별미식품 소비를 증가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비록 중국에서 이들 식품을 생산한다고 할지라도 경쟁요소별 경쟁력을 제대로 갖출 수가 없기 때문이다.

<표 5-7> 수출유망 품목별 경쟁요소별 예상변동 추세

품 목 별	중기(2003~2007)				장기(2008~2012)			
	품질 경쟁력	가격 경쟁력	맛, 향 혹은 디자인	경쟁력 변동 추세	품질 경쟁력	가격 경쟁력	맛, 향 혹은 디자인	경쟁력 변동 추세
<b>과일류</b>								
배	>	<	>	↕	=	=	=	↓
사과	>	<	>	↕	=	=	=	↓
밤	=	<	=	↓	=	=	=	↓
단감	=	<	=	↓	=	=	=	↓
포도	=	<	=	↓	=	=	=	↓
<b>원예작물</b>								
선인장	>	=	=	↓	=	<	=	↓
호접난	>	=	=	↓	=	<	=	↓
심비디움	>	=	=	↓	=	<	=	↓
<b>유기농산물</b>	>	<	>	↑	=	<	=	↓
<b>전통식품</b>								
김치	>	<	>	↑	>	=	>	↑
간장	>	<	>	↑	>	=	>	↑
된장	>	<	>	↑	>	=	>	↑
고추장	>	<	>	↑	>	=	>	↑
<b>인삼제품</b>								
정관장 인삼	>	>	>	↑	>	>	>	↑
인삼차	>	<	>	↑	>	=	>	↑

주 : 위 표는 제3장 한·중 농산물 교역구조와 정책과제, 그리고 제4장 중국의 수입농산물 소비성향 결과와 <표 5-1> ~ <표 5-6>까지 평가한 결과를 바탕으로 정리한 것임.  
 표기설명 : > : 경쟁우위, = : 경합상태, < : 경쟁열위, ↑ : 경쟁력 증가,  
 ↓ : 경쟁력 유지, ↓ : 경쟁력 감소

인삼제품의 경우 중기에 있어서 정관장 인삼의 품질, 가격, 맛과 향은 경쟁우위 상태에서 경쟁력은 점진적 강세를 보이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인삼차의 품질, 맛과 향은 경쟁우위, 가격은 경쟁열위 상태에서 경쟁력은 역시 점진적 강세를 보이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장기에 있어서 정관장 인삼의 품질, 가격, 맛과 향은 여전히 경쟁우위 상태에서 경쟁력은 점진적 강세를 보이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인삼차의 품질, 맛과 향은 경쟁우위, 가격은 비록 경합상태이지만 경쟁력은 역시 점진적 강세를 보이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왜냐하면 이러한 근거는 바로 한국산 인삼의 우수성과 탁월한 약리작용과 고소득층의 인지도 및 소비성향을

감안할 때에 앞으로 관세·비관세 장벽이 완화되고 수출입관리제도가 개선된다면 이들 제품의 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표 5-8> 수출유망 농산물 경쟁력 변화별 중장기 예상이동

경쟁력	변화추세	현재(2002)	중기(2003~2007)	장기(2008~2012)
경쟁우위	경쟁력 체증(↑)	정관장 인삼 선인장, 호접난 심비디움	정관장 인삼 선인장	정관장 인삼 김치, 간장, 된장 고추장
	경쟁력 불변(↓)	배, 사과, 밤	밤,	유기농산물
	경쟁력 체감(↓)	인삼차	배, 사과, 호접난 심비디움	선인장
경합	경쟁력 체증(↑)		유기농산물 김치, 간장, 된장 고추장	인삼차
	경쟁력 불변(↓)		포도, 단감	호접난, 심비디움
	경쟁력 체감(↓)			배, 사과, 밤 포도, 단감
경쟁열위	경쟁력 체증(↑)	단감, 포도, 유기농산물 김치, 간장, 된장 고추장		
	경쟁력 불변(↓)			
	경쟁력 체감(↓)			

주 : 위 표는 제3장 한·중 농산물 교역구조와 정책과제, 그리고 제4장 중국의 수입농산물 소비성향 결과와 <표 5-1> ~ <표 5-7>까지 평가한 결과를 바탕으로 정리한 것임.

한편 지금까지 논의한 대중국 수출유망 품목을 경쟁력 변화추세와 현재, 중기(2003~2007), 장기(2008~2012) 등으로 구별해서 분류해보면 <표 5-8>에 나타난 바와 같다. 2002년 현재 중국산과 비교해서 경쟁우위 상태에서 상대적 판매경쟁력이 체증되고 있는 것으로 기대되는 품목은 정관장 인삼, 접목 선인장, 호접난, 심비디움, 판매경쟁력이 불변인 것으로 기대되는 품목은 배, 사과, 밤, 그리고 비록 경쟁열위 상태이나 판매경쟁력이 체증할 것으로 기대되는 품목이 단감, 포도, 유기농산물, 김치, 간장, 된장, 고추장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기(2003~2007)에 있어서 장차 중국산과 비교해서 경쟁우위 상태에서 상대적 판매경쟁력이 체증될 것으로 기대되는 품목은 정관장 인삼과 접목 선인장, 판매경쟁력이 불변일 것으로 기대되는 품목은 밤, 판매경쟁력이 체감될 것으로 기대

되는 품목은 배, 사과, 호접난, 심비디움, 경합상태에서 판매경쟁력이 체증될 것으로 기대되는 품목은 유기농산물, 김치, 간장, 된장, 고추장, 역시 경합상태에서 판매경쟁력이 불변일 것으로 기대되는 품목은 포도와 단감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장기(2008~2012)에 있어서 중국산과 비교해서 경쟁우위 상태에서 상대적 판매경쟁력이 체증될 것으로 기대되는 품목은 정관장 인삼, 김치, 간장, 된장, 고추장, 판매경쟁력이 불변일 것으로 기대되는 품목은 유기농산물, 판매경쟁력이 체감될 것으로 기대되는 품목은 접목 선인장, 그리고 경합상태에서 판매경쟁력이 체증될 것으로 기대되는 품목은 인삼차, 역시 경합상태에서 판매경쟁력이 불변일 것으로 기대되는 품목은 호접난과 심비디움, 끝으로 경합상태에서 판매경쟁력이 체감될 것으로 기대되는 품목은 배, 사과, 밤, 단감, 포도 등으로 나타났다.

## 제6장 대중국 농산물 수출 증장기 전략

### 1. 증장기 전략 수립의 필요성

#### (1) 농업현대화 및 농산물 고급화 촉진

바야흐로 21세기 세계경제는 WTO 체제가 성숙되는 가운데 국제무역 자유화를 통한 단일시장으로 급속히 통합되고 있는 상태이다. 더구나 2001년부터 시작된 WTO 차기 농산물 협상에 이어서 다자간 협상을 위한 뉴라운드(New Round) 출범 등으로 인하여 농업 분야의 시장개방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런데 한국산 농산물은 국제경쟁력이 가격 면에서 미국이나 중국의 수준에 미달되는 상황에서 외국산 농산물의 국내시장 잠식현상은 더욱 가속화될 뿐만 아니라 한국농업의 발전을 위축시키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는 중국산 농산물의 국내시장 진출은 가격경쟁력을 무기로 삼아 이미 우리의 식탁을 일부 차지한 상태이며 매우 위협적으로 전개될 전망이다. 그렇다면 중국적으로 우리 소비자는 중국 농민이 먹여 살려야 할 때가 도래할지도 모른다.

최근 급속히 전개되고 있는 이러한 상황 하에서 한국농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서는 오직 농업 현대화 및 과학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가 급선무라 하겠다. 한편 이러한 추세에 즈음하여 한국농업은 그동안 농업구조 개선과 농업현대화를 적극적인 자세로 추진하면서 농산물의 경쟁력을 배양시킨 결과, 일부 농산물은 팔목할 만한 수출실적을 실현하게 되었다.

따라서 앞으로 수세적 방어자세를 조속히 탈피하여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대처해 나아간다면 점차 농산물 고급화와 더불어 경쟁력이 제고되는 가운데 농업발전을 촉진시키는 계기를 맞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은 비록 국제경쟁력이 미약할지라도 우선 품질경쟁력을 바탕으로 틈새 시장을 개척하면서 생산성 향상과 생산비용 절감을 통한 경쟁력 향상 노력을 꾸준히 추진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특히 중국의 고소득층에 해당되는 부유층 6%와 부호형 1%를 감안하면 약 9천만 명에 달하는 인구의 일부가 안전하고 맛있는 농산물을 가격에 구애됨이 없이 구입하는 경향이 이미 나타나고 있는 상태이다. 바로 이러한 시대적 배경과 취지에서 “대중국 농산물 수출 증장기 전략”의 수립은 시의적절(時宜適切)한 정책구상인 동시에 농산물 수출 촉진을 위한 시급한 현안문제라 생각된다. 결국 중국의 부자들은 한국 농민이 먹여 살려야 할 때가 올지도 모른다.

## (2) 농산물 수출 촉진 및 농업소득 증대

한국산 농산물 수출 촉진은 농업생산의 현대화 및 과학화에 의해 실현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책 당국의 확고한 실행의지에 의해 좌우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농산물 수출 촉진은 농업발전의 원동력인 동시에 농업소득 증대를 달성하게 됨으로써 기로에 직면해 있는 농업발전의 돌파구를 개척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므로 정책 당국은 이러한 정책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강력히 실시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생산성 향상과 생산비 절감, 농업생산 구조의 점진적 조정, 농업생산 기술 보급과 영농정보 제공, “수출유망 농산물”의 생산 촉진, 농산물 품질향상, 농업금융 지원의 확대 등을 통한 경쟁력 향상을 통하여 국내시장을 적극적인 자세로 방어하는 동시에 국제시장을 효과적이고 전략적으로 개척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소득수준 상위 7%의 소비자를 겨냥한 고급 농산물, 특히 유기농산물 수출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일련의 정책노력이 주효(奏效)하게 된다면 한국산 농산물의 대중국 수출 증대는 물론이고, 고부가가치 농산물 생산이 활성화되는 가운데 농가소득은 점진적 증가세를 실현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한국농업은 WTO 체제와 더불어 전개될 수입 농산물의 국내시장 공략을 지혜롭게 방어하면서 점차 안정된 발전궤도에 진입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바로 한국농업이 직면한 이러한 상황과 한국농촌의 현실을 감안할 때에 “대중국 농산물 수출 중장기 전략”의 수립은 농산물 수출 촉진을 통한 효과적인 농업소득 증대 방안이라 생각된다.

## (3) 다양한 가공식품 개발

만일 농업현대화 및 농산물 고급화가 순조롭게 촉진된다면 각종 농산물 수출이 점차 증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필연적으로 다양한 가공식품 개발과 더불어 고부가가치 식품생산이 촉진되는 가운데 농업생산의 구조 조정이 가속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한국의 식품가공 기술수준과 농축산물을 주요 원료로 하는 가공식품의 다양성을 감안할 때에 이러한 기대는 실천 가능할 수 있다.

특히 식품가공 분야는 중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쟁우위 상태일 뿐만 아니라 포장기술 및 디자인 수준도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상태이다. 따라서 이들 가공식품 생산이 촉진된다면 대중국 수출이 점진적 증가세를 보이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다 중국산 농산물을 원료로 하는 고부가가치 가공식품 개발을 생각해 볼 수 있



다. 그러므로 일반 가공식품은 물론이고 전통식품과 기능성 가공식품 및 보양식품을 중국인 기호와 식성을 고려해 다양하게 개발한다면 중국시장 공략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예를 들면 한국산 초코파이, 롯데 껌, 라면 등의 성가(聲價)와 인지도는 이미 중국 전역에 널리 알려진 상태이며, 상해에서 생산을 시작한 초코파이를 비롯해서 일부 특정 인기 품목은 현지생산을 서두르고 있는 상태이다.

따라서 이러한 일련의 가공식품생산 노력이 주효하게 된다면 한국산 농산물과 농산물을 원료로 하는 다양한 가공식품의 대중국 수출 증대는 물론이고, 농업생산의 구조 조정과 더불어 한국농업이 당면한 난관을 극복해 나아가는 데에 활력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고 한국농업은 WTO 체제와 더불어 전개될 외국산 수입 농산물과 가공식품의 물량공세로부터 국내시장을 다소나마 방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바로 이러한 한국농업의 현황과 식품산업의 현실을 감안할 때에 “대중국 농산물 수출 증장기 전략”의 수립은 가공식품 산업을 촉진시키는 효과적인 방안의 하나가 될 것으로 보인다.

## 2. 대중국 증장기 수출전략 구상과 방안

### (1) 대중국 수출전략 소비시장의 특징과 대상

이 연구의 유망수출 농산물 대중국 수출전략은 대도시 고소득층 소비자를 겨냥하여 그 방안을 모색한 것이다. 이미 중국시장의 특징을 다층구조로 설정하는 동시에 대도시 고소득층의 소비시장을 상층구조(上層構造)에 해당하는 “고급품 소비시장”으로 규정한 바가 있다. 그리고 이 “고급품 소비시장”의 수요변동은 가격변동 보다는 주로 소비자의 기호변동과 소득변동 및 고급품 여부에 의해 크게 좌우된다고 가정한 바가 있다.

또한 소위 “고급품 소비시장”은 포괄적 총칭명사로서 고급 백화점, 고급 슈퍼마켓, 수입품 판매코너, 고급 호텔의 쇼핑센터 등을 주로 지칭한다. 그리고 때로는 판매장소나 구입장소 및 구입경로와는 무관하게 고소득층이 소비를 선호하는 일체의 고급품 매매행위와 유통활동 현상과 상태를 포괄적 혹은 추상적으로 지칭한다. 따라서 이하 증장기 수출전략 방안과 구상은 앞에서 언급한 “고급품 소비시장”을 대상으로 논의를 전개해 나아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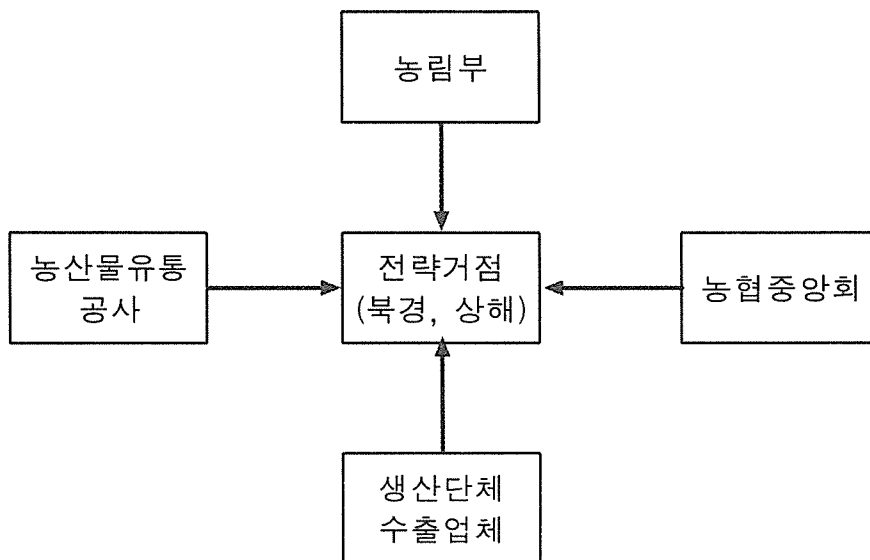
한편 중국의 대도시 고소득층의 “고급품 소비시장” 공략을 위한 한국산 “수출유망 농산물”의 증장기 수출전략 방안을 ①전략거점 확보와 유통망 구축, ②시장정보 수집활동과 협력체제 구축, ③적극적인 현지 판촉활동, ④고급품 생산촉진과 품질인

중제 실시, ⑤정책지원 및 협력기구 운영 등으로 구분해서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 (2) 전략거점 확보와 유통망 구축

한국산 “수출유망 농산물”의 대중국 수출이 오직 정상적인 무역거래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현재와 같은 상태는 소극적인 수출촉진 자세란 지적을 면할 길이 없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수출상은 국제경쟁력에 의한 비교우위와 거래손익 유무에 의해 수출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할 뿐만 아니라 지극히 단기적 안목으로 대처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들 수출상은 국가경제나 농업발전 및 농업소득 증대 등에 관한 현안문제나 미래 지향적 관심사에 대해서는 비교적 무관심한 반면에 이윤추구에 대해 상대적으로 높은 관심을 보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현재와 같은 대중국 수출구조 하에서는 중국 대도시 거주 고소득층의 한국산 “수출유망 농산물”에 대한 효과적인 수요창출을 기대하기가 어렵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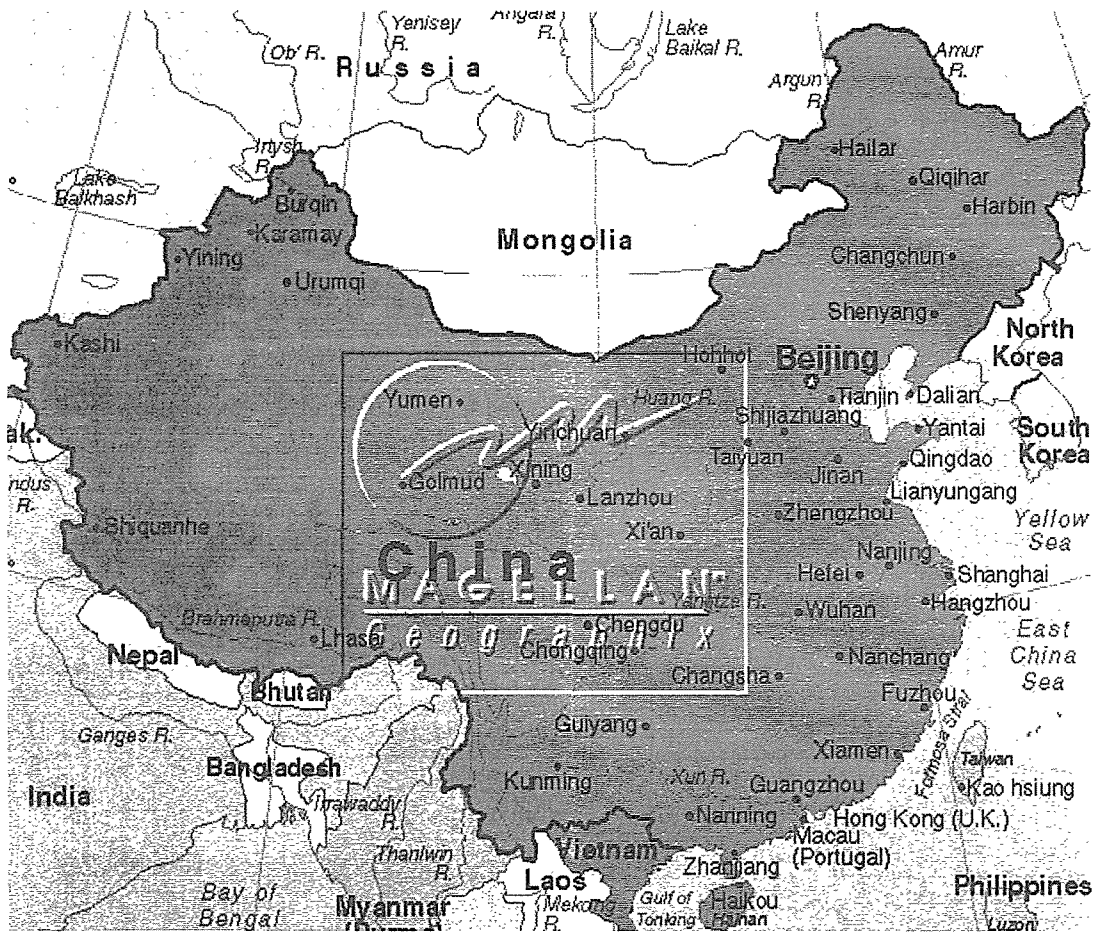
<그림 6-1> 전략거점 구성도



한편 대도시 거주 고소득층을 겨냥한 “고급품 소비시장”의 수요창출과 더불어 대중국 농산물 수출을 촉진시키려면 적어도 중국의 거대 도시인 북경과 상해에 전략거점을 구축하는 동시에 이를 중심으로 유기적인 유통망을 전국적으로 점차 확장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전략거점 구축을 위한 효율적인 기구조직은 우선 농림부, 농수산물유통공사, 농협중앙회, 기타 품목별 생산단체 등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가 절실히 요구된다. 이에 관한 구체적인 기구조직과 역할분담 및 기금조성 등은 참여 기관과 단체가 따로 연구·검토하여 실현 가능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그림 6-2> 중국지도



이러한 구상과 방안의 발상은 한국산 “수출유망 농산물”의 대중국 중장기 수출전략을 포함해서 궁극적으로는 다양한 농축산물과 가공식품의 수출촉진을 총괄적으로 고려한 것이다. 한편 이상의 구상과 방안을 그림으로 제시하면 <그림 6-1>과 같다. 대도시 전략거점 대상으로는 이미 거론한 북경과 상해를 포함해서 <그림 6-2>의 중국지도에 나타난 바와 같이 남부지역인 광주(廣州 : Guangzhou), 내륙지역인 중

경(重慶 : Chongqing)과 무한(武漢 : Wuhan), 북경과 인접해 있는 천진(天津 : Tianjin), 북부지역인 하얼빈(哈爾濱 : Harbin)과 장춘(長春 : Changchun) 및 심양(沈陽 : Shenyang), 그리고 대련(大連 : Dalian) 등도 전략거점 구축을 위한 유력한 검토 대상 도시가 될 수 있다. 바로 이들 대도시는 전국적인 판매·유통망을 구축할 경우에 중요한 핵심거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유리한 지리적 여건과 조건을 갖추고 있는 도시인 것이다.

또한 대도시(북경, 상해) 전략거점 직영 판매점 개설이나 판매·유통망 구축 등은 참여 기관과 단체가 ①공동운영 혹은 위탁운영(제3자 포함), ②중국 현지기업에게 위탁경영 혹은 임대, ③참여 기관과 단체가 관련 업계와 공동운영, ④별도 법인 설립 후 관련 업계와 공동운영, ⑤중국과 합작회사 설립 혹은 공동운영체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등의 다양한 진출방안을 도시별, 지역별 현지실정에 부합되도록 모색해야 할 것이다.

### (3) 시장정보 수집활동과 협력체제 구축

한국산 “수출유망 농산물”의 대중국 수출촉진을 위한 시장정보 수집활동과 협력체제 구축은 현재와 같이 소극적이고 안일한 정보수집 자세로서는 달성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방대하고 광활할 뿐만 아니라 거대 인구를 갖고 있는 중국시장과 다층구조를 형성하고 있는 소비시장, 특히 대도시 고소득층을 겨냥한 “고급품 소비 시장”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정확한 시장정보를 수집하기란 결코 용이한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특히 소득분포, 소비성향, 가격정보, 경쟁력, 생산현황, 농산물 수입수요, 소비추세, 관세·비관세 장벽 등에 관한 최신 시장정보를 포함해서 다양한 심층분석이나 연구 보고서 등에 관한 자료수집이 절실히 요구되고, 이들 정보의 정확성과 유용성은 바로 중장기 수출촉진 활동의 성패를 좌우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시장정보 수집활동을 중시하는 동시에 유용한 시장정보를 필요로 하는 기관이나 단체가 적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정보공유 및 정보유통 체제를 반드시 구축해야 할 것이다. 시장정보 수집활동은 관련 기관이나 단체가 개별적으로 혹은 공동으로 다양한 수집경로를 통하여 수집하는 동시에 수집된 시장정보를 분석·평가한 연후에 유용한 정보를 생산하여 적시에 제공해 주는 공유체계와 유통 통로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최소한의 비용과 노력으로 단시일 내에 전문적이고 광범한 자료를 효과적으로 수집하게 될 것이다.

한편 주요 정보수집 사항과 관련 시장정보를 제시한다면 아래와 같이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①농산물 수출 지도 및 정보제공 시스템 구축, ②중국주재 기관, 지사, 주재원 등과의 정보수집 협력체제 구축, ③중국내 유관 정부기관과 연구기관 및 전문가와의 우호협력체제 유지, ④한국내 유관 정부기관과 연구기관 및 전문가와의 협력체제 구축, ⑤관련 수출업체와의 정보공유체제 구축 및 상호협력, ⑥중국의 지역별, 품목별, 소득 계층별 소비성향에 관한 경제정보와 학술자료 수집, ⑦중국인의 소비행태 조사 및 시장수요 예측에 관한 학술정보 수집, ⑧농산물 관련 수출정보(가격, 시장동향, 소비행태)에 관한 광범한 자료 제공, ⑨중국인 고소득층의 고급품 수입 농산물에 대한 소비성향 변화, ⑩중국산 농산물의 품질경쟁력 및 가격경쟁력에 관한 시장정보, ⑪중국의 식품가공기술 수준에 관한 기술정보, ⑫중국인의 한국산 수입농산물에 대한 선호도와 인지도, ⑬중국인의 수입 농산물에 대한 소비성향 등을 거론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구체적이고 광범한 자료수집을 특정 기관이나 단체가 전담한다는 것은 사실상 비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업무영역 성격상 방대한 조직과 전문 인력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므로 기존의 관련 정부기관, 연구기관, 학회 및 전문가, 관련 단체, 개별기업 등이 품목별 또는 영역별 연대를 통한 유기적인 정보유통망을 형성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들 참여자의 정보공유 의식이 투철한 가운데 적극적으로 협력해야만 소기의 목적에 부응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우리 사회에 일반적으로 만연되어 있는 정보독점 풍토와 비공개 관행을 감안할 때에 대중국 농산물 수출 촉진을 위한 효율적인 정보공유 체제 구축은 매우 절실한 과제이다.

#### (4) 적극적인 현지 판촉활동

이미 거론한 바와 같이 고소득층의 “고급품 소비시장”을 효과적으로 공략하기 위해서는 대도시 전략거점을 중심으로 계획적인 판촉활동을 적극적인 자세로 전개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농산물과 가공식품은 가족건강과 직결되는 일상생활의 주요 식품으로서 고소득층일수록 위생, 영양, 맛, 향 등의 요인에 의하여 소비선택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다층구조를 형성하고 있는 소비시장, 특히 대도시 고소득층을 겨냥한 “고급품 소비시장” 공략을 위한 전략적 판촉활동은 반드시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소비선택의 폭이 넓고 다양한 농산물이 “고급품 소비시장”에 공급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산 “수출유망 농산물”의 우수성과 차별화를 부각시키는 가운데 소비수요 창출을 통한 수출증대를 달성하도록 적극적이고 다양한 판촉활동을 전개해 나

아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판촉활동은 일과성 활동이나 단기적 안목에서 추진하는 것을 지양하는 동시에 관련 기관과 단체가 효율적이고 실현 가능한 중장기 판촉활동 계획을 수립하여 적극적인 자세로 추진한다면 기대효과를 무난히 달성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최근 중국에서 불고있는 한류(韓流)의 열풍과 연계해서 판촉효과를 최대한으로 증폭시킬 수 있는 이벤트(event) 사업이나 다양한 판촉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노력에 대하여도 관련 기관과 단체가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바로 이러한 판촉활동을 통하여 한국산 “수출유망 농산물”의 인지도와 선호도를 제고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궁극적으로는 고급화 혹은 명품화를 실현하도록 노력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한편 다양한 판촉활동 사항과 상호 협력사항을 제시하면 아래와 같이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①“고급품 소비시장”에 알맞은 현실성 있는 판촉활동계획 강구, ②광고판촉 및 시식회(試食會)를 겸한 다양한 이벤트 활동 전개, ③한류와 연계시킨 다양한 판촉활동 모색 및 전개, ④한·중 식품관련 기관이나 단체와의 우호교류협력 확대, ⑤식품관련 국제 세미나 및 이벤트 사업을 통한 “수출유망 농산물”의 소개, ⑥대도시 한식식당을 통한 “수출유망 농산물”의 판촉활동 방안 강구, ⑦기업별, 또는 품목별로 현지 판촉활동기구 조직 및 활동 전개, ⑧관련 업계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수출촉진협력체 구축, ⑨과당경쟁이나 가격경쟁 등을 상호 자제 또는 사전조율, ⑩고부가가치 농산물 개발과 생산을 위한 공동노력 시스템 구축, ⑪인쇄매체를 통한 한국산 김치의 영양가치, 위생, 맛, 향 등, 한국산 유기농산물의 엄격한 안전성을 적극적인 자세로 소개, ⑫정부출연 관련 연구기관과 업계가 주축이 되는 수출촉진협력체 운영, ⑬기타 판촉활동에 필요한 제도적 배려와 지원 등을 거론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과 같은 다양한 판촉활동을 광활한 중국을 상대로 대도시에서 전략적으로 전개한다는 것은 결코 용이한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중장기 수출전략 관점에서 우선 대도시 고소득층의 “고급품 소비시장” 공략을 목적으로 철저한 현지조사와 사전준비를 마련하여 추진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를 위해서는 관련 기관과 단체가 긴밀히 협력해서 판촉활동에 관한 내용, 비용, 지역, 기간 등을 협의하게 된다면 효과적인 방안이 모색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러한 중장기 판촉활동은 치밀한 활동계획과 지속적 추진의지가 보장되는 가운데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야만 비로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게 되는 것이다. 바로 정책 당국의 확고한 실천의지는 물론이고 단체 및 업계의 투철한 협력자세와 자발적인 참여가 판촉활동 성패를 결정하는 관건인 동시에 대중국 농산물 수출 촉진

여부를 좌우하게 되는 것이다. 특히 우리 사회에 일반적으로 만연되어 있는 비용부담 기피 풍토와 무임승차 관행을 감안할 때에 다소 어려움이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대중국 농산물 수출 촉진을 위한 효율적인 중장기 판촉활동 추진은 매우 시급한 활동과제가 아닐 수 없다.

#### (5) 고급품 생산촉진과 품질 인증제 실시

한국산 “수출유망 농산물”의 대중국 수출 촉진을 위한 고급품 생산 촉진과 품질 인증제 실시는 현재 중국인의 소득분포, 소비성향, 가격정보, 경쟁력, 생산현황, 농산물 수입수요, 소비추세 등을 고려할 때에 관련 기관과 생산단체가 시급히 추진해야 할 일이다. 왜냐하면 중국의 고급품 소비자들의 식품문화 소양과 농산물을 포함한 식품에 대한 상식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요구수준 또한 높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한국산 “수출유망 농산물”의 품질이 사실상 우수함에도 불구하고 이들 소비자의 관심과 소비심리를 유발시키기에는 분명 한계에 직면하게 될 것임은 자명하다. 더구나 한국산 “수출유망 농산물”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중국산 농산물 혹은 수입 농산물 등과 치열하게 경쟁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만일 한국산 농산물이 국내외적으로 공인된 기관이나 단체에 의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우수한 품질이라고 인식되거나 인정된다면 상대적으로 경쟁력을 갖추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에 우리나라 유기농산물 인증제가 정부기관에 의해서 실시되고 있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특히 중요한 사실은 “고급품 소비시장”에 공급되는 농산물의 품질은 품질인증서가 인증해 주는 것이 아니라 최종적으로는 소비자가 인증해 주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한국산 “수출유망 농산물”의 대중국 수출촉진은 품질의 안전성과 고급화 여부가 관건인 동시에 관련 기관과 단체가 긴밀히 협력해서 반드시 실현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한편 한국산 “수출유망 농산물”의 고급화를 위한 다양한 실천사항과 협력사항을 제시하면 아래와 같이 요약될 수 있다. ①“수출유망 농산물”의 품질 고급화 및 브랜드화 추진, ②업계의 공동노력과 상호협력체제 구축 및 과당경쟁 자제, ③중국의 고소득층 소비자의 기호를 겨냥한 농산물 안전성 제고 및 고급화 추진, ④영농 전문화에 대한 관련 업계의 인식과 대책 강구, ⑤지속적이고 효과적인 정책개발과 강력한 실천의지, ⑥친환경 농업과 관련 유기농업의 발달과 인식 확산, ⑦보양식품과 같은 식품개발 기술의 선진화 및 과학화 촉진, ⑧가공식품 개발을 위한 정책지원, ⑨

한국 전통식품의 중국화 전략 강구, 생산기술 지원, 포장기술 지도 등을 열거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과 같은 대중국 “수출유망 농산물”에 대하여 품질 인증제와 고급화를 추진하는 데에는 한국의 농업생산 여건과 농민의식을 고려할 때에 적지 않은 난관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므로 중장기 수출전략 관점에서 우선 대도시 고소득층의 농산물 “고급품 소비시장” 공략을 목적으로 철저한 현지 시장조사 결과에 의해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를 위해서는 관련 기관과 단체가 긴밀히 협력해서 “수출유망 농산물”에 대한 품질 인증제와 고급화 방안을 협의하게 된다면 효과적인 추진방안이 모색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일차적으로는 유기농산물협회 등의 단체를 지원하여 중국 고소득층 소비성향을 파악하고 이를 우리 영농계획에 적용할 수 있는 시도를 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이러한 중장기 추진방안은 치밀한 계획과 지속적 추진의지가 확고한 가운데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야만 비로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유기농산물에 대한 품질 인증제를 더욱 엄격히 관리함으로써 국내외 소비자로 하여금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우수 농산물이란 인정을 조속히 획득해야 할 것이다. 또한 중국도 현재 녹색식품에 대하여 품질 인증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검증과정과 인증절차가 엄격한 상태이다.

한편 각종 농산물에 대한 국내외 소비자의 품질요구와 위생수준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에 한국산 “수출유망 농산물”의 품질 인증제와 고급화 추진은 더욱 철저하고 엄격히 확대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중장기적으로 해외시장 개척을 통한 농산물 수출 촉진이 실현되는 동시에 농업생산의 점진적 구조 조정과 더불어 현대화 및 과학화가 점차 이루어지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대중국 농산물 수출 촉진을 위한 효율적인 중장기 품질 인증제 및 고급화 추진은 반드시 실시되어야 될 중요한 과제라 하겠다.

## (6) 정책지원 및 협력기구 운영

한국산 “수출유망 농산물”의 대중국 수출촉진을 위한 정책지원 및 협력기구 운영은 지금까지의 한·중 양국간 농산물 교역과 중국의 “고급품 소비시장”, 그리고 현재 중국인의 소득분포, 소비성향, 가격정보, 경쟁력, 생산현황, 농산물 수입수요, 소비추세 등을 고려할 때에 관련 기관과 생산단체가 시급히 추진해야 할 과제이다. 왜냐하면 역설적으로 중국의 각종 농산물이 한국시장을 무차별적으로 공략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세적 방어자세를 탈피하여 우리의 농업생산 기반을 보호하는 한편



농업생산 전문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아가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한국산 “수출유망 농산물”의 대중국 수출증대를 위한 다각적이고 다양한 지원정책과 실시방안이 반드시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더구나 최근 중국도 21세기 WTO 체제 하에서 녹색식품 및 친환경 농산물을 대대적으로 생산하여 국내시장에 공급하는 한편 일본, 한국, 홍콩, 동남아 등지를 전략적으로 공략할 준비를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판촉활동 노력은 관련 기관과 단체가 긴밀히 협력해서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태이다.

한편 북경과 천진 사이에 위치한 한 농촌지역에는 중·일 합작 및 중·이스라엘 합작에 의한 현대식 시범 하우스 재배가 시작된 상태이다. 주요 목적은 비록 현대식 하우스 시설을 중국에 수출하기 위한 것이지만, 여기서 생산되는 농산물은 그 값이 일반 중국산에 비해 무려 10배 정도가 비싼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공급부족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상태이다. 최근 한국기업도 한·중 합작으로 이와 동일한 목적과 형태로 북경 근교에 대규모 하우스 재배 시설을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국산 “수출유망 농산물”의 대중국 수출 촉진은 효과적인 중장기 수출전략을 수립하여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추진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관련 기관의 정책개발과 수출지원은 물론이고 가칭 “농산물수출촉진협력기구”를 통하여 현안문제를 신속하고 총괄적으로 해결해 나아가는 동시에 정책수립 자료를 수집해야 할 것이다.

한편 주요 정책지원 사항과 협력사항을 제시하면 아래와 같이 요약될 수 있다. ①관련 부서의 지속적 관심과 실행 의지가 관건, ②지속적이고 효과적인 다양한 수출 촉진 방안 모색, ③간접위주의 이미지 쇄신을 통하여 업계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호응과 협력을 유도, ④정부와 업계가 공동으로 “농산물수출촉진기금” 조성 및 효율적 운영방안 강구, ⑤다양한 수출지원책 실시, 업계의 애로사항 개선 및 해결통로 구축, ⑥유관 부서, 연구기관, 전문가, 업계 등과 정책개발토론회 개최를 통하여 정책자료 수집, ⑦정책현안에 대하여 사전적 연구자세로 정책연구를 실시하되, 동일한 연구과제를 상이한 전문가에게 동시에 의뢰, ⑧농산물 수출에 대한 다양한 유인책 혹은 장려책 확대 실시, ⑨수입국 유관 기관과의 유대강화 유지를 통한 우호협상 통로 구축 등을 열거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다양한 당국의 정책지원 및 업계의 자발적 호응과 협력은 대중국 농산물 수출 중장기 전략방안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에 중요한 요소가 된다. 중장기 수출전략 관점에서 우선 중국의 대도시 고소득층의 “고급품 소비시장” 공략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당국의 효과적인 정책지원과 업계의 자발적 호응과 협력이 조화

를 이루는 가운데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를 위해서는 관련 기관과 단체가 긴밀히 협력하고 협의하는 가운데 추진하게 된다면 소기의 목적을 무난히 달성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러한 중장기 정책지원과 협력활동은 지속적 추진의지가 보장되는 가운데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야만 비로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게 되는 것이다. 바로 정책 당국의 확고한 실천의지는 물론이고 단체 및 업계의 투철한 협력자세와 자발적인 참여가 정책지원과 협력활동의 성패를 결정하는 관건인 동시에 대중국 농산물 수출 증대 여부를 좌우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정책 당국은 특별한 관심과 배려로 업계와 더불어 효과적으로 추진하는 데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 3. 농산물 교역 현안문제와 협상전략

#### (1) 한·중 농산물 교역의 현안문제

중국의 WTO 가입으로 어느 분야에 못지 않게 농산물 분야에서도 한국에 대한 통상압력은 증대될 가능성이 크다. 중국은 한국에 대해 무역수지 적자문제의 해소를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다. 중국은 무역적자와 연관해서 대한국 수입규제를 강화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대중국 농림축산물 교역에서 만성적인 적자상태에 처해 있는 우리나라의 입장은 다르다. 우리나라는 중국의 저가 농산물의 수입 급증으로 국내 농산물 가격 폭락과 산업피해의 위험성에 항상 직면해 있는 상태이다. 그리고 이러한 위험성이 커지면 세이프 가드(safe guard)를 발동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중국산 저가 농산물의 무분별한 수입으로 국내 유통질서 교란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 경우에 반덤핑 관세 부과와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할 필요성이 커진다. 일부 농산물은 불법 수단을 통해 국내에 반입되어 유통질서를 교란시키기도 한다. 그리고 최근에 대두되고 있는 중국산 수입식품의 안전 문제 해결을 위해 대중국 동식물검역과 식품안전검사를 강화하지 않을 수 없는 상태이다.

이러한 문제들은 언제든지 한·중 양국의 통상마찰로 이어질 수 있다. 두 나라는 이미 1999년 한국의 마늘 값 폭락을 계기로 마늘 분쟁을 경험한 바 있으며 그 후유증은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그리고 2001년 5월 한국의 어버이날을 겨냥한 중국산 카네이션 통관이 지연되자 중국은 그 보복으로 2002년 한국산 심비디움 통관을 지연시켰다.

한·중 마늘분쟁은 국내 수급불균형과 양국 간 무역불균형에서 비롯되었음은 주

지의 사실이다. 그리고 소위 카네이션-심비디움 분쟁은 국내 카네이션 재배 농가의 반발을 의식한 때문이었고 중국의 보복은 감정적 대응의 성격이 강하였다.

국내 농산물의 과잉공급은 당연히 대중국 수입감소로 이어 지고 그 정도가 심각한 경우에는 마늘과 같이 통상마찰을 일으킬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쌀 다음으로 국내 농산물 생산액의 비중이 큰 농산물인 고추가 심각한 과잉공급 문제에 봉착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2002년 고추 생산량은 전년보다 7% 증가한 2만 톤이 더 생산되어 과잉생산에 의한 고추 가격 폭락이 예상되고 있다. 이미 2002년 8월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시장의 고추 600g당 도매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43%의 하락을 보였다. 여기에 중국산 고추 수입 물량까지 고려한다면 고추 값 하락은 심각한 정도에까지 이를 수 있다.

한국과 중국처럼 무역불균형이 심한 경우에 국내 농산물 수급조절의 실패는 곧바로 무역분쟁을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국내 농산물의 수급문제의 해결은 한·중 무역마찰을 미리 방지하는 데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 (2) 대중국 농산물 협상전략과 방향

중국은 2001년 농촌인구가 약 8억 명으로 전체 국민의 62.3%에 달하는 국가이다. 중국의 WTO 가입 후 농산물시장의 개방으로 농업구조조정 압력에 봉착해 있다. 개혁·개방 이후 도시와 농촌의 소득격차가 크게 벌어져 사회적 갈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은 사회 경제적으로 뿐만 아니라 정치적 안정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이미 최근에 불만계층이 증가하면서 “마오쩌둥(毛澤東)은 우리에게 농장을 세워 주었는데 덩샤오핑(鄧小平)은 우리를 도시로 몰아내고 장쩌민(江澤民)은 일자리를 빼앗는다”는 시구(詩句)가 유행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 정부는 우선 농가소득을 증대시키는 것이 급선무이다. 이를 위해 중국 정부는 채소, 과일 등의 경쟁력이 있는 농작물 수출시장을 확보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국은 2대 수출시장인 중국과의 교역에서 무역흑자를 내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통상압력이 점차 거세질 것은 당연하다. 농산물 교역에서는 한국이 대중국 무역적자임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이를 고려함이 없이 한국에 지속적으로 농산물시장 개방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요구가 한국 농민들의 반발을 고조시키기는 것도 또한 당연하다. 이러한 연유 때문에 농산물 문제는 한·중 통상협상의 가장 민감한 과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한·중 통상마찰은 두 나라의 국민들에게 양국 무역에 대한 피해의식을 고조시킬

으로써 교역관계의 증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특히 농산물 협상은 양국 모두 국내적으로 경제의 범주를 넘어 정치 및 사회적으로 이해관계가 민감하게 얽혀 있는 부분이 많다.

따라서 국내 농산물의 수급조절의 실패와 같은 대내적 문제가 통상문제로 비화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피해 농가에 대한 충분한 보상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피해 농가 보상대책의 마련은 단지 대내적 정책효과만을 위한 것은 아니다. 그것은 중국과 같이 우리나라에 많은 농산물을 수출함으로써 우리 농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나라와 통상마찰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기도 한 것이다.

피해 농가 보상대책은 통상협상이 진행되는 경우에도 협상력 증진에 기여한다. 왜냐하면, 이 경우에 협상대표는 국내 농가의 반발이나 정치적 압력을 의식하지 않고 바람직한 협상결과를 소신껏 도출하는 협상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중국 농산물 협상전략의 최상책은 중국과 농산물 무역분쟁을 방지하고 중국이 우리의 유망 수출시장이 되게 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나라의 농업 부문에 대한 투자 및 농업구조개선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중국과 농산물 교역의 원활화를 기하고 상생(相生)의 농업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도 농업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종합적 구조조정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대중국 수출의 활로를 찾기 위해서는 농산물의 고품질화, 안전성 확대, 수출품목의 다양화 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중국과의 농산물 교역에서 불공정 무역행위는 단호하게 막아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통상마찰만은 사전의 조치나 협상을 통해서 발생하지 않게 하거나 최소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농산물에 대한 통상마찰을 최소화하고 협상에서 유리한 입지를 차지하기 위해서 대내외적인 노력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대내적으로는 농산물 관련 통상마찰의 소지가 있는 부분과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수시로 점검하고 신속한 조치를 취해나가야 한다.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WTO 분쟁해결기구를 적극 활용하고 동식물 검사·검역 및 원산지표시 제도를 강화하는 것도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이다. 중국이 이미 WTO에 가입한 이상 중국을 상대로 한 통상 현안에 대해 한국은 무엇보다 WTO 규범에 대한 투철한 인식과 자세를 취하는 것이 협상전략상 중요하다.

그러나 오늘날과 같이 개방된 경제체제에서 제도적 장치만으로 무역분쟁은 해소되지 않는다. 특히 농산물 무역에 관한 분쟁은 국내 수급조절의 실패에서 비롯하는 경우가 많다. 국내 농산물 수급조절의 실패로 통상마찰이 발생하게 되면 협상과정에서 농민들의 압력을 받게 되기 때문에 협상 전략적으로도 불리하다.

가장 바람직한 수급조절의 방법은 시장의 자율조절 기능에 맡기는 것이다. 그러나 중

국과 같이 농산물시장의 가격통제가 심한 경우에 대중국 농산물 무역을 시장기능에 맡겨도 조절되지 않는다. 따라서 국내 농산물 수급조절에 필요한 품목전환 및 대체품목 개발 등 다양한 정책적 방안을 마련해 두는 것은 협상을 주도할 수 있게 한다.

협상전략 상 가장 바람직한 것은 당사자에게 모두 유리한 결과를 도출해내는 勝-勝(Win-Win) 혹은 상생(相生)의 전략이다. 따라서 대중국 농산물 협상에서 추구되어야 할 전략은 당연히 상생전략이어야 한다. 우리가 중국과 원만한 농산물 교역관계를 유지하고 농산물 협상에서 불리한 상황에 처하지 않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대중국 농산물 협상에서 상생전략의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중국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농업생산의 구조조정을 통해서도 중국보다 비교열위인 품목은 과감히 중국에 내어주는 것이 유리하다. 중국에 내어줄 수 있는 품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산업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대중국 농산물 협상전략의 관점에서 중국으로부터 받아낼 수 있는 분야가 많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한국산 “수출유망 농산물”의 대중국 수출을 촉진시키는 동시에 중국산 농산물의 물량공세를 방어하기 위한 농산물 교역협상은 우리의 농업생산 기반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게 되는 중대한 사안인 것이다. 그러므로 효과적인 협상전략을 수립하여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예견되는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현실인식은 물론이고 관련 자료수집과 더불어 다양한 대비책을 미리 강구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또한 유관 부서의 이러한 노력은 상시준비 태세를 갖추고 준비해야 할 것이다. 주요 협상전략 사항과 준비사항을 예시하면 아래와 같다.

### (3) 협상전략을 위한 협상자료 축적과 협상논리 개발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중국의 WTO 가입으로 한·중 양국간의 무역규모가 점차 확대되는 가운데 대중국 무역흑자가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양국간 통상마찰은 더욱 빈번하게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중국은 무역흑자를 내세워 한국에 대한 통상압력을 더욱 강력히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국의 대한국 농산물 수출과 관련된 통상마찰이나 시장확대 요구가 더욱 거세게 부각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중국은 무역적자와 연관해서 대한국 수입규제를 또한 강화해 나아갈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므로 정책 당국은 중국과의 통상마찰과 통상협상에 대비해서 효과적인 정책 개발과 다양한 대처방안을 사전에 준비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대내적으로는 관련

기관과 연구단체 및 업계와 더불어 현안문제를 정확히 파악하는 동시에 능동적인 자세로 다양한 대처방안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중국의 관련 기관이나 단체와의 긴밀한 우호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인적교류를 활성화시키는 한편 유사시 비공식 대화통로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해야 할 것이다.

특히 이러한 노력은 상호이해 증진을 확대시킴으로써 상대방의 입장을 보다 폭넓게 이해하기 때문에 유사시 협조나 설득을 비교적 쉽게 이끌어 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통상마찰을 완화시키는 데에도 효과적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한편 대중국 농산물 협상전략을 위한 자료축적과 논리개발을 위한 준비사항을 참고로 제시하면 아래와 같이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대중국 농산물 통상협상 관련 기관이나 부서는 ①중국의 통상협상 관련 기관이나 부서와 공식 비공식 대화 채널을 구축하여 유사시 가동, ②중국 유관 기관이나 부서와의 유대강화를 위해 정례 상호방문 및 정보교류 촉진, ③예상되는 통상마찰 사안에 대한 협상전략을 사전에 모색, ④국내외 전문연구기관 및 관련 단체와 전문가 등을 활용, ⑤상대국 협상전략에 대한 광범한 자료수집 및 연구활동 활성화, ⑥설득력과 객관성을 갖춘 다양한 협상논리와 협상명분을 개발, ⑦협상전략에 대한 상시 준비태세를 갖추고 전문가 네트워크(network)을 구축하여 효율적으로 활용, ⑧상대국 협상전략에 대한 연구검토 및 효과적 대응책 강구, ⑨농산물 수출업계의 현안문제 상시 건의체제 구축 및 정확한 상황파악, ⑩협상관련 자료보관 및 연구분석의 전문화와 지속성 유지, ⑪최종 협상결과에 대한 수용 및 효과적인 대응책 강구, ⑫산학관(産學官) 보관 관련자료의 활용방안 및 공유체제 구축, ⑬통상협상 결과의 자료에 대한 재검토를 통하여 사후협상 대응책 강구 등을 거론할 수 있다.

## 4. 중장기 수출전략 실천과 과제

### (1) 능동적인 실천의지와 주도적인 접근자세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산 농축산물과 가공식품의 대중국 수출경쟁력은 일부 특정 품목을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 경쟁열위에 직면해 있는 상태이다. 특히 한국산 농산물과 중국산 농산물과의 가격비율은 품목에 따라 최소한 5 : 1에서부터 최고 10 : 1 혹은 15 : 1에 달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수출이 불가능한 것으로 속단하는 경향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중국 대도시의 고소득층을 겨냥한 “고급품 소비시장”의 공략을 위한 “수출유망 농산물” 수출은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실현의지와 자발적인 협력자세 여하에 따라 승산이 있는 것으로 이미 판단된 바

가 있다.

그러므로 정책 당국과 관련 부서는 “수출유망 농산물”의 중국 대도시 “고급품 소비시장” 공략을 위해서는 일과성 혹은 임기응변(臨機應變)으로 접근하는 종래의 자세를 벗어나 중장기 전략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정책 당국과 관련 부서는 확고한 실행의지와 효과적인 수출전략으로 중장기적 관점에서 추진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바로 정책 당국과 관련 부서의 개편이나 실무자 이동 등과는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만 비로소 실효를 거두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대외 통상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 산하의 지역통상국 주요업무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즉 ①통상진흥지원 및 교섭에 관한 시책의 수립 및 시행, ②외국인 투자유치의 지원 및 국내투자환경 개선에 관한 대외 홍보, ③해외투자정보의 수집 및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투자 지원에 관한 사항, ④일본, 중국, 미국, 캐나다, 독일, 영국, 프랑스, 러시아연방, 동남아시아국가연합 및 구주연합과의 통상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 시행 및 통괄 조정 등이 골간을 이루고 있다.

그리고 통상투자진흥과의 핵심업무는 ①통상투자진흥 지원 및 교섭에 관한 시책의 수립 및 시행, ②기업활동지원 강령의 실천 및 통상·투자진흥지원 활동 총괄, ③기업·민간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의 해외시장 개척활동 지원의 총괄, ④외국인 투자유치 지원 및 대외홍보에 관한 사항, ⑤우리 기업의 해외투자 지원에 관한 사항, ⑥해외투자 정보의 수집 및 제공, ⑦제①호 내지 제⑥호의 업무에 있어서의 국내 관계기관과의 협조, ⑧기타 다른 과(課)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등으로 되어 있다.

또한 아·대통상과의 핵심업무는 일본, 중국, 몽골,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와의 통상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시행 및 총괄·조정 등이다. 그리고 이들 국가를 상대로 ①통상교섭 및 통상교섭의 총괄·조정, ②통상장관회담 등 경제통상 관련 협의체의 운영, ③경제통상 관련 조약 또는 협정의 체결·교섭 및 총괄·조정과 조약 또는 협정에 의한 대외협력업무에 관한 사항, ④이상의 업무에 있어서의 국내 관계기관과의 협조 등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농산물 관련 통상마찰이나 통상교섭은 경제논리나 비교우위에 입각해서 해결할 수 없는 특수성을 감안할 때에 고도의 전문지식과 국민의 공감대 및 농민정서, 그리고 국가적 식량안보 및 환경보존 등도 폭넓게 고려해서 신중히 임해야 되는 중요한 경제문제인 것이다. 통상마찰이 발생되면 급기야 서둘러 통상교섭에 임하고, 교섭이 타결되면 전전공공 농민의 불만이나 감정을 진정시키려는 종전의 자세는 결코 국익에도 유익하지 못한 처사일 뿐만 아니라 바람직한 협상자세가 되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농림부는 WTO 체제 하에서 발생 가능한 농산물 통상마찰을 지혜롭게 대처하는 동시에 건전한 농업발전을 촉진시키고 농업소득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조직이나 기구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조직이나 기구는 기존의 부서가 통상업무를 추가로 전담하거나 관련 부서가 함께 참여하는 유기적인 씽크탱크(think tank) 혹은 팀(team)이나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통상교섭본부와 긴밀한 업무유대 관계를 유지하면서 적극적이고 장기적인 안목과 자세로 임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비로소 농민의 적극적인 지지를 이끌어 내는 가운데 우리 농업이 당면한 현안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게 될 뿐만 아니라 농업을 지키고 농민을 위하는 다양한 농업시책이 본 궤도에 진입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관련 단체와 업계도 “수출유망 농산물”의 중국 대도시 “고급품 소비시장” 공략을 위해서는 일시적 혹은 단기적 성과에 좌우되지 말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인내를 가지고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자발적인 참여자세와 적극적인 협력 의지로 정책 당국과 함께 노력하고 협력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상과 같은 공동 노력과 협력이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 추진되어야만 소기의 목적을 무난히 달성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 (2) 정확한 상황파악과 투철한 현실인식

한국산 농축산물과 가공식품의 대중국 수출이 당면한 현상에 대하여 정책 당국은 정확한 현황파악과 더불어 투철한 현실인식을 갖고 “수출유망 농산물”의 중장기 수출전략에 임해야 할 것이다. 정확한 농업정보와 수출정보에 의해 수출경쟁력을 평가하는 동시에 포기해야 될 품목은 미련 없이 버리고, 수출유망 품목은 적극적인 자세로 수출촉진에 임해야 할 것이다. 만일 구태의연한 수출촉진 자세로 임할 경우에는 중국 대도시 고소득층을 겨냥한 “고급품 소비시장” 공략을 위한 “수출유망 농산물”의 대중국 수출은 영원히 진로를 상실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대도시 고소득층의 “고급품 소비시장”에 대한 정확한 시장정보의 확보 여부는 정책 당국의 정책수립 및 수출촉진 추진을 좌우하는 관건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정책 당국은 상황파악과 현실인식을 위한 다양한 시장정보를 수집하는 데에 국내외 전문인력 활용과 지원을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이다. 더구나 21세기 정보화 시대에 농산물 수출시장의 유용한 정보를 적시에 확보하느냐의 여부는 바로 유리한 통상교섭 성패를 좌우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미 거론한 농림부 산하 조직이나 기구로 하여금 국내외 관련기관이나



단체 및 전문가를 통하여 현황 파악과 현실인식에 필요한 광범한 자료를 수집하도록 배려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들 자료를 바탕으로 부서간 이견조율과 시각조정은 물론이고 농민단체와 이해 당사자간의 설득과 협력을 촉구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21세기 급변하는 농업생산 환경과 농산물 교역여건에 능동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처하게 될 것이다.

### (3) 한·중 양국의 시각조정과 이해증진

한·중 양국간의 교역규모는 1992년 수교이래 급속한 성장을 거듭한 결과 2003년도에는 미국을 제치고 한국의 제1 교역국으로 부상될 전망이다. 만일 홍콩을 경유하는 간접교역을 감안하면 이미 제1 교역국으로 부상된 상태이다. 따라서 한국 경제에 대한 중국시장의 비중과 중요성은 해를 거듭할수록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통상마찰 또한 심심찮게 발생될 전망이다. 특히 농산물 교역에 있어서 의견대립과 시각차이가 심각한 상태이며, 이러한 현상은 현재 대중국 무역흑자 기조가 지속되는 한 통상교섭에서 불리하게 작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대도시 고소득층의 “고급품 소비시장” 공략을 위한 “수출유망 농산물”의 대중국 수출촉진을 위해서는 양국간 호혜평등과 우호증진 차원에서 상호이해를 통한 양국간 시각차이를 해소시키는 데에 함께 노력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더구나 양국의 관련 기관이나 단체 혹은 실무자가 제한된 지식이나 정보 및 편견으로 통상업무나 통상교섭에 임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자세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결코 국익에도 도움이 안 될 것이다.

그러므로 양국의 관련 기관이나 단체 혹은 실무자는 상호이해 증진과 우호협력 확대에 적극 노력하는 한편 자국의 관련 기관이나 단체 혹은 실무자의 편견이나 오해를 불식시키는 데에도 주도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한국산 “수출유망 농산물”의 대중국 “고급품 소비시장” 공략이 가능하게 될 뿐만 아니라 농산물 교역 역시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 (4) 우호협력교류 촉진과 활성화

한·중 양국은 WTO 회원국으로서 회원국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과정에서 특히 농업부문은 예기치 못하는 통상마찰이 복병으로 나타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농민들은 농업생산의 국제추세나 농산물 통상환경 및 국익우선 따위는 도외시하는 가운데 오직 농민이익 옹호만을 위하여 대정부 투쟁이나 압

력을 강화해 나아갈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이러한 사태는 국익확보 및 농업소득 보호에 결코 유익한 일이 될 수 없으므로 현명하게 대처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관련 기관과 단체 및 업계는 농민들로 하여금 농업전문화와 농업생산의 국제분업 및 농산물 수출촉진에 대한 이해증진, 의식개혁, 국제협력, 통상교섭 등의 마인드(mind)를 전달해 줄 수 있는 프로그램(program)이나 활동을 계획하고 추진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해외농업시찰, 외국의 관련 단체와의 교류방문 등을 통하여 자발적으로 우리 농업이 당면한 현안문제를 발굴하여 해결책을 토론하고 모색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 농업이 당면하고 있는 심각한 현안문제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한편 농민들의 광범한 의견수렴을 시도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는 목적지와 통로를 사전에 준비해 놓고 농민들로 하여금 무조건 따라오라는 식의 하향식 정책추진 자세는 가능한 한 지양해야 할 것이다. 비록 사전에 설정된 목적지와 통로가 준비되어 있을지라도 농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적극적인 협력, 그리고 공감대 형성을 바탕으로 광범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는 상향식 정책추진 자세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소기의 정책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게 될 뿐만 아니라 농민들의 불만과 반목 및 대결 정서를 보다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 제7장 결론

연구 주제와 관련 지금까지 대중국 농산물 수출 증장기 전략 방안에 대하여 활용 가능한 광범한 참고자료와 현지 소비시장 조사를 바탕으로 심도 있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한국산 농산물의 대중국 수출은 우선 가격경쟁력 면에서 근본적으로 불가능할 것이라는 지금까지의 일반적 견해와 고정관념을 뛰어 넘어서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다. 특히 대도시 고소득층 소비성향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고급품 소비시장”에 대한 심층분석을 통하여 한국산 “수출유망 농산물”의 증장기 대중국 수출을 낙관적으로 전망하게 되었다.

현재 일반적으로 한국산 농축산물의 대중국 수출은 비관적으로 전망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견해나 관점은 주로 농산물 가격비교 결과를 중시한 데에 반하여 품질경쟁력, 소비시장 형태별 소비행태와 소비성향, 고소득층의 소비성향 등은 상대적으로 경시한 데에 기인된 결과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중국의 소비계층과 소비시장을 단순화 혹은 획일적으로 규정한다면 대중국 농산물 수출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설사 수출한다고 할지라도 일부 특정 농산물 혹은 극히 일부 농산물로서 일시적 현상이거나 치열한 경쟁상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중국 대도시 고소득층을 겨냥한 “고급품 소비시장” 공략을 위한 한국산 “수출유망 농산물”의 수출은 증장기적으로 승산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므로 금후 대중국 농산물 수출 전략은 종전의 수세적이고 소극적인 자세를 탈피하여 보다 치밀하고 실현 가능한 정책을 적극적인 자세로 추진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특히 거대한 중국시장 전체를 공략할 목적으로 접근하는 자세는 비현실적일 뿐만 아니라 무의미하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바로 “고급품 소비시장”만을 겨냥해도 그 시장규모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거대하다는 점을 새롭게 인식해야 할 것이다.

이미 제6장에 제시된 “대중국 농산물 수출 증장기 전략”을 당국과 관련 업계가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수출촉진에 임하는 동시에 긴밀히 협력해 나아가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의 실현을 위한 공동노력과 협력사항 및 대응전략을 아래와 같이 요약한다.

① 대도시 고소득층을 겨냥한 “고급품 소비시장”의 수요창출과 더불어 대중국 농산물 수출을 촉진시키기 위한 전략거점을 구축하는 동시에 이를 중심으로 유기적인 유통망을 전국적으로 점차 확장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전략거점 구

축을 위한 효율적인 기구조직은 우선 농림부, 농수산물유통공사, 농협중앙회, 생산단체 등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면서 이에 관한 구체적인 기구조직과 역할분담 및 기금조성 등은 참여 기관과 단체가 따로 연구·검토하여 실현 가능한 방안을 조속히 모색해야 할 것이다.

② 한국산 “수출유망 농산물”의 대중국 수출촉진을 위한 시장정보 수집활동과 협력체제 구축은 현재와 같은 부분적이고 피상적인 시장정보에 의존하는 안일한 자세를 탈피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방대하고 광활할 뿐만 아니라 거대 인구를 갖고 있는 중국시장과 다층구조를 형성하고 있는 소비시장 때문이다. 따라서 대도시 고소득층을 겨냥한 “고급품 소비시장”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정확한 시장정보를 수집하여 활용하고 대처하는 데에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다.

③ 소비선택의 폭이 넓고 다양한 농산물이 중국의 “고급품 소비시장”에 대량 공급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산 “수출유망 농산물”의 우수성과 차별화를 부각시키는 한편 소비수요 창출을 통한 수출증대를 달성하도록 적극적이고 다양한 판촉활동을 전개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판촉활동은 일과성 활동이나 단기적 안목에서 추진하는 것을 지양하는 동시에 관련 기관과 생산단체가 효율적이고 실현 가능한 중장기 판촉활동 계획을 수립하여 적극적인 자세로 추진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④ 최근 중국에서 불고 있는 한류(韓流) 열풍과 연계해서 판촉효과를 최대한으로 증폭시킬 수 있는 이벤트(event) 사업이나 다양한 판촉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노력에 대하여도 관련 기관과 생산단체가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바로 이러한 판촉활동을 통하여 한국산 “수출유망 농산물”의 인지도와 선호도를 제고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궁극적으로는 고급화 혹은 명품화를 실현하도록 노력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⑤ 중국의 고급품 소비자들의 식품문화 소양과 농산물을 포함한 식품에 대한 상식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요구수준 또한 높은 상태이다. 한국산 “수출유망 농산물”의 품질이 사실상 우수함에도 불구하고 이들 소비자의 관심과 소비심리를 유발시키기에는 분명 한계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생각된다. 더구나 한국산 “수출유망 농산물”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중국산 농산물 혹은 수입 농산물 등과 치열하게 경쟁하는 상황이다. 그러므로 만일 한국산 농산물이 국내외적으로 공인된 기관이나 단체에 의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우수한 품질이라고 인식되거나 인정된다면 상대적으로 경쟁력을 갖추게 될 것으로 생각된다.

⑥ 한국산 “수출유망 농산물”의 대중국 수출 촉진은 효과적인 중장기 수출전략을 수립하여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추진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를 효

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관련 기관의 정책개발과 수출지원은 물론이고 가칭 “농산물수출촉진협력기구”를 통하여 현안문제를 신속하고 총괄적으로 해결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⑦한국산 “수출유망 농산물”의 대중국 수출을 촉진시키는 동시에 중국산 농산물의 물량공세를 방어하기 위한 농산물 교역협상은 우리의 농업생산 기반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게 되는 중대한 사안인 것이다. 그러므로 효과적인 협상전략을 수립하여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예견되는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현실인식은 물론이고 관련 자료수집과 더불어 다양한 대비책을 미리 강구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⑧중국의 WTO 가입으로 한·중 양국간의 무역규모가 점차 확대되는 가운데 대중국 무역흑자가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양국간 통상마찰은 더욱 빈번하게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중국은 대한민국 무역적자를 내세워 한국에 대한 통상압력을 더욱 강력히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국의 대한민국 농산물 수출과 관련된 통상마찰이나 시장확대 요구가 더욱 거세게 부각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중국은 무역적자와 연관해서 대한민국 수입규제를 또한 강화해 나아갈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므로 정책 당국은 중국과의 통상마찰과 통상협상에 대비해서 효과적인 정책개발과 다양한 대처방안을 사전에 착실히 준비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끝으로 이러한 모든 협력과 노력 및 준비가 유기적이고 능동적으로 차질 없이 추진된다면 한국산 “수출유망 농산물”의 중국 대도시 고소득층을 겨냥한 “고급품 소비시장” 공략은 승산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한국산 “수출유망 농산물”의 대중국 “고급품 소비시장” 공략은 중장기 안목에서 새로운 인식과 진출자세로 접근해 나아간다면 반드시 달성하게 될 것이다.

## 참고문헌

### 1. 한국문헌

- 김성훈, 심의섭 편저, 사회주의와 북한의 농업, “중국의 농업개혁(문정구)”, 비봉출판사, 2002. 8.
- 김정주, “한·중 양국의 농산물 교역동향에 관한 연구”, 韓國中蘇經濟學會, 1991.
- 농수산유통공사, “중국·대만의 주요 품목별 수출여건”, 2000. 12.
- 문정구, “중국의 자원현황”, 서울 : 대한상공회의소 한중민간경제협의회, 1996.
- \_\_\_\_\_, “중국의 농업구조 개혁과 전망”, 중국연구 제20집, 건국대학교, 중국문제연구소, 2001. 12.
- 박준근 외, 『중국의 식량경제』, 전남대학교 출판부, 2000.
- 오용석, 『중국의 신무역관리제도와 무역구조변화』,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1997.
- \_\_\_\_\_, “중국의 WTO체제 이행과제와 무역구조 변화”,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아주경제』, 제2권 제1호, 3~23쪽, 1998.
- \_\_\_\_\_, “중국의 WTO 가입이 동북아 교역에 미칠 영향과 한국의 대응”, 『동북아경제연구』, 제10권 제2호, 1~32쪽, 1999.
- \_\_\_\_\_, “중국의 WTO 가입이후 대외경제정책변화 효과와 대외과급영향”, 『동북아경제연구』, 제13권 1호, 91~130쪽, 2001.
- 이수행, “중국 산동성 과일가격 동향”, 세계농업정보,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1. 11.
- \_\_\_\_\_, “중국 주요 품목별 과일생산 현황”, 세계농업정보,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1. 9.
- \_\_\_\_\_, “중국 과일산업의 잠재력과 문제점”, 세계농업정보,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1. 9.
- \_\_\_\_\_, “중국 감귤산업의 특징과 문제점”, 세계농업정보,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1. 8.
- 이용선 등, 중국 과일산업의 실태와 전망, 농촌경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1. 가을.
- 재단법인 국제농업개발원, 월간 상업농경영(10월호), 2002, 10.
- 최세균, 박기환, “한·중 농산물 교역현황과 전망”, 『중국의 WTO가입과 한·중 농업협력』 제2회 한·중국공동학술대회 발표 논문집,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1.

## 2. 중국문헌

- 葛志華 著, WTO與中國當代農業, 江蘇人民出版社, 2001. 9.
- 高旺盛 著, 中國農業: 可持續發展理論與策略, 中國農業出版社, 2002. 5.
- 科學技術文獻出版社 編著, 中國特產保健蔬菜的栽培, 科學技術文獻出版社, 199. 10.
- 郭劍雄, 二元經濟與農業成長, 經濟管理出版社, 1999.
- 國家統計局貿易外經統計司, 中國市場統計年鑑(2001), 中國統計出版社, 2002. 2.
- 國家統計局城市社會經濟調查總隊 編, 中國城市統計年鑑(2001), 中國統計出版社, 2002. 5.
- 國務院發展研究中心, 中國加入WTO對世界經濟及其自身的影響, 1999.
- 農業部農村經濟研究中心, 中國農村研究報告(2001), 中國財政經濟出版社, 2002. 3.
- 農業部發展計劃司 編, 新世紀初中國農業展望, 中國農業出版社, 2002. 3.
- 譚向勇 辛賢 等 著, 中國主要農產品市場分析, 中國農業出版社, 2001. 12.
- 唐正平, 鄭志海 主編, 入世與農產品市場開放, 中國對外經濟貿易出版社, 2002. 4.
- 唐正平外1人, 入世與農產品市場開放, 中國對外經濟貿易出版社, 2000.
- 馬洪 主編, 中國市場發展報告, 中國發展出版社, 2002. 4.
- 馬曉河, 1996~2010年我國經濟發展中的農業問題, 經濟改革與發展, 1995.
- 白和金 林兆木 主編, 21世紀初期中國經濟和社會發展戰略, 中國計劃出版社, 2000. 10.
- 范建平 主編, 居民消費與中國經濟發展, 中國社會科學出版社, 2000. 2.
- 范劍平 主編, 中國城鄉居民消費結構的變化趨勢, 人民出版社, 2001. 11.
- 史建雲 譯, 中國農民經濟, 江蘇人民出版社, 1999. 9.
- 社鷹 主編, 農民收入與勞動力轉移, 中國農業出版社, 2001. 11.
- 徐坤 盧育華 編著, 50種稀特野蔬菜: 高效栽培技術, 中國農業出版社, 2002. 2.
- 徐小青, “加快農業結構調整, 提高農產品競爭力,” 『중국의 WTO 가입과 한·중 농업 협력』 제2회 한·중 국제공동학술대회 발표 논문집,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1.
- 徐楊園, 農產品批發市場研究, 中國農業出版社, 1995.
- 徐勇 主編, 中國農村研究(2001), 中國社會科學出版社, 2002. 5.
- 宋元林 馬厚強 譚惠榮 等 著, 彩色蔬菜栽培, 中國農業出版社, 2002. 1.
- 宋元林 馬厚強 譚惠榮 著, 袖珍蔬菜栽培, 中國農業出版社, 2001. 2.
- 宋元林 張君亭 陳永輝 主編, 稀特蔬菜高效栽培(第2版), 中國農業出版社, 2001. 5.
- 楊萬江 著, 危機與出路: 中國糧食結構與農業發展新論, 社會科學文獻出版社, 1999. 11.
- 楊文志, 陳建華, 雷綺虹 主編, 加入WTO中國農業如何應對, 中國科學出版社, 2001.11.
- 楊雍哲 主編, 論增加農民收入的成功之道, 中國農業出版社, 2002. 1.

- 余永定 外，中國入世研究報告：進入WTO的中國產業，社會科學文獻出版社，2000.
- 王新奎，劉光溪 主編，WTO與農產品貿易爭端，上海人民出版社，2001. 9.
- 汪洋 主編，加入稅務組織對我國價格的影響與對策，中國物價出版社，2000.11.
- 王志剛 周燕 譯，體制轉換中的農產品流通體系，中國農業出版社，1998. 10.
- 劉江編，農產品供求總量平衡研究，21世紀初中國農業發展戰略，中國農業出版社，2001.
- 劉力 蒙慧 著，WTO與中國農業發展對策，中共中央黨校出版社. 2001. 11.
- 劉耀威 主編，進出口商品的檢驗與檢疫，對外經濟貿易大學出版社，2001. 9.
- 劉天祥 著，經濟起飛過程中的農村消費品市場培育研究，工商出版社，2001. 12.
- 尹繼佐 主編，上海經濟發展藍皮書(2002)：城市競爭力，上海社會科學院出版社，2002. 1.
- 尹曉林 主編，中國宏觀收入分配問題研究，中國計劃出版社，2000. 4.
- 李雪松 主編，加入WTO與中國經濟前景，中國金融出版社，2002. 2.
- 李實 張平 魏衆 仲濟垠 等 著，中國居民收入分配實證分析，社會科學文獻出版社，2000. 9
- 李爭平 主編，WTO與中國人如何做全球化市場贏家，長征出版社，2000.9.
- 李振明 著，經濟轉型與居民消費結構演進，經濟科學出版社，2001. 12.
- 林燕平 著，中國地區國民收入差距實證研究，北京大學出版社，2000. 11.
- 張新偉 著，市場化與反貧困路徑選擇，中國社會科學出版社，2001. 12.
- 臧旭恒 等 著，居民資產與消費選擇行為分析，上海人民出版社，2001. 11.
- 全國農產品成本收益資料匯編(2002)，中國物價出版社，2002. 7.
- 丁健 著，現代城市經濟，同濟大學出版社，2001. 5.
- 程國強，WTO農業規則與中國農業發展，中國經濟出版社，2000.
- 朱杰外 2人，21世紀中國糧食問題，中國計劃出版社，1999.
- 中國農業年鑑編輯委員會，中國農業年鑑(2001)，2001. 11.
- 中國農業出版社，加入世貿組織與中國農業，2002. 7.
- 中國統計年鑑，中國統計出版社，2001
- 中國統計出版社，中國統計摘要(2002)，2002. 5.
- 曾壁鈞 著，我國居民消費問題研究，中國計劃出版社，1997.
- 陳啓杰 主編，中國食品供求結構研究，上海財經大學出版社，2000. 12.
- 陳后杰 著，中國食品供求結構研究，上海財經大學出版社，2000.
- 彭星閻 肖春陽 著，市場與農業產業化，經濟管理出版社，2000. 8.
- 何茂春 主編，中國對外貿易白皮書(2002)，中國物資出版社，2002. 5.
- 叶全良 著，WTO與農產品營銷，湖北人民出版社，2001. 10.
- 黃佩民 外，2000-2030年中國糧食供需平衡及其對策研究，農村經濟研究.No.3, 1997.



### (3) 영문문헌

- Cheng, Leonard K., *China's Economic Benefits from Its WTO Membership*, Dept. of Economics, Hong Kong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December, 1999.
- Heu, Mun-Hue, "*Korea's Current Task in Rice Production*", Bio-Technology, Post-Harvest Technology, and Supply Projection of Rice, Chonnam National University, 1996.
- Hufbauer, Garly Clyde and Daniel H. Rosen, "*American Access to China Market : The Congressional Vote on PNTR.*", International Economics Policy Briefs, April, 2000.
- Kindleberger, Charles P., and Bruce Herrick, *Economic Development (3rd ed.)*, New York, 1977.
- Lapres, Daniel Arthur, "*The EU-China WTO Deal Compared*", The China Business Review, July-August, 2000.
- Park, Joon-Keun, Pyung-Sik Park, "*Analysis and Supply Projection of Rice in Korea*", Bio-Technology, Post-Harvest Technology, and Supply Projection of Rice, Chonnam National University, 1996.
- Ruggiero, Renato(1997), "*China and the World Trading Systems*", Address to Peking University, China, 21 April, <http://www.wto.org/speeches/china.htm>.
- Trade Negotiations Committee(1994), *Multilateral Trade Negotiations : The Uruguay Round*, Marrakesh 15, April.
- US-China Business Council(2000), Copy of US-China Bilateral Market Access Agreement, March. Wall Street Journal. May 27, 1997.
- U.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Assessment of the Economic Effects on the United States of Chinas Accession to the WTO, 1999*.
- USDA-ERS, *OUTLOOK for U.S. Agricultural Trade*, AES-26, June, 2000.
- USDA-FAS, *U.S-China WTO Accession Agreement*, FAS online, April, 2000.
- US-China Business Council, *Copy of US-China Bilateral Market Access Agreement as Released by USTR on March 14, 2000*.
- White House National Economic Council, *Summary of the US-China Bilateral WTO Agreement, 1999*.

#### (4) 유관기관 및 자료검색 홈페이지

<http://www.uschina.org>.

<http://www.europa.eu,int>.

<http://www.kati.net>.

<http://china-wholesales.com/gy/hydt07.htm>.

<http://china-wholesales.com/gy/hydt/003.htm>.

<http://www.agri.cn.com/zhuantibaodao/wto/wto71.htm>.

<http://www.agri.ac.cn./agri-net/02/2-02/0010shuiguo.htm>

<http://zzys.agri.cn./guoye-xiangxi.asp?id=9>.

<http://www.yzagri.gov.cn/zjagri/fxyc/1052302.html>.

<http://www.zjagri.gov.cn/zjagri/fxyc/1052301.html>.

<http://www.sdney.gov.cn/vv/article.asp?id=2956&classid=7>.

<http://www.space-seed.com/>

<http://www.lianjiang.gov.cn/>

<http://202.101.112.202/xcly/wto/wto26.htm>.